

# 정답과 해설

## 채움

### 고전산문

I. 영웅 군담 소설	4
II. 애정 소설	70
III. 전계·풍자 소설	104
IV. 가정·가문 소설	120
V. 판소리계 소설·판소리	155
VI. 몽자류 소설·몽유록	186



# 빠른 정답 찾기

## I) 영웅 군담 소설

본문 16~91쪽

01	001 ①	002 (1) ○ (2) ○ (3) ×	003 ③	004 ①
	005 ㄷ, ㄹ	006 ④	007 ②	008 (1) 자신 (2) 천명 (3) 영웅적 009 ⑤
02	010 ④	011 ㄱ, ㄹ	012 ②	013 ②
	014 (1) ○ (2) ○ (3) ×	015 ④	016 ⑤	017 (1) ○ (2) × (3) × (4) ○ 018 ④
03	019 ⑤	020 (1) × (2) ○ (3) ×	021 ②	022 ④
	023 ①	024 ②	025 (1) 월봉 대사 (2) 부인	026 ①
04	027 (1) 시험해 보고자 (2) 민시영 (3) 민시영과의 언약	028 ②	029 ②	030 (1) 기꺼이 (2) 알고도 (3) 신의 031 ②
	032 ④	033 (1) × (2) ○ (3) ×	034 ①	035 ③
05	036 ㄱ, ㄴ	037 ③	038 ①	039 ⑤
	040 ②	041 (1) × (2) ○ (3) ○ (4) ○	042 ④	043 ⑤
06	044 ㄴ, ㄷ	045 ②	046 ⑤	047 (1) 허구적 (2) 왜, 조선 (3) 자존감 048 ③
	049 ⑤	050 (1) 돈우 (2) 여유문 (3) 주우	051 ③	052 ⑤
07	053 ㄱ, ㄷ	054 ⑤	055 ⑤	056 (1) ○ (2) ○ (3) × (4) ○ 057 ③
	058 ①	059 (1) 유 부인 (2) 신자	060 ⑤	061 ①
08	062 ㄱ, ㄷ	063 ⑤	064 ⑤	065 (1) ○ (2) × (3) ○ (4) × 066 ⑤
	067 ②	068 ㄱ, ㄴ	069 ②	070 ④
09	071 (1) × (2) ○ (3) ○ (4) ×	072 ④	073 ①	074 ④
	075 ①	076 (1) 대경실색(大驚失色) (2) 주야장천(晝夜長川) (3) 자초지종(自初至終) 077 ③	078 ④	079 (1) 길동 (2) 제도 (3) 울도국 태수 080 ⑤
10	081 ②	082 (1) ○ (2) × (3) ×	083 ②	084 ③
	085 (1) 종 (2) 벼슬 (3) 병조 판서 (4) 울도국	086 ③	087 ①	088 (1) ○ (2) ○ (3) × (4) ○ 089 ②
11	090 ①	091 ①	092 ④	093 ④
	094 (1) 조대, 조대 (2) 영보산 (3) 소나무 095 ②	096 ②	097 (1) 근본 (2) 박 처사 (3) 웃음	098 ②
12	099 ⑤	100 (1) × (2) ○ (3) ○	101 ③	102 ①
	103 (1) × (2) ○ (3) ○	104 ②	105 ④	106 ㄱ, ㄹ
13	107 ②	108 ⑤	109 (1) × (2) ○	110 ④
	111 ④	112 (1) 유심 (2) 강희주 (3) 정한담 (4) 장 부인 113 ⑤	114 ②	115 (1) ○ (2) × (3) ○
14	116 ②	117 ⑤	118 (1) 임금 (2) 도적 (3) 용서하지 않을	119 ②
	120 ④	121 (1) ○ (2) × (3) ○	122 ②	123 (1) ○ (2) ○ (3) × 124 ②
15	125 ②	126 ㄱ, ㄷ	127 ⑤	128 ⑤
	129 (1) ○ (2) × (3) ○	130 ⑤	131 ③	132 (1) 여공 (2) 후 (3) 제약 133 ④
16	134 ⑤	135 ㄷ	136 ③	137 ④
	138 (1) × (2) ○ (3) ○	139 ④	140 ④	141 (1) 공적 (2) 반동 (3) 신하 142 ⑤

16

143 ④ 144 ② 145 ③ 146 ① 147 (1) × (2) ○ (3) ○ 148 ① 149 ② 150 (1) 초왕 (2) 북방 흉노, 남방 선우 (3) 개인적, 집단적 151 ④

17

152 ⑤ 153 (1) ○ (2) ○ (3) × 154 ③ 155 ⑤ 156 ㄱ, ㄹ 157 ③ 158 ④ 159 ③ 160 ② 161 (1) 적토마 (2) 옥황상제 162 ③

18

163 ④ 164 ㄱ, ㄴ 165 ④ 166 ⑤ 167 (1) 거절 (2) 호왕 (3) 의로써 168 ⑤ 169 ② 170 (1) × (2) ○ (3) ○ 171 ③

19

172 ⑤ 173 (1) 사위 (2) 태부인 (3) 마원 174 ② 175 ④ 176 (1) × (2) × (3) ○ 177 ③ 178 ① 179 (1) 아내 (2) 공적 (3) 남편 180 ⑤

## II) 애정 소설

본문 94~129쪽

20

181 ① 182 (1) × (2) ○ (3) × 183 ② 184 ③ 185 ㄱ, ㄷ 186 ① 187 ① 188 (1) 가을 (2) 달빛 (3) 필성 189 ④ 190 ③ 191 ㄴ, ㄷ

21

192 ③ 193 (1) 하늘 (2) 시녀 (3) 번고 194 ② 195 ④ 196 ㄱ, ㄹ 197 ④ 198 ② 199 (1) × (2) ○ (3) ○ 200 ③

22

201 ④ 202 ㄱ, ㄹ 203 ③ 204 ② 205 (1) ○ (2) × (3) ○ (4) × 206 ⑤ 207 ① 208 (1) 불요불굴(不撓不屈) (2) 노심초사(勞心焦思) (3) 측은지심(惻隱之心) 209 ①

23

210 ③ 211 (1) 김전 (2) 명해 경액 (3) 숙부인 212 ⑤ 213 ⑤ 214 ㄱ, ㄴ 215 ① 216 ② 217 (1) × (2) ○ (3) × 218 ②

24

219 ⑤ 220 (1) ○ (2) × (3) ○ 221 ④ 222 ① 223 (1) 푸른 구슬 (2) 수태 없음 (3) 천상계, 지상계 224 ③ 225 ② 226 ③ 227 ② 228 ① 229 ⑤

25

230 ⑤ 231 ② 232 ② 233 ① 234 (1) × (2) ○ (3) × 235 ② 236 ① 237 (1) 수행 (2) 의문 (3) 수행자 (4) 능동적, 획득 238 ⑤

26

239 ② 240 ㄱ, ㄷ, ㄹ 241 ⑤ 242 ⑤ 243 (1) × (2) ○ (3) × 244 ⑤ 245 ② 246 (1) 악인, 징계 (2) 옥단춘, 경제력 (3) 사대부, 천민 247 ③

27

248 ⑤ 249 (1) × (2) × (3) ○ 250 ⑤ 251 ③ 252 ㄴ, ㄷ 253 ④ 254 ③ 255 (1) 최씨 (2) 귀인, 사랑 (3) 외척 256 ②

28

257 ② 258 (1) ○ (2) ○ (3) ○ (4) × 259 ① 260 ③ 261 (1) 최씨 부인 (2) 재물 (3) 동자 262 ④ 263 ⑤ 264 ⑤ 265 ④ 266 (1) 장단골 연화동 (2) 방 안 (3) 학당 267 ①



### III 전계·풍자 소설

본문 132~147쪽

29	268 ② 269 (1) ○ (2) × (3) ○ 270 ④ 271 ① 272 (1) 태보 (2) 과천 (3) 심산궁곡 273 ② 274 ③ 275 ② 276 ① 277 ⑤ 278 (1) ○ (2) ○ (3) ×
30	279 ⑤ 280 (1) ○ (2) × (3) × 281 ③ 282 ① 283 ③ 284 ① 285 ③ 286 (1) 백성들의 고통 (2) 명 나라 (3) 세남초 287 ④
31	288 ④ 289 (1) × (2) ○ (3) ○ 290 ① 291 ② 292 ⑤ 293 ③ 294 (1) 펄썩리 (2) 장익덕 (3) 망설이 다 295 ⑤ 296 ① 297 (1) 견리망의(見利忘義) (2) 경거망동(輕舉妄動) (3) 후안무치(厚顏無恥) 298 ③
32	299 ① 300 (1) 여우 (2) 토끼 (3) 미래 301 ② 302 ② 303 ㄴ, ㄷ 304 ② 305 ② 306 (1) ○ (2) ○ (3) × 307 ⑤

### IV 가정·가문 소설

본문 150~185쪽

33	308 ① 309 ㄱ, ㄷ 310 ① 311 ④ 312 ③ 313 ② 314 ① 315 (1) 조문화 (2) 진공 (3) 진 소저 316 ④
34	317 ⑤ 318 ③ 319 ② 320 ① 321 (1) × (2) ○ 322 ③ 323 (1) ㄴ (2) ㄷ 324 ⑤ 325 ② 326 (1) ○ (2) × (3) ○ 327 ⑤
35	328 ④ 329 (1) ○ (2) ○ (3) × 330 ② 331 ① 332 ③ 333 ③ 334 ③ 335 (1) 꿈속 (2) 반첩여 (3) 천상계 336 ⑤
36	337 ④ 338 (1) × (2) × (3) ○ 339 ③ 340 ⑤ 341 ④ 342 ③ 343 ㄱ, ㄷ, ㄹ 344 ④ 345 ① 346 (1) 분기탱천 (2) 진퇴유곡 (3) 노심초사 347 ④
37	348 ③ 349 (1) × (2) ○ (3) × 350 ① 351 ② 352 ③ 353 ⑤ 354 ② 355 (1) 권선징악 (2) 향풍 (3) 현실계 356 ⑤
38	357 ⑤ 358 (1) ○ (2) × (3) × 359 ④ 360 ④ 361 ㄱ, ㄷ 362 ② 363 ④ 364 (1) 혼인 (2) 부인들 (3) 장풍운 365 ③
39	366 ③ 367 (1) ○ (2) × (3) × 368 ③ 369 ② 370 ㄷ, ㄹ 371 ⑤ 372 ④ 373 (1) 옥룡전 (2) 초현 실적 (3) 환상성 374 ②
40	375 ① 376 (1) × (2) × (3) ○ 377 ⑤ 378 ② 379 ③ 380 ⑤ 381 ① 382 (1) 장자 (2) 위홍, 찬 성 (3) 위진 383 ②
41	384 ③ 385 (1) ○ (2) × (3) × 386 ① 387 ④ 388 ② 389 ④ 390 ③ 391 ㄱ, ㄴ 392 ⑤ 393 ③ 394 (1) 혼사 (2) 가문

### V 판소리계 소설·판소리

본문 188~219쪽

42	395 ⑤ 396 (1) × (2) ○ (3) ○ 397 ④ 398 ② 399 ㄴ, ㄷ 400 ② 401 ③ 402 (1) 모순적 (2) 자책 (3) 지연 403 ⑤
43	404 ④ 405 (1) 반말 (2) 해남 406 ③ 407 ④ 408 ㄴ, ㄷ 409 ② 410 ③ 411 ② 412 ④ 413 ④ 414 (1) ○ (2) ×
44	415 ③ 416 (1) ○ (2) × (3) ○ 417 ② 418 ③ 419 ㄷ, ㄹ 420 ③ 421 ① 422 (1) 책무 (2) 배제 423 ③
45	424 ③ 425 (1) × (2) × (3) ○ 426 ⑤ 427 ⑤ 428 ㄴ, ㄷ 429 ③ 430 ② 431 (1) 악의 (2) 욕망 (3) 제비 (4) 보상 432 ⑤
46	433 ③ 434 (1) ○ (2) × (3) ○ (4) × 435 ⑤ 436 (1) 열거 (2) 장면의 극대화 (3) 개인적 능력 437 ⑤ 438 ① 439 (1) × (2) ○ (3) × 440 ④ 441 ④
47	442 ⑤ 443 (1) ○ (2) × (3) × 444 ① 445 ⑤ 446 ③ 447 ④ 448 (1) ○ (2) × (3) ○ 449 ⑤ 450 ② 451 ㄷ, ㄹ 452 ⑤
48	453 ① 454 (1) ○ (2) × (3) × 455 ① 456 ① 457 ㄱ, ㄷ 458 ③ 459 ④ 460 (1) 속수무책(束手無策) (2) 풍전등화(風前燈火) (3) 천재일우(千載一遇) 461 ④ 462 ③ 463 (1) ○ (2) × (3) ○ 464 ④
49	465 ④ 466 (1) 조자룡 (2) 조조 (3) 허세, 기막혀 467 ③ 468 ③ 469 (1) × (2) ○ (3) ○ 470 ④ 471 ③ 472 (1) ○ (2) ○ (3) × 473 ⑤ 474 ④ 475 (1) 귀 촉도 귀촉도 (2) 고리각 까옥

### VI 몽자류 소설·몽유록

본문 222~237쪽

50	476 ③ 477 ㄱ, ㄹ 478 ② 479 ④ 480 (1) ○ (2) ○ (3) × 481 ⑤ 482 ① 483 (1) 불교적 가치관 (2) 양소유 (3) 성진, 육관 대사 484 ③
51	485 ① 486 (1) × (2) ○ (3) × 487 ④ 488 ⑤ 489 ① 490 ⑤ 491 ⑤ 492 (1) 지상계 (2) 천상계 (3) 미래 493 ④
52	494 ② 495 (1) × (2) ○ (3) × (4) ○ 496 ② 497 ④ 498 (1) 있다 (2) 궁녀들 (3) 대군 499 ④ 500 ② 501 (1) 특, 대군 (2) 궁녀들 (3) 운영, 김 진사 502 ②
53	503 ④ 504 ② 505 ⑤ 506 ② 507 (1) ○ (2) ○ (3) × 508 ⑤ 509 ⑤ 510 (1) ○ (2) × (3) ○ 511 ③

# I

## 영웅 군담 소설

### 01 조웅전

#### 작품 분석

② 본문 16~19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진중보국(충성을 다하여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을 위한 조웅의 활약상과 자유연애

- 특징
- ① 영웅의 일대기 구조와 결연담이 결합됨.
  - ② 유교적 충효 사상,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립 구조가 드러남.
  - ③ 혼인에 대한 진보적 가치관이 나타남.
  - ④ 초인의 도움을 받아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웅의 영웅적 활약상이 두드러짐.

**단숨에 읽기** 중국 송나라 때 공신 조정인은 간신인 이두병의 참소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조정인의 아들 조웅이 천자와 태자의 사랑을 받자, 이두병은 후환이 두려워 조웅을 죽이려 한다. 이후 천자가 죽고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이두병은 황위를 찬탈한다. 조웅 모자는 이두병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월경 대사를 만나 강선암에 의탁한다. 조웅은 월경 대사에게 술법과 글을 배우고, 이후 강선암을 떠나 화산 도사와 철관 도사로부터 명검과 용마를 얻는다. 조웅은 강선암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길에 장 소저를 만나게 되고, 어머니의 허락 없이 장 소저와 혼인을 약속한다. 어느 날 서번이 위국을 침공하자 조웅은 아버지와 죽마고우였던 위왕을 도와 서번군을 물리친 뒤, 이두병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태자를 구출한다. 그리고 위왕과 연합하여 대군을 이끌고 황성을 쳐서 이두병과 그의 군대를 물리친다. 태자가 다시 즉위하고, 조웅은 제후로 봉해진다.

#### 한 줄 요약

- ① 조웅이 (장 소저)와 정혼한 사실을 고백하자 부인이 (하늘)의 뜻이라며 혼인을 인정함.
- ② (조웅)이 스승을 만나기 위해 어머니와 월경 대사에게 하직하고 다시 길을 떠남.
- ③ 조웅이 이두병의 부하인 (삼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함.

### 001 답 ①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완급: 느림과 빠름.
- 면면: 여러 면. 또는 각 방면.

#### 정.정.이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대사가 웅을 데리고 ~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에서는 압축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또 조웅과 부인, 월경 대사의 대화를 제시하여 사건 전개

속도를 늦추고 있다. 따라서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을 통해 사건 전개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② **헛집기**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장장과 현실 서여악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B]는 현실에서 벌어진 일로, 전쟁에서 조웅과 삼대의 대결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 ③ **부재**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A], [B] 모두 회상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부재**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A]에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지 않다. [B]에는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적장인 삼대의 상황을 표현한 것일 뿐,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⑤ **부재**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A], [B] 모두 세속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물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정.오 지름길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삼대가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점 때문에 초월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세속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공간적 배경의 설정은 서술 방식 문제의 선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니, 글을 읽을 때 공간적 배경을 파악해 두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002 답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 ×)

조웅과 부인의 대화에서 조웅이 모친의 허락 없이 혼인을 약속한 일, 조웅과 부인, 월경 대사의 대화에서 조웅이 떠나야 하는 상황 등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 (2)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면서 빠르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 ×)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와 같은 부분에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면서 빠르게 전개된다.

- (3) **부재** 현실의 공간과 **초월적 공간**을 모두 배경으로 삼아 인물의 비범



한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  
조웅의 비범한 능력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나, 모두 현실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03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웅이 두려워하여’,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등에서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인물 간 대립을 제시하고 있다.  
조웅과 삼대의 전투 장면에서 인물 간 대립이 드러나 있지만, 이 글에는 꿈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 ② **헛집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산 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등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부재**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부재**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상황 변화를 알리고 있다.  
‘관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004 ㉓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강백은 삼대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두 형의 혼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오·오·이

- ② **헛집기** ‘조웅’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와 도리에 이끌렸다.  
조웅이 자신이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으므로 슬하를 잠깐 떠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이 신의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사건 왜곡**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  
조웅은 삼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삼대의 우편을 공격하고

강백에게도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삼대가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상반** ‘부인’은 ‘조웅’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조웅이 엿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크게 놀랐다는 것으로 볼 때, 부인이 조웅의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상반** ‘월경 대사’는 ‘조웅’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부인은 소승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를 통해 월경 대사가 부인에게 조웅의 미래에 대해 미리 말해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월경 대사가 조웅의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보기 어렵다.

## 005 ㉓ ㄷ, ㄹ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ㄷ. 강백은 전투 전에 삼대를 흔들어 놓기 위해 먼저 죽은 삼대의 두 형에 대해 언급하였다.

004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ㄹ. 부인은 과거에 월경 대사에게 들은 조웅의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대사의 신이함에 놀라고 있다.  
“부인은 소승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라는 월경 대사의 말과,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라는 부인의 말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ㄱ. **상반** 조웅은 삼대를 하찮게 여기고 강백과 겨루게 했다.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를 통해 조웅이 삼대를 하찮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ㄴ. **사건 왜곡** 강백은 탁월한 장수로서 삼대와 겨루다 그의 신체적 약점을 스스로 깨달았다.  
강백은 조웅으로부터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삼대의 약점을 알게 되었다.

## 006 ㉓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적장** 적의 장수.
- **괴이한**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한.

### 정.정.이

- ④ '강백'은 상대를 알아보지 말라는 '조웅'의 경고를 들은 후 '삼대'의 약점을 공격했다.

**005**번~ㄴ의 해설을 참고할 때, 강백은 조웅으로부터 경고를 듣고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부인'은 '조웅'이 사죄하는 말을 듣고 **서운해하면서도** 기뻐했다. 부인은 조웅의 전후 사정을 듣고 '대회', 즉 기뻐했다고 하였다. 서운해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사건 왜곡** '월경 대사'는 '부인'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월경 대사는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명한 줄을 아시나이까?"라고 말했을 뿐, 부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또한 부인이 과거에 월경 대사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교체** '조웅'은 '월경 대사'에게 '선생'을 만나고 올 수 있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웅은 부인(어머니)에게 선생을 만나고 오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있다. 월경 대사는 조웅을 떠나보내기를 주저하는 부인을 설득하고 있다.

- ⑤ **교체** 적장 '삼대'가 죽은 뒤에 괴이한 기상 현상이 일어나자 '조웅'과 '강백'은 두려워했다.

조웅이 삼대의 목을 치자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는 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조웅과 강백은 이를 괴이하게 여길 뿐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삼대를 살피 그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는 것을 확인했다.

## 007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결연** 인연을 맺음. 또는 그런 관계.
- **적수** 재주나 힘이 서로 비슷해서 상대가 되는 사람.

### 정.정.이

- ② **교체** '부인'은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자신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부인은 부모의 허락 없이 장 소저와 혼인을 약속한 조웅의

행동에 대해 하늘의 시키심이라며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예절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죄 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규범을 중시한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조웅'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조웅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장 소저와 정혼하였으며, 이후 부인에게 그 사연을 말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

- ③ '월경 대사'는 '조웅'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대사가 응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를 통해 대사가 조웅의 수련을 돕는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 ④ '조웅'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이겠군.

조웅은 삼대의 약점을 공략하여 승리한다. 이러한 전투 장면은 이야기에 재미를 더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웅'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삼대가 왼손으로 칼을 잘 쓰는 것은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던 것과 관계가 있었다. 이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삼대가 조웅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준다.

## 008 ㉢ (1) 자신 (2) 천명 (3) 영웅적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조웅은 (자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장 소저와 인연을 맺었다. 조웅은 부인(어머니)의 허락 없이 장 소저를 취하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으므로, 조웅 자신의 뜻에 따라 장 소저와 결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교체**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이 (천명) 효심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정당화하고 있다.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에 대해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으리오?", "하늘이 인도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다. 즉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이 천명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화하고 있다.

- (3) **교체**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있었다는 설정은 그가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 주면서, 그러한 인물의 약점을 공략하며 용맹하게 싸운 조웅의 (인간적,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있었다는 것은 삼대가 비범한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조웅이 삼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은 지략과 용

맹을 갖춘 조웅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한다.

## 009 ㉮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헛집기**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는' 모습은 **자화-절제**가 무녀찬-모습을 보여 주는군.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는 것은 조웅이 삼대를 굴복시킴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사회 질서가 무너진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오.이

① '조웅'이 '장 소저를 취한 곡절'에서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조웅이 부인(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 소저와 연을 맺은 것에서 자유연애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웅'이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왔다는 데서 독자의 긴장감이 고조되겠군.

조웅이 삼대와 팔십여 합을 겨루고도 승부가 나지 않아 돌아왔다는 데서 삼대가 조웅만큼 뛰어난 무공을 지닌 장수임을 알 수 있다. 승부가 쉽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의 긴장감은 고조될 것이다.

③ '삼대'가 '진전에 횡행'하자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서'는 모습에서 선악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는데.

악인인 '삼대'와 선인인 '강백'이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서 선악의 대결 구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는' 모습에서 정의를 위해 활약하는 조웅의 모습이 나타나는군.

삼대는 황위를 찬탈한 이두병 세력이므로, 조웅이 삼대의 목을 치는 모습에서 정의를 위해 활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02 최고운전

작품 분석

본문 20~23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적강 소설

주제 최치원의 비범성과 기지

특징 ① 실존 인물인 최치원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함.

② 전쟁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영웅 소설과 달리 민족의 뛰어난 문사(文士)를 과시함.

**단숨에 읽기** 신라 때 문창의 현령 최충은 부인이 금돼지에 납치되었다 탈출한 후 아들 치원을 낳자, 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 아닐까 의심하여 버린다. 그러나 버려진 치원은 선녀가 감싸 주고, 백학이 날개로 덮어 주는 등 하늘의 보호를 받는다. 치원이 여섯 살 때 그가 글을 읽는 소리가 중국까지 달고, 이에 중국의 황제는 학사를 보내 치원과 실력을 겨루게 하지만 그들은 치원을 당하지 못한다. 화가 난 황제는 신라에 석함을 보내 그 안에 든 물건을 알아내라고 한다. 신라 왕으로부터 과업을 받은 승상 나업에게 치원(파경노)은 자신을 사위로 삼아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석함 속 물건이 계란에서 부화한 병아리임을 맞히는 시를 짓는다. 이에 중국 황제가 치원을 중국으로 부르고 여러 함정을 만들어 놓지만, 치원은 도술과 지혜로 이를 물리치고 과거에도 급제한다. 이후 황소의 난이 일어나고 치원은 「토황소격문」을 지어 그를 항복시키나, 중국 신하들의 모함으로 귀양을 간다. 치원은 도술로서 위기를 극복하고 신라로 돌아와 가야산에 은거하여 신선이 된다.

한 줄 요약

1. 아이가 승상 나업의 딸에 대한 말을 듣고 소저를 만나기 위해서 꾀를 내어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 집의 (노비)가 됨.
2. 파경노가 (말) 먹이는 일 (화초)를 기르는 일로 (승상 부부)에게 비범한 능력을 인정받고, 꾀를 내어 소저를 만남.
3. 파경노가 자신이 (석함) 속 물건을 알아맞힐 수 있음을 소저에게 알림.
4. 나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파경노)에게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짓게 함.

## 010 ㉮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전모: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정.정.이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 과업에 나업은 근심하는데, 상황을 알게 된 파경노는 소저를 찾아가 자신이 소저의 근심을 없애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 뒤 소저는 나업에게 파경노의 재주를 언급하며 그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파경노와 소저의 대화, 나업과 소저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② **부재** 저술자의 개입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 ③ **부재**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사건의 반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물을 회화화하여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부재**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11 ㉡ ㄱ, ㄷ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ㄱ. 아이가 승상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와 아이가 승상 집의 노비가 된 이후의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아이가 거울을 일부러 깨서 승상 나업의 집 노비가 된 일, 말과 동산의 화초를 관리한 일,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짓게 된 일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고 있다.
- ㄷ. 파경노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일화들이 삽화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파경노가 말 먹이는 일을 할 때 천상의 선관들이 도와주고 말들이 찾아와 고개를 숙인 일화, 동산의 화초가 시들지 않고 봉황이 찾아와 깃든 일화 등 파경노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일화들이 삽화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 오.오.이

- ㄴ. **부재** 천상의 선관들과 파경노의 소통이 **조월적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탈속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천상의 선관들이 파경노를 찾아와 말 먹일 꼴을 주기는 했으나, 조월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ㄹ. **부재** 중국 황제가 신라 왕에게 과업을 제시한 **이유와 그 결과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 중국 황제가 신라 왕에게 석함 속 물건을 알아맞히는 과업을 제시한 이유와 결과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 012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인물의 행동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석함을 안고 통곡하는 나업의 행동, 슬피 울고 한숨을 크게 쉬는 소저의 행동 등을 통해 과업에 대해 걱정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서술자가 개입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논평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부재**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다.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며, 해학적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부재** 인물의 발화를 통하여 **지단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사람들이 파경노에게 나업이 석함을 안고 통곡한 이유를 말해 주었다는 언급은 있지만, 인물의 발화를 통해 지단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대비하여** 갈등의 원인을 부각하고 있다.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며, 갈등의 원인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 013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범위 오류**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  
아이는 소저에게 반해 일부러 거울을 깨뜨리고, 거울값을 갚겠다며 노비가 되기를 자처하였다. 이에 승상은 아이에게 파경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따라서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승상 부인은 파경노가 돌보는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파경노의 비범성을 알아차려 그에게 천한 일을 맡기지 말라고 승상에게 이야기한다. 이에 승상은 파경노에게 동산의 '화초'를 관리하게 한다. 따라서 '화초'가 아니라 말이 승상 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유모에게 주어 보낸 '거울'은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벽에 걸린 '거울'은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다.  
아이가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 소저의 집에 찾아갔을 때 소저는 유모에게 '거울'을 주고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이때 아이는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거울이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업의 일로 슬피 울던 소저가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창밖에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거울이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고, 파경노가 들고 서 있던 '꽃'은 소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소저는 동산의 '꽃'을 보고 싶었지만 파경노 때문에 부끄러워 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는 소저의 창밖에서 '꽃'을 들고 서서 소저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꽃은 소저에 대한 파경노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동산에서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고,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파경노가 해결할 수 있다고 소저가 기대하는 과제이다.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시를 짓자 파경노가 '시'로써 화답하였으므로, 이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저는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나업에게 파경노를 불러 시를 짓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소저가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파경노가 지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제이지만,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다.

신라 왕이 나업에게 석함 안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린 뒤 나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통곡하였으므로,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는 나업의 일로 울고 있는 소저에게 자신이 근심을 없애 줄 것이라 하였다. 이로 보아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가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014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아이의 이름 '파경노'는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이다. (○) ×  
'승상은 그의 이름을 거울을 깨뜨린 노비라는 뜻으로 파경노라 짓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2) 승상 부인은 파경노가 돌보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파경노의 비범성을 알아차렸다. (○) ×

천상의 선관들이 물려와 말 먹일 꼴을 주고, 말들이 파경노에게 와 머리를 숙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승상 부인이 승상에게 "파경노는 용모가 기이하고 탄복할 일이 많으니 필

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3) **상반** 파경노는 중국의 황제가 보낸 석함 속 물건의 정체를 알아맞힐 수 ~~있다고~~ 승상에게 거짓으로 말하였다. (○) (○) ×

나업이 우는 이유를 들은 파경노가 소저를 찾아가 근심을 없애 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파경노는 석함 속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파경노는 석함 속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으면 후한 상을 주겠다는 승상의 제안에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며 거절하고 있다.

## 015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승상은 ①을 통해 파경노의 학식을 시험해 보려 한다.

소저의 말을 들은 나업은 파경노가 석함 속 물건에 대한 과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에게 시를 지으라고 한 것이지, 그의 학식을 시험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파경노는 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014번**-(3)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② ①은 중국의 황제가 신라에 보낸 과제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신라의 선비들은 ①에 대한 시를 짓지 못하였다.

승상은 나라의 이름난 선비 가운데 한 명도 석함 속 물건에 대해 시를 짓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⑤ 소저는 파경노가 ①에 대한 시를 지을 수 있다고 믿는다.

"파경노가 비록 어리지만 ~ 석함 속의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소저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016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기차** : 경우에 따라 채지 있게 대응하는 지혜

### 정.정.이

- ⑤ **헛집기** 파경노가 승상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은 최치원이 보상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든 당당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시를 지으면 후한 상을 주겠다는 나업의 제안에 파경노는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며 시 짓기를 거절하였다. 이는 최치

원이 소저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 ① 아이가 헌 옷으로 바꾸어 입고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이는 장면은 최치원이 치밀한 면모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아이는 나업의 딸인 소저의 재예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을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 승상의 집에 찾아갔다. 이때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도록 헌 옷으로 바꾸어 입는 모습에서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파경노에게 선관들이 물려와 말먹이를 가져다주는 장면은 최치원이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천상의 선관들이 물려와 말 먹일 꼴을 주는 것은 파경노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인물임을 드러낸다.
- ③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시들지 않아 봉황이 날아드는 장면은 최치원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파경노가 기른 뒤로 화초가 무성하고 시들지 않으며, 상서로운 새인 봉황까지 날아든다. 이를 통해 파경노가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는 장면은 최치원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어 하나 부끄러워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승상에게 노모를 뵙고 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향하지 않고 동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저를 만난다. 이를 통해 파경노가 소저와의 만남을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17 ㉡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아이는 나업의 딸인 소저의 재예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승상의 집에 찾아갔다. (○, ×)  
승상 나업의 딸이 재예가 빼어나다는 말을 들은 파경노는 헌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을 거울 고치는 장사라 속여 승상의 집을 찾아갔다.
- (2) **사건 왜곡** 파경노가 기른 동산의 화초가 무성히 자란 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은 덕이다. (○, ×)  
파경노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은 것은 말 먹이는 일에 관해서이다. 화초가 무성하고 조금도 시들지 않았던 것은 파경노의 신이한 능력 덕분이다.
- (3) **헛집기** 승상에게 노모를 뵙고 오겠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파경노의 깊은 효심이 드러난다. (○, ×)

016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4) 승상은 파경노에게 시 짓기를 제안함으로써 국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  
중국 황제가 보낸 석함 속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으라는 과업을 받은 승상은 파경노가 시를 지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018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④ **헛집기** 승상이 파경노에게 석함 속 물건을 알아내면 후한 상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형식상 주인보다 종이 더 우월함을 인정하든 승상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승상이 파경노에게 후한 상을 주겠다고 한 것은 파경노를 설득해 시를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형식상 주인보다 종이 더 우월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 ① 누워 있는 파경노에게 말들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는 것은 그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날이 저물자 말들이 파경노가 누워 있는 곳에 와서 그를 향해 머리를 숙이며 늘어서는 것은 파경노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소저의 시에 파경노가 시로 화답하는 것이나 파경노는 문학이 넉넉하다는 소저의 말은 주인공의 문재(文才)를 보여 주는군.  
파경노는 소저의 시를 듣고 시로써 화답한다. 또 소저가 파경노의 문학이 넉넉해 시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장면을 통해 주인공의 글재주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③ 소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거울을 일부러 깨뜨리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아이의 기지를 보여 주는군.  
소저의 얼굴을 보고 반한 아이는 승상의 집에 들어갈 목적으로 일부러 거울을 깨뜨려 자신을 노비로 삼으라고 하고 있다.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⑤ 소저가 시를 지을 수 없다고 거짓말한 파경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승상께 파경노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할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아버지보다 우월한 자식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소저는 파경노가 시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못하는 체한다며 그를 복종시킬 방법을 제시하고, 소저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승상은 파경노를 부른다. 따라서 파경노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소저는 아버지보다 우월한 자식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03 민시영전

#### 작품 분석

본문 24~27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주제 민시영의 입신양명을 위한 부인의 정성과 의지

- 특징 ① 평범한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인의 내조를 그려 냄.  
 ② 초월적 능력의 부재, 국가 위기 해결 장면의 부재 등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전형성을 벗어남.  
 ③ 당대 사람들이 지닌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을 보여 줌.

**단숨에 읽기** 민시영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구걸하다가 정 생원 집에 의탁해 머슴살이를 하게 된다. 서른 살이 된 시영은, 양반이지만 부모를 여의고 품을 팔며 살아가는 윤 처자와 혼인한다. 첫날밤에 윤 부인은 시영에게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할 것을 권하고, 다음날 시영은 고향을 떠난다. 정처 없이 떠돌던 시영은 북한산에 사는 월봉 대사를 만나 학문에 정진한다. 그리고 월봉 대사의 신이한 능력으로 과거 시험의 글제를 미리 알고서 과거에 응시해 장원 급제한다. 한편 시영이 떠난 후 윤 부인은 아들을 낳고 가세를 일으킨다. 고향인 여주의 목사를 제수받은 시영은 윤 부인에 대한 여론을 살피며 암행을 하다가, 글을 배우고 있는 아들을 만나 기뻐한다. 아들이 시영이 돌아온 사실을 알리지만 윤 부인은 십 년의 기약을 지키지 못한 시영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 다음날 시영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윤 부인은 그제야 남편과 해후한다. 이후 시영은 선정을 펼치고 높은 벼슬에 오른다.

#### 한 줄 요약

- ① (아내)의 권유로 집을 떠난 민시영이 (월봉 대사) 밑에서 공부함.  
 ② (월봉 대사)의 글제로 과거에 급제한 민시영이 임금을 만나서 그간의 사연을 아뢰음.  
 ③ 부인이 (구) 9년 만에 집에 돌아온 민시영을 쫓아냄.

### 019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부인은 아들과 함께 있는 걸인의 말소리를 통해 그가 남편임을 알아 보았다.

‘비록 구 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모를소냐?’를 통해 부인이 아들과 함께 있는 걸인의 말소리를 통해 그가 남편임을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민시영은 월봉 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과거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거듭 부탁하였다.

민시영은 과거 시험을 보고 싶다고 월봉 대사에게 부탁하였지만 월봉 대사는 “아직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 민시영은 다시 청치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② **사건 왜곡** 월봉 대사는 과거 시험에서 사용할 필묵을 준비하지 못한 민시영을 꾸짖었다.

월봉 대사는 ‘과장의 기구’가 없다고 말하는 민시영에게 자

신이 이미 장치했다며 필묵을 내어 주고 있을 뿐, 민시영을 꾸짖지는 않았다.

- ③ **사건 왜곡** 임금은 민시영의 뛰어난 글재주를 칭찬하며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임금은 민시영에게 “선조는 누구고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락은 어떻게 지냈는가?”라고 물어보았을 뿐, 그의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하지는 않았다.

- ④ **사건 왜곡** 걸인의 정체를 눈치 채 소비는 그를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소비는 민시영을 걸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그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였고, 민시영의 아들인 도련님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지도 않았다.

### 020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징조**: 어떤 일이 생길 기미.
- **채비**: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

#### 정.정.이

- (1) **교체** 월봉 대사는 민시영의 **비범한 능력**에 감화되어 그를 가르치게 되었다. (○, ×)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월봉 대사는 민시영 아내의 남편에 대한 정성에 감동받아 민시영을 가르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임금은 꿈에서 도사를 만난 것이 민시영을 얻을 징조임을 알게 되었다. (○, ×)

“몽중 도사는 너의 선생 월봉 대사요. 글제의 ‘하득제갈량이라.’ 하는 것은 내 시영을 얻을 징조로다.”라는 임금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사건 왜곡** 뒤늦게 걸인의 정체를 알게 된 부인은 그를 극찬하 **대접할** **채비를** 하였다. (○, ×)

부인은 말소리를 통해 걸인이 남편인 민시영임을 알았으나, 십 년의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보지 않겠다고 하였다.

### 021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교체** 민시영은 과거 시험장에서 월봉 대사가 미리 지어 준 **두수(首)한수**



중·하단을 써서 제출하였다.

월봉 대사는 민시영에게 패글제를 써 주며 한 수는 스스로 짓고 한 수는 민시영에게 짓게 한다. 그런 뒤 과거 시험장에서 그 글제를 보면 두 수 중 소원대로 쓰라 한다. 민시영은 '선생이 지어 주신 한 수'를 썼으므로 월봉 대사가 미리 지어 준 두 수 중 하나를 썼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월봉 대사는 과거 시험을 치르고 싶어 하는 민시영에게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였다.  
과장을 구경하고 싶다는 민시영의 말에 월봉 대사는 "아직 말라. 네 마땅히 과거 시험 할 날이 있으니 그리 알라."라고 말하며 기다리도록 하고 있다.
- ③ 임금은 민시영의 이야기를 듣고, 꿈에 도사가 나타나 자신에게 글제를 일러 준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민시영이 전후의 수말을 낱낱이 고한 뒤, 임금이 어젯밤 몽중의 일의 연고를 해독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소비는 갑자기 나타난 걸인이 도련님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소비는 "아까 일각문 밖의 어깨춤 추던 걸인을 ~ 이것이 무슨 변괴리요?"라고 말하며 발을 구르고 실색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⑤ 부인은 남편이 약속한 십 년을 정확히 채우지 않고 돌아올 리가 없으며, 돌아왔다고 해도 만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비록 구 년 선달 이십구 일이라도 ~ 네 부친이라도 나는 반드시 보지 아니 할 것이니"라는 부인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22 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상반** ㉔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명에 따라 민시영은 아름다운 <sup>남루한</sup>의관을 갖추어 ㉔로 돌아온 것이다.  
전정(㉔)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명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고향(㉔)에 돌아온 민시영의 의관은 남루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민시영이 ㉔를 떠난 사연은 ㉔에서 월봉 대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계기로 작용한다.  
민시영은 아내의 요청으로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아내와 약속하고 고향(㉔)을 떠난다. 북한산(㉔)에 사는 월

봉 대사는 민시영의 이런 사연을 듣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받아 민시영을 가르치게 된다.

- ② 민시영이 ㉔에서 겪은 일은 ㉔에서 월봉 대사가 의도한 대로 전개된 것이다.
- ③ ㉔에서 임금이 한 말을 통해 ㉔의 상황이 예정되어 있었음이 드러난다.  
과장(㉔)에서 민시영은 북한산(㉔)에서 월봉 대사가 써 준 글제가 과거 시험에 나온 것을 보고 "선생의 명령이로다."라고 하며 월봉 대사가 말한 대로 하였다. 또한 전정(㉔)에서 임금은, 꿈에서 월봉 대사가 글제를 주며 과거 시험에 내라고 했음을 민시영에게 말하였다. 이를 통해 민시영이 과장에서 겪은 일은 북한산의 월봉 대사가 의도한 것으로 (㉔), 모두 예정되어 있었음(㉔)을 알 수 있다.
- ⑤ ㉔에서 부인이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민시영이 ㉔에서 부인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민시영은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㉔)을 떠났으나 구 년 만에 고향(㉔)으로 돌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023 답 ①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강

- 전념: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쏟음.
- 탄복: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름.

#### 정.정.이

- ① 머슴살이를 하던 민시영은 학업에 전념하라는 아내의 간곡한 요청으로 ㉔를 떠난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민시영은 머슴살이를 하였으나 아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㉔)을 떠났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사건 왜곡** ㉔에서 월봉 대사의 가르침으로 학업 능력을 갖춘 민시영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한다.  
북한산(㉔)의 월봉 대사에서 오륙 년을 공부한 민시영은 아름다운 선비가 되었고, 과거 시험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사건 왜곡** ㉔에서 글제를 접한 민시영은 월봉 대사의 신이한 능력에 탄복하며 그동안 그를 의심한 것을 반성한다.  
민시영은 과장(㉔)에서 제시된 글제가 월봉 대사가 가르치던 글제와 같은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사례하며 선생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시영은 월봉 대사의 신이

한 능력에 탄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시영은 그동안 월봉 대사를 의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의심한 것을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건 왜곡** ㉔에서 임금은 자신이 꿈에서 만난 **도사가 저서한 대로** 민시영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고 말한다.

임금의 꿈에 나타난 도사(월봉 대사)는 패궐제로 자신이 제시한 글제를 내라고 지시했을 뿐, 민시영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 ⑤ **헛집기** 부인은 민시영이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거지꼴을 하고 ㉔로 돌아오자 크게 실망해 그를 쫓아내고자 한다.

부인은 고향(㉔)으로 돌아온 민시영을 엿본 뒤, 그가 티끌의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으며, 미간에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거지꼴을 하고 돌아온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부인이 실망한 것은 민시영이 약속한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 024 ㉔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② **헛집기** 임금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임금의 “내 나라가 어지러움을 근심함에 또한 양상을 얻었고”라는 말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임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오.오.이

- ① 임금이 영웅적 행위를 보여 주지 않은 민시영에게 높은 지위를 내리겠다는 것을 보니, 평범한 인물이 입신양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영웅적 행위를 보여 주지 않은 민시영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에서, 평범한 인물이 입신양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부인이 소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시영을 쫓아내려는 것을 보니, 정해진 기한만큼 남편을 학업에 정진하게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부인은 십 년의 기한을 못 채우고 돌아온 민시영을 받아들이면 학업이 중단될 것이라 여긴다. 그래서 민시영이 학업에 정진하도록 소진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민시영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

- ④ 월봉 대사가 민시영에게 제시한 글제와 임금에게 제시한 글제가 동일

한 것을 보니, 민시영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의 도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월봉 대사는 ‘한군신이 하득제갈량이라.’라는 글제를 민시영에게 주고, 임금의 꿈에 나타나 패궐제로 이 글제를 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민시영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월봉 대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임금이 민시영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에게 양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민시영의 삶이 변화하는 데 아내의 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민시영의 사연을 들은 임금은 민시영에게 “네 가빈하니 또 양처를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머슴살이를 하던 민시영이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게 된 것은 그에게 학업을 권한 아내의 정성 덕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 025 ㉔ (1) 월봉 대사 (2) 부인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1) **교체** (임금, 월봉 대사)은/는 영웅 소설 속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조력자로서, 주인공의 입신양명을 돕는다.

월봉 대사는 민시영을 가르치고, 임금의 꿈에 나타나 자가 제시한 글제를 패궐제로 내라고 하는 등 신이한 능력을 바탕으로 민시영을 도와 그가 입신양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2) **교체** 일자무식에 머슴살이를 하던 민시영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은 그에게 학업을 권한 (부인) 월봉 대사) 덕분이다.

일자무식에 머슴살이를 하던 민시영이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아내가 그에게 공부할 것을 권했기 때문이었다. 월봉 대사는 아내의 권유로 집을 떠난 민시영의 사연을 듣고 그를 가르친 인물이다.

## 026 ㉔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① [A]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현재 자신이 깨달은 바를, [B]는 지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이 결심한 바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임금이 어젯밤 꿈의 연고를 알지 못하다가 민시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부인이 민시영과 이별할 때 약속한 일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 ② **부재** [A]는 말은 일에 대해 **상대방이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고**, [B]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A]에서 임금이 민시영에게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B]에서 부인은 민시영을 쫓아내겠다는 선택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부재** [A]는 [B]와 달리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다.

[A]에서 임금은 민시영을 높은 지위로서 유사에게 명하겠다고 하고 있을 뿐, 권위를 내세워 민시영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도 부인이 권위를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만류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부재** [B]는 [A]와 달리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B]에서 부인은 민시영이 십 년 기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천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해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지 않다. [A]에서도 임금이 불가피한 상황을 가정해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지 않다.

- ⑤ **부재** [A]와 [B]는 모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권하기를 권하고 있다.

[A]에서 임금은 어젯밤에 꿈을 꾸는 상황,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시영이 마음을 바꾸기를 권하고 있지는 않다. 또 [B]에서 부인은 민시영과 십 년 기약을 했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들이 마음을 바꾸기를 권하고 있지는 않다.

정오 지름길

- ⑤ [A]와 [B]는 모두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기를 권하고 있다**.

[A], [B] 두 부분에 드러난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B]에서 부인이 민시영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B]에서 부인의 말을 듣는 상대방은 아들이예요. 이처럼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인물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해요.

027 ㉠ (1) 시험해 보고자 (2) 민시영 (3) 민시영과의 언약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교체** 민시영은 자신의 학문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여, **시험해 보고자**) 월봉 대사에게 과거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부가 점점 안정에 열리되 이목에 한 번도 시험치 못하

였으니”라는 말로 보아, 민시영은 자신의 학문에 대한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과거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교체** 임금은 (**민시영**, 월봉 대사)의 말을 통해 지난밤 꿈의 연고를 깨닫게 되었다.

**021**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임금은 민시영의 말을 통해 지난밤 꿈의 연고를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교체** 부인이 (민시영의 용모, **민시영과의 언약**)을/를 언급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부인이 민시영과의 언약을 언급한 것은 약속을 어긴 남편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부인이 민시영의 용모를 언급한 것을 통해 부인이 그가 길인이 아님을 알아차렸음을 알 수 있다.

028 ㉠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②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부인은 소진의 고사를 언급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하겠다며, 민시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오오이

- ① **헛집기**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부인이 민시영이 십 년의 기약을 하고 떠난 과거의 일을 떠올린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헛집기** 상대가 **진분을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부인은 민시영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임을 짐작하고 있을 뿐, 민시영이 진분을 숨기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또 부인이 탄식하는 것은 십 년의 기약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이다.

- ④ **헛집기** **지나친 요구를 하는 상태에 대한 비난을 토로하고 있다**.

민시영이 부인에게 아직 어떤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부인이 민시영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그를 비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부인은 민시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온 것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 ⑤ **사건 왜곡** 상대가 **저한 상황을 알고서 사건과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무슨 거동이 있을 것이라.”라고 말하며 민시영의 행동을 미심쩍어하고 있지만, 민시영이 저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



## 04 욕미당기

### 작품 분석

본문 28~31쪽

작가 서유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장회 소설

주제 신라 태자 김소선의 영웅적 일생

특징 ① 전반부는 주인공의 고행담이, 후반부는 주인공의 결연담 및 활약상이 중심을 이룸.  
② 구약, 실명과 개안, 형제간의 갈등, 남녀 결연 등 고전 소설의 다양한 모티프가 결합됨.

단숨에 읽기 신라 태자 김소선은 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해 보타산에 가서 영약을 구해 오다가 이복형 세징의 습격으로 실명하고 바다에 던져진다. 우연히 중국으로 가던 백문현에 의해 구출된 소선은 그의 딸 백 소저와 약혼한다. 이후 백 소저를 머느리로 삼고자 한 세력이 배연령의 혼사 제의를 거절한 백문현은 배연령의 모함으로 벼슬이 강등되어 압송된다. 또다시 의지할 곳이 없어진 소선은 통소를 불며 거리를 방황하다 그의 통소 실력을 알아본 옥성 공주의 자음이 되어 가까이 지낸다. 어느 날 소선은 고국에서 기르던 기러기가 전해 온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눈을 뜨고, 옥성 공주와 혼인한다. 한편 혼인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난 백 소저는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를 만나고, 그의 딸 설 소저와 어쩔 수 없이 약혼을 하고 떠난다. 토번의 침략으로 출정한 소선이 감금당하자, 백 소저가 출정하여 토번을 격파하고 소선을 구출한다. 소선은 백 소저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고, 백 소저의 추천으로 설 소저와도 혼인한다. 세 부인의 시녀 세 명은 소선의 첩이 된다. 소선이 고국에 돌아와 최악이 탄로난 세징은 형벌을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그리고 침입한 왜병을 물리친 소선은 왕위에 올라 선정을 베풀 뒤, 부인들과 함께 보타산에 가서 승천한다.

### 한 줄 요약

- ① 김소선과 백 소저가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함.
- ② 배연령이 (석 사랑)을 통해 배득량과 백 소저의 (혼인)을 제안하나 백 소부가 거절함.
- ③ 배연령이 백 소부를 무고하여 (백 소부)가 처벌을 받게 됨.

## 029 ㉒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②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와 관련되고 있다.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나, 백 소저의 아버지 백 소부는 이를 거절한다. 이에 배득량의 아버지 배연령이 무고하여 백 소부는 유배를 가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혼사 문제가 가문의 성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① ☒상반 부모의 개입 없이 배우자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 소부가 김소선과 백 소저의 혼인을 주선하는 것으로 볼 때 배우자의 선택에 부모가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교체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권력(세력)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권력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④ ☒사건 왜곡 대신들 간의 다툼으로 천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배연령이 백 소부를 모함하고 있을 뿐, 대신들 간의 다툼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백 소부를 귀양 보내는 천자의 모습이나 그를 두려워하는 만조백관의 모습으로 볼 때 천자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볼 수 없다.

⑤ ☒사건 왜곡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배연령이 황보박을 부추겨 백 소부가 오랑캐와 결탁했다고 무고하고 있을 뿐, 실제로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0 ㉒ (1) 기꺼이 (2) 알고도 (3) 신의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김소선과 백 소저는 혼인을 주선하는 백 소부의 명을 (기꺼이) 마지못해 받들었다.

백 소저가 '얼굴에 수줍은 빛을 띠고' 김소선의 시에 화답한 것이나, 김소선이 백 소저의 시를 듣고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둘은 혼인을 주선하는 백 소부의 명을 기꺼이 받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상반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실을 (알고도 모르고) 백 소저에게 혼인을 청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백 소부는 김소선에 대한 (신의) 동정(으로) 배 승상 가문과의 혼인을 거절하였다.

백 소부가 석 사랑에게 "배연령이 아무리 ~ 딸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은즉"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백 소부는 김소선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신의로 배 승상의 혼인 요청을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31 ㉒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② 백 소부가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는 배득량의 요구를 거절한다.

배득량은 백 소저의 정혼 사실을 알면서도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고, 백 소부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적 사랑이 배연령의 세력을 앞세워 백 소부를 협박한다.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충애를 ~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에서 석 시랑이 배연령의 세력을 앞세워 혼인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헛집기** ~~백 소부가 배연령과 배득량 부자가 지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배연령이 아무리 하늘을 ~ 두려워 아니하노라.”라는 말에서 백 소부가 배연령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헛집기** ~~배득량이 백 소부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석 시랑을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한다.~~

배득량이 직접 찾아오지 않은 것은 맞지만, 백 소부가 이것 때문에 혼인 요청을 거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헛집기** ~~전자가 황위를 노라는 백 소부를 징계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천자가 ‘백문현이 비밀히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꾀한다’는 말에 백 소부를 징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 032 ㉢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④ **헛집기**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아 백 소부가 김소선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언 절구 두 수(㉠)’는 김소선의 시에 대한 화답이자 혼인의 맹약이다. 백 소부가 김소선에게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혼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것이지, 김소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오.오.이

① 시를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서로의 마음을 담은 시를 주고받아 혼약을 맺었으므로,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시의 내용으로 보아 백 소저가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성함은 고송의 자질이요 ~ 바람과 서리에도 굴하지 않네.”라는 시의 내용을 통해 백 소저가 강직하고 지조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시에 대한 백 소부의 평으로 보아 백 소저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격이 빼어나고 ~ 장원 급제하리로다.”라는 백 소부의 말을 통해 백 소저의 뛰어난 재능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장차 백 소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시의 내용을 보고 백 소부는 역경 속에서 절조를 지켜야 할 상황이 딸에게 실제로 닥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가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복선의 기능을 하며 장차 백 소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 033 ㉢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헛집기** 백 소부는 백 소저의 재능보다 김소선의 재능을 높아 평가하고 있다. (○, ×)

백 소저의 시에 대해 백 소부는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이 될 만하다.”라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소선의 재능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2) 김소선과 백 소저가 주고받은 시구는 이들의 혼사와 관련한 신물로 간직되었다. (○, ×)

김소선과 백 소저는 서로 시를 주고받았는데, 백 소부는 김소선의 시를 백 소저에게 주며 신물로 삼으라고 하는 한편, 백 소저의 시를 김소선에게 전하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3) **헛집기** 백 소부는 백 소저가 지은 시를 통해 간신들에 의해 위기에 처할 나라의 운명을 예감하였다. (○, ×)

백 소부가 백 소저의 시가 ‘시참’이 될까 두렵다고 한 것은, 그 시가 장차 백 소저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것일까 걱정해서인지 간신들에 의해 위기에 처할 나라의 운명을 예감해서가 아니다.

## 034 ㉢ ①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상반** 백 소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주저없이 ㉠을 썼다.

백 소저는 김소선의 시에 화답하여 맹약을 정하라는 백 소부의 말에 ‘오래 주저하다가’, ‘오언 절구 두 수(㉠)’를 썼다.

오.오.이

② 백 소부는 ㉠이 김소선이 쓴 시에 필적한다고 생각한다.

백 소부가 ‘오언 절구 두 수’에 대해 “소선의 시와 더불어



서로 백중이 될 만하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③ 백 소부는 ㉠의 격에 감탄하면서 그 뜻에 의문을 가졌다.

백 소부는 ‘오언 절구 두 수’에 대해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평가하며, “시의 뜻이 스스로 송죽의 절조에 비함은 어찌 된 일이뇨?”라면서 의문을 가졌다.

- ④ 김소선은 ㉠을 듣고 백 소저가 품은 뜻에 크게 감탄하였다.

김소선은 ‘시구를 듣고는 그 청아함을 사랑하고 품은 뜻에 감복하여 크게 감탄’했다고 하였다.

- ⑤ 백 소부는 ㉠을 김소선에게 전하며 간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백 소부는 김소선의 시는 백 소저에게, 백 소저의 시는 김소선에게 전하면서 신물로 삼게 하였다.

### 035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댕

- **평하**: 가치를 짚아내림.
- **편승**: 세태나 남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거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정.이

- ③ **헛집기** 석 시랑은 비유를 활용하여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하고 있다.

석 시랑은 김소선과의 혼약을 깨고 배연령의 아들과 백 소저를 결혼시키라고 백 소부를 설득하기 위해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옥’과 ‘난새’는 백 소저를 빗댄 것이고, ‘구덩이’와 ‘까막까치’는 김소선을 빗댄 것으로, 백 소부의 성품과는 관련이 없다.

#### 오.오.이

- ① 석 시랑은 생질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백 소저를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라고 지칭하며 백 소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 ② 석 시랑은 생질녀와 혼약을 맺은 상대를 평하하고 있다.

백 소저와 혼약을 맺은 김소선을 눈먼 폐인이거나 까막까치 등으로 표현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 ④ 석 시랑은 권력자의 위세를 두려워하며 그에 편승하고 있다.

석 시랑은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이라며 배연령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라며 그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석 시랑은 장차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암시하며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석 시랑은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라며 혼사를

거절할 경우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 후회할지도 모른다면 백 소부를 설득하고 있다.

### 036 ㉡ ㄱ, ㄴ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ㄱ. 석 시랑은 조카인 백 소저에게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을 중매하고자 한다.

- ㄴ. 석 시랑은 배연령의 권세를 언급하며 백 소부에게 청혼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석 시랑은 백 소부에게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 혼약을 맺고자 하니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라며, 조카인 백 소저와 배득량의 혼사를 권하고 있다(ㄱ, ㄴ).

#### 오.오.이

- ㄷ. **교제** 석 시랑은 백 소저를 옥과 **까막까치**에 빗대어 아름다운 용모와 어진 인품을 칭찬하고 있다.

석 시랑은 백 소저를 ‘아름다운 옥’과 ‘상서로운 난새’에 빗대어 아름다운 용모와 어진 인품을 칭찬하고 있다.

- ㄹ. **교제** 석 시랑은 김소선이 **자려 깊지 못하다**며 조카인 백 소저의 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 시랑은 백 소부에게 “이런 폐인을 사위로 삼고자 하니 어찌 사려 깊지 못한 것이 아니리오?”라고 말하며, 눈이면 김소선이 백 소저의 짝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037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는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말하고 있고, ㉢는 정황을 근거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에서 배연령은 “백 소부에게 말하여 혼약을 이루고 속히 좋은 결과를 전할지이다.”라며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에서 석 시랑은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다는 정황을 근거로 “온갖 구실로 설득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범위 오류** ㉡는 감정을 앞세워 말하고 있고, ㉢는 논리적 근거를 들어 말하고 있다.

㉡에서는 벼슬을 함께 하는 우의가 있고, 문벌이 걸맞다는 점을 들어 혼인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감정을 앞세

위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㉔에서는 백 소부의 뜻이 이미 굳건하니 설득하더라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논리적 근거를 들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㉔는 대상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며 말하고 있고, ㉕는 결과를 예측하여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다.

㉔에서 배연령은 백 소부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를 감추고 있지 않다. 한편 ㉕에서는 백 소부를 설득해도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④ **부재** ㉔는 대상을 회유하여 장대와와 대결을 회피하고 있고, ㉕는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㉔에서 배연령은 백 소부가 혼인을 허락하도록 그를 회유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백 소부와 대결을 회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㉕에서 석 시량은 백 소부의 뜻을 전달하며 자신의 의견을 밝힐 뿐,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부재** ㉔는 장대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㉕는 상대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자신과 탓으로 돌리고 있다.

㉔에는 석 시량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㉕에서 석 시량은 배연령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전하고 있을 뿐,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 038 ㉑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㉔: 백 소부는 천자의 노여움을 사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백 소부는 배연령과 황보박의 무고로 인해 천자의 노여움을 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백 소부의 상황은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인 '백척간두'로 표현할 수 있다.

오.오.이

② **헛집기** ㉔: 황보박은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다.

'좌고우면'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황보박은 배연령의 말을 따르고 있을 뿐,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헛집기** ㉔: 백 소부와 배연령은 석 시량을 통해 막역지우(莫逆之友)가 되었다.

'막역지우'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없

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백 소부와 배연령은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적대 관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헛집기** ㉔: 배득량은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배득량이 아버지인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행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헛집기** ㉔: 배득량은 백 소저와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처지에 놓여 있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감을 이르는 말'이다. 배득량과 백 소저는 서로 같은 처지에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039 ㉑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⑤ **사건 왜곡** ㉔: 백 소저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세력가 배득량과 혼인하고자 한다. 백 소부의 반대에 부딪힌다.

백 소저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김소선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배득량과 혼인하고자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오.이

① ㉔: 천자는 백 소부가 오랑캐와 결탁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백 소부를 죽이려 했다.

② ㉔: 배연령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백 소부에게 양심을 품고 황보박을 이용해 천자에게 무고하였다.

배연령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백 소부에게 보복하고자 황보박을 부추겨 백 소부가 변방의 오랑캐와 결탁하였다고 무고하였다(㉔). 이에 천자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형리에게 부쳐 장차 죽이고자' 하였다(㉑).

③ ㉔: 백 소부는 배연령의 뜻을 전하며 혼인을 강요하는 석 시량에게 크게 화내며 꾸짖는다.

석 시량이 다시 찾아와 혼인을 요구하는 배연령의 말을 전하자 백 소부는 크게 노하면서 배연령이 큰 기세가 있어도 자신은 두렵지 않으며, 자신의 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허락했으므로 석 시량이 간여할 바가 아니라고 꾸짖는다.

④ ㉔: 배득량은 백 소부의 거절을 듣고 낙담하지만 이내 배연령에게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배득량은 석 시량을 통해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는 뜻을 전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낙담하지만, 아버지 배연령에게 혼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 05 임진록

### 작품 분석

본문 32~35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전쟁 소설, 역사 소설

주제 임진왜란의 치욕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특징 ①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허구적으로 변용함으로써 당대 민중의 정서를 반영함.

② 임진왜란 때 실존한 인물들의 영웅적 활약상을 삽화식으로 나열함.

단숨에 읽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선조는 자신이 꾸 꿈을 최일경에게 해몽하도록 한다. 최일경이 왜가 침입할 징조라고 해몽하자 선조는 노여워하며 그를 동태로 귀양 보낸다. 3년이 지나 임진년 어느 날, 왜군이 침입한다. 최일경은 동태에서 왜군의 침략을 목격하고 이를 조정에 알린다. 삭주의 이순신은 왜군의 침략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 둔 거북선으로 항전하지만 전사한다. 그 후 강홍립과 김덕령, 정충남이 출전하여 승리를 거둔다. 선조는 의주로 피란 가고, 의주로 돌아온 최일경이 김응서를 천거한다. 한편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선조는 유성룡을 명나라에 보내 군사를 청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출전하여 적장 청정의 목을 베고, 대장을 잃은 왜군은 본국으로 돌아간다. 이여송은 조선의 지맥을 끊으려다 태백산 산신령에게 저지당하고 본국으로 쫓겨 간다. 강홍립과 김응서가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왜국 정벌에 나서지만 강홍립의 배신으로 실패한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13년 후 왜군이 재침하려 하자 사명당이 왜에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는다.

### 한 줄 요약

- ① 사명당이 ( **봉명 사신** )으로 일본에 가던 중 동태 부사 ( **송정** )의 홀대를 받고 그를 징벌함.
- ② ( **사명당** )이 일본에 도착하자 ( **왜왕** )이 사명당의 신통력을 시험하고, 사명당이 이를 극복함.
- ③ 사명당이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여 왜왕의 ( **항복** )을 받아 낸.

## 040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땀

- **우위**: 남보다 나은 위치나 수준.
- **고조**: 사상이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짐.

### 정.정.이

② **부재**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대화나 행동을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오.오.이

- ①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사명당과 왜왕의 갈등은 사명당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의해 왜왕이 항복함으로써 해결되고 있다.
- ③ 과장된 비유를 활용하여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벽력 소리 진동하며 천지 뒤늬는 듯하고 ~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등에서 과장된 비유를 통해 일본의 백성들이 난리를 겪는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사명당이 도술을 부려 홍수를 일으키는 등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비현실적 장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이 국내에서 국외로 바뀌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명당과 송정의 갈등은 사명당의 일방적인 징벌로 간단히 마무리된다. 반면 국외에서의 사명당과 왜왕의 대립은 여러 번 반복되며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 041 ㉔ ① × ② ○ ③ ○ ④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부재** 서술자의 직접적 설명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다.  
( ○, × )  
서술자의 직접적 설명이 아니라 주로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사명당이 용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에서 전기성이 드러난다.  
( ○, × )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와 같이 사명당이 용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전기성이 드러난다.

- ③ 인물이 활약하는 공간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변화하고 있다. ( ○, × )  
사명당이 활약하는 공간은 동태(조선)에서 일본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과정과 직유를 통해 사명당과 왜왕의 대결을 묘사하고 있다. ( ○, × )

040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042 ㉔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다른 인물과의 대립을 통해 중심인물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명당과 왜왕의 대립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왜왕의 항복을 받아 낸 사명당의 업적을 드러내고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장면 묘사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벽력 소리 진동하며 ~ 비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 ‘형세 산악 같고 ~ 소리 벽력같아 천지진동하는지라.’ 등에서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 해학적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헛집기**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사명당이 심중에 망극하여’와 같이 서술자의 개입은 드러나지만, 사명당이 왜왕의 항복을 받아 내고 있으므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헛집기**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사명당이 송정을 징벌하는 장면, 왜왕이 사명당을 시험하는 장면, 사명당이 왜왕의 항복을 받아 내는 장면 등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작품 속의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여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으므로, 작품 속 인물이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43 답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사안: 법률이나 규정 따위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

### 정.정.이

- ⑤ 사명당은 명분과 직위를, 송정은 신분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송정은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라며 중의 신분인 사명당을 소홀하게 대한다. 이에 명분과 직위를 중시하는 사명당은 “네 벼슬이 비록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내 비록 중이나 일국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라며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 송정을 처벌한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제삼자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인은 사명당과 송정 사이의 의사소통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② **헛집기**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명당과 송정은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③ **헛집기**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 때문이 아니라 봉명 사신인 사명당을 대하는 송정의 무례함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 ④ **헛집기**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사명당의 종교적 신념과 송정의 윤리적 신념의 충돌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44 답 나, 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나. 송정은 동래에 도착한 사명당을 홀대하여 사명당을 화나게 하였다.

‘대접하는 도리와 수응하는 일이 가장 소홀하거늘 사명당이 대로하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다. 사명당은 송정이 높은 벼슬을 믿고 방자하게 구는 것을 비판하였다.  
 “네 한갓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히 여겨 방자함이 태심하니”라는 사명당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ㄱ. **상반** 송정은 사명당이 사신으로 온다는 소식을 짐작차 않은 것으로 여겼다.  
 송정은 사명당을 하찮게 생각하며, “상례로 대접하라. 제 비록 부처라 한들 어찌 곧이들으리오.”라며 심상히 여겼다.

## 045 답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교체** 사명당은 임금의 허락을 구한 뒤 자신을 소홀히 대접하는 송정에게 형벌을 내린다.  
 사명당은 송정을 ‘선참후계’, 즉 송정을 먼저 처형한 뒤 임금에게 아뢰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오.이

- ① 하인은 송정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한다.  
 하인은 사명당을 상례로 대접하라는 송정의 말을 듣고 “지방관의 도리에 봉명 사신을 가벼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후 사명당이 자신을 홀대한 송정을 베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왜왕은 채만홍의 제안에 따라 사명당을 불같이 달군 철마에 태워 시험하려 하지만 실패한다.  
 왜왕은 채만홍의 의견에 따라 사명당에게 불같이 달군 철마를 타도록 한다. 그런데 사명당이 철마를 타려고 하자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불어난 물에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는다. 하지만 사명당이 있는 곳은 비 한 방울 젖지 않았다. 따라서 왜왕의 시험은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왜왕은 마지못하여 항서를 써 보내지만 이에 사명당은 왜왕의 머리를 베어 바칠 것을 요구한다.  
 왜왕은 마지못해 항서를 써 보내지만, 사명당은 “왜왕의 머리를 베어 상에 받쳐 들이라.”라고 요구하였다.
- ⑤ 사명당은 용왕에게는 자신의 몸을 드러내게 하고, 관백에게는 왜왕이 그 모습을 보게 하라고 명령한다.

사명당이 용왕을 불러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어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라고 말하자, 용왕이 운무 중에 몸을 드러낸다. 그리고 사명당은 관백에게 “네 빨리 돌아가 왜왕에게 일러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라고 하였다.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양반 대신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군.

신이한 능력을 지닌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 오.오.이

- ①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 국가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군.  
「임진록」에서는 사명당이 왜국을 응징하고 왜왕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전쟁으로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 ②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초인적 능력을 지닌 사명당을 당해 내지 못하는 왜인들의 모습을 통해 조선인의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통해,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군.  
“지방관의 도리에 ~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라는 하인의 말을 통해 지배층의 어리석음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왜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군.  
왜왕이 여러 차례 항복하는 모습은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 047 ㉮ (1) 허구적 (2) 왜, 조선 (3) 자존감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윗글은 실제로 일어난 전쟁인 임진왜란을 (세속적, **허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보기〉에서 이 글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여 역사에 허구를 더하고 있다고 하였다.
- (2) **교체** 사명당이 보여 주는 신이한 능력은 (조선, **왜**)보다 (**조선** 왜)이/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삼아 왜보다 조선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3) **교체** 사명당이 왜왕을 굴복시켰다는 설정은 전란으로 상처받은 민족의 (**자존감**, 자책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6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왜왕이 사명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의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048 ㉮ ③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왜왕이 사명당에게 불에 달군 철마를 타게 하자, 사명당이 정히 말을 타는 모습에서 **왜왕의 시험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생불다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사명당의 생불다운 면모는 왜왕의 시험을 뛰어난 도력으로 극복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하였다. 왜왕의 시험을 겸허히 수용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송정이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요.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라고 말하는 데서 당시 하층민이었던 승려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군.  
승려(중)라는 이유로 사명당을 하찮게 여기는 송정의 모습에서 당시 하층민이었던 승려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사명당이 자신을 ‘일국대사마대장군’이자 ‘봉명 사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사명당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지위를 획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사명당은 자신이 비록 중이지만 “일국대사마대장군이요 봉명 사신”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소홀하게 대접한 송정을 처형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명당이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높은 지위를 획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사명당이 용왕에게 “얼굴을 드러내”라는 명령을 내리고, 용왕이 그 명령을 따르는 모습에서 용왕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우월감을 확인할 수 있군.

사명당이 용왕에게 명령을 내리고 용왕이 그 명령을 따라 얼굴을 드러내어 왜왕을 위협하는 모습 등에서, 용왕이 조선을 보살핀다는 설정이 드러나며 그에 따른 왜에 대한 우월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왜왕이 이때를 당하여 삼훈이 흩어지며 칠백이 달아나니라.’에서 사명당이 조선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사명당이 왜왕의 항복을 받아 내고, 왜왕은 삼훈이 흩어지며 칠백이 달아났다는 데서, 조선의 완전한 승리를 확인할 수 있다.

## 06 최척전

### 작품 분석

본문 36~39쪽

작가 조위한

갈래 군담 소설, 애정 소설, 한문 소설

주제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 특징 ① '만남-이별'이 반복되며 사건이 전개됨.  
 ② 실제로 있었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③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 등으로 공간적 배경이 확장됨.

**단숨에 읽기** 남원에 사는 최척은 아버지 최숙의 친구인 정 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 옥영을 만나고, 두 사람은 혼인을 약속한다. 왜병이 침입하자 최척은 의병으로 참전하고, 혼인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 옥영의 어머니 심씨는 옥영을 부잣집 아들과 혼인시키고자 하나, 옥영은 최척을 기다린다. 돌아온 최척과 옥영이 혼인하여 첫아들 몽석과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최척은 명나라의 장수 여유문의 총애를 받아 명나라로 간다. 한편 옥영은 남장을 하고 왜병 돈우에게 붙들리는데, 옥영을 가엽게 여긴 돈우는 옥영을 데리고 다니며 장사를 한다. 포로로 잡힌 최숙과 심씨는 연곡사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몽석을 만나 남원으로 돌아간다. 여유문이 죽자 최척은 주우와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 안남(베트남)에서 옥영과 재회한다. 최척과 옥영은 중국에 정착해 둘째 아들 몽선을 낳는다. 이듬해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최척은 명나라 병사로 출전하였다가 후금의 포로가 된다. 이때 조선에서 참전한 몽석도 포로로 잡혀 와 포로수용소에서 최척과 극적으로 재회한다.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둘은 고향으로 가고, 옥영 역시 몽선과 함께 천신만고 끝에 고국에 돌아와 남원에서 마침내 온 가족이 해후한다.

### 한 줄 요약

- 남장을 한 (옥영)이 돈우와 함께 장사를 하러 다님.
- 최척을 신임하고 아껴 주었던 (여유문)이 죽음.
- 최척이 (주우)의 제안에 따라 함께 장사를 하러 떠남.

## 049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사건 왜곡** 청성산에 들어감.

최척은 여유문이 죽은 후 청성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마음먹지만, 주우의 만류와 설득으로 인해 청성산에 가지 않고 안남으로 가게 된다.

### 오.오.이

- ① 일본 나고야에 머무름.  
 옥영은 전쟁 중 왜병 돈우에게 잡혀 일본 나고야에 있는 돈우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 ②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다님.  
 전쟁 이후 옥영은 돈우를 따라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지방 일대를 배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 ③ 중국 소흥부에 머무름.  
 최척은 중국 소흥부에서 여유문과 함께 살았다.

- ④ 동정호, 악양루 등의 명소를 들름.

여유문이 죽은 후 의탁할 곳이 없어진 최척은 동정호, 악양루 등의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 050 ㉮ (1) 돈우 (2) 여유문 (3) 주우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옥영은 전쟁 중 왜병 (돈우)에게 잡혀 그의 집인 일본 나고야에서 생활하였다.  
 옥영은 돈우라는 왜병에게 붙잡혀, 일본 나고야에 있는 그의 집에서 생활하였다.
- (2) **교체** 최척은 (여유문)와/과 함께 중국 소흥부에서 머물다가 그가 죽은 후 강호를 떠돈다.  
 중국 소흥부에서 여유문과 지내던 최척은 여유문이 병들어 죽자 강호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 (3) **교체** 최척은 신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만, (주우)의 만류와 설득으로 인해 안남으로 가게 된다.  
 최척은 세상에 뜻을 버리고 축의 땅으로 찾아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주우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상선을 타고 안남에 간다.

## 051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여유문은 자신의 혼사 제안을 끝까지 거절한 최척을 의롭게 생각하면서도 저운해하였다.  
 여유문은 자기 누이동생과 최척을 맺어 주려고 했으나, 최척은 온 집안이 왜적에게 변을 당해 생사도 모르는데 자신만 편안하게 아내를 얻을 수 없다며 거절한다.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의롭게 여기고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여유문이 최척에게 서운함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돈우는 옥영을 일본으로 데려간 뒤 자신의 뱃일을 돕게 했다.  
 옥영은 돈우라는 왜병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돈우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며 옥영에게 뱃일을 돕게 하였다.
- ② 옥영은 목숨을 끊고자 했으나 꿈에 장록불이 나타난 뒤 다시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삶에 뜻을 잃은 옥영은 여러 번 바다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고자 하였으나, 어느 날 꿈에 나타난 장륙불의 “뒤에 반 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는 죽지 말고 열심히 살거 라.”라는 말을 들은 뒤 ‘다시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 ④ 최척은 여유문이 죽은 뒤 떠돌아다니다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축의 땅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여유문이 병들어 죽은 뒤 의탁할 곳이 막막하게 된 최척은 강호를 떠돌며 두루 명승지를 유람하다가 세상에 뜻을 버리고 축의 땅으로 찾아가 신선이 되는 법을 배우려고 하였다.

- ⑤ 주우는 친하게 지내던 최척을 찾아와 술을 마시며 자신과 함께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우는 최척과 예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최척이 축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찾아와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오나라와 월나라를 오가면서 비단과 차를 팔자고 제안하였다.

## 052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그릇된: 어떤 일이 사리에 맞지 아니한.
- 실리: 실제로 얻는 이익.

### 정·정·이

- ⑤ 상대방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주우는 최척을 찾아와 신선이 되려는 생각이 그릇된 것이라며 세상의 이치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또 자신과 함께 장사를 하며 남은 생애를 즐기자며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자신의 실리를 감추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주우가 자신의 실리를 감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부재**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주우는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며 최척을 위로하고 있지 않다.
- ③ **부재**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의 동조를 구하고 있다. 주우는 자신과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 ④ **부재** 윤리적 명분을 들어 상대방에게 따당한 충고를 하고 있다. 주우가 윤리적 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53 ㉔ ㄱ, ㄷ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ㄱ. 청성산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최척에게 자신과 함께 장사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나와 함께 배를 타고 ~ 차를 팔며 남은 생애를 즐기는 건 어떠한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ㄷ.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오래 살 수 있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들 오래 살고 싶어 ~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ㄴ. **상반** 신선이 되는 일은 과정이 고생스럽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 산 귀신과 이웃이 되려 하는가?”라는 주우의 말을 통해, 그가 신선이 되는 일은 고생스러우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여김을 알 수 있다.

## 054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인물들의 삶을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 속에서 그려냄으로써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유재란, 1600년’, ‘나고야, 소흥부’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을 밝혀 역사적 사건과 결부된 옥영과 최척의 삶을 현실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최척과 옥영의 성격이 변화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단지 옥영은 꿈에 나타난 장륙불의 말을 듣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을 뿐이고, 최척은 주우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게 되었을 뿐이다.
- ② **부재**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등장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서술자가 개입하여 등장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 ③ **부재** 전작의 대립 양상을 중심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선악의 대립 양상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 작품의 주제는 권선징악이 아니다.
- ④ **부재**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전기적 요소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옥영과 최척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도 않다.

## 055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보기>에서 설명한 대응 구조는 옥영과 최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군.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은 옥영과 최척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지내는 모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구조 속에 옥영과 최척 사이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오.오.이

- ① ㉔, ㉔가 지닌 품성은 옥영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으로 볼 수 있겠군.

돈우(㉔)는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성품을 지닌 인물이고, 주우(㉔)는 '남에게 배플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기상이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두 인물의 품성은 옥영과 최척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내기에 적절한 인물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옥영이 ㉔에게 '남자인 체'하는 것과 최척이 ㉔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이후에 전개될 사건과 연관이 있겠군.

옥영이 돈우(㉔)에게 남자인 체하는 것은, 이후 옥영이 돈우를 도와 함께 배를 타고 장사를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최척이 여유문(㉔)의 혼사 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최척이 아내를 얻어 정착하여 살지 않고 주우를 따라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보기>에서 설명한 구성은 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옥영과 최척의 삶을 함께 보여 주는 데 효과적이겠군.

옥영과 최척의 삶을 병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쟁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두 인물의 삶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삶에 뜻을 잃은' 옥영과 '세상에 뜻을 버린' 최척에게 삶의 의욕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㉔와 ㉔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군.

삶에 뜻을 잃었던 옥영은 장륙불(㉔)의 꿈을 꾀 후 다시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 또한 세상에 뜻을 버리고 신선이 되고자 했던 최척은 주우(㉔)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쾌해지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 주우와 함께 떠난다. 따라서 ㉔, ㉔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056 ㉔ (1) ○ (2) ○ (3) × (4)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돈우는 옥영이 여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  
돈우는 '옥영이 여자인 줄은 끝내 몰랐'다고 하였다.  
(2) 옥영은 꿈속에서 만복사 부처의 계시를 받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 (○, ×)

**051**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3) **사건 왜곡** 여유문은 최척의 누이동생과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였다. (○, ×)

여유문은 최척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로, 자기 누이동생과 최척을 맺어 주려고 했으나 최척이 끝내 사양하였다.

- (4) 윗글은 옥영과 최척의 삶을 병렬적으로 서술하면서 두 인물의 삶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 ×)  
이 글은 '이때'를 중심으로 앞부분에서는 옥영의 삶을, 뒷부분에서는 최척의 삶을 제시하여 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는 옥영과 최척의 삶을 병렬적으로 함께 보여 주고 있다.

## 057 ㉔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최척이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은 것은 주인공을 영웅적으로 형성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유문이 최척과 의형제를 맺고 자기 누이동생과 혼인하기를 원하는 데서 여유문이 최척을 신임하고 아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척의 영웅적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보기>에서도 이 작품이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민족적 자존심의 고취에 역점을 두는 다른 영웅 소설과 다르다고 하였다.

### 오.오.이

- ① 최척과 옥영은 당대 민중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대변하고 있다.  
② 옥영이 전란으로 최척과 헤어지게 된 것에서 당대의 현실이 암담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최척과 옥영 가족이 겪은 일은 당대 대다수 인간들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피해를 보여 준다.  
최척, 몽석과 헤어지게 된 옥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할 정도로 당대의 현실은 암담하고 비극적이었으며(①, ②), 이로 인해 민중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④).  
⑤ '기우록'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고려할 때 옥영의 꿈에 나타난 장륙불의 말은 최척과 옥영의 재회를 암시한다.

'기이한 만남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고려하면 옥영의 꿈에서 장륙불이 말한 '좋은 일'은 옥영이 최척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07 김진옥전

### 작품 분석

본문 40~43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적강 소설, 전기 소설

주제 고난을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과 영웅의 일생

- 특징 ① 남녀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은 대가로 지상에서 고난을 겪음.  
②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함.  
③ 혼인의 결정에 부모나 황제보다 당사자의 의지가 반영됨.

**단숨에 읽기** 옥황상제의 향안전 사동이었던 진옥은 향안전 시녀와 희롱한 죄로 명나라 이부 상서 김시광의 아들로 태어난다. 선우족의 침략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된 진옥은 화산 도사를 만나 무예와 학문을 익힌다.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진옥은 한 노인에게서 앞날에 대한 예언을 받고 유 승상의 딸 유 소저를 찾아가 인연을 맺는다. 진옥은 과거에서 장원 급제하고 천자는 진옥을 무양 공주와 혼인시키려 하나, 진옥은 유 소저와의 인연을 들어 거절한다. 유 승상이 둘의 혼인을 반대하지만, 황태후의 주선으로 진옥과 유 소저는 결국 혼인한다. 선우족이 재침하자 진옥은 대원수가 되어 출전하여 항복을 받아 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아버지를 만난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오던 진옥은 용궁에 가게 되고 남해 용왕의 부탁으로 용궁을 습격한 적을 격파한다. 이때 진옥과 혼인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던 무양 공주가 진옥의 가족을 해하려 하지만, 화산 도사의 도움으로 유 부인의 위급함을 알게 된 진옥이 급히 돌아와 부인을 구한다. 이후 진옥은, 태자를 죽이고 역모를 꾸민 무양 공주와 부마를 저지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뒤, 부인과 함께 천상으로 올라간다.

### 한 줄 요약

- ① (용궁)에서 공을 세운 진옥이 여러 보물을 받고 용궁을 떠남.
- ② 진옥의 아들 (애운)이 (용왕)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함.
- ③ 진옥의 아내 (유 부인)이 선영과 동한에게 불합쳐 감.
- ④ 진옥이 (화산 도사)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 부인을 구함.

## 058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러서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김진옥은 화산 도사가 마련해 준 배를 타고 만리강을 건너 장안 삼거리에서 사람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유 부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들어 구하고 있다. 즉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러서야 유 부인이 있는 곳을 알고, 유 부인을 구한 것이다.

### 오.오.이

-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반 대관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를 통해 김진옥이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용왕은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 천자에게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라며 글을 써 예단을 봉하고 김진옥에게 주었다. 이를 통해 용왕이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무사가 달려들어 유 부인을 데려가려고 하자, 난영은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가 원사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슬피 통곡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고 잡아간 무사는 애운이 통곡하며 말하자, 애운을 불쌍히 여기고 달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059 ㉡ ① 유 부인 ② 신자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김진옥은 장안 삼거리에서 (애운, 유 부인)과 적극적으로 상봉하게 된다.  
김진옥이 장안 삼거리에서 상봉한 것은 유 부인이다. 아들 애운과는 그 전에 상봉하여 함께 장안 삼거리에 도착하였다.
- (2) **교체** 김진옥은 선영과 동한 일당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천자, 신자)의 도리를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었다.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60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천자의 지혜로운 신하가 수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약소한 선물을 올린다.

**058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글월(㉠)에는 수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신하를 둔 천자에게 선물을 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천자의 신하가 본국으로 돌아간 직후에 최대한 빨리 날을 잡아 천자를 뵈고자 합니다.

용왕이 속히 천지를 빚고자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사건 왜곡** 천자의 뛰어난 신하가 ~~주부에서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왕이 혼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사건 왜곡** 천자의 영민한 신하가 ~~주부에서 중책을 맡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왕이 원수의 공을 치하하고 이별하는 상황이므로 김진옥에게 수부의 중책을 맡기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건 왜곡** 천자의 신하 편에 보내 드리는 예단으로 ~~귀국에 닥친 국난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용궁에 들른 것이므로, 국난이 닥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용왕이 보낸 예단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061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난관** 일을 하여 나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고비.
- **조용**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 정.정.이

- ①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 주고 있다.  
[A]는 유 부인을 구하기 위해 김진옥과 애운이 만리강을 건너려 하지만 강을 건널 배가 없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는 유 부인을 다급히 구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서사의 긴장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 오.오.이

- ② **부재** 주인공의 심정과 ~~조용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A]에서는 김진옥의 심정과 조용하는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 ③ **헛집기**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A]에서 김진옥은 강을 건너기 위해 사공을 찾았는데, 이러한 태도가 김진옥의 성격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부재**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A]에는 김진옥과 대화하는 사공의 말이 제시되고 있을 뿐,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⑤ **헛집기**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A]에는 김진옥이 유 부인을 구하려 빨리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공의 말을 통해 어떻게 배가 만리강에서 치워졌는지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 정.오 지름길

- ⑤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의 서사적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예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서술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 선지는 앞부분에 제시된 서술 방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서술 방식은 맞고 그 효과가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062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김진옥이 다급하게 유 부인을 구하려 가야 하는 상황에서 빨리 가지 못하는 원인이 제시되어 있다.  
[A]에는 유 부인을 구하기 위해 김진옥과 애운이 만리강을 건너려 하지만, 강을 건널 배가 없어서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 ㉢. 사공의 말을 통해 수천 척의 배가 만리강에서 치워진 연유가 밝혀지고 있다.  
[A]에서 사공은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를 모두 올려 가게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오.오.이

- ㉡. **사건 왜곡** 김진옥이 ~~사공과 대립하여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서사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A]에서 김진옥은 사공과 대립하고 있지 않다.
- ㉢. **사건 왜곡** 김진옥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공을 찾아 ~~간절히~~ 부탁하였다.  
[A]에서 김진옥은 사공에게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는 연유를 듣고 있을 뿐, 사공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지는 않다.

## 063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조목이 다 슬퍼하더라.’ 등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인물의 카문과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며, 인물의 카문과 내력을 소개하고 있지도 않다.
- ② **부재** 시대적 배경을 상술함으로써 인물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③ **헛짚기** 인물의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작품의 교훈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부인이로다.’라는 원수(진옥)의 내적 독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수레 위의 인물이 부인임을 확신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작품의 교훈성을 높이는 것과는 관계없다.
- ④ **헛짚기** 대화를 통해 동일한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용왕의 말을 통해 원수(진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드러나고 있을 뿐, 동일한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다.

064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땀

- **신물**: 신령스럽고 기묘한 물건.
- **환송**: 떠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보냄.

✔ 정.정.이

- ⑤ **헛짚기**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며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채’, ‘칼’, ‘금표통’을 받는다. 이러한 신물은 김진옥이 용궁을 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것일 뿐, 이를 통해 김진옥이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오.오.이
-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는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옥은 용왕에게서 받은 진주로 유 부인을 살린다. 이는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옥은 등곡 용왕을 물리쳐 남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는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하는 것은,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는 설정이다. 이는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065 ㉮ (1) ○ (2) × (3) ○ (4)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무양 공주가 김진옥에게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하나, 애운은 용왕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다. (○, ×)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하나, 김진옥 덕분에 수부를 보전하게 된 용왕은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다.
- (2) **사건 왜곡** 김진옥은 용왕에게 받은 ‘비단’으로 유 부인을 감싸 기절한 유 부인을 안정시킨다. (○, ×)  
김진옥이 용왕에게서 받은 ‘비단’은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김진옥이 이것으로 유 부인을 감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3) 김진옥이 용궁에서 받은 ‘부채’, ‘칼’, ‘금표통’은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신물이다. (○, ×)  
용궁에서 김진옥은 ‘부채’, ‘칼’, ‘금표통’을 받는다. ‘부채’는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게 되며, ‘칼’은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표통’은 분로주라는 술이 들어 있는데 천만인이

먹어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4) **교체** 수중계와 지상계는 **동일성**이 강화되면서 윗글의 공간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

이 글에서는 이질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을 뿐, 두 세계의 동일성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 066 답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본심이 충천한 김진옥이 동한 등을 죽이지 않고 부인만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군**.

김진옥이 동한 등을 죽이지 않고 위기에 처한 부인만을 구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천자의 명령 없이 일반 대관을 자기 뜻대로 처치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행위에서 위기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유발된다고 할 수 없다.

### 오.오.이

- ① 유 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혼사와 관련된 애정 문제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김진옥에게 앙심을 품은 무양 공주가 계교를 짜 김진옥의 부인을 죽이려 하는 것이므로, 이는 혼사와 관련된 애정 문제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산 도사가 강을 건너지 못하는 김진옥을 위해 일엽소선을 마련하는 것에서 영웅 소설의 환상성이 드러나는군.

배가 없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김진옥을 보고 화산 도사가 일엽소선을 지휘하여 강변에 닿게 하는 것에서 초월적 존재의 개입에 따른 영웅 소설의 환상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진옥이 애운을 데리고 강에 다다랐을 때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었던 것은 영웅에게 닥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위기에 처한 부인을 구하려는 김진옥이 강에 다다랐을 때 한 척의 배도 없었던 것은 영웅에게 닥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④ 강수에 던져진 애운이 육지로 나오게 된 일과 기절한 유 부인이 다시 호흡이 통하게 된 일에서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는군.

강에 던져진 애운이 용왕의 명령을 받은 용신에 의해 구출된 일과 기절한 유 부인이 용왕이 준 진주로 호흡이 다시 통하게 된 일에서, 초현실적 존재의 도움에 따라 사건이 해결되는 유사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 08 금방울전

### 작품 분석

본문 44~47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전기 소설

주제 금방울의 시련 극복과 혼사 성취

- 특징 ①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 영웅 금방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② 여러 설화의 모티프가 사용됨.  
③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서술되며, 전기성이 드러남.

**단숨에 읽기** 동해 용왕의 아들(용자)과 남해 용왕의 딸(용녀)이 혼인하여 신 행길에 오르나, 악귀에게 변을 당한다. 옥황상제의 은혜로 용자는 명나라 장원 부부의 아들 해룡으로, 용녀는 막씨에게서 금방울로 태어난다. 막씨는 금방울을 괴이하게 여겨 없애고자 하지만, 금방울은 뛰어난 재주로 막씨를 돕고 따른다. 난리가 일어나 피난을 가던 장원 부부는 해룡과 헤어지고, 해룡은 도적 장삼에 의해 길러진다. 해룡은 장삼의 아내의 학대로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그때마다 금방울이 나타나 도와준다. 한편 금방울은 산출귀몰한 재주로 막씨와 장원 부부의 사랑을 받는다. 해룡은 집을 나와 산속에서 악귀를 만나 위태롭게 되는데, 금방울이 나타나 대신 악귀에게 먹힌다. 해룡은 악귀의 소굴에 들어가 악귀를 물리치고, 금방울과 납치되었던 공주를 구출한다. 그 후 부마가 된 해룡은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온 금방울은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된다. 어사가 된 해룡은 전국을 돌다가 장공 부부와 금방울을 만난다. 황제는 금방울을 해룡과 혼인시키고 해룡과 공주, 금방울은 부귀공명을 누리다 승천한다.

### 한 줄 요약

- ① 막씨가 (금방울)을 낳고 화근이 될까 걱정해 없애려 하지만, 금방울은 산출귀몰한 재주로 막씨를 도움.
- ② (금방울)을 제압하려던 고을 수령 장공이 막씨의 (호행)에 감복하여 막씨를 보살피며 줌.
- ③ 난중에 잃은 자식인 (해룡)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병을 얻어 죽었던 (장공 부인)이 금방울 덕에 되살아남.
- ④ 장공 부인이 (막씨)와 형제를 맺고 금방울에게 (금령)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아끼며 사랑함.

## 067 답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경과: 일이 되어 가는 과정.

### 정.정.이

- ②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장공 부인이 병을 얻어 죽었다가 되살아나기까지의 과정과 장공 부부가 아들을 잃은 사연 등이 서술자의 요약적인 서술과 장공 부부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는 작품 외부에서 금방울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부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통해 불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금방울에 대한 장공의 고마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④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이 뇌양이라는 것은 제시되어 있으나 배경 묘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부정적 인물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글에 부정적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 068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한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인 금방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 ㉣.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  
금방울의 출생이나 생김새, 행적 등에서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 오.오.이

- ㉢. **부재**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장공 부부가 난중에 자식을 잃었다는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서사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다.
- ㉣. **헛집기** 공간의 특징을 나열하여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한다.  
장공이 막씨의 효행을 듣고 '초막을 헐고 그 터에 크게 집을 지으며 정문을 세'웠다는 부분에서 공간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인물 간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 069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인물의 행동을 열거함으로써 인물의 비범함을 강조하고 있다.  
'침떠 나는 세도 잡고 ~ 흠이 묻지 아니하더라.'에서 금방울의 초월적 행위를 열거함으로써 비범함을 강조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을 통해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은 드러나지 않으며, 비극성이 강화되고 있지도 않다.
- ③ **부재**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부재**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의 행위가 지닌 사회적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부재** 초월적 공간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금방울의 초월적 능력이 제시되고 있을 뿐, 초월적 공간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 070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 막씨와 장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장공 부인은 되살아난 뒤 막씨의 집에 찾아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막씨와 형제가 된다. 그러므로 집(㉢)은 막씨와 장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 오.오.이

- ① ㉢: 막씨의 당시 처지를 보여 주는 공간이다.  
초막(㉢)은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이어 조그마하게 지은 막집으로, 가난한 막씨의 처지를 보여 준다.
- ② ㉢: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  
땃새 동안 아궁이에 있던 금방울이 상하기는커녕 향내(㉢)가 난다고 하는 것에서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가 드러난다.
- ③ ㉢: 막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상징한다.  
장공은 막씨의 효행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문(㉢)을 세우고 일생을 편안케 해 준다. 이는 막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 금방울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보여 준다.  
금방울에게 '금령'(㉢)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은 금방울의 존재가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

## 071 ㉢ (1) × (2) ○ (3) ○ (4)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막씨는 부유한 환경에서 금방울을 출산하였다. (○, ×)  
막씨가 초막에서 금방울을 해산했다고 하였으므로 부유한 환경에서 출산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막씨는 자신이 낳은 금방울을 보고 두려워하며 없애고자 하였다.

(○, ×)

금방울을 낳은 막씨는 '대경하여 괴이히 여기며' 금방울을 없애고자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 장공 부인은 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막씨와 금방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 ×)

병세에서 회복한 장공 부인이 막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을 만만사레'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4) **사건 왜곡** 장공은 금방울이 요괴롭다는 말을 듣고 금방울을 제압하기 위해 이름을 '금령'이라 붙였다.

(○, ×)

장공은 금방울이 요괴롭다는 비방을 듣고 금방울을 제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금방울이 장공 부인의 목숨을 살려 준 일로 장공 부부는 금방울을 사랑하여 금방울에 '금령'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 072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곤궁: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 보답: 남의 호의나 은혜를 갚음.

정.정.이

④ 막씨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살펴 준 은혜에 보답함.  
'장공이 막씨의 효행을 듣고 ~ 월음을 주어 일생을 편안케 하니라.'와 "이는 막씨가 보은한 것이로다."로 보아, 보은 초에는 막씨가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살펴 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 ① **헛집기** 막씨로 하여금 부인을 구할 기회를 준 것에 보답함.  
부인은 보은초를 먹고 목숨을 구하였으므로, 보은초에 부인을 구할 기회를 준 것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헛집기** 막씨의 자식을 데려다가 사랑해 준 고마움에 보답함.  
막씨의 자식인 금방울을 장공 부부가 사랑해 준 것은 보은초를 먹고 장공 부인이 살아난 이후의 일이다.
- ③ **헛집기** 막씨를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에 보답함.  
막씨를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헛집기** 막씨가 출산 후 잃었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에 보답함.  
막씨가 출산 후 건강을 회복하도록 장공이 지원해 주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73 ㉠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교체** 막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금방울의 변질을 돕기 위한 행동이다.

막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금방울을 없애려는 행위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시련을 겪는 금방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오.오.이

- ② 막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행위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이다.  
막씨가 금방울을 깊은 물과 아궁이에 들이치는 것은 막씨가 금방울을 없애고자 한 행동이다. 이는 어머니에 의한 금방울의 시련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막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여전히 굴러 따라오는' 것은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막씨가 금방울을 거둬 버려도 금방울이 계속 굴러 따라오는 것은 막씨 곁에 있겠다는 금방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④ 금방울이 '나는 새도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다.  
금방울이 나는 새를 잡고 산에 오르기를 평지같이 다니는 것 등은 금방울이 지닌 여러 비범한 능력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금방울이 '보은초'를 구해 와 장공의 부인을 살려 내는 것은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금방울이 죽음에 이른 장공 부인을 보은초로 되살리는 것은,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074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범위 오류** 윗글과 <보기>의 모친은 모두 출산으로 화를 입는다.

이 글의 막씨가 금방울로 인해 장공에게 잡혀 있던 것은 일시적으로 화를 입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의 모친은 출산으로 화를 입지 않았다.

오.오.이

- ① 윗글과 달리 <보기>의 자식은 모친을 위협한다.
- ② <보기>와 달리 윗글의 자식은 모친을 도우려 한다.  
이 글의 금방울은 어머니 막씨를 위해 과실을 따 가지고



오거나, 추위를 막아 주는 등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모친을 도우려 한다(②). 반면 <보기>의 구렁이는 장작집에 청혼하기를 주저하는 모친에게 불과 칼을 들고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한다(①).

- ③ 윗글과 <보기>는 잉태의 동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기>의 노부부는 간절히 자식을 원하다가 잉태하였다. 반면 이 글의 막씨는 배가 불러 오는 것을 '행여 남이 알까 근심'하였다고 했으므로 잉태를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윗글과 <보기>의 모친은 모두 자식을 남들 모르게 감추었다.

이 글의 막씨는 금방울을 '남이 알까 저어하여 낮이면 막속에 두'었다고 하였고, <보기>의 모친은 구렁이를 '뒤뜰 굴뚝 옆에 샷샷을 덮어 놓아두었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막씨와 구렁이의 모친 모두 자식이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꺼려 감추었음을 알 수 있다.

## 075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는 장공 부인이 난중에 자식을 잃은 일을 죽어도 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한 말로, 장공 부인이 그 일을 매우 한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의미하는 '각골통한'이다.

### 오오·이

- ② ☒교체 구사일생(九死一生)

'구사일생'은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로, ㉠와는 관계없다.

- ③ ☒교체 사필귀정(事必歸正)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말로, ㉠와는 관계없다.

- ④ ☒교체 준망치한(惛亡齒寒)

'준망치한'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로, ㉠와는 관계없다.

- ⑤ ☒교체 연목구어(緣木求魚)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와는 관계없다.

## 076 ㉡ (1) 대경실색(大驚失色) (2) 주야장천(晝夜長川) (3) 자초지종(自初至終)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막씨는 금방울의 괴이한 생김새를 보고 (대경실색)하였다.

막씨가 매우 놀란 상황이므로,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이라는 의미의 '대경실색'이 적절하다.

- (2) ☒교체 장공 부인은 난중에 잃어버린 자식 해룡을 (주야장천) 그리워하다 병을 얻는다.

장공 부인은 난중에 잃은 자식 해룡을 주야로 그리워했으므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라는 의미의 '주야장천'이 적절하다.

- (3) ☒교체 장공 부인이 살아나자 장공은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며 기뻐하였다.

장공 부인이 깨어난 뒤 장공은 방울의 수말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뜻하는 '자초지종'이 적절하다.

## 077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더니

㉢에서 막씨는 아이를 낳고 보니 사람이 아니라 금방울인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 상황에서 막씨가 할 수 있는 말은 '신기하고 기묘하여 그 속내를 알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 오오·이

- ① ☒교체 개 발에 편자라더니

'개 발에 편자'는 '옷차림이나 지닌 물건 따위가 제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교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더니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 ④ ☒교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고 이유를 붙일 수 있다는 말'이다.

- ⑤ ☒교체 팔로 메주를 쏠대도 곧이듣는다더니

'팔로 메주를 쏠대도 곧이듣는다'는 '지나치게 남의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 09 홍길동전

### 작품 분석

본문 48~51쪽

작가 허균

갈래 영웅 소설, 사회 소설, 국문 소설

주제 적서 차별의 문제점과 이상 세계의 건설

특징 ① 사회 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함.

② 영웅 소설의 전형적 인물이 등장하며, 전기성이 두드러짐.

③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소설임.

**단숨에 읽기** 홍 판서와 그의 시비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길동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비범하고 총명하여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기상을 보였다. 시비에게서 태어난 서자인 탓에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한을 품는다. 홍 판서의 첩 초란은 재주 많은 길동이 장래에 화근이 될까 두려워하여 자객을 시켜 길동을 없애려고 하나 실패하고, 길동은 집을 떠난다. 출가한 길동은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게 된다. 길동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무리들(활빈당)과 함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의 탐관오리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에 임금이 길동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니, 전국에서 300여 명이나 되는 길동이 잡혀 온다. 길동의 도술을 당해 낼 수 없자, 조정에서는 길동의 형 인형을 시켜 길동을 화유하고, 임금은 길동의 소원대로 병조 판서를 제수한다. 길동은 평생의 한을 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며 조선을 떠난다. 시간이 지나 홍 판서의 병세가 위중하자 길동은 인형을 대신해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친다. 그리고 울도국의 왕이 되어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며 태평성대를 누린다.

### 한 줄 요약

- ① 홍길동이 (병조 판서) 벼슬을 제수받고 (조선)을 떠난.
- ② 홍길동이 인형을 대신해 아버지 홍 판서의 (삼년상)을 치름.
- ③ 홍길동이 (울도국)의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누림.

## 078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교체** 울도국 태수는 길동이 보낸 격서에 놀라 행복했다.

길동이 보낸 <sup>왕</sup> 격서에 놀라 행복한 것은 울도국 태수가 아니라 울도국 왕이다. 울도국 태수는 길동의 군사를 보고 크게 놀라 왕에게 보고하는 한편, 한 부대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다 길동에게 죽임을 당했다.

### 오.오.이

①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오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오해했다.

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와 임금 앞에 엎드리자, 임금은 길동을 선동으로 오해하여 “선동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 무슨 일을 말하고자 하나뇨?”라고 하였다.

② 인형은 부친의 장례식에 나타난 길동을 동생으로 대했다.

인형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길동을 ‘아우’라고 부르며 자식의 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길동은 잘 훈련된 정예병을 이끌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길동은 스스로 선봉장이 되고 마속으로 후군장을 삼아,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길동은 부하들에게 벼슬을 주고 울도국을 다스렸다.

왕위에 오른 길동이 마속과 최철을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나머지 여러 장수들에게도 벼슬을 내려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 079 ㉢ (1) 길동 (2) 제도 (3) 울도국 태수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임금은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을 때 공중에서 내려온 소년은 (길동 선동)이었다.

임금이 달빛을 받으며 후원을 걸을 때 공중에서 한 소년이 내려와 엎드리자, 임금은 그를 선동으로 착각하였으나, 그 소년은 자신이 전임 병조 판서 홍길동이라고 고하였다.

(2) **교체** 길동은 임금에게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 (제도 울도국)으로 들어가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며 군법을 연습하였다.

길동은 조선을 하직하고,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가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업에 힘쓰고 무기 창고를 지으며 군법을 연습하였다.

(3) **교체** (울도국 왕, 울도국 태수)은/는 길동이 울도국을 치자 그에 맞서 싸웠다.

**078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울도국을 친 길동에 맞서 싸운 것은 울도국 태수임을 알 수 있다.

## 080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⑤ **헛짚기** 길동은 혼자만의 능력으로 충분히 울도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내가 이제 울도국을 치고자 하니 그대들은 정성을 다하라.”로 볼 때, 길동이 혼자만의 능력으로 충분히 울도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오.이

① 길동은 높은 벼슬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괴로워했다.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으로는 ~ 선전관 벼슬길이 막혔습니다.”를 통해 길동이 올라갈 수 있는 벼슬에 한계가 있어 괴로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길동의 어머니와 모부인은 모두 길동의 지술에 탄복하였다.

길동의 모친인 춘섬은 뱃자리에 다녀온 후 길동의 지식에



탄복하였다. 또한 본국에 이른 인형이 모부인을 뵈옵고 전 후 사실을 고하니 부인이 신기하게 여겼다고 한 것으로 보아 모부인 역시 길동의 지술에 탄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길동의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길동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 사이 어디 갔느냐? 아버지께서 평소에 유언이 간절하셨는데, 이제 오니 어찌 자식의 도리어겠느냐?”라는 인형의 말을 통해 길동의 아버지가 자신이 죽기 전에 길동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길동의 형은 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길동을 신뢰하였다.

“너의 재주 기이한지라, 좋은 터를 얻었으면 무슨 염려가 있으리오.”로 볼 때, 길동의 형(인형)은 길동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고 신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81 ㉒ ②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공고해지고**: 단단하고 튼튼해지고
- **재판**: 다시 편성함. 또는 그런 편성.

### 정.정.이

- ② 부친의 생전에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는 산소를 모시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듯, 길동은 부친 홍 판서로부터 호부호형을 허락받았다. 그리고 홍 판서 사후에 자신이 구한 터에 산소를 모시고 삼년상을 치른다. 이를 통해 자식으로서 길동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부친의 삼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 함께 치르는 과정에서,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지고 있다.

길동은 삼년상을 마치고,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고 농업에 힘썼다고 하였다. 길동이 영웅들과 함께 삼년상을 치른 것은 아니다.

- ③ **헛집기**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함으로써,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친과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길동과 관계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부친의 넓은 인간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상반**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부친 사후 모부인을 중심으로 길동의 가족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인형이 부친 산소에 하직하고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

었다고 하였으므로,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자리에 모부인은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헛집기**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을 배운 길동을 모친이 염려하는 데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길동이 지술을 배웠다고는 하였으나 부친을 좋은 터에 모시기 위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길동의 모친인 춘섬은 길동의 지식에 탄복하였다고 했으므로 주술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가족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082 ㉒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뒷자리**: 뒤편(사람의 무덤)을 쓸 자리. 또는 쓴 자리. = 못자리.

### 정.정.이

- (1) 길동의 어머니 춘섬은 길동이 부친의 뒷자리로 정한 곳을 살펴보았다.

(○, ×)

‘길동이 운구하여 제 모친을 모시고 서강 강변에 이르니 ~ 일을 마치고 함께 길동의 처소로 돌아오니’로 볼 때, 춘섬은 길동이 부친의 뒷자리로 정한 곳을 살펴보았음을 알 수 있다.

- (2) **교제** 인형은 삼년상을 마치고 돌아와 모부인에게 홍 판서의 산소에 대해 아뢰었다.

(○, ×)

인형은 길동에게 산소를 극진히 모시라 당부한 후 산소에 하직하고 본국에 돌아왔다. 삼년상을 치른 것은 길동이다.

- (3) **교제** 길동은 삼년상을 치르며 영웅들을 모아 그들과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썼다.

(○, ×)

‘길동이 제사를 극진히 받들어 삼년상을 마치며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쓰니’로 보아, 길동이 영웅들을 모은 것은 삼년상을 마친 후임을 알 수 있다.

## 083 ㉒ ②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큰 걱정거리가 되었거든.

‘활빈당으로 더불어 사방을 멋대로 떠돌아다니며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었던 것이온데’로 볼 때, 활빈당이 나라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큰 걱정거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능력이 있으나 관직을 얻지 못한 서자들의 무리군.

길동이 서자이기는 하지만 활빈당이 서자들이 모여 조직한 무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헛집기** 임금의 자질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조직되었겠군.

길동이 활빈당 활동으로 조정과 대립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임금의 자질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④ **상반** 길동이 관직에 오르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겠군.

활빈당 활동을 통해 길동은 자신의 문제를 임금에게 알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조 판서 벼슬을 제수받는다. 이로 볼 때, 활빈당이 길동이 관직에 오르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사건 왜곡** 천상계와 지상계에서 모두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겠군.

활빈당이 천상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4 **답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강**

- **등용**: 인재를 뽑아서 씀.
- **타협**: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함.
- **분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
- **괴리**: 서로 어긋라져 동떨어짐.

❖ 정.정.이

③ **헛집기** 봉건 체제의 상징인 임금이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여 길동의 재주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개인적 욕망을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임금은 길동의 뛰어난 재주를 칭찬하였을 뿐, 당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하고 있지 않다. 길동이 병조 판서 벼슬을 받고도 끝내 조선을 떠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함이다. 이는 개인의 욕망이 사회 제도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길동의 벼슬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에 문으로는 홍문관 벼슬이 막히고 무로는 선전관 벼슬이 막혔습니다.”라는 길동의 말을 고려할 때,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폐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이 벼슬을 받아 자신의 행적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길동이 욕망 성취 과정에서 당대의 사회 제도와 타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신분 차별에 저항했던 길동은 병조 판서 벼슬을 받아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게 되자, 과거 자신의 행동을 관청에 폐를 끼치고 조정에 죄를 지은 것이라 표현하였다. 이는 길동이 부조리한 사회 제도와 타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분란**을 일으킨 길동에게 임금이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그 근본 원인은 해소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시 사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임금은 길동에게 벼슬을 내려 길동의 불만을 달랠 뿐 근본적인 원인인 신분 제도나 적서 차별의 문제를 개선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당대 사회가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길동이 울도국을 침략하여 ‘살기 좋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스스로를 ‘의병장’이라 부르며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면, 길동의 욕망 성취 과정에서 행위와 명분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 길동은 이미 평화롭고 살기 좋은 울도국을 침략하면서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아 병사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이는 이상국 건설이라는 개인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명분과 괴리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85 **답 (1) 종 (2) 벼슬 (3) 병조 판서 (4) 울도국**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양반, 종)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등용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폐쇄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084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길동이 등용되지 못한 이유는 그가 종의 자식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길동은 왕에게 (재물, 벼슬)을 받아 개인적 욕망을 성취한 뒤 당대 사회와 타협하여 왕에게 자신의 행적에 대해 ‘폐를 끼치고’, ‘죄를 지었’다고 표현한다.

084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길동이 벼슬을 받아 개인적 욕망을 성취한 뒤 사회와 타협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교체** 길동은 (선전관, 병조 판서)이/가 된 것에 만족할 뿐,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던 신분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왕에게 건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동이 겪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신분 제도의 모순이었으나, 길동이 병조 판서가 되어 벼슬하는 소원을 이루자 이에 대해 건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교체** 길동이 이미 이상적인 사회인 (울도국, 제도)을/를 정벌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은 명분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84번-⑤**의 해설을 참고하면, 울도국 정벌로 길동이 명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모순에 빠졌음을 알 수 있다.

## 086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③ **사건 왜곡** 길동은 ㉢에서보다 ㉣에서 큰 장애를 만나게 된다.

길동은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조선(㉢)으로 돌아와 운구하여 제도(㉣)의 뒷자리로 이동해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다. ㉢와 ㉣에서 모두 길동은 장애를 겪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오·이

① 길동은 ㉡에서 뜻하던 바를 이루고 ㉣로 떠난다.

길동은 조선(㉡)에서 병조 판서를 제수받음으로써 높은 벼슬에 오르는 소원을 이루고 남경 땅 제도(㉣)로 이동한다.

② 길동은 자식의 도리를 위해 ㉢에서 ㉣로 이동한다.

길동은 자식으로서 부친의 상을 치르기 위해 제도(㉣)에서 조선(㉢)으로 돌아온다.

④ 길동은 ㉢에서 조련한 병사들과 함께 ㉣로 이동한다.

길동은 제도(㉣)에서 삼년상을 마치고, 영웅들을 모아 무예를 익혔다. 그리고 잘 조련된 병사들을 이끌고 울도국(㉡)을 치기 위해 이동한다.

⑤ 길동은 ㉢에서보다 ㉣에서 더욱 큰 뜻을 이루게 된다.

길동은 울도국(㉡)에서 왕이 됨으로써 제도(㉣)에서보다 더 큰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0 소대성전

본문 52~55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고난을 극복하고 위업을 달성한 영웅 소대성의 활약상

**특징** ① 인물이 미천한 처지에서 영웅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서술됨.

② 적당 모티프와 이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물의 비범함이 드러남.

**단숨에 읽기**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던 대성은 비를 잘못 내린 죄로 적강하여 명나라 병부 상서를 지낸 소양의 아들로 태어난다. 대성이 10세 때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고아가 된 대성은 집을 떠나 풀팔이와 걸식으로 연명하며 떠돈다. 한편 소양의 옛 친구인 이 승상은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 뒤 월령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한다. 이 승상은 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데려와 딸 채봉과 혼인시키려 한다. 그러나 승상의 부인 왕씨는 대성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이 승상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대성은 학업을 전폐하고 무기력하게 지낸다. 그러자 왕씨와 그의 세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대성을 죽이려 한다. 도술로 자객을 죽인 대성은 집을 떠나 서천 땅으로 향한다. 영보산 청룡사에서 대성은 노승의 도움을 받아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고, 호국이 침략한 것을 알게 된 대성은 노승에게 보검을 받아 절을 나온다. 그리고 고인이 된 이 승상을 만나 보신 갑옷을 얻고, 중원으로 가던 중 명마를 얻는다. 적진에 뛰어들 대성은 적장의 목을 베고, 천자는 대성을 원수로 삼아 호왕을 치게 한다. 대성의 활약으로 나라는 다시 평온해지고, 대성은 노국의 왕이 되어 채봉과 재회하여 선정을 베푼다.

### 한 줄 요약

① 승상이 (청룡)을 만나는 기이한 꿈을 꾸.

② 승상이 월령산 조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만난.

③ 집을 떠난 소대성이 고인이 된 이 승상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음.

## 087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① [A]는 묘사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B]는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의상이 남루하고 머리털이 흩어져 ~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과 같이 대성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으며, [B]에서는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 기쁘고도 슬프도다.”라는 발화를 통해 대성을 만난 승상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 오·오·이

② **부재** [A]와 달리, [B]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A], [B]에는 모두 인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A]에는 대성의 비범함이 드러나는데, 대성은 이러한 자신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여상의 자취 조대에 있건마는 ~ 삼고초려한 유황숙의 자취는 없으니”라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토로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승상을 신이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며 대구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헛짚기** [B]와 달리, [A]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A], [B]에는 모두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헛짚기** [A]와 [B]는 모두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A]와 [B]에 인물들 간의 대화는 나타나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성과 승상은 갈등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A]와 [B]는 **모든**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을 통해 **현재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A]에는 과거 사건에 대한 회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 대성이 '승상이 별세'하였다는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현재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088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A]에서는 인물의 행색을 통해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의상이 남루하고 ~ 검은 때 줄줄이 흘러'에서 아이의 추레한 옷차림과 외모를 서술하여 아이가 가난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A]에서는 인물이 외양과 대조되는 내면을 지녔음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 '의상이 남루하고 ~ 은은한 기품이 때 속에 비치거늘' 등에서 아이가 추레한 외양과 달리 은은한 기품을 지녔음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 **부재** [B]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한 노인이 자줏빛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쓰고'에서 노인이 비범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4) [B]에서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과 재회하여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

"내 그대를 잊지 못하여 ~ 기쁘고도 슬프도다."에서 노인이 생을 다시 만나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089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승상과 대성, 대성과 동자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오.오.이

① **부재**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주인공 대성의 경험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부재** **자연 풍경의 감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쓸쓸한 심경을 환기**하고 있다.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인물의 쓸쓸한 심경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재** **현재와 과거를 빈번하게 교차함**으로써 사건 사이의 인과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⑤ **부재** **전상계의 공간과 자상계의 공간을 대비함으로써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꿈속 공간과 현실 공간이 제시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090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과오**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 **시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함.
- **겸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태도가 있음.
- **당부** 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정.정.이

① 굳히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기다리는 모습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군.

아이(대성)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깨우지 않고 이를 잡아 주며 아이가 깨기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승상이 따뜻한 인정을 지닌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오.이

② **교체** 나이 어린 '소생'에게 자신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허함을 볼 수 있군.

"내 자식이 무도하여 ~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에서 승상은 아들들이 범한 과오를 시인하고 있다.

③ **교체** '소생'에게 '딸과의 신의'를 잊지 않아야 **공명을 이룰 수** 있다고 당부하는 모습에서 신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을 볼 수 있군.

"공명을 이루고 용문에 오르면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를 통해, 승상이 소생(대성)에게 공명을 이룬 후에 딸과의 신의를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사건 왜곡** '정종마'를 **이마 언코** 통해 **용왕**의 도움까지 얻은 '소생'에게



적을 가버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모습에서 신중한 자세를 볼 수 있군.  
“동해 용왕이 그대를 위하여 이리 왔으니 내일 오시에 (청  
총마를) 얻을 것이니”라고 하였으므로 소생(대성)이 아직  
동해 용왕의 도움, 즉 만리청총마를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사건 왜곡** 살아서는 '소생'을 도왔지만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남을 도우려는 한결같은 성품을 느낄 수  
있군.

승상은 소생(대성)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딸과 혼인  
시키고 도와준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갑주를 주고 적에 대  
해 경고하는 등 대성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승상이 죽은  
몸으로 소생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워한다는 진술은 적절  
하지 않다.

## 091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해안: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 정.정.이

- ①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는 **해안**

‘승상이 자세히 보니 ~ 진실로 영웅이라.’를 통해 승상은  
남루하고 추레한 외양을 지닌 아이가 영웅의 자질을 갖추  
었음을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승상의 명감  
(㉠)’은 승상이 지닌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보는 해안  
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헛집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인정**

고생하며 살고 있는 아이를 승상이 도와준 것은 맞지만,  
이는 ‘승상의 명감(㉠)’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 ③ **헛집기**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성~~

앞일에 대비하는 준비성은 ‘승상의 명감(㉠)’과는 관련 없  
는 내용이다.

## 092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상반** ‘소생’은 ‘승상’의 자식이 저질렀던 잘못을 **질책**하였다.

“내 자식이 무도하여 ~ 허물치 아니할 줄 알았거니와”를

통해 승상의 자식이 저질렀던 잘못을 소생(대성)이 질책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아이’는 잠을 깨운 ‘승상’과 대화하기를 거부했다.

“어떤 사람이관데 남의 단잠을 깨워 무슨 말을 묻고자 하  
는가? 나는 배고파 심란하여 말하기 싫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형산백옥이 돌 속에 섞였으니 ~ 어느 날에 날 알아줄 이  
있으리오.”라는 아이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동자’는 ‘소생’을 ‘승상’이 머무는 곳으로 안내하였다.

‘생이 동자를 따라 들어가니 ~ 학발 노인은 청주 이 승상  
일러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호국 왕’은 중원을 침략하여 ‘황제’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

“적장은 천상 나타의 제자 익성이니 북방 호국 왕이 되어  
중원을 침노하니”, “중국은 익성을 대적할 자 없으며 황제  
지금 위태한지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9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범위 오류** ㉠은 ‘승상’의 ~~정신~~ **경험하는** ~~꿈속 공간~~ **이**고, ㉡은 ‘소생’  
이 자기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군.

조대(㉢)는 꿈(일장춘몽)에서 깨어난 승상이 죽장을 짓고  
나아가 아이(대성)를 만난 곳으로, 꿈속이 아닌 현실의 공  
간이다. 소나무 밑(㉣)은 소생(대성)이 잠에서 깨어난 곳으  
로, 승상을 만난 경험이 꿈이었음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오.오.이

- ① ‘승상’은 ㉡에 몸을 의지하고 있지만 정신은 봄바람에 이끌려 ㉢로 나  
아갔으니, 그는 현실의 한 공간에서 잠들어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  
는 것이군.

책상(㉣)은 승상이 잠이 든 현실의 공간이고 조대(㉢)는 꿈  
속의 공간이므로, 승상이 현실의 한 공간에서 꿈속 공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는 ㉣에 근거를 둔 꿈속 공간으로, ㉢에서 본 ‘청룡’은 ㉣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상징하는군.

꿈속 공간인 조대(㉢)는 승상이 평소에 고기도 낚으며 풍  
경을 구경하던 실제 공간인 조대(㉣)에 근거를 둔 곳이다.  
승상은 ㉢에서 청룡을 보고 ㉣로 가서 자고 있는 아이(대  
성)를 만났으므로, 청룡은 아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와 ㉣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

해, ㉔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조대(㉔)는 승상의 꿈속 공간, 이곳(㉔)은 소생의 꿈속 공간으로 모두 초현실 공간이다. 조대(㉔)는 승상을 아이에게 이끌고 있으며, 이곳(㉔)에서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승상'이 '누웠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㉔에 ㉔가 겹쳐져 있었지만 '승상'이 사라지면서 ㉔도 함께 사라졌군. 꿈속 공간인 이곳(㉔)에서 승상을 만난 소생(대성)은 찬바람과 기러기 소리에 현실 공간인 소나무 밑(㉔)에서 잠을 깬다. 그런데 누워 있던 자리에 갑옷과 투구가 놓여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두 공간이 겹쳐져 있었으며, 승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승상을 만났던 이곳(㉔)도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정·오 지름길

③ ㉔와 ㉔는 모두 초현실 공간으로, ㉔는 '승상'을 '아이'에게로 이끌기 위해, ㉔는 '소생'과 초월적 존재인 '승상'의 만남을 위해 설정된 곳이군. 고전 소설의 공간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문제예요. 이 글에는 소생의 입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읽기 전까지 ㉔가 꿈속 공간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아 ㉔가 초현실 공간이라는 점을 놓칠 수 있어요. 자료 활용 문제는 <보기>에 반드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제시된 이유를 생각해 보며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 094 ㉔ (1) 조대, 조대 (2) 영보산 (3) 소나무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승상이 꿈속 공간인 ( 조대 )에서 청룡을 본 것을 계기로 현실의 ( 조대 )을/를 찾아가 나무 베는 아이를 만나게 된다.  
승상은 꿈속에서 청룡이 조대에서 쏜 장면을 본 뒤, 꿈에서 깨어 현실의 조대에 찾아가 나무 베는 아이를 만난다.
- (2) **교체** 대성은 ( 영보산 )에서 나온 뒤 동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 초월적 존재인 승상을 만나게 된다.  
호왕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에 영보산에서 나온 대성은 한 동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 승상을 만난다. 예전에 죽은 승상이 다시 나타나 그에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이한 무기들을 전하고 있으므로 승상은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 (3) **교체** ( 소나무 ) 아래에서 대성은 승상을 만난 일이 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홀연 찬바람, 기러기 소리에 ~ 둘러보니 소나무 밑이라.'를 통해 소나무 밑에서 대성은 승상과 조우한 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 095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교체** ㉔에서 대성은 ㉔에서와 달리 승상과의 만남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㉔에서 대성은 '승상이 별세하신 지 오래이거늘 어찌 이곳에 계신가?'라며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㉔에서는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오·오·이

- ① ㉔에서의 승상의 기대는 ㉔에서 대성을 만남으로써 확신으로 변화한다.  
㉔에서 승상은 청룡의 꿈을 꾸고 '심신이 황홀하여' 월령산 조대로 나아가는데, 이는 상서로운 꿈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대로 나아간 승상이 ㉔에서 만난 대성은 '두 눈썹 사이에 천지조화를 ~ 진실로 영웅이라.'에서 알 수 있듯이, 승상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영웅의 기상을 지닌 인물이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③ ㉔와 ㉔의 사이에 대성은 시련을 겪고 집을 떠나게 된다.  
㉔와 ㉔의 사이에 대성을 알아준 승상이 죽고, 승상의 아들들은 대성을 제거하려 한다. 이러한 시련을 겪은 대성은 집을 떠나 영보산으로 간다.
- ④ ㉔와 ㉔에서 모두 승상은 대성의 조력자로서 대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㉔에서 승상은 대성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와 딸과 부부의 연을 맺게 한다. 또한 ㉔에서는 대성에게 갑옷과 투구를 주고 앞일을 알려 주며 대성을 돕고 있다.
- ⑤ ㉔에서 승상은 대성에게 ㉔의 일에 관하여 당부하고 있다.  
㉔에서 승상은 대성에게 중원을 침략한 적장을 가버이여 가지 말고 조심할 것과, 동해 용왕에게 만리청룡마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말하며 자신과의 만남 이후에 닥칠 일을 당부하고 있다.



# 11 박씨전

## 작품 분석

본문 56~59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전쟁 소설, 역사 소설

주제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박씨 부인의 활약을 통한 민족적 자부심의 고취

- 특징 ① 병자호란에서 청나라에 패배한 것을 심리적으로 보상하고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일깨움.  
 ② 박씨라는 허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서도 실존 인물을 함께 등장시켜 허구적 재구성 효과를 높임.  
 ③ 변신 모티프를 사용하여 전반부는 가정 내의 갈등을, 후반부는 전쟁이라는 사회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④ 도술과 같은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흥미를 더함.

단숨에 읽기 조선 인조 때 한양의 이득춘 상공에게는 총명하고 비범하며 문무를 겸비한 아들 시백이 있었다. 어느 날 금강산의 도사 박 처사가 찾아와 시백을 보고 상공에게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시백과 박 처사의 딸 박씨는 혼인하지만, 시백은 박씨의 얼굴이 박색인 것에 실망하여 박씨를 대면조차 하지 않는다.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홀로 지내면서 이득춘의 조복을 하룻밤 사이에 짓고, 가산을 늘리며, 시백을 장원 급제하게 하는 등 신이한 재주를 보인다. 삼 년이 지나 박 처사가 찾아와 액운이 다하였다며 박씨의 허물을 벗겨 주고, 박씨는 절세佳人이 된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이후로는 박씨를 믿고 따른다. 호왕이 용골대, 용홀대 형제에게 십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침공하자, 박씨는 시백을 통해 이에 대비하도록 조정에 청하지만 간신 김자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났던 왕은 결국 항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한다.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박씨는 그를 죽이고, 복수하려 온 용골대 역시 혼이 난다. 용골대는 퇴군하다가 임경업에게 대패한다. 왕은 박씨를 충렬 부인에 봉하고, 박씨와 시백은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 한 줄 요약

- ① 상공이 아들과 처사 딸의 (혼인)을 허락함.
- ② 모두가 (상공)의 혼인 결정을 의아해함.
- ③ 상공과 시백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금강산)에 가지만 박 처사를 만나지 못하고, 혼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상공이 막막해함.
- ④ (박 처사)를 만나게 된 상공이 기뻐함.

## 096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상공'이 사람을 보는 눈은 평범한 사람과 다른 데가 있다.  
 상공은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할 것이라 생각하며 아들과의 혼사를 허락한다. 이처럼 상공이 재상의 신분이면서도 박 처사의 인품만을 보고 혼인을 약속하는 것으로 볼 때,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교체] '박 처사'가 혼인을 청한 것은 '상공'의 인품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아들이 마음에 들었기)
-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박 처사는 상공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시백을 보고 혼인을 청하였다.

- ③ [교체]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집안의 근본도 모른다는 점을 들어)

상공 부인이 혼인을 반대한 것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박 처사의 집안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④ [헛집기]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초동은 상공의 질문에 박 처사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뿐, 상공 일행에 대해 측은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헛집기]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이시백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박 처사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 금강산을 따라갔다. 이시백이 금강산에서 돌아가자고 한 것은 박 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 부친의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겨서가 아니다.

### 정.오 지름길

- ④ '초동'은 길을 헤매고 있는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기고 있다.  
 ⑤ '이시백'은 부친의 성급한 혼인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작품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예요. 위의 선지에서 초동이 상공 일행을 측은하게 여겨서 처사에 대한 말을 전해 주었다거나, 시백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친의 결정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측했나요? 그런데 이렇게 추측할 근거는 지문에 없기 때문에 ④, ⑤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에요. 인물·사건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097 ㉢ (1) 근본 (2) 박 처사 (3) 웃음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상공의 부인은 상공이 ((근본) 거처)도 모르는 집안과 혼약한 것을 의아해했다.

"어찌 재상가에서 의논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하시나이까?"라는 상공 부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2) [교체] 금강산을 헤매던 상공 일행은 전안 날이 되어서야 (초동, 박 처사)을/를 만날 수 있었다.

초동을 만나 박 처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상공은 더욱 막막해하며 "내일은 곧 전안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날, 곧 전안 날에 박 처사를 만났다.

- (3) [교체] 박 처사를 찾을 수 없으니 돌아가자는 시백의 말에 상공은 그대로 돌아가면 남에게 ((웃음)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아무리 찾아도 박 처사를 만나지 못하자 시백은 상공을 위

로하며 도로 돌아가자고 하나, 공은 웃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라.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했다.

## 098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상반** ‘상공’은 당사자인 ‘시백’의 뜻을 <sup>물지 않고</sup> 물어 ‘처사’와 혼약했다.  
상공은 혼사를 청하는 처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혼인을 허락했다. 당사자인 시백의 뜻을 묻지는 않았다.

### 오.오.이

- ① ‘처사’는 ‘시백’을 본 이후에 ‘상공’에게 혼사를 청했다.  
“다행히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 ~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상공’은 ‘처사’를 찾아가는 도중 그와의 혼약을 후회했다.  
‘공이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본즉 도리어 허탄한지라. 후회막급이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초동’은 ‘상공’에게 ‘처사’에 관해 이전에 들은 말을 전했다.  
초동은 상공에게 자신이 옛 노인에게서 박 처사에 관해 ‘수백 년 전에 여기에서 ~ 돌연 간 곳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 ⑤ ‘시백’은 ‘처사’를 만나지 못한 ‘상공’에게 귀가할 것을 권했다.  
상공이 처사를 만나지 못해 차탄하자, 시백은 한 무제의 고사를 들어 부친을 위로하며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 099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극진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있는.
- **겸양**: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함.

### 정.정.이

- ⑤ **헛집기** ㉔: 대화 속에 고사를 인용하여 인물에 처한 쓸쓸한 상황을 부각한다.

㉔에서 시백은 상공에게 후회해도 소용없으니 돌아가자는 의미로 한 무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고사를 통해 시백이나 상공의 쓸쓸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㉔: 극진한 겸양 표현을 통해서 청혼 자리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처사는 ‘귀댁, 극히 불가하오나, 아니하오면’ 등의 극진한 겸양 표현을 사용하여 청혼하는 자리의 예를 갖추고 있다.

- ② ㉔: 한문 구절을 끌어 와서 인물이 자기 생각의 정당성을 드러내게 한다.  
상공 부인은 “혼인은 인륜대사”라는 한문 구절을 인용하여, 상공이 혼자 경솔하게 혼약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 ③ ㉔: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좌우 산천 바라보니’에서 알 수 있듯이 경치를 좌우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하여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㉔: 배경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풍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비죽새, 두견성 등의 청각적 묘사를 통해 박 처사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상공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100 ㉔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사건 왜곡** 박 처사는 자신이 미천한 인물임을 언급하며 장공의 혼사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다. (○, ×)
-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 외람하오나 혼인을 정함이 어떠하오이까?”에서 박 처사는 자신이 미천한 인물임을 언급하며 상공에게 혼인을 제의하고 있으므로 박 처사가 상공의 혼사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자연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상공과 처사 집안의 혼사가 치러지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
- ‘좌우 산천 바라보니 ~ 꾀꼬리는 환우성이 더욱 좋다.’에서 자연의 구체적 묘사를 통해 두 집안의 혼사가 치러지는 계절적 배경이 봄임을 드러내고 있다.
- (3) 박 처사를 만나지 못해 허무해하는 부친에게 시백은 한 무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위로하고 있다. ((○) ×)
- “옛날 한 무제도 ~ 후회해도 소용없사온지라.”라는 시백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01 ㉔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㉔: 처사와 딸을 만난 경험을 근거로 처사 집안과의 혼약을 반대하는 부인을 절박하고 있다.



㉔에서 상공은 다른 이로부터 처사의 딸에 대해 전해 들은 바를 근거로 들며, 처사 집안과의 혼약을 반대하는 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

❖ 오.오.이

- ① ㉔: 자기 지식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겸손하게 혼인을 청하고 있다.  
 ㉔에서 처사는 상공에게 자신의 여식이 용렬하고 재주가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며 혼인을 청하고 있다.
- ② ㉔: 자신과 처사의 처지를 대조하며 두 집안의 혼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㉔에서 상공은 혼인을 청한 처사에게 속세 사람인 자신과 선인인 처사가 혼인을 의논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④ ㉔: 처사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처사의 신이성을 드러내고 있다.  
 ㉔에서 초동은 처사가 사백 년을 살았다고 언급함으로써, 처사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언급하며 막막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㉔에서 상공은 혼인을 치르기 위해 처사를 찾아 금강산에 왔지만 그를 찾지 못하여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금강산에 마냥 있기도 힘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언급하며 허황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102 ㉔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잡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잡기**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와 결과이론**.  
 <보기>에서 수직적 사고는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상공 부인이 수직적 사고를 하였다면 자신들의 신분으로는 초월계에 속한 박 처사와 혼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한다. 그러나 상공 부인은 박 처사 집안의 근본을 모른다는 이유로 상공의 혼약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오.오.이

- ② '박씨'와 '이시백'의 혼인 장소로 금강산을 설정한 것은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 ④ '박 처사'와 '상공'이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에서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군.  
 <보기>에 따르면 금강산은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박 처사와 상공이 만나고 이시백과 박 처사의 딸이 혼인하는 것은 초월계와 현실 세계의 소통이며(④), 이를 통해 신성성이 확보된다(②).

- ③ '상공'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한 구도에서 금강산이 지닌 초월계의 성격을 찾을 수 있겠군.

<보기>에서 초월계는 본래 인간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현실 세계의 인물인 상공과 이시백이 박 처사를 쉽게 찾지 못한 것은, 금강산이 지닌 이러한 초월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초월계의 선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박 처사'로 불린 인물의 모습은 금강산의 이중적 성격과도 연관되는군.

<보기>에서 알 수 있듯 금강산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공간이다. 박 처사는 초월계에 속해 있는 인물이지만 현실 세계에 등장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의 이러한 이중적 성격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103 ㉔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잡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상공이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라고 말한 것은 **수평적 사고의 결과**이다 (○, ×)  
 상공은 속세 사람인 자신이 선인, 즉 천상 존재인 처사와 혼인을 의논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데, 상공이 이러한 의문을 드러내는 것은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수직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박 처사가 금강산에서 산 지가 사백 년이라는 초동의 말에 박 처사가 천상 존재임이 드러난다. (○, ×)  
 <보기>에서 박 처사는 천상 존재라고 하였는데, 이는 금강산에서 사백 년을 살았다는 초동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박씨전」에서는 천상 존재인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을 통해 초월계와 현실 세계가 소통하게 된다. (○, ×)  
 「박씨전」에서는 천상 존재인 박씨와 현실 세계의 존재인 이시백의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104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잡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파국**: 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판이 남. 또는 그 판국.
- **결함**: 부족하거나 원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정.정.이

- ② **헛집기** '상공'이 혼사를 치르기 위해 '박 처사'를 찾으며 산속을 방황하다 허무함을 느꼈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파국**이 예견되는군.
- 상공이 박 처사를 찾으며 방황하다 허무함을 느끼기는 했지만, 결국 박 처사를 만나게 되었으므로 비극적 파국이 예견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 ① '상공'은 '박 처사'의 딸과의 혼사에 대한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사에 대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군.
- 상공의 부인은 상공이 의논도 없이 경솔하게 혼약을 하였다고 반대하였으나, 상공은 “내 들으니 처사의 딸이 ~ 괜한 시비 마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 ③ '박 처사'는 자신의 딸의 **결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상공' 님과의 혼사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군.
- “여식은 용렬하고 재주가 없으나 존문에 용납될 만하니”라는 처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상공'은 '박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그 딸 또한 영민할 것이라 여기며 혼약을 맺기에 결함을 지니지 않았다고 판단했었군.
- 상공이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하리라.'라고 생각하고, 혼인을 허락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⑤ '상공'은 자신이 인간 세상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박 처사'는 자신이 미천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상대와 신분적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군.
- 상공이 박 처사에게 “존객은 선인이요 나는 속세 사람이라, 어찌 인간 세상 사람이 선인과 혼인을 의논하리까?”라고 말하자, 처사가 “상공은 아국 재상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며 자신을 낮추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 12 유충렬전

작품 분석

본문 60~63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유충렬의 영웅적 활약과 고난의 극복

- 특징 ① 영웅적 인물인 주인공 유충렬과 악인의 전형인 정한담, 최일귀가 대립함.
- ②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유충렬의 생애를 서술함.
- ③ 천상계에 속한 인물들이 자상계에서 활약하는 이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음.

**단숨에 읽기** 늦도록 자식이 없던 명나라의 고관 유심과 그의 부인 장씨는 남약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신이한 태몽을 꾸 뒤 아들 충렬을 얻는다. 충렬이 7세가 되던 해에 간신 정한담과 최일귀 등은 정적이었던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 보낸다. 그리고 충렬의 영웅적 면모를 알고 충렬 모자를 죽이려 하지만 장 부인이 꿈을 통해 미리 알고 도망간다. 도망치던 충렬과 장 부인은 서로 헤어지고, 겨우 살아남은 충렬은 부친의 친구인 강희주를 만나 그의 딸 강 낭자와 혼인한다. 강희주는 유심의 누명을 벗기려다 정한담의 모함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충렬은 피할 곳을 찾아 백승사의 노승을 만나 그에게 수학한다. 조정의 힘이 약해지자 오랑캐가 일어나고, 정한담과 최일귀는 천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어 명나라를 공격한다. 충렬은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출하고 반란군을 진압한다. 그리고 황후, 태후, 태자를 구출한 뒤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도 연이어 구출한다. 높은 벼슬에 오른 충렬은 가족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 줄 요약

- ① 충렬이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한 후, 천자에게 과거의 일에 대한 원망의 말을 토로함.
- ② (태자)의 설득으로 충렬이 천자를 도울 것을 맹세함.
- ③ 천자가 나라를 구한 (충렬)의 공을 치하하고 (강 승상)에게 사과함.
- ④ 충렬이 헤어졌던 (가족)과 재회함.

## 105 답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④ 서술자의 개입과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고, 충렬, 태자, 천자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 ① **부재**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인다.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부재**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한다.~~

꿈속의 사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부재**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초월적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부재**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한다.  
전쟁의 경과만 제시되어 있을 뿐, 전쟁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사건의 긴박감을 고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106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 상대방에게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태자는 주나라 성왕의 고사, 결초보은의 고사를 언급하며 충렬이 천자를 도울 것을 설득함으로써(㉠), 신하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오.오.이

- ㉠. **헛집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장대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다.  
“태산 같은 그대 공로”, “하해 같은 그 은혜”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천자를 도와 싸우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충렬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지는 않다.
- ㉡. **헛집기** 운명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장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는 말은 운명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충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 107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충렬이 통곡하며 천자에게 고하는 말을 통해 천자가 과거에 정한담과 최일귀의 말을 듣고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을 멀리 귀양 보냈다는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공간의 이동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유충렬이 남적을 물리치고 장안으로 돌아왔다는 것에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장안에서 모든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을 통해 서사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부재** 두 인물이 갈등을 겪게 된 과정을 삽화적 구성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삽화적 구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부재**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상황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충렬의 모습에서 충렬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의 헤어짐이 오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연왕의 말을 통해 부인과 십 년 전에 헤어졌음을 알 수 있을 뿐, 계절의 변화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 108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감화**: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함. 또는 그렇게 변하게 함.

### 정.정.이

- ⑤ **상반**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귀양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를 통해 천자가 유심을 귀양 보낸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자가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한 것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 오.오.이

- ① ‘천자’가 ‘장수’에게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에서 ‘죽을 사람’은 천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장수의 능력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된 천자의 놀라움과 기쁨이 나타나 있다.
- ②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살아 있으며, 유충렬이 아버지를 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고 원통해할 때 유충렬은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원망의 말을 쏟아 낸 것이다.

- ③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유충렬이 천자에게 말을 마치고 슬피 통곡할 때 '진중의 군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④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기상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유충렬은 태자의 얼굴을 보고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한 모습에 감화되어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천자에게 사죄한다.

## 109 정답 (1) × (2)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해할 때, 천자는 유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sup>모르고</sup> 알고 있었다. (○, ☒)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통곡할 때 천자가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천자 역시 유심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유충렬은 태자가 한 시대의 성군이 될 기상을 지녔음을 알아보았다. (○, ☒)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에서 알 수 있다.

## 110 정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천자는 강 승상에게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위로로 전하고 있다.  
천자는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자신이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냈으며 과거를 반성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상반** 천자는 땅에 엎드린 유충렬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sup>알아</sup> 알았다. 천자가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충렬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상반** 연왕은 자신의 부인이 당연히 <sup>잘</sup>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연왕이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이 있냐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왕은 부인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헛집기** 유충렬은 태자의 <sup>원망</sup> 있는 모습에 <sup>벌을 받을까 두려워</sup> 잠지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유충렬은 태자의 기상을 보고 그가 성군이 될 듯하여 천자 앞에 사죄한 것이지, 벌을 받을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 것은 아니다.

- ⑤ **사건 왜곡** 천자는 유충렬의 원통해하는 말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앞세워 반박하고 있다.

천자는 유충렬이 원통해하는 것을 보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천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앞세워 유충렬의 말을 반박했다고 볼 수 없다.

## 111 정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소탕: 휩쓸어 죄다 없애 버림.
- 금의환향: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정.이

- ④ **교체** 유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우연한 계기에 <sup>가족</sup> 위기의 해소가 <sup>국가</sup>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유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모친을 만나 돌아오게 된다. 이는 우연한 계기에 국가 위기의 해소가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유충렬이 일곱 살에 부모와 이별하여 고난을 겪은 것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유심'의 유배로 인한 가족의 이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유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충신인 부친 유심과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유심의 유배로 유충렬이 부모와 이별하여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살았던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천자가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귀양 보낸 것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강희주'의 유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충신인 장인 강희주와 간신의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천자가



강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라고 한 말을 통해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충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유충렬이 ‘강희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유충렬이 귀양 간 강희주를 찾아 구한 것은 가족의 위기를 해소한 것이고, 남적을 물리친 일은 국가의 위기를 해소한 것이므로, 유충렬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남적’을 소탕하고 금의환향하는 유충렬을 백성들이 환대하는 것에서,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고 요란하였다.’에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한 유충렬을 환대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유충렬이 영웅으로 귀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2 ㉡ (1) 유심 (2) 강희주 (3) 정한담 (4) 장 부인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유충렬이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지낸 것은 부친 ( 유심 )이/가 유배를 가게 된 첫 번째 가족의 위기와 관련된다.

유충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은 정한담과 최일귀의 모함으로 부친 유심이 유배를 간 것에서 비롯되었다.

- (2) **교체** 어려서 부모를 잃은 유충렬을 길러 준 장인 ( 강희주 )이/가 귀양을 가게 됨으로 인해 유충렬은 두 번째 가족의 위기를 맞는다.

유충렬의 두 번째 시련은 역적의 모함으로 장인 강희주가 유배를 가게 된 것에서 비롯된다.

- (3) **교체** 유충렬이 남적의 선봉장이 된 역적 ( 정한담 )와/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것은 국가 위기의 해소에 해당한다.

유충렬이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위기에 처했던 천자·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한 것은, 유충렬이 영웅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해소한 것에 해당한다.

- (4) **교체** 유충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모친 ( 장 부인 )와/과 상봉하며 국가와 가족의 위기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111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유충렬은 남적 소멸과 모친 장 부인과의 상봉을 통해 국가와 가족의 위기를 모두 해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13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황포**: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함.
- **덕성**: 어질고 너그러운 성질.

### 정.정.이

- ⑤ **사건 왜곡** 유충렬이 악인의 황포를 제지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배 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한 것이군.

유충렬은 악인인 정한담에게 승리하여 위기에 처한 황실을 구하고 가족들과 재회한다. 이는 <보기>에 언급된 것처럼 선인인 주인공이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기뻐한 것은 그들의 가족이 돌아와서이지, 지배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배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유충렬은 천자의 명에 따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하게 되었군.

천자는 유충렬을 직접 대원수로 명하였고, 유충렬은 간신 정한담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였다.

- ② 유충렬을 죽을 고비에서 구출해 준 강 승상 역시 간신에 의해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군.

간신에 의해 부친이 유배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유충렬은 강희주에 의해 구출되어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라는 천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강희주 역시 간신의 모함으로 귀양을 가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덕성이 뛰어난 관리였으나 간신의 모함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었군.

<보기>를 통해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덕성이 뛰어난 관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충렬이 천자에게 고하는 말을 통해 유심이 정한담과 최일귀의 모함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유충렬이 적장의 목을 베고 중군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그의 비범한 기상을 확인할 수 있군.

천자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충렬이 큰 소리를 내며 적장 문걸의 머리를 베어 들고 중군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그의 장수로서의 뛰어난 모습, 곧 비범한 기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3 전우치전

### 작품 분석

본문 64~67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사회 소설, 도술 소설

주제 전우치의 기이한 행적과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실존 인물인 전우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함.  
②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이 담긴 삽화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구성함.  
③ 유교 사상과 같은 당시의 지배적 이념과, 부패한 정치와 당쟁 등 사회적 모순을 반영함.

단숨에 읽기 천상의 선동이던 전우치는 속계에 내려와 처사 전운호의 아들로 태어난다. 10세에 아버지를 여윈 우치는 아버지의 친한 벗 윤공에게 수학하던 중 여자로 변한 여우에게서 호정(여우의 낮이 담긴 구슬)을 받아먹고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게 되고, 구미호에게서 하늘의 계시를 적은 책을 빼앗아 읽은 후 온갖 조화와 술법을 부릴 수 있게 된다. 우치는 천상의 선관으로 변신하여 임금에게 황금 들보를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눠 주는 등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횡포한 무리를 징벌한다. 자수를 하면 벼슬을 내리겠다는 방을 본 우치는 자수한 후 도적의 반란을 평정하는 공을 세운다. 그러나 어느 날 역모의 무리가 잡혀와 우치를 모해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에 우치는 그림을 그려 그 속으로 도망간다. 이후 도술로 세상을 횡횡하며 다니던 끝에 우치는 강림 도령에게 제지당하고, 서화담과의 도술 대결에서 패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와 함께 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는다.

### 한 줄 요약

- ① 전우치가 가달산의(도적)을 잡을 묘책을 찾기로 함.
- ② 술개로 변한 전우치가 도적의 우두머리인(염준)의 비범함을 봄.
- ③ 전우치가 도술을 이용하여 홀로(도적)을 물리침.
- ④ 전우치가(도술)을 부려(임금(상))을 속이고 위기에서 벗어남.

## 114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임금은 우치에게 어주와 인검을 내려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였다.

임금은 전우치가 도적을 잡을 묘책을 정하겠다고 하자 기뻐하며 어주와 인검을 하사하고 있다. 즉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어주와 인검을 하사한 것이다.

### 오.오.이

- ① 함경도 고을 원이 도적을 잡지 못해 우치가 토벌할 기회를 얻었다.  
함경도 가달산에 나타난 도적을 본읍 원이 잡지 못하자 조정에서 도적을 칠 계책을 의논하는데, 이때 전우치가 나서서 도적을 잡을 묘책을 정하겠다고 하였다.
- ③ 염준은 성안의 큰 전각에서 장수들과 미녀들을 데리고 잔치를 벌였다.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으뜸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미녀 수백 인이 열좌하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집장과 나졸이 우치를 한 때에 죽이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청했다.

우치는 집장과 나졸이 팔이 아파 매를 치지 못하는 사이에 임금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

⑤ 우치는 과거의 죄와 역모의 혐의가 함께 거론되는 것을 듣고 임금에게서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 변명 하나 어찌 면하리오?"라는 임금의 말에 우치는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15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전우치는 임금의 명으로 도적을 치기 위해 가달산으로 갔다. (○ ×)

전우치는 임금의 명을 받아 도적을 잡기 위해 함경도 가달산으로 갔다.

(2) **교체** 전우치는 **다섯알로 술개를 만들어 날려 보내** 장수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전각으로 들어가 동태를 살폈다. (○ ×)

도적들이 모여 있는 전각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고 전우치는 술개로 변하여 날아 들어가 동태를 살폈다.

(3) 전우치는 진언을 염하여 잔치판을 뒤엎고 홀로 염준 무리를 물리쳤다.

(○ ×)

전우치가 진언을 염하자 '무수한 수리가 내려와 모든 장수의 상을 걷어치워 가지고 ~ 바람에 떠서' 굴렀다고 하였다.

## 116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타개** 매우 어렵거나 막힌 일을 잘 처리하여 해결의 길을 열.

### 정.정.이

② **상반**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지 않았다**.

전우치는 '문사낭청'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다가 역도의 진술에 의해 역적으로 몰리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우치는 조정에서 내린 벼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① 기지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였다.

전우치는 역모죄로 처형당할 위기에서 임금에게 요청하여



그림을 그리고, 도술로 그 속으로 도망가 목숨을 구하였다.

③ 민중을 돕는 일에 자진하여 나섰다.

전우치는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는 도적 엄준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 나섰다.

④ 과거에 나라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었다.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이거늘"이라는 상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역모죄를 받을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하였다.

'불의에 이름이 역도의 진술에 나오는지라.'로 볼 때, 전우치는 역모죄를 받을 것을 짐작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17 ㉡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⑤ ㉡과 ㉢은 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우치는 임금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도술을 부려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이를 위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라고 말하고, 이에 임금은 ㉡에서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해 볼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에서는 전우치가 원을 풀지 못하고 죽으면 원혼이 되어 괴롭힐 것이 걱정되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결박을 풀어 주고 있다. 따라서 ㉡과 ㉢은 우치의 의도대로 임금이 속아 넘어가고 있음을 드러낸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을 유발한 우치에 의해서 야기되고 있다.

㉠에서 임금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는 도적이 유발한 것으로, 도적을 잡을 묘책을 찾는 우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다.

② 범위 오류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 준다.

㉡은 도적을 토벌할 실마리를 찾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전우치가 역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③ 사건 왜곡 ㉢으로 인해 형성된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을 촉발하고 있다.

역도의 진술로 전우치가 역적으로 물리자 임금은 ㉢과 같이 분노하고, 우치에게 ㉡처럼 화를 내고 있다. 따라서 ㉢으로 인해 임금과 우치의 갈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제삼자가 개입하여 ㉡이 촉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사건 왜곡 ㉡에서 ㉢으로의 변화는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이 제거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임금과 우치의 갈등 원인인 역모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다.

정.오 지름길

③ ㉢으로 인해 형성된 임금과 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여 ㉡을 촉발하고 있다.

역도의 진술에 의해 우치에 대한 임금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임금과 우치의 갈등 사이에 제삼자가 개입해 임금의 분노를 심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처럼 인물·사건 문제에서는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118 ㉡ (1) 임금 (2) 도적 (3) 용서하지 않을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함경도 가달산에서 일어난 도적은 나라와 백성을 위태롭게 하여 (임금 전우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함경도 가달산의 도적이 재물을 노략하고 인민을 살해하여 '상이 크게 근심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2) 교체 전우치가 (도적 외적)을 잡을 묘책을 정하겠다고 하자 임금은 그들을 토벌할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해 기뻐했다.

전우치가 가달산의 도적을 잡을 묘책을 정하겠다고 하자 '상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3) 상반 전우치는 역모죄를 받게 되자 결백을 주장하면서, 임금이 자신을 (용서할,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전우치는 "신이 전일 죄상은 ~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라고 결백을 주장하며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라고 생각하는 데서 알 수 있다.

## 119 ㉡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잡기 ㉡은 우치의 계락을 알아채지 못한 상의 여러적움을 드러낸다.

㉡은 우치가 근심의 원인인 가달산의 도적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반응이다. 또한 우치가 다른 계락을 꾸미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오.이

① ㉠은 도적이 쉽게 잡기 어려운 대상임을 드러낸다.

㉠의 앞에서 관군이 도적을 능히 잡지 못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③ ㉢과 ㉡은 모두 상이 우치를 역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과 ㉡의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역도의 진술에 우치의 이

름이 나와 그를 문책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은 상이 우치를 역도로 생각해 화를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은 상이 우치가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의 뒷부분에서 상은 우치의 재주가 능하다는 것을 시험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에는 우치가 죽은 후에 자신에게 피해를 입힐까 봐 우려하는 상의 모습이 드러난다.

㉠의 뒷부분에서 상은 우치를 죽이면 원혼이 되어 괴로움이 있을까봐 우치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20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④ **교체** ㉡와 ㉣에서 주인공이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야기에 환상성을 더하는군. 도술로

〈보기〉에서 주인공은 조력자 없이 도술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전우치는 ㉡에서 술개로 변신하고, 진언을 외워 수리가 상을 걷어치우게 하는 등의 도술을 부려 홀로 도적을 물리쳤고, ㉣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도술을 부려 위기에서 벗어났다.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다.

오.오.이

① ㉡와 ㉣은 사건 해결을 우치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군.

㉡와 ㉣에서 모두 우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② ㉡와 ㉣에서 삽화마다 각기 다른 도술이 사용된 것은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하는군.

㉡에서는 전우치가 술개로 변신하고, 진언을 외워 수리가 상을 걷어치우게 하는 등의 도술을, ㉣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도술을 사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③ ㉡와 ㉣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되는군.

㉡와 ㉣의 삽화는 전우치가 도술을 사용한다는 연결 고리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⑤ ㉡에서 술개로 변하는 장면과 ㉣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주인공에게 신비감을 부여하는군.

전우치의 도술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부각하며 신비감을 부여한다.

## 121 ㉣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전우치전」의 '엄준 토벌 삽화'는 도술로써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우치의 모습을 보여 준다. (○ ×)

전우치가 임금의 명을 받고 도적 엄준의 무리를 찾아가 도술을 부려 그들을 물리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2) **상반** 「전우치전」은 전우치가 도술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삽화들이 ~~간밀하게~~ 결합한 작품이다. (○ ×)

〈보기〉에서 「전우치전」의 각각의 삽화들은 서로 긴밀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3) 전우치가 다양한 도술을 사용하는 것은 작품에 비현실성을 부여하며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 ×)

〈보기〉에서 도술의 사용은 주인공에게 신비감을 부여하고, 다음 삽화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속적인 흥미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 122 ㉣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강**

• **방법**: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

정.정.이

ㄱ.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ㄴ. 주인공의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의 그림은 전우치가 임금 앞에서 그림 속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통로이며(ㄱ), 그림을 통해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전우치의 뛰어난 도술 능력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ㄴ).

오.오.이

ㄴ. **헛집기**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는 방법~~이다.

㉢의 그림은 전우치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그림을 통해 의롭지 못한 자를 단죄하고 있지는 않다.

ㄷ. **헛집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은 그림의 장면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사건의 요약적 제시 방법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23 ㉣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상은 그림으로 인한 일 이외에도 우치의 꾀에 당한 경험이 있다.

(○) (×)

우치가 도망치자 상이 “내 이놈의 꾀에 또 속았으니 이를 어찌하리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그림으로 인한 일 이외에도 우치의 꾀에 당한 경험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상은 우치가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우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

(○) (×)

상은 우치가 그림을 다 그리고 사을할 때까지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도 우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3) **사건 왜곡** 우치는 처벌을 받기 전 **장외 제안에 따라** 그린 그림을 위기에서 탈출할 수단으로 삼았다.

(○) (×)

상은 우치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그림을 그리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그림 그리기는 우치가 상에게 부탁한 것이다.

124 ㉡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2) **헛집기** ‘황금 갑옷, 천리오추마, 청사양인도’는 **장수로써 전우치가 지단 무예와 용맹함을 드러낸다.**

‘황금 갑옷, 천리오추마, 청사양인도’는 전우치가 자신의 모습을 신비하게 연출하기 위해 도술을 부려 착용한 것이다. 전우치는 도술을 부려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을 뿐, 장수로써 무예와 용맹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 (1) ‘인검’은 전우치의 활약에 대한 임금의 기대와 신뢰를 보여 준다.  
도적을 잡으러 가달산으로 떠나는 우치에게 임금은 어주와 인검을 주며 격려하였다.
- (3) 주란화동이 반공에 쏘든 ‘전각’은 도적 엄준이 호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산중에 지어진 화려한 전각에서 도적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도적 엄준이 호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4) ‘역도의 진술’은 전우치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불의에 이름이 역도의 진술에 나’옴으로써 전우치는 역모를 꾸민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
- (5) ‘그림’은 전우치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전우치의 도력(道力)을 보여 준다.

122번-ㄱ, ㄴ의 해설을 참고할때, 적절한 진술이다.

14 홍계월전

작품 분석

본문 68~71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홍계월의 뛰어난 활약상과 업적

특징 ① 봉건적 가치에 맞서는 홍계월의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행적을 강조함.  
②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바탕으로 계월의 삶을 서술함.  
③ 남장 모티프를 활용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반영함.

단숨에 읽기 계월은 천상의 선녀였지만 죄를 지어 명나라 고관 홍무의 무남독녀로 태어난다.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을 갖춘 계월은 화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남장을 하고 자란다. 5세 되던 해에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 피난을 가던 중 계월은 부모와 헤어지고, 무릉포에 사는 여공에게 구출된다. 계월은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한다. 과거를 치른 계월은 장원 급제하고 보국과 함께 서달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출정하여 승리한다. 그리고 헤어졌던 부모와 상봉한다. 전쟁에 다녀온 후 몸이 상한 계월을 염려한 천자가 어의를 보내 진맥하는 과정에서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는 계월을 벌하지 않고 보국과 혼인시킨다. 보국과 혼인한 계월은 보국의 애첩 영춘의 방자한 태도를 문제 삼아 죽이고, 이로 인해 보국과 불화를 겪는다. 한편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키자 계월은 보국과 출정한다. 계월은 전쟁 중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하고, 천자의 목숨도 구한다. 두 차례에 걸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이 되고, 보국과의 갈등도 해소된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 줄 요약

- ① 천자가 (평국(계월))과 (보국)에게 집을 하사함.  
② (어의)로 인해 평국(계월)이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  
③ 오왕과 초왕이 침입하자 천자가 (계월(평국))을 불러 출사할 것을 명함.

125 ㉡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2) [A]는 대화를 통해, [B]는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에서는 어의와 천자의 대화를 통해 평국(계월)이 여성이라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B]에서는 남관장이 올린 장계의 내용을 통해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장안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정보가 요약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오.오.이

- (1) **부재** [A]와 [B]는 모두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A], [B]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각각 어의와 남관장이다. 이들로 하여금 내용을 전달받는 상대는 천자로, 두 주체에 대한 천자의 부정적인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3) **부재** [A]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B]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A]에서는 천자가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이요, 체격이 작

고 약하여”라고 평국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과장된 표현이 쓰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A], [B] 모두 장면의 극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부채** [A]와 [B]는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A]에는 평국이 여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사건, [B]에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장안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건이 각각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A], [B]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⑤ **교체** [A]에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이, [B]에는 문제를 해결을 유보해야 할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A]에서 천자는 어의의 말을 듣고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며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B]에는 장안을 방비할 길이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126 ㉠ ㉡, ㉢

### 정.정.이 & 오.오.이

○부채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어의와 천자의 대화를 통해 평국이 자신의 성별을 속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평국의 맥을 보오니 남자의 맥이 아니오매 이상하여이다.”라는 어의의 말과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라는 천자의 말로 볼 때, 평국은 자신이 여자임을 속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 남관장이 올린 장계에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순간부터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계에는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호주 복지 십여 성을 항복받고 장안으로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오.오.이

- ㉢. **교체** 천자는 남관장이 장계를 올리기 <sup>후</sup>전에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고 있었다.

천자는 남관장이 올린 장계를 통해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되었다.

## 127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채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부채**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과 원인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려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라는 상의 말에 과거의 일이 언급되어 있을 뿐, 과거 회상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천자가 평국과 보국에게 집을 하사한 일, 평국이 병이 든 것을 계기로 여자임이 밝혀진 일, 오왕과 초왕의 반란, 규중의 평국이 다시 전장에 나가게 된 일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슬픈 감회를 금치 못하거늘’, ‘마음에 기꺼함을 헤아리지 못할지라’ 등과 같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위공과 정렬 부인, 여공, 천자, 어의, 평국 등의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④ 사건의 발생과 진행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남관장이 올린 장계에 오왕과 초왕의 반란이 발생하였다는 정보와 이후의 진행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128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채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교체** ㉠: 천자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오랫동안 보지 못해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계월은 보국과 혼인한 이후 규중에 머무르며 여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조정에서 천자를 만날 수 없었다. 이때 계월은 시비와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집안일에 매달려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 홍계월과 보국이 멀리서 온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치하’는 남이 한 일에 대하여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은 평국(계월)과 보국이 먼 길을 와 준 여공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 홍계월이 병이 나자 집안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지극한 정성으로





신하들이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홍계월을 적극 추천하는 것은 홍계월이 뛰어난 능력으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② 홍계월이 정체가 탄로 나면 나랏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군.

홍계월이 ‘어이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어려웠던 당시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여공이 어린 홍계월을 구하여 입신양명하게 한 것에서 주인공이 1차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홍계월의 부모인 위공과 정렬 부인은 여공에게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사 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라고 하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여공은 홍계월이 1차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 ⑤ 홍계월이 천자의 부름을 받아 사직을 보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에서 국가의 위기와 개인적 고난을 동시에 극복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군.

홍계월의 2차 위기는 규중에 머물며 남편인 보국과 갈등을 겪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계월이 사직을 안보하라는 천자의 명을 받은 것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보국과의 갈등으로 규중에서 홀로 지내던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 132 ㉠ (1) 여공 (2) 후 (3) 제약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위공, 여공)은 홍계월이 1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어린 시절 계월을 구하여 친자식같이 기르고 입신양명하게 도운 인물은 여공이다. 위공은 계월의 아버지이다.

- (2) **교체** 홍계월이 겪게 되는 2차 위기는 계월과 보국의 혼인 (전, 후)에 발생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를 고려할 때 홍계월에게 닥친 2차 위기는 보국과의 혼인 이후 규중에서 보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 (3) **상반** 여성인 것이 밝혀진 후 규중에 머물렀던 계월의 모습을 통해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 자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복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평국의 모습이나 “평국이 전일에는 ~ 규중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장에 보내리오.”라는 천자

의 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사회적 참여에 제약이 따랐던 당대의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 133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계월의 작록이 영구하다는 것을 통해 천자가 계월이 여성임을 ~~전혀 꺼리지 않고 국사를 의논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 주었음을 알 수 있군.

“이름이 조야에 있삽고 또한 작록이 영구하오니”라는 신하들의 말을 통해 계월의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평국이 전일에는 출세하였기로 불러 국사를 의논하였거니와 지금은 규중의 여자라 어찌 영으로 불러들여 전장에 보내리오.”라는 천자의 말을 통해 천자는 규중의 여자인 계월과 국사를 함께 의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계월이 적진에 나가 십만 대병을 소멸했다는 것에서 남장을 한 계월이 보인 영웅적 활약상이 드러나는군.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적진에 나가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하고 왔으리오.”라는 천자의 말을 통해 남장을 한 계월의 영웅적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계월이 여성임이 밝혀지게 되자 남은 세월을 규중에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가부장제의 제약이 드러나는군.

어이에 의해 여성임이 밝혀지게 되자 계월은 남은 세월을 규중에서 보냄이 옳다고 생각한다. 적진 십만 대병을 소멸한 뛰어난 장수인 계월이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가부장제라는 당대의 제약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조정의 신하들이 오왕과 초왕을 막을 인물로 계월을 추천하는 모습은 남녀 차별의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계월이 여자라는 사실이 탄로 난 후에도 적을 막을 유일한 인물로 추천되는 것은, 남녀 차별의 제약을 벗어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천자가 계월에게 출사를 명하는 것을 통해 신분이 탄로 난 후에도 계월이 나라를 구할 어진 명장으로서 전쟁에서 활약해 능력을 발휘할 것임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는 홍계월이 신분이 탄로 난 후에도 전쟁에서 활약하여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천자는 규중의 평국(계월)을 불러 출사를 명하고 있으므로, 평국(계월)이 이후 나라를 구할 어진 명장으로 활약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15 김원전

### 작품 분석

본문 72~75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적강 소설, 전기 소설

주제 김원의 영웅적 일대기

-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김원의 행적이 다양하게 전개됨.  
②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변신, 용궁, 재생 모티프 등 다양한 설화의 모티프를 활용함.  
③ 전기적·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천상에서 죄를 지은 남두성은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와 명나라 고관 김규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아이의 생김새는 수박처럼 둥근 모습이었으며 김규 부부는 이름을 원이라고 짓는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선관이 찾아와 죄가 없어졌다며 김원의 허물을 벗기고 천서 세 권을 준다. 김원은 이를 읽고 풍운조화를 부릴 수 있게 된다. 수년이 지나 황제의 딸이 머리 아홉 달린 아귀에게 잡혀가고, 원은 대원수가 되어 공주를 구하러 간다. 원은 큰 바구니를 타고 아귀의 동굴 속 지하국에 내려가 아귀를 죽이고 납치되었던 공주와 다른 여인들을 구한다. 그러나 김원의 공을 시기한 부하 강문추가 김원을 지하국에 가두고, 김원은 지하국을 떠돌다 잡혀 있던 용왕의 아들을 구해 준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용궁에 따라간다. 용궁에서 용왕의 딸과 혼인한 원은 인간 세계로 나와 귀향하던 중 용왕이 준 연적을 탐내는 도적에 의해 죽는다. 그러나 용왕의 딸이 김원을 다시 살리고, 살아 돌아온 김원은 황제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고한다. 황제는 김원을 부마로 삼고, 부마가 된 원은 행복하게 살다 신선이 된다.

### 한 줄 요약

- ① 김원이 (지하국)으로 가 (아귀)에게 납치되었던 세 공주와 여인들을 구출함.
- ② 김원의 부하 (강문추)가 김원의 공을 시기하여 김원을 지하국에 가둠.
- ③ 강문추의 죄를 알게 된 상이 강문추와 군사 등을 (능지처참)함.
- ④ 상이 김규를 위로하고, 황후와 세 공주가 (지하국)에 갇힌 김원의 일을 탄식하고 한탄함.

## 134 ㉮ ⑤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잡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부재**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오.이

- ①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공주와 강문추, 상과 송방, 상과 김규의 대화 등에서 김원이 지하국에 갇힌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요약적 진술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다.  
황성으로 돌아온 공주가 상과 황후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전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어찌 감히 속이리오?’에서 강문추와 군사가 상을 속일 수 없을 것이라는 서술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

한 진술이다.

- ④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김원이 지혈에 들어가 ~ 저의 공을 빼앗음만 같지 못하다.’라는 강문추의 내적 독백을 통해 앞으로 김원이 지하국에 갇히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35 ㉮ ㉮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잡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승상 김규는 상의 명으로 입시한 뒤에야 김원이 황성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을 알게 되었다.

김규는 입시한 뒤 “경의 아들이 나라를 ~ 어찌 부끄럽지 아니 하리오?”라는 상의 말을 듣고 김원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 오.오.이

- ㉮. **사건 왜곡** 강문추는 심복 군사를 시켜 동우리의 줄을 놓게 한 후, **자신의 행위와 의도를 공주에게 정당하게 드러내었다.**

강문추의 의도는 ‘이제 김원이 지혈에 ~ 빼앗음만 같지 못하다.’라는 내적 독백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강문추는 “큰 변이 났나이다. ~ 놓아 버렸나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주에게 자신의 행위와 의도를 감추고 있다.

- ㉮. **사건 왜곡** 황성으로 돌아온 공주는 상과 황후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전하고 있다.

황성으로 돌아온 공주가 상과 황후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전하는 장면은 서술자에 의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주가 그간의 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136 ㉮ ③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잡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B]는 인물의 과거 행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34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황성으로 돌아온 공주가 상과 황후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말하는 장면은 서술자가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A]는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공주와 여자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김원의 모습이 비범한 영웅의 자질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나, 전기적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부재**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A]에 지혈 안이라는 공간은 나타나 있으나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지 않다.

- ④ **부재** [B]는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여 사건의 환상성을 부각하고 있다.  
공주가 겪은 일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 장면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 않으며 사건의 환상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다.
- ⑤ **부재** [A]는 대립적인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B]는 저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김원과 공주의 대화가 제시되나 두 인물은 대립하고 있지 않다. [B]에서는 저술자의 논평이 드러나지 않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도 않는다.

### 13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에서 '상'은 '김원'의 종적을 알고 '황후'와 '세 공주'를 위로하고 있다.

황성(㉡)에서 상이 김규에게 “원수를 보지 못하고 그 종적을 모르니”라고 말한 것을 통해 상은 김원의 종적을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로하는 대상도 황후와 세 공주가 아니라 김규임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에서 '원수'는 자신의 신분을 언급하며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지혈(㉠)에서 원수는 공주에게 “신은 신자라, 공이 무엇이길래 어찌 감히 먼저 올라가리이까?”라고 하며, 자신은 임금의 섬기는 신하의 신분이므로 공주보다 먼저 올라갈 수 없다면서 먼저 올라가라는 공주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 ② ㉢에서 나온 '세 공주'는 함께 잡혔던 여인들을 데리고 ㉡로 이동하였다.  
지혈(㉢)에서 나온 세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금당에 올라 모든 여자를 거느리고 황성(㉡)으로 행하여 여러 날만에 황성에 도달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에서 '원수'는 '황상'이 공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원수는 공주에게 “황상의 기다리심이 일각이 삼추 같사오니”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원수가 황상이 공주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송방'은 '김원'을 시기하는 사람이 그를 해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우승상 송방이 상에게 “신이 생각하오니 김원의 공을 꺼려 해치고자 하는 자가 있어 지혈을 메운가 싶사오니”라고 말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38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김원은 공주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을 근거로 들어 공주에게 먼저 지혈 밖으로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 ×)  
“원수가 큰 공을 세워 잔명을 ~ 뒤쫓아 올라가겠습니다.”라는 공주의 말을 통해, 공주가 김원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을 언급하며 김원에게 먼저 지혈 밖으로 나갈 것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공주는 자신들이 먼저 지혈 밖으로 나간 뒤 혼자 남겨질 김원을 걱정하고 있다. (○, ×)  
“먼저 오르소서 한 뜻은 뒷근심이 있을까 함이었사오니”라는 공주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우승상 송방은 김원에게 일어난 일이 누군가의 모해일 것이라 의심하였다. (○, ×)

137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

### 139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에서 '세 공주'는 '강문추'가 일부러 동우리의 줄을 놓았다고 '상'에게 고하였다.  
공주들이 상에게 ‘동우리를 타고 올라온 후 군사가 사슬을 놓아 김원이 나오지 못한 연유’를 아뢰기는 했으나, 공주들은 강문추에게 “지혈에 동우리를 조심하여 내리옵더니 ~ 건디지 못하여 놓아 버렸나이다.”라는 말만 들었으므로, 강문추가 일부러 동우리의 줄을 놓았다고 상에게 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오.오.이

- ① '김원'은 '공주'의 말을 사양하고 자신이 가장 나중까지 ㉡ 안에 머물고자 하였다.  
“원수가 크게 놀라고 듣지 않으니 ~ 지혈 밖으로 올렸다.”를 통해 볼 때, 적절한 진술이다.
- ② '공주들'은 모두 자신들을 구한 '김원'이 ㉡ 안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황상께 연유를 고하고 다시 돌아와 김원을 구하자는 막내 공주의 말에 두 공주는 “김원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을 어찌 알리오?”라며 걱정하고 있다.
- ③ ㉡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의 반가움을 나누게 되는 공간이다.



지혈에서 나온 공주의 일행이 황성에 도착하자 성내의 백성과 딸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세 공주는 대궐에 들어가 상과 황후를 만났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헤어졌던 가족이 황성에서 만나 반가움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강문추'는 ⑥에서 거짓을 꾸미려 하나 '상'의 친국에 의해 진실을 말하게 된다.

강문추는 김원을 구하라는 상의 명령에 그저 지혈이 메었다고 아뢰 뿐, 자신이 지혈을 메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이 친국을 배설하여 문책하자 죄를 자복하였다.

## 140 ㉔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댕

- 귀환: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 투철한: 속속들이 뚜렷하고 철저한.

### 정.정.이

- ④ **헛집기** '막내 공주가 첫 공주'께 서울에 가서 황상께 연유를 말하고자 한 것에서 주인공이 **현실 세계로 귀환했음을 알 수 있군**.

막내 공주가 첫 공주에게 "일이 여차하니 빨리 서울에 올라가 ~ 올을까 하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지혈에 갇힌 김원의 소식을 빨리 황상에게 알려 구하자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김원이 현실 세계로 귀환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강문추'가 군사를 시켜 지혈을 메운 것에서 주인공이 부하의 배반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알 수 있군.

강문추가 군사에게 분부하여 흠과 돌을 운반하여 지혈을 메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상'이 '강문추'를 엄형으로 문초하고 능지처참한 것에서 권선징악적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김원을 배반한 강문추가 처벌받는 것에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적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원수'가 지혈에 마지막까지 남아 여자들을 밖으로 보낸 것에서 주인공이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세 분 공주는 동우리에 ~ 신은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를 통해 자신의 목숨보다 공주와 여자들의安危를 걱정하는 김원의 투철한 사명감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김규'가 '상'에게 자식을 나랏일에 잃었으나 영광으로 여긴다고 말한 것에서 유교적 이념이 작품의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김규가 자식을 잃어 매우 슬퍼하면서도, 자식이 공주를 구하는 일, 즉 나랏일을 하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유교적 충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141 ㉔ (1) 공적 (2) 반동 (3) 신하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댕

- 주동 인물: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
- 반동 인물: 주인공에 맞서 대립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
- 고수: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

### 정.정.이

- (1) **상반** 김원은 지하국으로 내려가 아귀에게 납치되었던 공주를 구해냄으로써 (사적, **공적**) 과업을 달성하는 인물이다.

"경의 아들이 나라를 위하여 사지에 들어가 공주를 구하였거늘"이라는 상의 말을 통해 김원이 공주를 구한 일은 공적 과업의 달성임을 알 수 있다.

- (2) **상반** 강문추는 김원이 세운 공을 빼앗으려 하는 (주동, **반동**) 인물이다.

강문추는 김원이 큰 공을 이루는 것을 시기해 그를 지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죽이려 한 인물이므로, 주인공인 김원에 맞서 대립하는 반동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교제** 김규는 아들의 일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신하**)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며 상에게 자기 심정을 드러내지 못한다.

'승상은 간장이 녹는 듯하나 임금과 신하의 사이로서 자기 심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여'로 보아, 승상은 신하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며 아버지로서 자식을 잃은 심정을 상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2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공주들이 돌아와 '김원이 나오지 못한 연유'를 아뢴 것은 전형적인 지하국 대적 퇴치담에서는 나타나지 않겠군.

〈보기〉에서 세 공주가 황제에게 사실을 말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지하국 대적 퇴치담'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아귀에게 납치되어 '지혈에 들어가 시녀로 부림'당한 여인은 세 공주뿐이군.

김원이 '공주와 모든 여자들을 데리고 동우리에' 나아갔다는 것과 황성에 '성내의 백성과 딸을 잃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귀에게 납치당했던 여인은 세 공주 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교체** 김원은 '강문추와 군사 등을 다 능지처참'하며 배반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군.

강문추와 군사 등을 다 능지처참한 주체는 상(임금)이다. 이 글에서 김원이 배반자를 직접 처벌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사건 왜곡** 김규는 김원이 구출한 공주와 혼인하지 못하게 된 것에 '간장이 녹는 듯' 슬퍼하고 있군.

김규는 아들 김원이 지하국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지, 김원이 공주와 결혼하지 못해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사건 왜곡** 강문추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한 행동을 후회하고 '성지를 받자와 지혈에 나아가' 김원을 구하고 있군.

김원을 구하라는 상의 명령을 받은 강문추가 지혈에 다시 나아가는 있으나 김원을 구하지는 않았다. 또 강문추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도 않다.

## 16 이대봉전

본문 76~79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애정 소설, 전기 소설

주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활약상

특징

① 충과 권선징악을 토대로 서사가 전개됨.

②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활약을 통해 남성 중심적인 당대의 사회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명나라 이부 사랑 이익과 그의 죽마고우 한림학사 장희는, 봉황 한 쌍이 내려와 봉은 이익 부인의 품에 들고 황은 장희 부인의 품에 드는 꿈을 꾸다. 그 후 이익은 아들 대봉을, 장희는 딸 애황을 얻고 서로 혼약을 맺는다. 한편 이익은 간신 왕희의 일을 직간하다 왕희에 의해 대봉과 함께 귀양을 가게 된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은 용왕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나 서로 헤어지고, 이후 이익은 외딴 섬에 머무르고 대봉은 노승을 만나 술법을 배운다. 이익 부자의 소식을 들은 장 한림 부부는 병을 얻어 죽고, 애황은 왕희의 며느리가 될 위기에 처한다. 남장을 하고 도주하던 애황은 마고선녀에게 술법을 배우고, 희운으로 이름을 바꾼 후 장원 급제한다. 남 선수가 중원을 침범하자 애황이 출전한다. 이때 북 홍노가 중원을 침공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대봉이 도성으로 달려와 홍노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재회한다. 선수를 추격하여 항복을 받고 돌아온 애황은 자신이 장 한림의 딸임을 밝히고, 사연을 들은 천자는 대봉과 애황을 혼인시킨다. 대봉과 애황이 왕희를 벌한 후 남 선수와 북 홍노가 재침하자, 두 사람은 각각 출전하여 적을 진압한다. 그리고 대봉과 애황은 영웅 준걸의 아들을 낳아 부귀영화를 누린다.

### 한 줄 요약

- 남방의 (선우)와 북방의 (홍노)가 재침입하여 이대봉(초왕)과 장애황(왕후)이 출전하게 됨.
- (이대봉)과 (장애황)이 서로 무사히 돌아와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고 각각 전장으로 떠남.
- 장애황이 남방의 선우에 승리하고 황성으로 올라오던 중 (아들)을 낳음.

## 143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황제가 남북의 적병이 재침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 →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에 황성으로 오는 장면 → 장애황이 황성으로 오는 장면 → 이대봉과 장애황이 출전하는 장면 → 장애황이 남 선수를 물리치는 장면' 등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면서 속도감 있게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장애황이 적을 무찌르는 장면 묘사를 통해 장애황과 적군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배경이 묘사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부재** 초월적 공간을 통해 사건의 환상성을 강화하고 있다.

초월적 공간이나, 사건의 환상적 요소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부재** 저술자의 개입을 통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서술자가 개입하는 부분이나 비극적 결말에 대한 암시는 확인할 수 없다.
- ⑤ **헛집기**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에서 장애황이 적을 물리치는 상황이 과장되게 드러나 있을 뿐, 해학적 분위기는 드러나지 않는다.

## 144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여러 문장을 연결하여 긴 호흡으로 서술되고 있다.  
'원수가 백금 투구를 쓰고 흑운포를 입고 ~ 선봉장 골통을 맞아 싸웠다.'와 같이 여러 문장이 길게 연결되어 있어 서술의 호흡이 길다.

### 오.오.이

- ① **부재**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부재** 구체적인 사·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  
'황성, 진문관, 하양' 등 공간적 배경은 나타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성의 획득과는 관련이 없고,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역시 확인할 수 없다. "동지에 조공 보냄"이라는 장 원수의 말에서 '동지'라는 시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미래의 일과 관련해 언급된 것일 뿐이다.

## 145 ㉔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고 있다.  
황제와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났으며, 이에 이대봉과 장애황을 보내 적을 막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저술자가 직접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부재** 한 인물의 내면을 의식와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부재** 인물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장애황(장 원수)의 활약상이 제시되어 있으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남북의 적병이 침입한 것에 대한 황제의 걱정은 이대봉과 장애황이 출전하면서 해결되고 있다.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 146 ㉔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결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 정.정.이

- ①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는 장애황(왕후)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 황제에게 적군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드러내는 말이다. 그리고 [B]는 애황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항복한 남만의 다섯 나라의 왕들에게 반역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A]에 드러난 장애황의 결의가 실행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② **헛집기** [A]에 드러난 인물의 권위가 추락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에서 애황(왕후)이 황제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것을 맹세하고 있으므로 황제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황제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헛집기** [A]에서 인물과 예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에서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승리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을 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헛집기** [A]에서 지작된 인물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에서 애황(왕후)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헛집기** [A]에서 종말된 인물들 간의 오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A]에서 인물들 간의 오해가 나타나지 않으며, [B]에서 이러한 오해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정오 지름길

- ② [A]에 드러난 **인물의 권위가 추락되었음**을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물의 발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예요.  
 ②에서 '인물의 권위가 추락되었음'은 장애황이 패배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인물의 권위가 추락되었다는 것은 [A]의 결의와 달리 적병에게 패배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장애황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②는 답이 될 수 없어요.

### 147 정답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황제는 외적이 자주 침입하는 것의 원인을 ~~이대봉과 장애황 부~~ <sup>자신의 덕</sup> 부와 정성이 부족한 데서 찾고 있다. (○, ×)  
 황제는 “짐이 덕이 없어 도적이 자주 일어나니”라고 하며 외적의 침입이 잦은 원인을 자신의 덕이 없음에서 찾고 있다. 이대봉과 장애황 부부의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라며 장애황이 말한 것이다.
- (2) 이대봉은 잉태한 지 일곱 달이나 되는 장애황이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  
 “원수가 잉태한 지 일곱 달이니 ~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노라.”라는 이대봉의 당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장애황은 전투에서 승리하여 행복한 적군에게 반역의 마음을 다시 두지 말 것을 경고한다. (○, ×)  
 장애황은 다섯 나라의 왕에게 “이 뒤로 만일 반역의 마음을 둔다면 너희 다섯 나라의 인종을 모두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 148 정답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남북의 적병'이 재침입하자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천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전장에 나가 국가를 지키고자 하든군~~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나자 황제가 “초왕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전하리라.”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천자인 자신의 덕이 없어 적병이 자주 일어난다는 한탄이다. 황제는 전장에 나가고

있지 않으며 이대봉과 장애황을 전장에 나가도록 하고 있다.

#### 오·오·이

- ② 황제가 장애황에게 하사한 '인곤과 절월'은 장애황에 대한 황제의 신임이 매우 두터움을 보여 주는군.  
 황제가 장애황을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도총독 상장군에 봉하고, 애황에게 병권과 생살권을 상징하는 인곤과 절월을 하사하는 것은 애황에 대한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보여 준다.
- ③ '복중에 품은 혈육'은 이대봉으로 하여금 장애황을 더욱 걱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군.  
 이대봉은 잉태한 지 일곱 달인 몸으로 전장에 나가는 장애황을 몹시 걱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남만의 다섯 나라'에서 보내온 '황금과 비단, 채단'은 다섯 나라의 왕들이 보이는 향복의 징표로군.  
 다섯 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 황금과 비단, 채단을 수레에 가득 싣고 향복의 문서를 올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백성을 진무'하고 '군사를 위로하며 쉬게' 하는 모습에서 장애황의 덕성을 확인할 수 있군.  
 전쟁으로 힘들었을 백성들과 군사들을 살피고 위로하는 모습에서 장애황의 덕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149 정답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헛집기** 황제가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패초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군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황제는 여러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대봉의 능력을 믿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황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에 지체 없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군.  
 이대봉이 황제의 부름에 즉시 황성으로 향하는 장면을 통해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장애황이 규증을 벗어나 전장에 대원수로 참여하여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왕후인 장애황이 규증을 벗어나 대원수로서 전쟁에서 활약하는 장면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장애황이 잉태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선뜻 나서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장애황이 잉태를 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출전하는 모습을 통해,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해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장애황과 이대봉이 각각 남북의 적과 맞서 싸우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남녀 주인공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대봉은 북방의 흉노를 치러 가고 애황은 남방의 선우를 치러 떠났다.’에서 이대봉과 장애황이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50** ㉠ (1) 초왕 (2) 북방 흉노, 남방 선우  
(3) 개인적, 집단적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1) **교체** ((초왕, 태상왕)이 황제가 보낸 전교를 보고 즉시 황성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군주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초왕 이대봉이 황제가 보낸 전교를 보고 즉시 황성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태상왕은 이대봉이 국사를 맡긴 인물이다.
- (2) **교체** 이대봉은 ((북방 흉노, 남방 선우)를, 장애황은 (북방 흉노, 남방 선우)를 치러 떠나는 장면에서 이대봉과 장애황이 역할을 나누고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149**번-⑤의 해설을 참고할 때, 이대봉은 북방 흉노를, 장애황은 남방 선우를 치러 떠났음을 알 수 있다.
- (3) **상반** 장애황은 잉태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는 ((개인적) 집단적) 가치보다 외적의 침입을 막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개인적,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여 선뜻 전장에 나선다.
- 〈보기〉에서 이 글은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녀 주인공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였다. 애황은 잉태한 아이를 건강하게 낳는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여 전장에 나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한다.

**151** ㉠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위용: 위엄(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짐작고 엄숙함. 또는 그런 태도나 기세)찬 모양이나 모습.

정.정.이

- ④ **헛집기** 색채 이미지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장 원수가 머무는 공간을 감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가 해당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 볼 수 있겠군.
- 장 원수가 머무는 공간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색채 이미지의 대비는 장 원수의 외양을 묘사한 ‘원수가 백금 투구를 쓰고, 흑운포를 입고’에 드러난다.

오.오.이

- ① 적진으로 달려드는 장 원수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군.
- ‘원수가 백금 투구를 쓰고 흑운포를 입고 7척 천사검을 높이 들고 천리준총마를 타고 적진으로 달려들 때’와 같이 그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장 원수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적진에서 장 원수가 적들을 무찌르는 모습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군.
- ③ 장 원수가 적군을 무찌르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장 원수의 영웅성에 몰입하게 되는군.
- 장 원수가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적군을 여린 풀 베듯 하니, 군사의 주검이 산처럼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어’, ‘적진 장졸들이 원수의 용맹을 보고 물결이 갈라지듯 흩어지자’ 등과 같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함(②)으로써, 독자들이 장 원수의 영웅성에 몰입하게 된다(③).
- ⑤ 초왕이 황제의 전교를 보고 황성으로 오는 모습과 총렬 왕후가 초왕이 보낸 사연을 보고 황성으로 달려오는 모습은 병렬적으로 서술되고 있군.
- 초왕(이대봉)이 ‘용포를 벗고 월각 투구를 쓰고 ~ 오추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오는 모습과, 총렬 왕후(장애황)가 ‘화려한 옷을 벗고 갑주를 갖추어 ~ 천리마를 채찍질하여’ 황성으로 오는 모습에서 두 인물의 모습이 병렬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7 용문전

### 작품 분석

본문 80~83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용문의 영웅적 활약상과 일대기

- 특징 ① 「소대성전」의 속편으로 창작된 소설임.  
 ②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충(忠) 이념이 흐려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함.  
 ③ 어린 시절의 시련, 혼사 장애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음.

**단숨에 읽기** 명나라 때 소대성은 호국과 선우를 평정하고, 노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호왕이 부모의 원수인 노왕 소대성에게 복수하고자 한다. 이때 천상의 신장이 옥황상제의 내침을 받아 천축사 세존의 인도로 호국의 은사 용문의 아들로 태어난다. 연화 도사는 천기를 보고 호국 땅에 영웅이 태어났음을 알고 용문을 찾아가 그를 가르친다. 하산한 용문은 적토마, 갑옷과 투구, 용천검을 얻는다. 호왕이 명나라 황제와 노왕을 치려 하자 천관 도사가 호왕에게 용문을 선봉장으로 삼을 것을 권한다. 한편 노왕에게도 청룡사 노승이 용문을 추천하고, 연화 도사가 명군에 가담한다. 명군과 호군의 싸움에서 용문은 노왕과 겨루나 승부가 나지 않는다. 노왕과 겨룬 용문은 노왕이 천하를 평정할 기상을 지녔음을 알고 호왕의 그릇이 작은 것에 실망하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한다. 그리고 용문은 명나라 황제를 섬기라는 연화 도사의 편지를 받지만, 호국 백성으로서 임금은 해할 수 없다며 거절하다 결국 명의 진영에 참여한다. 호왕은 용문의 부친 용훈을 붙잡아 용문을 회유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노왕에 의해 죽는다. 용문의 부친은 호왕에 즉위하고, 용문은 노왕의 딸 계춘과 혼인하여 태평성대를 누리다.

### 한 줄 요약

- ①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용훈 부부가 「천축사」에서 부처에게 발원한 후 꿈을 꾸고 아들 용문을 얻음.
- ② 용문이 「연화 도사」에게 팔 년 동안 병법과 술법을 배우고 하산함.
- ③ 용문이 「적토마」와 갑주, 「용천검」을 얻음.

## 152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부재**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오.이

- ① 대화를 통해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용훈과 부인의 대화를 통해 늦도록 자식이 없는 부부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용문의 지략과 기량이 천지간 영웅 준걸이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용문의 웅장한 소리를 ‘소리 웅장하여 큰 북소리 같고’라고 표현한 부분이나, 적토마의 비범한 외양을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와 같이 표현한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고 몸이 불빛 같더니’와 같이 표현한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 개탁하라.’라고 쓰인 석함을 통해 용문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153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용훈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

“내게 와서 후사가 끊일 줄을 어찌 알리오.”, “빌어 자식을 낳을진대 천하에 무자한 자가 뉘 있으리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한탄이, “이 아이 기상을 보오니 ~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오.”에서는 용문의 기상을 보고 느끼는 즐거움이 드러난다.

- (2) 적토마의 생김새를 직유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눈은 방울 같고 몸이 불빛 같더니’에서는 적토마의 생김새가 직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3) **교체** 척함이라는 소재를 통해 용훈 부부가 생남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

‘척함’은 용문의 장래를 암시하는 소재이다. 용훈 부부가 생남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는 부인 관씨의 꿈이다.

## 154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꿈을 통해 인물이 겪는 문제 상황이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용훈 부부는 후사가 없어 고민하던 중, 부인 관씨는 한 동자가 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다. 그리고 태기가 있어 용문을 얻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용문이 집을 떠나 연화산에 다녀온 것, 강변에서 한곳으로 이동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용문의 성격이 변하고 있지는 않다.

- ② **헛집기** 두 인물의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용훈과 부인, 용훈과 연화 도사, 연화 도사와 용문의 대화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인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지 않다.

- ④ **부재** 인물의 외양과 성격을 대조하여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용문은 비범한 외양을 지녔으며 장래 귀인이 될 자질을 갖추었으므로, 외양과 성격이 대조된다고 볼 수 없다.

- ⑤ **헛집기**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과 대상 사이의 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 적토마에 대한 묘사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용문과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155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사건 왜곡** 신장은 옥황상제의 명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신장은 옥황상제의 ‘홍해국 태자를 베라.’는 명을 받들었지만, 옥황상제는 ‘정말 가서 베고 왔는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며 신장을 세상에 내쳤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장의 의도적으로 옥황상제의 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용문은 호국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호국의 명가이다.  
용훈은 ‘대대로 명가의 자손’이고 용문은 ‘우리 대대로 호국 사람’이라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용훈은 본디 입신양명하려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용훈이 ‘본래 벼슬길에 뜻이 없어 강호에 놀기와 동산에 발갈기를 일삼’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용훈 부부는 용문의 말을 듣고 연화 도사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꼈다.  
‘용문이 선생 말씀을 날날이 여쭙니, 용훈의 부부 연화 도사를 향하여 은혜를 못내 칭찬하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용훈 부부는 태항산 천축사에 머물며 반년 동안 삼불에게 발원하였다.  
‘태항산 천축사에 올라가 ~ 축원하며 반년이나 지내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56 ㉮ ㄱ, ㄹ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ㄱ. 용훈은 호국 명가 출신이지만,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155번-①, 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ㄹ. 용훈 부부는 용문이 산에 들어간 지 팔 년 만에 다시 용문과 재회하여 기뻐했다.

‘용문이 산문 밖에 나와 부모께 뵈오니, 부모가 크게 기뻐 팔 년 그리던 정을 못내 애연하더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ㄴ. **상반** 용문은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용문이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 통합하게 하온 일인지 장래를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미래의 일을 확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ㄷ. **교제** 후사가 없음을 한탄하던 용훈 부부는 연화산에 들어가 정성으로 발원하였다.

용훈 부부는 연화산이 아니라 태항산 천축사에서 발원하였다. 연화산은 용문이 연화 도사를 따라 들어간 곳이다.

## 157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상반** ‘용문’은 석함에 쓰인 금자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강을 향하여 사례한다.

용문은 석함 전면에 금자로 새겨진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 개탁하라.’라는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장래를 보자.’라며 강을 향하여 사례하였다. 그러므로 용문이 금자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오.이

- ① ‘용문’은 ‘그 사람’이 말한 대상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본다.  
적토마를 전해 준 ‘그 사람’은 “이 말은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한다고 하였다. 용문이 적토마를 타 보니 빠르기가 살과 나는 제비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용문은 적토마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 ② ‘용문’은 스승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며 이를 어기지 않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어찌 선생의 교훈을 일부이나 어기리이까.”라는 용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용훈’은 자신을 찾아온 ‘연화 도사’의 제안을 듣고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수락한다.
- ⑤ ‘연화 도사’는 ‘용문’이 장차 비범한 인물이 될 것임을 예측하여 자신이 말아 가르치기를 바란다.  
연화 도사는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니 ~ 노인에게 맡기시면 장래 귀히 되리이다.”라며 용문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권하였다(⑤). 이에 용훈은 도사에게 즉시 용문을 허락하였다(④).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적토마를 전달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용문이 천상계 인물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군.

용문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적토마를 얻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해 스스로 천상계 인물임을 깨닫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관씨의 태몽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려 주고 있군.

관씨의 태몽에 동자가 나타나 “소자는 천상 삼십삼천 도인도 ~ 부인은 어여빠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용문이 천상계와 연결된 고귀한 혈통임을 알 수 있다.

- ② 갓 태어난 용문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군.

갓 태어난 용문의 모습은 ‘용의 기상이요, 범의 머리며 ~ 앞니가 밖으로 한 치나 내밀었으니’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비범한 외양을 통해 용문의 영웅성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육도삼략과 병법 등을 용문에게 가르치는 연화 도사를 등장시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군.

연화 도사는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들어가 천문 지리, 육도삼략, 황석공의 병법을 팔 년간 가르친 인물로, 용문이 영웅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⑤ 벽도관을 쓴 동자가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전장 기계를 전달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군.

벽도관을 쓴 동자가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받사와 전장 기계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라며 용문에게 신물을 전해 준 것을 통해 용문이 영웅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159 15 ③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적토마, 갑주, 용천검은 용문이 명국을 택하는 계기가 되는데, 용문이 얻은 적토마와 갑주, 용천검은 용문이 전장에서 재주를 펼치는 데 도움을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것 자체가 명국을 택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오.오.이

- ① 석함의 글귀는 훗날 용문이 명국을 택할 것을 예언하는군.  
석함에 새겨진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 친집 개탁하라.’라

는 글귀는 훗날 용문이 명국을 택하여 대사마 장군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용문은 옥황의 명을 수행하던 신장이 적강한 천상의 존재군.

**158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연화 도사는 용문이 귀인이 되리라 여기고 가르침을 주는군.

연화 도사는 “이 아이 상을 보니 반드시 귀인이 될 것”이라고 하며 팔 년간 용문을 가르쳤다.

- ⑤ 대대로 호국 사람인 용문이 명국 대사마 장군이 되기까지 호국과 명국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을 겪었군.

〈보기〉에서 용문은 호국과 명국 사이에서 갈등하며 처음에는 호국을 택하나, 이후 명국을 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대로 호국 사람’인 용문이 ‘명국 대사마 장군’이 되기까지는 내적 갈등이 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 160 15 ②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강변(㉡)에서 나타난 사람은 먼 데서 크게 불러 말을 잡아 달라며 용문의 관심을 끈 후 “이 말을 장군께 드리러 왔나이다.”라며 용문을 찾아온 의도를 밝혔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연화 도사에게 훈육을 간청하기 위해 용문은 용문을 데리고 ㉠에 들어갔다.

연화 도사는 용문을 훈육을 할 수 있도록 용문에게 요청하고, 용문이 이를 허락하자 용문을 데리고 ‘연화산(㉢)’에 들어갔다.

- ③ **헛집기** 용문이 ㉢에서 만난 인물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며 석함을 전달하고 있다.

용문이 한곳(㉣)에서 만난 동자는 옥황상제의 명으로 용문에게 석함을 전달하며 차후에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다. 동자가 용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사건 왜곡** 용문은 ㉣에서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용문은 한곳(㉣)에서 석함을 받고 ‘하늘이 나를 호국을 배반하고 ~ 장래를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용문이 호국을 버리고 명나라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범위 오류** ㉠은 용문이 현실에서 노니는 공간이고, ㉣은 꿈속에서 체험한 공간이다.



강변(㉠)과 한곳(㉡)은 모두 현실의 공간이다.

## 161 ㉠ (1) 적토마 (2) 옥황상제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용문은 강변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 석함, 적토마 )을/를 얻는다.

강변에서 만난 사람은 용문에게 적토마를 주었다. 석함은 적토마를 타고 다다른 한곳에서 만난 동자에게 얻었다.

- (2) **교체** 용문은 ( 명국 장군, 옥황상제 )이/가 보낸 동자로부터 전장 기계를 전해 받았다.

충암절벽상에 있던 동자가 “소자는 천상 옥황상제의 명을 받사와 전장 기계를 장군에게 전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162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 용문이 비현실적인 존재를 마주하여 이와 대결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강변(㉠)에서 만난 적토마는 “능히 운무를 따르며 한번 채치면 능행만리하고 한 번 소리를 한즉 태산과 하해가 뒤늦는 듯”한 존재로 비현실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으나, 용문이 적토마와 대결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 용문이 부모의 곁을 떠나 영웅적 면모를 갖추는 공간이다.  
용문은 연화 도사를 따라 연화산(㉡)에 들어가 재주를 배웠고, 영웅 준걸의 지략과 기량을 갖추게 되었다.
- ② ㉠: 용문이 정체할 수 없이 사라진 이에 의해 기쁨을 느끼는 공간이다.  
강변(㉠)에서 용문에게 적토마를 준 사람은 말을 마치고 사라졌으며, 용문은 적토마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 ④ ㉡: 용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공간이다.  
용문은 한곳(㉡)에서 동자로부터 석함을 받는데, 석함의 ‘명국 대사마 장군 용문’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국 사람인 자신을 명국 장군이라 한 것에서 자신의 앞날에 의문을 갖게 된다.
- ⑤ ㉡: 용문이 천상계에 속한 존재가 보낸 물건을 받게 되는 공간이다.

161번-(2)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18 임경업전

### 작품 분석

본문 84~87쪽

###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역사 소설

**주제**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

**특징** ①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하구적 요소를 추가함.

②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병자호란 패배의 원인을 대처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됨.

**단숨에 읽기** 18세에 무과에 장원 급제한 임경업은 백마강 주변의 마을로 부임해 선정을 펼친다.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고 명나라에 구원을 청하자, 임경업이 조선의 구원병을 이끌고 가서 호국을 구한다. 이후 힘을 기른 호국은 조선의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 조정에서는 임경업을 의주로 보내 호국을 막고자 하나, 호국은 의주를 피해 동해로 조선을 침공한다. 임경업만 믿고 아무 대비를 하지 않은 인조는 궁궐을 빼앗기고,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간다. 호국은 인조의 항복을 받고, 왕대비와 세자를 인질로 잡고 회군한다. 호국이 명나라를 치겠다며 조선에 청병하자, 간신 김자점의 주청으로 임경업이 호국에 파견된다. 임경업은 명나라와 내통해 거짓 항서를 올리게 하고, 이를 안 호왕에게 붙잡힌다. 임경업의 당당함과 충성심에 감동을 받은 호왕은 세자와 대군을 조선에 돌려보내고, 임경업을 부마로 삼고자 한다. 임경업은 호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조선으로 돌아오다 김자점의 모략으로 죽임을 당한다. 임금의 꿈에 나타난 임경업이 억울함을 고하자 임금은 김자점을 처형하고 임경업의 충성심을 기린다.

### 한 줄 요약

- ① 호왕이 ( 임경업 )의 강직함과 충절에 탄복하여 ( 세자 )와 ( 대군 )을 조선으로 돌려보냄.
- ② 세자가 폐위되고 ( 대군 )이 세자로 책봉됨.
- ③ 호왕이 임경업에게 ( 부마 )가 될 것을 제안하나 임경업이 거절함.
- ④ 귀국하던 임경업이 ( 김자점 )에 의해 ( 반역 )했다는 누명을 쓰고 잡혀감.

## 163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김자점은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키려는 임경업의 소원을 망해하였다.

임경업이 조선으로 돌아오기 전에 세자와 대군은 이미 귀국한 상태였다. 김자점은 임경업이 돌아오면 자신의 계교를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임경업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대군은 호왕의 배려에 따라 소원을 말하였다.

호왕이 세자와 대군에게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라고 하자,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 ② 호왕은 적국의 임금인데도 강직한 임경업을 살려 보냈다.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과 충절에 탄복하여 세자와 대군을 보내 주고,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임경업을 보냈다고 하였다.

- ③ 호국 신하들은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호왕이 조선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임경업을 보내지 않으려 하자 신하들이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두어 무익하고,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라고 말하며 임경업을 귀국시켜도 호국에 무해하다고 아뢰었다.
- ④ 주상은 세자와 대군을 돌아오고 임경업은 함께 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다.  
 세자와 대군이 돌아오자 주상이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라고 탄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164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호왕은 임경업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서도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탄하였다.  
 항복하지 않으면 베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임경업의 강직함에 호왕이 탄복하였다고 하였다.
- ㉣. 호왕은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받아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놓아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장군이 내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 ~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라는 호왕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오.오.이

- ㉢. **사건 왜곡** 세자와 대군은 호왕에게 임경업과 함께 귀국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세자와 대군이 임경업과 함께 귀국할 것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호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세자는 금을 구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였다고 하였다.
- ㉣. **상반** 임경업은 호왕의 부마가 되려 위해 지해를 발휘한다.  
 공주가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자 임경업은 부마에 뽑힐까 두려워하여 신발 속에 솜을 넣어 키를 세 치를 돌우고 들어갔다고 하였다.

## 165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호왕은 임경업을 잡아 두기 위한 목적으로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 달라는 청을 수락했다.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과 충절에 감동했기 때문에 세자와 대군을 조선으로 보내 달라는 임경업의 청을 들어 주었다.

### 오.오.이

- ① 숙모 공주는 임경업의 관상을 보고 난 후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였다.  
 숙모 공주는 임경업의 관상을 보고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 다만 키가 세 치 더한 것이 애답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였다.
- ② 세자가 호왕에게 금을 구한 것은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었다.  
 세자는 호왕에게 금을 구해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에 주상은 크게 화를 내고 둘째 대군으로 세자를 봉했다.
- ③ 주상은 임경업의 충성심을 신뢰하여 임경업을 해치고자 하는 김자점을 꾸중했다.  
 임경업이 역모죄를 지었다는 김자점의 주장을 들은 주상은 임경업이 충신임을 강조하며 자점을 엄히 꾸중하였다.
- ⑤ 호왕은 사윗감으로 임경업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 임경업에게 부마가 되기를 청했다.  
 호왕은 임경업과 방불한 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임경업에게 부마가 되기를 청하였다.

## 166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역류**: 역지로 머무르게 함.

### 정.정.이

- ⑤ **범위 오류** ㉠에서는 죽음을 작정하고, ㉡에서는 **역류를 의도하여** 상대에 저항한다.  
 ㉠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호왕의 회유를 거절한다고 할 수 있다. ㉡은 ‘경업이 죽기로써 좇지 아니하니’와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로 볼 때 역류를 의도하여 호왕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임경업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에서는 회유에 대해 대응하고, ㉡에서는 권유에 대해 반응한다.  
 ㉠은 항복하면 왕을 봉하겠다는 회유에 대한 거절이고, ㉡은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리라는 권유에 대한 거절이다.
- ② ㉠에서는 충신의 도리를, ㉡에서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한다.  
 ㉠은 종사를 위해 호왕에게 항복했던 왕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고, ㉡은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는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함을 드러낸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사실을, ㉡에서는 현재의 처지를 언급하여 거절한다.



- ㉠에서는 병자년에 조선의 왕이 호왕에게 항복한 과거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에서는 자신이 현재 아내가 있는 처지임을 언급하고 있다.
- ④ ㉠에서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에서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한다.  
㉠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에서 호왕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은 “말씀”, “지극히 황공하며”, “존명” 등을 통해 호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167 ㉢ (1) 거절 (2) 호왕 (3) 의로써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임경업은 항복하면 왕에 봉하여 주겠다는 호왕의 제의를 (거절) 수락)한다.  
항복하면 왕을 봉하겠다는 호왕의 회유에 임경업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라며 거절하였다.
- (2) **교제** ((호왕) 숙모 공주)은/는 임경업에게 호국의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릴 것을 권유하였다.  
호왕은 임경업에게 “장군이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라고 권하였다.
- (3) **교제** 호국의 신하들은 임경업의 절개가 높고 충성심이 깊음을 알고 ((의로써) 예로써) 임경업을 조선에 보낼 것을 주장한다.  
호국의 신하들은 호왕에게 “절개 높고 충성이 깊은 사람 ~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라며 경업을 조선에 보낼 것을 아뢰었다.

## 168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어휘

- **율문**: 언어의 배열에 일정한 규율 또는 운율이 있는 글.
- **논평**: 어떤 글이나 말 또는 사건 따위의 내용에 대하여 논하여 비평함. 또는 그런 비평.

### 정.정.이

- ⑤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사실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의 전반부는 임경업과 호왕, 후반부는 상과 김자점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사실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사건의 전개를 암시하는 특정한 소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부재** 율문투를 사용하여 비극적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은 율문투는 사용하지 않았다.
- ③ **부재**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을 직접 논평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논평하고 있지 않다.
- ④ **부재** 배경을 치밀하게 묘사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배경을 치밀하게 묘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169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상반** 칼을 쓰고 잡혀가는 ‘임경업’을 보며 ‘의주 백성들’이 우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임경업’을 흠모하는 청중은 무슨 연고인 줄 몰라져 분노를 표출하겠군.  
임경업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무슨 연고인 줄 모르고 슬퍼한 사람들은 청중이 아니라 작품 속 의주 백성들이다. 「임경업전」을 듣는 청중은 김자점이 임경업을 모함하고 계락을 꾸미는 것에 대해 들었으므로 임경업이 잡혀가는 연고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청에 대한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통쾌해하겠군.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청에 적대감을 지닌 청중은 임경업 장군의 기개가 호왕을 압도하는 것처럼 통쾌하게 느낄 것이다.
- ③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을 낭독할 때, 세자답지 못한 행동을 꾸짖는 ‘주상’의 분노가 느껴지면서 청중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일 것군.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중은 주상이 세자를 꾸짖는 장면에서 주상의 분노와 세자를 내리치는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 ④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낭독할 때, 이야기에 몰입한 청중에게는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극적 환상이 조성되겠군.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자가 임경업에게 잡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청중은 이야기에 몰입하여 마치 작중 인물이 되어 그 대화를 직접 듣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임금과 백성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김자점'에 의해 '임경업'이 모해를 입는 장면을 낭독할 때,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군.

〈보기〉에서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김자점이 임경업을 모해하는 장면에서 간신에 대한 청중의 반감이 커지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 170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헛집기** 임경업이 호왕에게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청중의 청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었을 것이다. (○, ☒)  
 임경업이 호왕을 꾸짖는 장면에서 청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청중은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청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김자점이 주상에게 경업을 반역 죄인이라며 “어찌 이런 대역 죄인을 그저 두겠나이까!”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청중은 김자점의 교활한 계교에 분개하였을 것이다. (☒, ×)  
 충신인 임경업을 반역자로 모해하는 김자점의 모습에 청중은 간신에 대한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 (3) 임경업이 “나는 죄 없이 잡혀가노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청중은 임경업의 억울함에 몰입하여 간신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다. (☒, ×)  
 김자점에 의해 억울하게 잡혀가는 임경업의 모습에 청중이 김자점과 같은 간신에게 느끼는 반감과 적개심이 더욱 커졌을 것이다.

## 171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호국의 신하들이 임경업을 조선에 보내도 해로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임경업을 과소평가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호국의 신하들이 호왕에게 절개 높고 충심이 깊은 사람을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임경업의 절개와 충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호국의 신

하들이 임경업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오.오.이

- ① 임경업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호왕을 오히려 꾸짖는 데서 병자호란의 치욕으로 인한 한을 풀고자 하는 민중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군.  
 호왕에게 잡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임경업은 오히려 호왕을 크게 꾸짖으며 말하고 있다. 이처럼 호왕을 꾸짖는 것은 병자호란의 패배로 인한 치욕을 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당대 민중의 정서가 투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호왕이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한 후 임경업의 충절을 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임경업의 뛰어난 품성이 부각되고 있군.  
 호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탄복하여 임경업의 충절을 해할 수 없다며 임경업이 원하는 대로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고 있다. 이는 임경업의 품성이 뛰어난 것을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김자점이 임경업을 자신의 정치적 계교를 이루는 데 방해되는 인물로 생각하는 데서 김자점과 임경업의 대립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군.  
 김자점이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생각한 것을 통해, 김자점이 임경업을 자신의 계교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여겼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자점과 임경업의 대립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칼을 쓴 채로 호송되는 임경업에 대해 백성들이 남녀노소 없이 슬퍼한 데서 임경업을 흠결 없는 인물로 여겼던 민중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군.  
 임경업이 잡혀 칼을 쓴 채로 호송되자 백성들은 임경업이 잡혀가는 연유에 대해 의아해하며 슬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경업을 흠결이 없는 인물로 여긴 민중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19 정수정전

### 작품 분석

본문 88~91쪽

작가 미상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정수정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

특징 ① 가부장적 질서에 맞서는 정수정의 주체적이고 영웅적인 행적을 강조함.  
② 당시 늘어나는 여성 독자층을 고려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여성이 우월한 위치에서 남성을 징계함.

단숨에 읽기 송나라 병부 상서 정흠은 선녀가 적강하는 태몽을 꾸고 딸 수정을 얻는다. 그리고 이부 상서 장운의 아들 연과 혼약을 맺는다. 정 상서가 황제에게 간신 진랑을 멀리할 것을 간하자, 진랑이 정 상서를 모해해 귀양을 보낸다. 정 상서는 귀양지에서 병을 얻어 죽고, 수정의 어머니와 장 상서 역시 잇따라 죽는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수정은 남복을 하고 무예를 닦아 과거에 급제한다. 진랑이 황제에게 정 상서에 게 아들이 없음을 고하나 수정은 진랑의 간교함을 황제에게 고하고, 진랑은 유배를 간다. 북방 오랑캐가 침입하자 수정은 대원수로, 이미 과거에 급제했던 장연은 부원수로 출정하여 대승을 거둔다. 황제가 둘을 부마로 삼으려 하자 수정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에 황제는 수정과 공주를 모두 장연과 혼인시킨다. 모두 화평하게 지내던 중 수정이 장연의 회첩의 방자함을 징계해 목을 베자, 장연의 어머니가 대로하고 장연 또한 수정을 냉랭하게 대한다. 그러던 중 호국이 재침하자 수정이 출전하여 적을 격파하고, 회군하는 길에 귀양 갔던 진랑의 목을 베어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수정 부부는 다시 화목하게 살다가 75세에 함께 승천한다.

### 한 줄 요약

- 정수정이 (장연(장후))의 회첩을 참수한 뒤 자신을 냉대하는 장연과 다투고 (청주)로 가 군사를 훈련시킴.
- 호국이 재침하자 (제신)들이 (정수정(정후))을 천거하여 정수정이 출전함.
- 정수정이 (장연(장후))에게 (군량)을 제때 대령하지 않은 죄를 묻자 장연이 반발함.

## 172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⑤ **헛집기** 정수정은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낙심**하였다. 장연은 자신의 회첩을 죽인 일로 정수정을 외대하였으나, 이에 대해 '정후가 마음에 극히 불쾌하면서도 장후의 냉대함은 거리끼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장연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에 정수정이 낙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오.오.이

- 장연은 정수정이 신임하던 시비를 죽이고자 하였다.  
'장후가 ~ 정후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 무수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거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수정은 부모의 뜻과 황제의 명에 따라 장연과 결혼했다.  
"부모 유교를 저버리지 못함이요, 다시 황은을 받들므로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부 되었으나"라는 정수정의 말

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황제는 정수정을 남자로 알고 전장에 내보낸 적이 있었다.

"전일에는 정수정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거니와"라는 황제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정수정은 전쟁 중에 장연에게 군량을 가져오는 임무를 맡겼다.

"내 황명을 받자와 주야로 근심하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아니하였느뇨?"라는 정수정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173 ㉮ ① 사위 ② 태부인 ③ 마원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① **교체** 정수정은 황제의 ((사위) 며느리)가 될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정수정은 자신을 부마(사위)로 삼으려는 황제에게 여인임을 밝혔다고 하였다.

② **교체** 장연과 혼인한 정수정은 ((태부인) 자신)이 신임하던 시비이자 장연의 첩이던 여자를 참수하였다.

정수정은 장연의 첩이 방자하게 굴자 참수하였다. 이에 태부인이 "나의 신임하는 시비를 ~ 참수 지경에 이르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정수정이 참수한 장연의 첩은 태부인이 신임하던 시비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교체** 호국의 장수 (마웅, 마원)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하자 임금은 여자인 정수정을 전진에 보낼 것인지 갈등한다.

호국의 장수 마웅의 동생 마원이 형의 원수를 갚고자 침입하자, 임금은 여자인 정수정을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낼 수 있겠냐며 고민하고 있다.

## 174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② **교체** 태부인은 장후의 첩을 참수한 일로 **정후**를 불러 그 처신을 나무랐다.

태부인은 아들인 장후(장연)를 불러 정후(정수정)가 장후의 첩을 참수한 일을 언급하며, 장후가 부인을 제어하지 못한 것을 나무랐다.

### 오.오.이

① 정후는 상이 사관을 보내어 자신을 부르자 즉시 그 명령에 응했다.  
상이 사관을 청주에 보내어 정후를 명초하자 정후가 즉시

사관을 따라 황성에 이르러 입궐했다.

- ③ **호왕**은 이전의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해 복수하여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했다.

호왕은 “어찌 원수를 갚지 아니하리오?”라고 말하며 마원으로 대원수를 삼아 전쟁을 일으켰다.

- ④ **정후**는 자신을 냉대하는 **장후**와 갈등을 겪고 **청주**에 돌아와 군사를 훈련시켰다.

정후가 장후에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군자의 제가하는 근본이 아니라고 하자, 장후는 정후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다고 한다. 이에 정후는 분해하며 청주로 돌아와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을 방비하라 하였다.

- ⑤ **장후**는 군량을 때에 맞추어 군대에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정후는 장후가 군량을 때에 맞추어 대령치 못했다고 질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후가 군량을 때에 맞추어 군대에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정·오 지름길

- ⑤ 장후는 군량을 때에 맞추어 군대에 보급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작품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예요. “군법을 빙자”한다는 장후의 발언에만 주목하면 정후가 없는 죄를 지어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앞뒤를 잘 읽어 보면 장후가 실제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인물·사건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는 해당 지문을 꼼꼼히 확인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 175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 장연은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기 위해** 정수정에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장연은 정수정이 소소 혐의로써 군법을 빙자하고 남편인 자신을 곤욕한다고 생각하여 무릎을 꿇지 않는 것으로, 정수정에게 장수로서의 능력을 각인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오·오·이

- ① ㉮: 정수정이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을 방비하라 한 일들은 정수정이 청주에 돌아와 한 공적 업무들이다.

- ② ㉮: 비유적 서술을 통해 마원이 용맹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다.

마원의 외양을 범과 잔나비, 곰, 이리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용맹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황제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며 정수정에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의중을 물어보고 있다.

황제는 복적이 다시 일어났다는 사태의 위급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만조가 경을 천거하나 짐이 차마 경을 전장에 보내지 못하여 의논함이니 경의 소견이 어떠하뇨?”라며 정수정에게 참전 의향을 묻고 있다.

- ⑤ ㉮: 정수정은 장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정수정은 자신을 소개할 때 여기는 장연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자신 또한 “그대 같은 장부는 원치 아니”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176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장연은 청주에 돌아와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을 방비하라 하였다.

청주에 돌아와 좌정 후 전령하여 삼군을 호상하고 무예를 연습하며 성지를 굳게 하여 불의지변을 방비하라고 한 것은 장연이 아니라 정수정이다. (○, ×)

- (2) **교체** **호왕**은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곰의 등에 이리 허리를 지녀 용맹한 풍채를 갖추었다. (○, ×)

범의 머리에 잔나비의 팔이며 곰의 등에 이리 허리를 지녀 만부부당지용이 있는 것은 호왕이 아니라 마원이다.

- (3) 문무 제신들은 호국의 침입을 막을 장수로 정수정을 천거하였다.

(○, ×)

문무 제신들은 정수정이 아니면 마원에게 대적할 자가 없다며 정수정을 천거하였다.

## 177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자질**: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실력의 정도.
- **피력**: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함.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C]: 부득이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장대방악 허락**을 구하고 있다.



[C]는 “어찌 연고 없이 가려 하나뇨?”라는 태부인의 말에 대한 정수정의 답으로, 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떠나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태부인의 허락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A]: 정후가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태부인은 정후(정수정)가 장연의 첩을 참수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신임하는 시비를 참수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 ② [B]: 자신을 대하는 장후의 태도가 제가를 위한 군자의 자질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후는 장후의 첩을 참수한 일로 장후가 자신을 냉대하는 것에 대해 제가를 위해 군자로서 보일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 ④ [D]: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름을 근거로 정후를 출전시키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상은 전일에는 정수정(정후)이 남장한 줄 모르고 전장에 보냈지만 여자인 줄 아는 지금은 어찌 전전에 보내겠냐며 정후를 출전시키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 ⑤ [E]: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정후는 자신의 몸이 바스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적을 소멸하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178 ㉠ ①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잡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잡기** 장연을 만류하는 공주와 원 부인의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엿볼 수 있겠군.  
정수정이 자신의 첩을 죽인 것에 화가 난 장연이 정수정의 시녀를 죽이려 하자 공주와 원 부인이 장연을 만류한다. 이는 죄 없는 시녀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일 뿐, 이러한 행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오.오.이

- ② 장연을 질책하는 태부인의 말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질서를 중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태부인이 장후(장연)에게 “네 벼슬이 공후에 있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라고 한 말에서 ‘한 여자’는 장후의 아내인 정수정이다. 이는 아내의 행동을 제어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는 태도로, 태부인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 ③ 제신들이 황제에게 정수정을 천거하는 것에서,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군.  
제신들이 나라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은 정수정밖에 없다며 그녀를 천거하는 모습에서, 정수정이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장연이 정수정에게 경부하는 도리가 없음을 책망하는 것에서,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겠군.  
장연은 “여자의 경부하는 도리 없어 감히 가부의 희첩을 처살하여 교만 방자함이 이를 네가 없으니”라고 하며 정수정이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있다. 이는 장연이 가부장의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수정의 행동을 억누르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정수정이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서,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겠군.  
정수정이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라고 말한 것은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79 ㉠ (1) 아내 (2) 공적 (3) 남편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 교체 ☒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정수정이 장연의 첩을 참수한 일로 태부인이 ( 희첩, 아내 )을/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장연을 꾸짖는 모습은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하던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178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태부인은 아내 정수정을 제어하지 못했다며 장연을 꾸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상반** 정수정은 ( 공적, 사적 )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복적으로 인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할 인물로 지목된다.  
**178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정수정이 공적 역할의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교체** 장연은 자신이 정수정의 ( 상관, 남편 )임을 근거로 들어 자신을 곤욕하는 정수정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있다.  
장연이 정수정에게 “내 비록 용렬하나 그대의 가부이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장연은 자신이 남편임을 근거로 들어 정수정의 행동이 여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0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잡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⑤ **헛집기** 상이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내리오?”라고 하는 것은 정수정이 겪게 될, 봉건 시대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역할을 넘어서는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이군.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만 리 전진에 보내리오?”라는 상의 발언은 그가 여자인 정수정을 전장에 보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봉건 시대가 여성에게 부여한 성 역할을 의식한 발언이지, 정수정이 이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걱정한 발언이 아니다.

오.오.이

- ① 장연이 언급한 “경부하는 도리”나 정수정이 언급한 “아녀자의 소임”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로군. 경부하는 도리와 아녀자의 소임은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② 정수정이 장연을 꾸짖으며 “그대는 내 수하에 있”다고 하는 데서 남성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정수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장연이 정수정의 수하에 있다는 것은 정수정이 남성인 장연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였음을 보여 준다.
- ③ 제신이 정수정을 두고 “하늘이 각별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수정의 사회적 능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정수정이 여자임을 아는 제신들이 정수정을 하늘이 임금을 위하여 낸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정수정이 영웅적 활약상을 보여 주어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태부인이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정수정이 주변의 보수적 인물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태부인은 장연에게 한 여자(정수정)를 제어하지 못한 것을 나무라고 있다. 이를 통해 태부인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을 중시하는 보수적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정수정이 태부인과 갈등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II

### 애정 소설

## 20 채봉감별곡

본문 94~97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세태 소설

주제 권세에 굴하지 않는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

- 특징 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체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근대적 인물형을 제시함.  
② 인물들의 현실적 욕망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며, 전기적·우연적 요소가 적음.  
③ 매관매직, 세도가의 횡포, 축첩 제도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함.

**단숨에 읽기** 평양에 사는 김 진사의 딸 채봉은 꽃구경을 나섰다가 우연히 만난 장필성과 사랑에 빠져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혼약을 맺는다. 그 사이 서울(한양)에 간 김 진사는 세도가 허 판서에게 벼슬을 얻는 대신 돈 만 냥과 딸 채봉을 첩으로 보낼 것을 약속한다. 아버지에 의해 억지로 서울로 가던 채봉은 부모 몰래 평양으로 돌아오고, 김 진사는 화적을 만나 전 재산을 잃는다. 허 판서는 약속을 못 지킨 김 진사를 하옥하고, 이 부인은 딸을 찾아와 해결 방법을 의논한다. 채봉은 ‘송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어 아버지를 구할 돈을 마련하고, 필성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한시 문제를 내 놓는다. 다시 만난 둘은 사랑을 나누지만, 송이(채봉)는 새로 부임한 평안 감사 이보국의 눈에 들어 관아에 들어가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송이와 헤어진 필성은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이방에 자원하고, 송이는 필성을 그리워하며 ‘추풍감별곡’을 지어 부른다. 이를 계기로 감사가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되어 만남을 주선하고, 채봉과 필성은 드디어 혼인한다.

#### 한 줄 요약

- ① (관아)에서 살게 된 송이(채봉)를 만나기 위해 필성은 이방이 됨.
- ②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안 송이가 필성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림.
- ③ 가을밤에 송이가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글을 씀.
- ④ 송이가 꿈에 (나비)가 되어 필성을 만나는 꿈을 꾸며 흐느낌.
- ⑤ 송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이 감사가 두루마리에 써 있는 (‘추풍감별곡’)을 봄.

## 181 1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애태우다**: 몹시 답답하게 하거나 안타깝도록 속을 끓이다.
- **문필**: 글을 짓거나 글씨를 쓰는 일.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송이는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감사와 걱정을 산다.

송이(채봉)가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을 못 봄을 한’하였다 는 것에서 그녀가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웠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사 앞에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감사의 걱정을 샀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② 송이는 필성이 이방이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된다.

송이가 공사 문첩에 쓰인 글씨가 전과 다른 이유를 묻자, 감사가 “전 이방은 갖고 장필성이란 사람으로 시켰다.”라고 답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건다.

감사가 필성을 보고 칭찬하면서 “가위 여옥기인이로다. 필성아, ~ 일심봉공하여 민원이 없도록 잘 거행하라.”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필성의 문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걸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송이는 필성과 꿈속에서나마 일시적으로 만남을 이룬다.

책상에 었드려 잠시 잠이 든 송이는 꿈속에서 이전에 서로 나누었던 답시를 보며 우는 필성을 만나 마주 붙들고 울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송이가 꿈속에서나마 필성과 일시적으로 만났음을 알 수 있다.

- ⑤ 필성은 송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다.

‘필성이나 송이나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내기를 이미 반년이라.’로 보아 필성이 자신의 마음을 감사에게 말하지 못한 채 송이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2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송이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추풍감별곡’을 썼다. (○, **×**)

송이는 부모님이 아닌,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종이 위에 글로 남겼는데, 그 글의 제목을 ‘추풍감별곡’이라 하였다.

- (2) 필성은 관속이 되면 송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 **×**)

필성이 ‘나도 감사 앞에서 거행하는 관속이 된다면 채봉을 만나기가 쉬우리라.’라고 계책을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3) **사건 왜곡** 감사는 송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송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 **×**)

감사는 송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사정이 있어 저리하나 보다.’ 하고 짐작만 하였다. 감사가 송이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은 송이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본 뒤의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183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망

- **계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낸 또는 그 꾀나 방법.

❖ 정.정.이

- ② **헛집기** 감사는 중이의 처자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밤늦게까지 고민하였다.

감사는 나이가 많아 잠이 없어진 데다, 지방관으로서 백성을 살피고 국은에 보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에 송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송이를 염려하게 된 것이지, 송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송이는 필성에게 연락하는 것이 감사의 화를 초래할까 염려하였다.

송이가 사람을 시켜 필성에게 연락해 볼까 고민하였으나 ‘만일 대감이 알면 무슨 죄벌이 내려올지 몰라’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감사는 필성이 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필성이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현신하자, 감사가 필성에게 ‘여옥기인(인품이 옥과 같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필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송이의 간절한 바람이 꿈을 통해서나마 실현되었다.

필성을 그리워하며 지내던 어느 가을밤에 송이가 장주의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다 필성을 만나는 꿈을 꾸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필성은 관아에서 살게 된 송이를 만나지 못하여 근심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 내었다.

필성은 기생을 면하고 관아에서 살게 된 송이를 만나지 못하여 수심으로 지내던 중, 관속이 되어 채봉을 만나겠다는 계책을 생각해 내었다.

184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을 본 송이는 필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고, ㉡에 필성을 만나지 못하는 마음을 풀어낸다.

‘공사 문첩 한 장(㉠)’의 필법이 필성의 필적과 같다고 느낀 송이는 감사를 통해 필성이 공청에 드나드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필성이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필성을 만나지 못한 채 글씨만 보고 그리워하던 어느 가을밤에 그 마음을 ‘두루마리(㉡)’에 시로 써 내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㉔에 대해 대화하며 중의의 그리움을 눈치챈 감사는, ㉔을 읽으며 그 대상의 필성임을 알게 된다.

감사는 '공사 문첩 한 장(㉔)'의 필법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송이에게 장필성이란 사람에게 시켰다며 그의 글씨를 칭찬할 뿐,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리고 감사는 울음소리를 듣고 송이를 찾아갔다가 '두루마리(㉔)'를 보았을 뿐,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② **범위 오류** ㉔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송이는, ㉔을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다.

송이는 '공사 문첩 한 장(㉔)'의 필법이 달라진 것을 보고 그 글을 작성한 사람이 궁금하여 감사에게 물어 보았다. 그러나 '두루마리(㉔)'는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종이로, 송이의 궁금증을 필성에게 알린 것이 아니다.

④ **사건 왜곡** ㉔을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필성은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고 ㉔을 쓰면서 송이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낸다.

'공사 문첩 한 장(㉔)'은 송이가 필성이 이방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계기이며, '두루마리(㉔)'는 필성에 대한 송이의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⑤ **헛집기** ㉔을 보면서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송이는, ㉔을 쓰면서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공사 문첩 한 장(㉔)'은 관청에서 공무상 작성하는 종이이므로 송이가 그것을 통해 필성이 자신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두루마리(㉔)'는 필성과의 재회 의지가 아니라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185 답 ㄱ, ㄷ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송이는 ㉔을 보고 그것을 쓴 사람이 필성이라고 짐작하였다.

송이는 '공사 문첩 한 장(㉔)'을 보고 필성의 글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쓴 사람이 필성이라고 추측하였다.

ㄷ. 송이는 필성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㉔에 적었다.

송이는 가을밤에 작년 이맘때 뒷동산 명월 아래에서 필성을 만났던 일을 떠올리며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송이가 필성을 향한 그리움을 '두루마리(㉔)'에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ㄴ. **헛집기** 감사는 중의의 마음을 알고 ㉔의 일을 필성에게 맡겼다.

감사는 송이와 필성의 관계를 모르고 있으므로, 송이의 마

음을 알고 '공사 문첩 한 장(㉔)' 쓰는 일을 필성에게 맡겼다고 볼 수 없다.

ㄹ. **헛집기** 감사는 ㉔을 보고 중의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

감사는 송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㉔)'를 읽어 보았다. 이때 감사가 송이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186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필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송이의 애틋한 심정과 처지가 담겨 있다.

185번-ㄷ의 해설을 참고할 때, 송이가 필성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장가 백낙천을 만나 마음 속에 맺힌 말을 풀었던 '거문고 뜬던 여인'과 달리, 자신에게는 속마음을 털어 놓을 사람이 곁에 없음을 한탄하며 애틋한 심정과 처지를 '두루마리(㉔)'에 담고 있다.

오.오.이

② **헛집기**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겨 있다.

송이는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느낀 그리움을 '두루마리(㉔)'에 담았을 뿐,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잊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내용을 쓰지 않았다.

③ **헛집기** 자신이 처해 있는 난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④ **헛집기** 감사에게 자신과 필성의 만남을 도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이는 '두루마리(㉔)'에 독수공방의 처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그리움을 담았을 뿐, 자신이 처해 있는 난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③)나, 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④)을 담지 않았다.

⑤ **헛집기** 자신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자신을 찾지 않고 있는 필성에 대한 원망의 심정이 담겨 있다.

송이는 필성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그리워할 뿐, 필성이 자신을 찾지 않았음을 원망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루마리(㉔)'에 필성에 대한 원망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7 답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기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빌.
- **토로**: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함.
- **인격화**: 인간이 아닌 사물을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간주함.
- **기약**: 때를 정하여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정.정.이

- ① **헛집기** 송이가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다.  
[A]에서 송이는 달을 보며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탄식할 뿐, 필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다.

## 오.오.이

- ② 자연물의 다양한 소리와 어울려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한다.  
[A]에서 '달'은 기러기, 두견이, 낙엽 등의 소리와 어울려 '독수공방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하고 있다.
- ③ 송이가 자신의 심사를 들추어내어 감정을 토로하는 인격화된 상태이다.  
송이가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라. ~ 차라리 심중사를 종이 위에나 그리리라."라고 말한 부분에서 송이가 달을 인격화하여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송이의 처지와 대조되는 옛 이야기를 환기시켜 송이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을 표하게 한다.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뜯던 여인은 ~ 나는 어찌 박명하여 명량한 저 달 아래서 부득설진심중사하니 가련하지 아니할까."에서 송이는 마음속에 담긴 말을 들어줄 이 없는 자신과 달리, 뛰어난 문장이 백낙천을 만나 마음속에 맺힌 말을 풀어낼 수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환기하며 스스로를 가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재회를 기약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부각한다.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 달은 다시 보건마는 님은 어찌 못 보시고."로 보아, 달은 송이에게 필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188 ㉮ (1) 가을 (2) 달빛 (3) 필성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교제** [A]의 시간적 배경은 (봄, **가을**)의 보름 때이다.  
'이때는 추기월 보름 때라.'를 통해 [A]의 시간적 배경이 가을의 보름 때임을 알 수 있다.
- ② **교제** [A]에서 송이는 (**달빛** 이슬)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다.  
'송이가 남창을 가만히 열고 달빛을 내다보며 위연탄식'하

는 장면을 통해, 송이가 달빛을 보며 자기 처지에 대해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교제** [A]에서 송이는 (**필성** 감사)와/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있다.

달빛을 내다보며 송이가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송이가 필성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 189 ㉮ ④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송이가 **내면의 소망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곳**이다.  
송이는 별당에서 부모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필성을 못 보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감사가 보는 데서는 감히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별당을 송이가 내면의 소망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송이가 감사가 시킨 일을 하는 곳이다.
- ② 송이가 기생이 되는 것을 면해 생활하게 된 곳이다.  
'송이는 감사가 있는 별당 건넌방에 가 홀로 살고 지내며 감사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고 지내며 마음에 기생을 면함은 다행하나'를 통해, 별당은 송이가 기생을 면하여 살게 된 곳으로(②), 감사가 시키는 일을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①).
- ③ 필성이 송이와의 만남을 좀처럼 이루기 어려운 곳이다.  
감사가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여 '다시 만날 길이 없'다는 것에서, 별당이 필성과 송이의 만남이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 ⑤ 필성에게 송이의 처지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해 준 곳이다.  
필성이 송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행이라 여기는 부분에서 송이가 별당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필성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오 지름길

- ⑤ 필성에게 송이의 처지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게 해 준 곳이다.  
이 문제는 '별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때 의미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별당'은 외인의 출입이 엄금된 곳이라는 점에서 송이와 필성의 만남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송이가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간이기도 하지요. 연인인 송이가 기생의 신분을 벗어난 것은 필성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일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⑤의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짚기** ㉔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한편,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

‘요사이(㉔)’는 공사 문첩의 글씨가 달라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송이가 공청에서 일어난 최근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시간 표지는 송이가 관아에 들어와 감사의 일을 돕게 된 이후의 시간과 관련되므로,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㉑은 우연으로 보이는 감사의 이방 선발이, 필성이 송이와 만나기 위해 애써 왔던 시간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보기〉에서 소설의 시간 표지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감사의 이방 선발은 우연한 사건이지만, 필성이 송이를 만나기 위해 관속이 되고자 일을 주선하던 때에 발생함으로써 필성의 관아 입성에 개연성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이때 마침(㉑)’은 개연성을 부여하는 시간 표지라 할 수 있다.

- ② ㉒은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와 감사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간을 부각하여, 필성과 재회하고자 하는 송이의 바람을 심화하게 되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

〈보기〉에서 소설의 시간 표지는 사건의 전개나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송이가 ‘하루는(㉒)’을 기점으로 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필성과 재회를 기대하게 되었으므로, 이 시간 표지는 서사적 전환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㉔은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드러내면서, 송이와 필성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함축한 서사적 정보로 기능한다.

〈보기〉에서 소설의 시간 표지는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가늠하게 한다고도 하였다. ‘이미 반년이라(㉔)’는 송이와 필성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며, 그만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깊어졌음을 요약적·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 ⑤ ㉕은 감사의 사람됨과 감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짓게 하는 한편, **흐느껴 울던 송이를 감사가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한다.

〈보기〉에서 소설의 시간 표지는 배경을 지시하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한다고도 하였다. ‘이때(㉕)’는 감사가 ‘팔십여 세’의 나이로 잠이 없는 데다, 밤낮없이 백성과 나라에 마음을 쓰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시간 표지는 감사의 사람됨과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짓게 한다. 동시에 흐느껴 울던 송이를 발견하는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지시하기도 한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ㄴ. 장면을 전환하거나 연결할 때에도 활용된다.

ㄷ. 배경의 지시 외에도 다른 보조적 기능을 한다.

〈보기〉에서 소설에서 시간 표지는 장면의 전환 등에 관여된 서사적 정보를 제시하고(ㄴ),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등 서사의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ㄷ).

## 오.오.이

- ㄱ. **교체** **개연**적인 사건에 **우연**성을 부여한다.

〈보기〉에서 소설의 시간 표지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 21 만복사저포기

### 작품 분석

본문 98~101쪽

작가 김사습

갈래 애정 소설, 전기 소설, 명혼 소설, 한문 소설

주제 생사(生死)를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 특징 ① 불교적 세계관이 중심을 이룸.  
②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서사를 전개함.  
③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좌절되는 비극적 결말을 맺음.  
④ 시, 축원문 등을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함.

**단숨에 읽기** 전라도 남원에 사는 총각 양생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만복사의 구석방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내기를 하여 이기자,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축원한다. 이후 불전에 축원문을 올리러 온 한 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3일째 되는 날 여인은 양생에게 은주발 하나를 주며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자신을 기다려 달라면서 함께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다음날 여인을 기다리다 그녀의 부모를 만난 양생은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임을 알게 된다. 이후 양생은 약속한 시간에 나타난 여인과 함께 보련사에 가서 흰백의 수저 소리로써 여인의 존재를 부모님께 확인해 주고 사위로서 인정받는다. 그러나 여인은 곧 저승의 명대로 사라지고, 양생은 여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으로 그녀의 명복을 빌어 준 뒤 지리산에 들어갔는데, 그 후의 소식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 한 줄 요약

- ① 양생과 여인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맺음.
- ② 여인이 (양생)을 대접하기 위해 시녀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함.
- ③ 양생이 술상을 보고 여인의 정체를 (의심)하였다가 믿기로 함.
- ④ 양생이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의 내력을 알게 됨.
- ⑤ 양생이 여인을 다시 만나 그녀의 부모에게 여인의 (존재)를 증명함.

## 192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명분: 일을 피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따위.

### 정.정.이

- ③ **헛잡기**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시녀는 여인이 시켜 노래를 불렀을 뿐이다. 그러므로 시녀가 양생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여인이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양생과 백년해로하기로 한 명분을 하늘과 부처님의 뜻과 ‘기이한 인연’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양생은 시녀가 펼쳐 놓은 술상을 보고 인간 세상의 것이 아

니라는 생각에 의심이 났으나, 여인의 말씨와 몸가짐, 용모 등을 보고 귀한 집 처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④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다.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은주발을 들고 서 있는 양생을 본 종이가 주인에게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전한 것을 통해 종이가 그와 같이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

여인의 부모는 양생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의아해하며 몇 해 전에 하나 있던 딸이 전쟁 중에 죽었음을 알려 주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고 할 수 있다.

## 193 ㉓ (1) 하늘 (2) 시녀 (3) 변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여인은 양생과의 만남이 (부모, 하늘)의 뜻이라고 여겼다.

여인이 양생을 만난 일에 대해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양생과의 만남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교체** 여인은 새로운 가사를 짓고 (양생,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여인은 양생에게 새로운 가사를 지어 술을 권해도 되겠냐고 묻은 후, 만강홍 곡조에 맞춰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다.

- (3) **교체** 부모는 양생에게 자신의 딸이 (변고 창피)를 당한 일을 설명해 주었다.

양생에게서 은주발을 갖게 된 사연을 들은 부모는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딸이 왜구의 난리 때 죽었음을 설명해 주었다.

## 194 ㉓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잡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교체** 시녀는 여인이 양생과 인연을 맺은 것에 대해 기이한 일이라 생각하였군.  
여인 자신

여인이 시녀에게 양생과 백년해로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이 인연을 기이하게 생각한 사람이 시녀가 아니라 여인임을 알 수 있다.

## II

### 문 조 비 하

오.오.이

- ① 시녀는 여인이 집을 나가서 만복사까지 온 것에 대해 의아해했군.  
시녀는 여인에게 요즘 중문 밖을 나가지 않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걷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집을 나서서 먼 곳인 만복사에까지 왔느냐며 의아해하였다.
- ③ 양생은 여인의 말투와 태도를 바탕으로 여인의 신분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군.  
양생은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한 것을 근거로 여인이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④ 여인은 부모님 모르게 양생과 연을 맺은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군.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이라는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이 부모님 모르게 양생과 연을 맺은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양생은 여인이 현실 세계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길가에서 여인을 기다렸군.  
양생은 보련사 가는 길에서 여인의 부모를 만나 여인이 왜구의 난리 때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속대로 길가에서 여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보련사로 갔다.

195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제의성: 제사 의식의 성질.
- 신성성: 함부로 가까이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한 성질.

정.정.이

- ④ ㉮은 인연을 맺는, ㉮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좁은 판자방(㉮)'은 양생과 여인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곳이라는 점에서 인연을 맺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얀 휘장 안(㉮)'은 혼백의 수저 소리로서 여인의 존재를 확인한 부모가 양생에게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유한 곳이므로,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 ① 헛집기 ㉮과 ㉮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좁은 판자방(㉮)'은 만복사에 원래 있던 공간이고, '하얀 휘장 안(㉮)'은 보련사에서 마련해 준 공간으로 둘 다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 아니다.
- ② 상반 ㉮과 ㉮은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여인은 '좁은 판자방(㉮)'과 '하얀 휘장 안(㉮)'에 스스로 들

어갔으므로 타의에 의해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 ③ 헛집기 ㉮은 제의성이, ㉮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양생이 귀신인 여인과 인연을 맺는 상황은 비현실적이지만 '좁은 판자방(㉮)'은 두 인물이 현실적 즐거움을 누린 공간이므로 제의성이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얀 휘장 안(㉮)'은 부모에게 여인의 환신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전기성을 띠지만 현실적 공간으로, 신성성이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범위 오류 ㉮은 현실 속에, ㉮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좁은 판자방(㉮)'과 '하얀 휘장 안(㉮)'은 모두 현실적 공간에 해당한다.

196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 ㉮은 여인이 양생에게 술자리를 베푼 공간이다.

양생과 여인이 '좁은 판자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중 시녀가 찾아오자, 여인이 시녀에게 술과 과일을 가져오라고 한다. 이에 시녀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 ㉮은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공간이다.

양생은 '하얀 휘장 안(㉮)'에서 여인과 식사함으로써, 여인의 존재에 의문을 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인(귀신)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오.이

- ㉮. 헛집기 ㉮은 여인이 할 수 있도록 시녀가 준비한 공간이다.

'좁은 판자방(㉮)'은 만복사에 원래 있던 곳으로 여인을 위해 시녀가 준비한 공간이 아니다.

- ㉮. 헛집기 ㉮은 양생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하얀 휘장 안(㉮)'은 여인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보련사에 마련한 현실적 공간으로, 양생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197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변모: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뀔.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
- 당면: 바로 눈앞에 당함.
- 단초: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 정정이

- ④ ㉔에서 맺어진 관계가 ㉕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상황적 배경이 되고 있다.

여인은 만복사(㉔)에서 맺은 양생과의 인연을 부모님께 알리기 위해 양생에게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달라고 말한다. 양생은 이를 받아들여 보련사(㉕)에 가서 여인과 식사를 함으로써 여인의 존재를 증명하고, 부모의 청에 따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므로, 만복사에서 맺어진 관계가 보련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㉔에서 예고된 사건이 ㉕에서 일어난다고 있다.

만복사(㉔)에서는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고 있을 뿐, 어떠한 사건도 예고되고 있지 않다.

- ② 헛집기 ㉔에서 드러난 인물의 성격이 ㉕에서 변모되고 있다.

만복사(㉔)에서 양생이 만난 여인의 몸가짐이 얌전했다는 것에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 성격이 보련사(㉕)에서 변모되고 있지 않다.

- ③ 헛집기 ㉔에서 형성된 인물 간의 갈등이 ㉕에서 해소되고 있다.

만복사(㉔)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전반적으로 갈등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보련사(㉕)에서도 갈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헛집기 ㉔에서 일어난 사건이 ㉕에서 인물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보련사(㉕)에서 양생은 만복사(㉔)에서의 일이 아니라, 혼백의 수저 소리로써 여인의 존재를 증명하여 여인과의 인연을 여인의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만복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198 ㉔ ②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보기〉에서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였다. 시청자들은 여인이 귀신임을 안 후에도 양생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에서 만남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될 것이므로, ②는 〈보기〉의 기획 의도에 부합한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

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보기〉에서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게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원작에는 죽은 이와와 만남과 사랑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주변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는 기획 의도와 어긋난다. 또한 주변 인물들이 죽은 이와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장면을 제시하면, 여인을 향한 양생의 사랑이 평범한 것이 되므로, 진정한 사랑과 만남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어려워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③ 헛집기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진미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여인의 비현실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을 잊게 하겠다는 의견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려는 〈보기〉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헛집기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취향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두 사람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그리겠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원래 지니고 있는 취향에 맞추겠다는 의견으로,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려는 〈보기〉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⑤ 상반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보기〉에서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면서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현실적 요소를 줄이고 양생과 여인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보기〉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 199 ㉔ ① × ② ○ ③ ○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양생은 현대의 시청자들과 달리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모습을 보인다. (○, ×)

〈보기〉에서는 양생이 아니라, 현대의 시청자들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하다고 하였다.

- (2)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시청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 ×)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과, 양생의 사랑이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죽은 이와와 사랑과 같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시청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양생의 사랑은 소외된 삶에서 비롯된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보기>에서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200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짚기** 여인의 죽음은 양생으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의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환상 세계와의 교류를 추구하게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 여인의 죽음은 양생을 만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양생이 귀신이 된 여인과 교류하게 된 것과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다.

### 오.오.이

- ① 여인이 양생에게 준 은주발은 보련사로 가는 길에서 양생과 부모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계기를 마련한다.
- 여인은 양생에게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은주발을 들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양생이 은주발을 들고 서 있다가 여인의 부모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므로, 은주발이 양생과 부모의 만남에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② 시녀가 가져온 술에서 풍겨 나오는 진한 향기와 하늘거리는 여인의 모습은 현실 세계와 다른 환상 세계의 질서와 관련된다.
-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와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는 진술은 현실 세계와 다른 환상 세계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만복사는 양생과 여인이 서로 만나 즐거움을 나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의 존재와 환상 세계의 존재가 교류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 만복사의 좁은 판자방에서 현실 세계의 존재인 양생과 환상 세계의 존재인 여인이 만나 즐거움을 나눈다는 점에서 이 둘이 교류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수저 놀리는 소리와 이야기 소리만 들리는 것은 양생과 여인의 비현실적인 교류를 형상화한 것이다.
-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는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각 세계 속의 두 존재가 교류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사건으로, 친척들과 승려들, 부모에게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소리만 들리는 상황은 이러한 비현실성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백학선전

본문 102~105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영웅 소설

주제 남녀 간의 신의 있는 사랑과 우국충정

- 특징 ① 혼사 장애 모티프와 적강 모티프가 모두 나타남.  
② 여성 주인공의 적극적인 행동과 영웅적 활약상이 두드러짐.  
③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누는 이원적 구조를 지님.  
④ 유교적 충의나 효도보다 남녀 간의 애정이 중시됨.

**단숨에 읽기** 명나라 남경 땅에 사는 유 상서와 서남 땅에 사는 조 상서는 늦도록 자식이 없던 중, 지극한 기도 끝에 천상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선관 유백로와 선녀 조은하를 각각 자식으로 얻는다. 이후 장성한 유백로는 공부하러 가던 중 조은하를 만나고, 가보인 백학선에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는 글을 써 준 뒤 후일을 기약한다. 한편 조은하에게 혼담을 거절당한 최국양은 앙심을 품고 조 상서 일가를 위기에 빠트리나, 전 현령의 도움으로 조은하 일가는 남경으로 도망간다. 과거에 급제한 유백로는 문 상서의 구혼을 거절하고 조은하를 찾지만 만나지 못해 병이 든다. 둘의 사연을 모르는 유 상서는 가보인 백학선을 지니고 있던 조은하를 만나, 그녀를 하옥시켜 백학선을 찾으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풀어 준다. 이후 오랑개 가달이 쳐들어와 대원수로 출전한 유백로는 최국양의 모함으로 가달의 포로가 되고, 점괘를 통해 이를 알게 된 조은하는 황제 앞에서 신통력을 보여 출전을 허락받은 후 전장에 나가 가달을 물리치고 유백로를 구해 온다. 최국양은 처벌받고, 유백로와 조은하는 혼인하여 나이 팔십에 이르러 천상으로 돌아간다.

### 한 줄 요약

- ① (백학선) 때문에 옥에 갇혔던 은하 남자가 출옥한 뒤 유 한림을 찾으려 하나 길이 엇갈림.  
② 유 한림이 (상사병(심화병))을 앓자 유 상서가 아들을 낫게 하려고 좋은 혼처를 구하려 함.  
③ 전 현령, 유 상서와의 대화를 통해 (은하 남자)의 상황을 알게 된 유 한림이 (남경)에 가려 함.

## 201 ㉓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유 한림'은 '은하 남자가' '유 상서'와 만나 '유 한림'의 행방을 물었음을 ㉓에서 알게 된다.

은하 남자는 백학선과 관련된 일로 유 상서에게 잡혀 추궁을 받을 때 유 한림의 행방을 물어보지 않았다. 한편 유 한림이 서울(㉔)에서 알게 된 사실은 은하 남자가 자신을 찾는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다.

### 오.오.이

- ① '은하 남자'는 ㉓에서 백학선 때문에 '유 상서'에 의해 고난을 겪는다.
- 아들에게 은하 남자에 대한 말을 듣지 못해 백학선의 행방을 몰랐던 유 상서는 기주(㉔)에서 자사로 있을 때, 백학선을 지니고 있었던 조 소년(은하 남자)을 하옥하였고, 이로 인해 은하 남자가 옥살이를 하는 등 고난을 겪었다.



- ② '은하 남자'는 '유 한림'을 찾으러 ㉑로 가는 길에 '유 한림'을 만나지 못하는 좌절을 겪는다.
- 은하 남자는 유 상서로부터 풀려나자 바로 유 한림을 찾으러 청주(㉑)로 가지만 길이 험갈려 결국 만나지 못하였다.
- ③ '유 상서'는 ㉒로 '전 현령'을 불러 '유 한림'의 혼사 문제를 의논한다.
- 유 상서는 유 한림이 은하 남자를 사모하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서울(㉒)로 전 현령을 불러 유 한림의 혼사 문제를 의논하였다.
- ⑤ '유 한림'은 외숙인 '전 현령'의 말을 듣고 ㉓에서 ㉔로 떠날 결심을 한다.
- 외숙인 전 현령이 은하 남자의 무죄 애매함을 가련히 여겨 피할 수 있게 일러 주었다는 사연과, 은하 남자가 백학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옥에 갇혔다 풀려났다는 말을 듣고 유 한림은 비로소 은하 남자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랑캐 가달이 점령한 남경에 있을 은하 남자를 걱정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서울(㉒)에서 남경(㉓)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다.

## 202 ㉑, ㉒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㉑. ㉒: 유 상서와 은하 남자가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만난 곳이다.
- 기주(㉒)는 유 상서가 자사로 있을 때, 백학선을 찾으려고 남북한 은하 남자를 옥중에 가둔 곳이다. 은하 남자는 유 상서가 유 한림의 아버지인지 몰랐고, 유 상서도 아들이 은하 남자에게 백학선을 선사한 사연을 몰랐던 데다가 은하 남자가 남북도 하고 있었던 터라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만난 곳이라 할 수 있다.
- ㉒. ㉒: 전 현령이 유 한림에게 위로를 건네는 곳이다.
- 유 상서와 전 현령, 유 한림이 대화하고 있는 곳은 서울(㉒)로, 유 한림은 이곳에서의 대화를 통해 은하 남자의 상황을 알고 안타까워한다. 이에 전 현령이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것"이라며 유 한림을 위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오.오.이

- ㉒. ☒교체 ㉒: 유 한림이 은하 남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다.
- 청주(㉑)는 은하 남자가 기주에서 출옥한 후 유 한림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이다.
- ㉒. ☒교체 ㉒: 유 한림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 유 한림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남경(㉓)이 아니라 서울이다. 남경은 유 한림의 고향으로, 은하 남자가 청주를 향하던 길에 만난 사람에게서 유 한림이 고향에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길을 돌려쳐서 간 곳이다.

## 203 ㉓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조성: 분위기나 정세 따위를 만들.

### 정.정.이

- ③ ☒교체 유 한림이 서울에서 청주로 이동하려는 것에서 은하 남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 유 한림이 전 현령의 말을 듣고 은하 남자를 찾으러 가려는 곳은 청주가 아니라 남경이다. 죽기를 결심하고 은하 남자를 찾으려는 유 한림의 모습에서 은하 남자에 대한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청주로 이동한 인물은 은하 남자로, 출옥하자마자 유 한림을 찾아 청주로 향하였다는 점에서 유 한림을 향한 사랑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유 상서와 유 한림이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유씨 가문의 위세를 알 수 있다.
- 유 한림은 대사도로 승진하여 서울로 올라왔고, 이에 한림의 아버지도 여명을 받아 상서가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 따라서 이를 통해 유씨 가문의 융성한 위세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출옥한 은하 남자가 기주에서 청주로 이동하는 것에서 유 한림에 대한 절개와 사랑이 드러난다.
- 은하 남자는 기주의 옥중에서도 끝까지 백학선을 지키고, 출옥한 후에도 유 한림을 만나고자 수백 리를 달려 청주로 간다. 이러한 은하 남자의 모습에서 유 한림에 대한 그녀의 절개와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④ 은하 남자가 청주에서 남경으로 이동하는 것에서 그녀가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조성된다.
- 유 상서의 말 "그 여자가 필경 남경으로 갔을 것인데 ~ 화를 입고 죽었을지도 모르니"에서 남경을 향해 이동한 은하 남자가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조성된다.
- ⑤ 유 한림이 서울에서 남경으로 이동하고자 다짐하는 것에서 장차 그가 은하 남자와 재회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 은하 남자가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만나기 위해 남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그곳으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유 한림의 모습을 통해 장차 두 인물이 재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 204 ㉔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② 만남과 이별을 모티프로 하여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유 한림은 '백학선을 선사한 옛날의 여자를 사방으로 염탐 하였으나 종시 만나지 못한 탓으로 심화병을 얻'었고, 은하 남자 역시 백학선을 지키기 위해 옥에 갇히며 유 한림을 찾아 해매고 있다. 두 주인공이 만나기까지 여러 번 엇갈린다는 점에서 만남과 이별을 모티프로 하여 사건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 ①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 인물의 심리는 배경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주야로 근심하다가', '신기하게 여기면서', '희망을 품게 되더라.' 등과 같이 주로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③ **부재** 역순행적 구성으로 사건 전개의 긴박감을 더하고 있다.

이 글은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부재** 인물들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은하 남자가 유 한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고난을 겪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될 뿐, 삽화 형식으로 나열되지는 않았다.

- ⑤ **부재** 인물 간의 새로운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 상서는 현령 전홍로를 통해 아들과 은하 남자 간의 사연을 알게 되면서 오해를 풀고, 그리움으로 심화병을 얻은 유 한림은 은하 남자를 찾아 남경으로 가기로 결심한다. 따라서 인물 간의 새로운 대립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205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고 있다. (○, ×)

204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2) **부재**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

은하 남자가 꿈에서 본 천상의 일을 생각하고 유 한림을 만날 희망을 품었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꿈을 꾸 장면이 삽입되거나 이로 인해 환상적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았다.

- (3)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

이 글은 헤어져 있는 은하 남자와 유 한림이 서로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과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4) **부재** 우화 형식을 통해 봉건적인 지배 체제에 대한 여성의 저항의

지를 담고 있다.

(○, ×)

이 글은 남녀 간의 신의 있는 사랑을 다룬 소설로 우화 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봉건적인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206 ⑤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진상: 사물이나 현상의 거짓 없는 모습이나 내용.
- 질책: 꾸짖어 나무람.

정.정.이

- ⑤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과거를 회상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다.

유 상서는 전 현령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 생각나는 일이 있소."라면서 예전에 조 소년을 옥에 가두었던 일을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 소년이 바로 은하 남자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오.오.이

- ① **부재** 증거물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한다.

유 상서는 조 소년의 정체를 안 후 위급한 경우에 남복을 하고 난을 피하려 했나 보다고 추측하고 있을 뿐, 증거물을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

- ② **부재** 남다른 관계를 강조하여 상대방을 질책한다.

유 상서는 남다른 관계를 강조하거나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지 않다.

- ③ **부재** 감정에 호소하며 대화 상대의 오해를 풀고자 한다.

유 상서는 과거 조 소년을 하옥했을 때 느꼈던 바를 말하며 조 소년에 대한 오해를 풀었을 뿐, 감정에 호소하며 전 현령의 오해를 풀고자 한 것이 아니다.

- ④ **부재**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여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

유 상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뿐,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207 ①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① 오매불망(寤寐不忘)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을 뜻하는 말로, 은하 남자를 잊지 못해 상사병에 걸린 유 한림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보기>의 팔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 오오이

② 교체 연목구어(緣木求魚)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은하 낭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유 한림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③ 교체 결자해지(結者解之)

‘결자해지’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은하 낭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유 한림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교체 천석고향(泉石膏肓)

‘천석고향’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질이나 버릇’을 뜻하는 말로, 은하 낭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유 한림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교체 부화뇌동(附和雷同)

‘부화뇌동’은 ‘좃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말로, 은하 낭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유 한림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208 ㉠ (1) 불요불굴(不撓不屈) (2) 노심초사(勞心焦思)  
(3) 측은지심(惻隱之心)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은하 낭자는 ( 불요불굴 )하여 백학선을 끝까지 지켰군.

유 자사는 조 소년(은하 낭자)의 철석간장을 굽히지 못하고 근심하다가 더 이상 소년을 고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석방하였다. ‘불요불굴’은 ‘한번 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굽힘이 없음’을 뜻하는 말로, 오랜 추궁을 견디고 백학선을 끝까지 지킨 은하 낭자의 모습과 어울린다.

(2) 교체 유 상서는 유 한림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는 것에 ( 노심초사 )하고 있군.

유 한림이 먼저 상경한 뒤에 이어서 서울에 온 유 상서는 아들의 병세가 심상치 않다며 근심하였다. ‘노심초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말로, 아들의 상태를 걱정하며 명의를 청하여 약을 쓰고 전 현령과 상의를 하는 유 상서의 모습과 어울린다.

(3) 교체 전 현령은 과거에 은하 낭자에게 ( 측은지심 )을/를 느끼고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도왔군.

전 현령의 말 “소제가 벼슬살이를 할 때 ~ 일러서 놓아 보냈사옵니다.”에서 그가 은하 낭자의 억울한 상황을 가련하

게 여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측은지심’은 ‘사단(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의 하나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데, 과거에 은하 낭자를 가련히 여겨 도망갈 수 있게 도왔던 전 현령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다.

209 ㉡ ①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① 대실소망(大失所望)

은하 낭자는 유 한림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청주에 다다랐으나 ㉠을 듣고 유 한림이 다른 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실소망’은 ‘바라던 것이 아주 허사가 되어 크게 실망함’을 나타내는 말로, 이때의 은하 낭자의 심경과 잘 어울린다.

❖ 오오이

② 교체 주구초심(首邱初心)

‘주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은하 낭자의 심경과 관련이 없다.

③ 교체 호가호위(狐假虎威)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을 뜻하는 말이므로 은하 낭자의 심경과 관련이 없다.

④ 교체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움을 이르는 말’이므로 은하 낭자의 심경과 관련이 없다.

⑤ 교체 전화위복(轉禍爲福)

‘전화위복’은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은하 낭자의 심경과 관련이 없다.

## 23 속향전

### 작품 분석

본문 106~109쪽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주제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통한 운명적 사랑의 성취

- 특징
- ①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속향의 일대기를 서술함.
  - ② 두 주인공이 애정을 성취하려는 의지적 태도가 두드러짐.
  - ③ 비현실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등 전기성을 지님.
  - ④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을 배경으로 함.

**단숨에 읽기** 송나라 때 늦도록 자식이 없던 김전과 장씨 부부는 명산대찰에 기도를 한 후 딸 속향을 얻는다. 도적의 난을 피하던 중 속향은 부모를 잃고 장 승상의 양녀가 되나, 시비 사향의 흉계로 쫓겨난다. 이후 떠돌아다니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용녀, 화적진군 등의 도움을 받고, 마고할미와 함께 수를 놓으며 산다. 한편 병부 상서의 아들 이선은 속향이 놓은 수가 꿈에서 본 천상계와 똑같음을 알고, 그녀가 자신의 인연을 깨닫는다. 그리고 어렵게 속향을 찾아가 가연을 맺는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상서는 이선의 혼처(양왕의 딸 매향)가 따로 있음을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고, 김전을 시켜 속향을 벌하려 하나 마고할미가 술법으로 이를 막는다. 속향이 자신의 딸과 비슷하다고 느낀 김전이 집행을 망설이자 이 상서는 김전을 전출시킨다. 이후 이선의 어머니는 마고할미가 죽은 뒤 홀로 방황하던 속향을 우연히 만나 그녀의 인물됨을 바로 알고 오해를 푼다.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고 온 이선이 속향과의 전생 인연을 이야기하자, 둘의 혼인을 허락한다. 속향은 이선과 혼인 후 부귀를 누리다 함께 천계로 돌아간다.

### 한 줄 요약

- ① 속향(파랑새)을 따라 산골짜기의 한 궁궐에 들어감.
- ② 후토부인을 만난 속향이 본래 천상의(선녀)였음을 알게 됨.
- ③ 이선과 속부인이 속향이 보낸(편지(혈서))을 받고 속향의 사정을 알게 됨.
- ④ 장씨가 속향을 잃어버린(딸)과 같다고 느껴 김전을 말리자, 김전이 형 집행을 미루고 이 상서에게 이 사연을 알림.

## 210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속부인'은 '속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속부인은 선과 속향의 혼사를 허락하였으나, 이 상서는 그에 반하여 속향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이 사실을 안 속부인은 다시 상서에게 일러 보고 말을 듣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황후께 아뢰겠다고 하였다.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지 않았다.

### 오.오.이

- ① '후토부인'은 '속향'을 명사계로 인도하여 전생에서의 '속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후토부인은 속향에게 명해 경액을 먹도록 주어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겪었던 일을 알게 하였다. 그리고 속향이 월궁의 으뜸 선녀이며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

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속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었다.

- ② '이선'은 '속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속향'과 생사를 같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속향이 보낸 혈서를 읽고 그녀가 죽을 위기에 처했음을 안 이선은 '속향이 죽었으면 함께 죽'겠다며 속향과 생사를 같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④ '김전'은 '장씨'의 말을 수용하여 '속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고 있다.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옳게 여겨 속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고, 이 사연을 이 상서에게 회보하나라.'를 통해 김전이 속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장씨'는 '속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속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장씨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오니 죽은 우리 딸과 같습고 ~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서께 기벌하"자고 말한 것에서 그녀가 속향을 보고 딸을 떠올리며 연민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211 ㉢ (1) 김전 (2) 명해 경액 (3) 속부인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고하였다**: 어떠한 사실을 알리거나 말하였다.
- **모색**: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정.정.이

- (1) **교체** (이방 원통, **김전**)은 속향의 사연을 이 상서에게 고하였다.

속향의 이름과 나이, 자라 온 내력 등을 듣고 형 집행을 미룬 사연을 이 상서에게 전달한 인물은 김전이다. 이방 원통은 속향이 현재 낙양 옥중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하고 있지만 이 상서가 아닌 속부인에게 알리고 있다.

- (2) **교체** 속향은 (꽃봉오리, **명해 경액**)을/를 먹고 천상의 일을 알게 되었다.

속향은 명해 경액을 받아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꽃봉오리는 파랑새가 물어다 준 것으로 속향의 눈을 맑게 하고 배가 부르게 하였다.

- (3) **교체** (**속부인**, 후토부인)은 이선의 성급한 행동을 말리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속향의 혈서를 보고 그녀와 함께 죽으려 하는 이선을 말리고, 이선과 속향의 혼사를 이루어 주기 위해 황후에게 이 일을 아뢰 것을 생각한 인물은 속부인이다. 후토부인은 속향이 고생을 겪을 때마다 그녀에게 잔나비와 황새, 파랑새를 보내 돕고 천상의 일을 깨닫게 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물골: 볼품없는 모양새.

## 정.정.이

- ⑤ **헛집기** 김전이 숙향의 일을 이 상서에게 보낸 것은 이선와 처지를 한 타갑게 여겼기 때문이다.

김전은 숙향이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 같다는 장씨의 말을 듣고 형을 집행하지 못한다. 이에 숙향의 일을 이 상서에게 보내 스스로 처치하게 한 것이지, 이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서가 아니다.

## 오.오.이

- ① 숙향의 앞에 파랑새가 나타난 것은 후토부인이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파랑새를 보내”라는 후토부인의 말을 통해 후토부인이 파랑새를 숙향에게 보냈음을 알 수 있다.
- ② 후토부인이 숙향의 보은을 거절한 것은 숙향의 신분이 으뜸 선녀였기 때문이다. 숙향이 후토부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시비가 되겠다고 하자 후토부인은 “그대는 월궁의 으뜸 선녀라. ~ 그런 말 씀을 어찌 하시나이까?”라고 말하며 숙향의 보은을 거절하고 있다.
- ③ 숙부인이 이 상서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이 상서의 행동이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이선을 양자로 들인 숙부인은 이선과 숙향의 혼사를 치르도록 하였으나, 이 상서는 숙향을 죽이라 명령하였다. 이 사실을 안 숙부인은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러하니”라며 이 상서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④ 숙향을 본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린 것은 그녀의 물골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다.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 눈물 아니 짓는 이가 없더라.’를 통해 반은 죽은 사람같은 물골을 하고 있는 숙향이 불쌍하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것임을 알 수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에서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반은 죽은 사람이라.’라는 말은 숙향의 상태에 대한 서술

자의 생각을 제시한 것이지, 숙향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은 숙향이 홀로 깊은 산속에서 밤을 맞아 갈 데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해 가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다. ㉮에서 숙향은 ‘파랑새’를 따라 한 궁궐의 큰 문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뒤에 이어지는 후토부인의 말, “이 땅은 명사계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초현실의 공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숙향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초현실의 공간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변화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숙향은 명해 경액을 먹고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겪은 일을 모두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은 이러한 변화를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으로 여기에 ‘몸은 비록 아이나 마음은 어른이라.’라는 서술자의 생각도 덧붙이고 있다.
- ④ ㉮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 이방 원통의 말로, 숙향에게 일어난 일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ㄱ. 잔나비와 황새, 파랑새는 이야기에 전기성을 부여하는 요소이다. 초월적 존재인 후토부인이 잔나비와 황새, 파랑새를 보내어 숙향을 지속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이야기에 전기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 ㄴ. 이방 원통의 말을 통해 숙향에게 일어난 일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213**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오.오.이

- ㄷ. **부재** 전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산속에서 울고 있는 숙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산은 첩첩하고 물은 증증한데, ~ 앉아서 울고 있었다.’에서 저녁 무렵 깊은 산속에서 갈 데 없이 울고 있는 숙향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 선명한 색채 대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숙향은 신령인 후토부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된다. 이로 보아 서사의 진행 과정에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됨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 부재**
- 등장인물의 심리를 대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글에서 인물들의 심리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제시되지,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 ③
- 헛짚기**
- 구체적인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후토부인의 모습과 옥에 갇힌 숙향이 붙들려 가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후토부인이 귀한 인물이라는 점과 숙향의 처지를 보여 줄 뿐,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지 않는다.

- ④
- 부재**
- 요약적 서술을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 부재**
-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는 언어유희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인물의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 216 ②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 상반**
-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며 천상계의 신분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후토부인은 시비가 되어 은혜를 갚겠다는 숙향에게 자신은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고, 숙향은 ‘월궁의 으뜸 선녀’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서 고생을 겪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오히려 천상계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A]에는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천상계와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보기>의 내용과 [A]의 “천상에 득죄하여 인간 세상

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로 보아 적절한 감상이다.

- ③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 내려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 것으로 구현된다는 <보기>의 내용은 [B]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는 월궁의 으뜸 선녀로,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이었던 숙향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 ④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다는 <보기>의 내용과, [C]의 “봉래산 선관 선녀로서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로 보아 적절한 감상이다.

- ⑤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르는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군.

<보기>에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데 ‘천상계-지상계-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C]에서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지요,”라고 했으므로,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야만 천상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순환 구조에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17 ① × ② ○ ③ ×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 교체**
- 고전 소설에서 ‘천상’과 ‘
- <sup>지상계</sup>
- 전계’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된다. (○, ×)

<보기>에서 ‘천상’과 ‘전계’를 포함하여 ‘천상계’라 이르고 하였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연결되는 세계는 천상계와 지상계이다.

- (2) 고전 소설에서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은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

<보기>에서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을 받는데, 이때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정도에 따라 인물이 겪는 고난의 정도와 기한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 (3)
- 교체**
- 고전 소설에서는 ‘
- <sup>천</sup>
- 지상계-
- <sup>지</sup>
- 천상계-
- <sup>천</sup>
- 지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다. (○, ×)

<보기>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는 ‘천상계-지상계-천상계’



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서사가 진행된다고 하였다.

## 218 ㉔ ②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② **헛집기** 장씨의 말을 듣고 김전이 형 집행을 미루는 장면은 **고난의 해결이 초현실적임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숙향의 고난은 현실적이지만 그 해결은 초현실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김전이 부인 장씨와 대화를 한 후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룬 것은 현실적인 일로 숙향의 고난을 일시적으로 멈춘 것일 뿐이므로, 초현실적인 고난 해결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오.오.이

- ① 당시 독자들은 큰칼을 쓰고 붙들려 가는 숙향을 보며 그 고난에 공감하며 슬픔을 느꼈겠군.

〈보기〉에서 당시 독자들은 숙향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였고, 숙향의 고난에 동화된 사람들은 고난에 공감하면서 비감을 맛보게 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당시 독자들은 숙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 고난에 공감하고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 ③ 명사계를 주관하는 후토부인의 등장은 초월적 존재의 설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보여 주는군.

후토부인은 명사계에 있는 초월적 존재로, 잔나비와 황새, 파랑새를 보내 숙향을 돕고, 숙향이 천상의 일을 깨닫게 하는 등 초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면모를 보여 준다.

- ④ 숙향이 어려서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은 작품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일이겠군.

〈보기〉에서 숙향이 겪는 고난은 그 당시 「숙향전」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현실적인 경험이라 하였다. “오 세에 부모를 난중에 잃고 사방에 유리하”였던 숙향의 경험은 작품의 향유층이 겪었을 법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⑤ 독자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숙향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옥에 갇히는 등 고난을 반복하여 겪도록 설정하였군.

〈보기〉에서 여러 고난이 반복되는 것은 향유층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숙향이 반복적으로 고난을 겪는 것 역시 독자의 미적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 24 남운전

작품 분석

본문 110~113쪽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주제 남녀 간의 사랑과 고난 극복의 의지

특징 ① 적당 모티프가 나타나며, 도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함.  
②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됨.  
③ 꿈을 통해 인물들의 전생 인연을 제시하고 앞일을 암시함.

**단숨에 읽기** 선조 때 안변 부사 남두성의 아들 남윤은 기녀 옥경선과 가연을 약속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이석랑과 혼인한다.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남윤은 일본으로 끌려가고, 이석랑은 홀로 아들을 낳는다. 한편, 옥경선은 한 점쟁이의 말을 따라 유 진사 댁을 찾아가 양녀가 되어 살면서 남윤을 기다린다. 왜왕은 일본으로 끌려온 남윤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고자 하나 남윤이 거절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윤은 꿈을 통해 자신과 일본국 공주(월중선), 이석랑, 옥경선이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왔으며 이 세 여인들이 자신의 천정배 필임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 남윤은 일본국 공주와 결혼하고, 십 년 후 공주는 남윤을 일본에서 탈출시키고 정해진 운명대로 죽어 천상계로 돌아간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어렵게 산동 땅에 도착한 남윤은 귀신으로 오해받아 심문을 받고, 그의 사연을 들은 천자는 남윤을 고국으로 보내 준다. 조선에 무사히 돌아온 남윤은 이석랑, 옥경선을 다시 만나 함께 살다 모두 함께 칠십 세에 죽어 천상계로 돌아간다.

한 줄 요약

- ① 남윤이( 꿈 )에서 자신과 세 여인의 전생 인연을 알게 됨.  
② 서로가( 천정배필/천생배필 )임을 깨달은 남윤과 일본국 공주가 혼인함.  
③ 일본국 공주가 죽기 전에 남윤을 무사히( 조선 )으로 보낼 방법을 강구하고 자 함.

## 219 ㉔ ⑤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⑤ 초월적 존재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옥황상제와 노승이 남윤의 꿈속에 나타나 남윤과 세 여인(월중선, 이석랑, 옥경선)이 죄를 짓고 지상계로 적당하였음을 설명해 주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오.이

- ① **부재** 독백을 통해 인물과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는 인물의 독백이나 인물의 내면적 성찰 모두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부재**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역전적 구성(역순행적 구성)’은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글은 중간에 삽입된 꿈을 통해 과거의 일을 알려 줄 뿐, 사건은 순행적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③ **헛집기**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신랑의 아름다운 풍채와 신부의 선명한 태도는 하늘이 감

동할 만하였다.’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한 부분으로, 남윤과 공주(월중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부재**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220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이 글은 서술자의 진술보다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 **사건 왜곡** 꿈을 통해 얻은 개연의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 ×)

남윤은 꿈에서 자신과 세 여인이 지상으로 오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깨달음을 얻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도 않다.

(3) 인물의 심리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 ×)

‘왜왕이 더욱 기특히 여기시어’, ‘왕과 왕비 크게 근심하셨다.’, ‘공주가 가장 비감하여’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랑의 아름다운 풍채와 신부의 선명한 태도는 하늘이 감동할 만하였다.’에서 남윤과 공주에 대한 서술자의 긍정적 판단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 221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A]는 상대의 호기심을 해소해 주고, [B]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한다.

[A]는 월중선만 십 년 만에 올라가는 이유를 묻는 남윤의 질문에 노승이 대답해 준 것이므로, 상대의 호기심을 해소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B]의 내용대로 남윤이 공주와 혼인하고 십 년 뒤에 본국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B]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A]와 [B]는 대화로, 인물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A]와 [B]는 남윤이 꿈에서 만난 노승이 한 말로, 내화로 볼 수 없다. 한편 [A]에는 인물들이 지상계에서 고난을 겪게 된 원인이 제시되고 있으나, [B]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② **헛집기** [A]와 [B]는 모두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인다.

[A]와 [B]는 모두 작중 인물인 노승의 발화로, 인물들의 과거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③ **헛집기** [A]와 [B]는 서로 다른 사건의 전말을 제시하여 각각의 사건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⑤ **범위 오류** [A]는 현재 인물들이 겪고 있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B]는 사건 전개와 우연성을 드러낸다.

[A], [B]를 계기로 남윤이 지상계에서 공주와 혼인하고 이후 공주는 남윤을 조선으로 보내려고 한다. 따라서 [A]와 [B]의 사건이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③), [A]와 [B] 모두 현재 인물들이 겪고 있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⑤).

## 222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ㄱ.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매개가 된다.

ㄴ. 남윤과 공주의 인연을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남윤과 공주는 꿈에서 받은 구슬 두 개(㉠)를 서로 비교하여 천정배필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슬 두 개는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매개이자(ㄱ), 두 인물의 인연을 확인해 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ㄴ).

### 오.오.이

ㄷ. **헛집기** 남윤이 영웅적 인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다.

이 글에서 남윤의 영웅적 면모는 확인할 수 없다.

ㄹ. **헛집기** 공주와 왜왕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남윤이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여 위기에 빠졌을 때 공주가 간언한 부분에서 왜왕과 공주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이는 구슬 두 개와 관련이 없다.

## 22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육환장, 푸른 구슬)은 공주와의 혼인에 대한 남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남윤은 본국에 아내가 있음을 이유로 공주와의 혼인을 거부하였으나, 꿈에서 받은 푸른 구슬을 비교해 보고 공주가 자신의 인연임을 알게 되어 혼인한다. 따라서 '푸른 구슬'이 남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교체** 공주의 (수태 없음) 몽조)은/는 일본국의 왕과 왕비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부부의 금슬이 비할 데 없으나 마침내 수태함이 없으니 왕과 왕비 크게 근심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 **상반** 꿈은 (천상계, 지상계)를, 현실은 (천상계, 지상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원적 공간 구도를 보여 준다.

남윤의 꿈속은 옥황상제, 부처, 신선 등의 등장으로 보아 천상계가 배경이고, 현실은 일본에 있으면서 본국인 조선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므로 지상계가 배경이다.

## 224 ㉓ ③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국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

## 정.정.이

- ③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남윤이 일장춘몽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이를 계기로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으므로, 일장춘몽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상반** 인물 간의 갈등을 접화시킨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남윤은 공주와의 혼인을 두고 왜왕과 갈등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일장춘몽을 계기로 공주가 자신의 천정배필임을 깨닫고 그녀와 혼인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였으므로 일장춘몽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 ② **헛집기** 인물의 심적 부담감을 드러낸다.

꿈속에서 남윤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현재 삶에서 고난을 겪는 것임을 알았을 뿐, 이로 인해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헛집기** 공간이 바뀌면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일장춘몽의 배경은 천상계이고, 일장춘몽에서 깬 곳은 지상계이므로 공간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되지는 않는다.

- ⑤ **헛집기** 조력자의 개입을 통해 서사적 흥미를 더한다.

일장춘몽을 통해 남윤의 과거를 알려 주고 미래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서사적 흥미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옥황상제와 노승 등이 위기에 처한 남윤을 구한 것은 아니므로 조력자로 보기 어렵다.

## 225 ㉓ ②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사건 왜곡** '공주'는 자기가 죽은 후 '남윤'이 곧바로 ㉔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군.

공주는 자신을 따라 죽겠다는 남윤을 말리며, 그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돕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주가 죽고 난 뒤에 남윤이 곧바로 천상계에 복귀(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남윤'과 '공주'는 꿈을 통해 자신들이 ㉔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남윤과 공주가 꿈속에서 자신들이 과거에 죄를 짓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적당(㉔)한 선관과 선녀라는 말을 듣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 ③ '공주'가 가장 먼저 ㉔를 하게 되는 이유는 ㉔ 이전의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이군.

죄가 가벼운 월중선만 다른 이들보다 먼저 천상계로 불러 올리라고 한 옥황상제의 명령을 통해 공주의 복귀(㉔)가 가장 빠른 이유가 적당(㉔) 이전의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남윤'은 공주가 ㉔를 하게 된 후에 ㉔로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을 만나겠군.

노승이 남윤에게 월중선을 먼저 올려 보내고(㉔), 본국인 조선(㉔)에 돌아가 석랑과 옥경선을 찾아 함께 살다 칠십세가 되거든 올라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남윤'은 ㉔에서 '공주'와 결혼했지만, ㉔에 있는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군.

남윤이 "본국에 있는 배필이야 어찌 일이나 잊으리오?"라고 말한 것을 통해 그가 일본(㉔)에서 공주와 결혼한 후에도 조선(㉔)에 있는 아내를 잊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226 ㉓ ③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③ **상반** ⑥에서 남윤이 공주와 혼인한 것은 천상계에서의 일을 **알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일본(⑥)에서 남윤은 꿈을 통해 천상계에서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공주와의 혼인을 결심하였다.

오.오.이

- ① 천상계에서 일어난 사건은 ⑦의 원인이 된다.

- ② 남윤이 ③과 ⑥에서 혼인한 인물들은 모두 ⑦와 관련된다.

옥황상제의 명과 노승의 말을 통해 천상계에서 추성으로 말미암아 세 선녀(월중선, 이석랑, 옥경선)가 투기하는 죄를 지어 네 인물이 모두 지상계로 적강(⑦)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①). 그리고 조선(③)에서는 석랑과 옥경선을 만나고, 일본(⑥)에서는 공주(월중선)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②).

- ④ 공주가 ⑥에서 태어난 것은 다른 인물과 달리 천상계에서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다.

꿈속의 노승의 말을 통해 추성, 석랑, 옥경선과 달리 월중선은 죄가 가벼워 일본(⑥)의 공주로 태어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⑦ 이후 지상에서의 남윤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③-⑥-③가 된다.

꿈속 노승의 말에 따라 남윤의 행적을 정리하면, 그는 천상계에서 적강(⑦)하여 조선(③)에서 태어났으며 일본(⑥)에 포로로 끌려가 공주와 혼인하였다. 그리고 공주가 죽은(천상계로 복귀) 후 다시 조선(③)에 가서 석랑과 옥경선을 만나 함께 살다가 칠십 세에 죽어 천상계로 복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27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② [나]에는 상대방을 도우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남윤이 본국의 배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자, [나]에서 공주는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 ① **상반** [가]에는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가]에서 공주는 자신이 곧 죽을 운명임을 예감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 ③ **헛집기** [가]와 [나]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되어 있다.

[가]에서 공주가 남윤에게 재취할 것이냐고 묻은 것은 그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의 향후 거취를 알기 위함이었다. [나]에도 남윤을 돕겠다는 공주의 의지가 나타날 뿐, 불신감이 표출되고 있지 않다.

- ④ **헛집기** [가]와 [나]는 모두 과거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다.

[가]에서는 과거의 일이 언급되고 있지만 [나]에는 과거의 일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가]와 [나] 모두에 상대방을 원망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⑤ **범위 오류** [가]에는 **의상향에 대한**, [나]에는 세속적 공간에 대한 지향이 암시되어 있다.

[가]와 [나]는 모두 공주가 죽은 후, 남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므로 둘 다 세속적 공간에 대한 지향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오 지름길

- ③ [가]와 [나]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있다.

인물의 말을 통해 그의 심리나 의도 등을 추론해 보는 문제예요. 이때 인물의 심리나 의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어떠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가]와 [나]는 공주가 남윤의 의견을 먼저 묻은 뒤 본국에 돌아가겠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그의 귀국을 도우려 하고 있으므로, 공주가 남윤에게 부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면, 남윤에게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의 ③, ④는 빠르게 제외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228 ①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① [가]는 상대방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하는 심리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에서 공주는 자신이 죽은 뒤에 남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궁금해하며 “군자는 재취하고자 하나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오.오.이

- ② **부재** [나]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을 과장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 나타나지 않으며, 과장적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부재** [가]는 **연륜을 내세워**지, [나]는 **권력을 내세워**지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가]에서는 상대방의 계획을 묻고 있으며, [나]에서는 상대를 도우려는 의지를 표현할 뿐, 연륜이나 권력을 내세워 설득하고 있지 않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망

- 탄복: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름.
- 의구심: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 정.정.이

⑤ ㉔는 ㉔, ㉔와 달리 사건에 대한 인물의 탄복이 드러난다.

㉔에는 같은 구슬을 들고 있는 남윤과 공주의 인연을 보고 탄복하며 반갑게 여기는 왜왕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반면 ㉔에는 궁금중이, ㉔에는 슬픔이 드러나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㉔, ㉔는 모두 의문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드러낸다.

㉔, ㉔ 모두 의문문의 형식이다. 그러나 ㉔에는 월중선만 십 년 만에 천상계로 올라가는 이유를 궁금해하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노승에 대한 의구심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㉔ 역시 남윤과 공주의 인연을 반가워하는 마음만 나타낼 뿐이다.

② 범위 오류 ㉔, ㉔, ㉔는 모두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발화로 상대방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㉔, ㉔는 각각 화자의 감탄과 안타까움 등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발화이다. 그러나 ㉔는 대화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발화이다.

③ 범위 오류 ㉔, ㉔는 ㉔와 달리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한 화자의 근심이 드러난다.

㉔에는 공주가 죽은 후 혼자 남을 남윤에 대한 공주의 걱정이 담겨 있다. 반면 ㉔에는 화자의 궁금중이, ㉔에는 화자의 반가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앞일에 대한 화자의 근심은 ㉔에서만 드러난다.

④ 범위 오류 ㉔, ㉔는 ㉔와 달리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낸다.

㉔, ㉔에는 ㉔와 달리 설의법이 쓰였지만, ㉔에는 화자의 감탄과 반가움이, ㉔에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25 숙영낭자전

본문 114~117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주제 현실을 초월한 절대적 애정의 승리

- 특징 ① 애정의 추구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가치관이 깔려 있음.  
② 비현실적 사건과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남.  
③ 「우렁 각시 설화」, 「아랑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모티프로 활용함.

단숨에 읽기 세종 때 안동에 사는 백 상공이 외아들 선군의 혼처를 구하자, 선녀 숙영이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이 그의 인연임을 알리며 3년을 기다리라 말한다. 그 후 선군이 상사병에 걸려 차도가 없자 숙영 낭자는 선군의 건강을 염려하여 다시 꿈에 나타나 옥련동으로 오라고 한다. 숙영 낭자를 찾아가 선군은 하늘이 정한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녀와 혼인한다. 입신출세에 뜻이 없는 선군이 가정생활에만 몰두하자 백 상공은 과거 시험 보기를 강요하며 선군을 내보내지만, 선군은 밤마다 부모 몰래 아내를 찾아온다. 이 사실을 모른 백 상공은 숙영 낭자가 부정한 짓을 한다고 오해하고, 이때를 틈타 시첩 매월이 숙영 낭자를 모함한다. 누명을 쓴 숙영 낭자는 억울함을 못 이겨 자결하고, 백 상공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온 선군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임 낭자와의 혼인을 추진한다. 그러나 곧 숙영 낭자의 죽음을 알게 된 선군은 죄인을 처벌하고 숙영 낭자는 되살아난다. 그리고 백선군과 숙영 낭자, 임 낭자가 함께 행복하게 살다 승천한다.

## 한 줄 요약

- ① 숙영 낭자가 선군의 ( 꿈 ) 에 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 누명 ) 을 벗겨 달라고 부탁함.
- ② 아버지가 찾아와 혼사를 서두르자, 선군이 숙영 낭자의 ( 죽음 ) 을 확인하고 서둘러 집에 감.
- ③ 선군이 범인을 잡아 벌하고 숙영 낭자의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 ( 제문 ) 을 읽음.

## 230 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망

- 진정성: 참되고 올바른 성질이나 특성.
- 전언: 말을 전함. 또는 그 말.
- 환기: 주어나 여문,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정.정.이

⑤ 범위 오류 [A]와 [B]는 자신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B]의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낭자를 좇을 것이니”에는 죽어서라도 숙영을 따르려는 선군의 다짐이 드러난다. 그러나 [A]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 합니다.”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희생을 각오한 다짐으로 보기 어렵다.

## 오.오.이

① [A]는 ‘꿈’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원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A]는 선군의 꿈에 나타난 숙영이 한 말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럼'이라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 ② [B]는 '제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B]는 선군이 숙영 남자를 위해 읽은 제문으로, "남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오. 슬프다!",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남자를 좇을 것이니" 등과 같이 말하며 숙영 남자의 원혼에 대한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A]는 원혼이 산 자에게 보내는 전언이고, [B]는 산 자가 원혼에게 보내는 응답이다.  
[A]는 죽은 숙영 남자가 선군에게 한 말이고, [B]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선군이 죽은 숙영 남자에게 한 말이다.
- ④ [A]와 [B]는 상대방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A]의 "남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는 선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에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된 처지를, [B]의 "남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오."는 숙영의 원통한 처지를 환기한 것이다.

## 231 ㉒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B]: 숙영 남자의 원통함에 공감하고 슬픔을 토로하는 내용의 제문이다.  
**230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선군은 [B]에서 숙영 남자의 원통함에 공감하며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A]: 숙영 남자가 잘아있을 때 백선군에게 한 말을 화상한 것이다.  
[A]는 죽은 숙영 남자가 백선군의 꿈에 찾아와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한 말이다.
- ③ **헛집기** [B]: 부모에게 불효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B]에서 백선군은 자신이 숙영 남자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이 불효가 되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여기에 불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 232 ㉒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비현실적 상황 설정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선군이 숙영 남자의 몸에서 칼을 빼자 그 구멍에서 파랑새가 나오며 이 사건의 범인인 매월의 이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선군이 범인을 찾아 숙영 남자의 원한을 풀어 주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숙영 남자는 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누명을 벗겨 달라고 호소한다. 이에 선군이 집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꿈의 삽입은 선군에게 주어질 과제를 보여 줄 뿐,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부재** 인물을 희화화함으로써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이 글에는 인물의 희화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인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 ④ **부재**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선군이 숙영 남자의 꿈을 꾸고 놀라는 모습이나 죽은 숙영 남자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 ⑤ **부재**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선군은 ~ 반신반의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선군이 ~ 화를 이기지 못하여', '선군이 크게 노하여' 등의 서술자의 진술에서도 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233 ㉒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자백**: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 **회유**: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함.
- **초래**: 일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함.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선군의 회유 때문이다.  
매월은 매를 건디지 못하여 승복하였다고 했으므로 선군의 회유에 의해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② 매월에 대한 신문은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선군은 칼이 빠진 후에 숙영 남자의 몸에서 파랑새가 나오며 "매월이다."라고 외치고 날아간 기이한 일 때문에 매월을 신문하게 되었다.
- ③ 매월은 숙영 남자가 누명을 쓰게 되는 간계를 꾸몄다.



-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미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원통함이 자리잡고 있다.  
“상공께서 숙영 남자를 의심하시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던 차에 때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라고 매월이 자백한 부분에서(③) 숙영 남자에 대한 원통함 때문에 숙영 남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간계를 꾸몄음을 알 수 있다(④).
-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은 상공의 집안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로 인해 숙영 남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집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 234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돌이**는 **매월**을 사주하여 숙영 남자를 죽게 하였다. (○, (×))  
선군의 신문을 받던 돌이가 ‘매월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노라 승복’한 것으로 보아,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숙영 남자를 모함함으로써 숙영 남자가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숙영 남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 (×))

숙영 남자가 선군의 꿈에 나타나 “구천의 혼백이라도 한스럽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등과 같이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3) **사건 왜곡** 숙영 남자의 시신을 보고 선군이 ~~슬피 울자~~ 파랑새가 날아와 매월의 이름을 외쳤다. (○, (×))  
파랑새는 선군이 숙영 남자의 몸에서 칼을 뺀 뒤 그 구멍에서 나와 범인을 알려 준 존재이다. 선군이 남자의 시신을 보고 슬피 울지는 않았으며, 파랑새 역시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 아니다.

## 235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사건 왜곡** 며느리를 의심하여 매월로 하여금 간계를 꾸미게 하였다.  
선군의 신문을 받던 매월이 사실을 털어놓는 부분에서 상공이 며느리를 의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계는 이 전부터 숙영 남자에게 원통함을 느꼈던 매월이 스스로 꾸민 것이지, 상공이 이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며느리의 죽음을 아들에게 숨기려 하였다.

가내 안부를 묻는 선군에게 상공이 ‘주저하며 가족들이 잘 지낸다고 알’렸다는 것으로 보아 며느리의 죽음을 아들에게 숨기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아들이 성혼을 미루려 하자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였다.  
④ 아들이 집에 가기 전에 임 진사의 딸과 성혼시키려 하였다.

임 진사의 딸과 내일 바로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상공의 말(④)에 선군은 나중에 성혼하여도 늦지 않다며 다시 이르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상공은 ‘아들이 변심치 아니할 줄 알고 다시 말하지 못하’는데 이 모습에서 상공이 더 이상의 설득을 포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③).

- ⑤ 아들에게 며느리의 일을 바로 말하지 않은 것을 무안하게 여겼다.

아들이 숙영 남자를 위한 제문을 읽은 후 상공 부부가 ‘선군에게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이같이 탄로 남을 보고 도리어 무색하여 아무 말도 못’했다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236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전제**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정정·이

- ① ①은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 남자와 선군의 관계가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어.

선군은 숙영 남자의 남편으로, 억울하게 죽은 숙영 남자의 원한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숙영 남자가 선군의 꿈에 나타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선군과 숙영 남자가 부부 사이라는 것이 과제 수행의 전제임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상반** ①은 과제 제시의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 남자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선군이 ~~깨닫어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①에서 선군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곡절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과제를 받게 된 원인을 꿰뚫어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헛집기** ②은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본~~ **자간의 갈등과 화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상공이 사건의 진상을 감추면서 다른 여인과의 혼례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부자간의 갈등과 화해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④ **상반** ㉔은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아버지의 의사에 부응하여 도리를 다하려는 선군의 태도를 알 수 있어.

선군은 ㉔에서 숙영 남자의 죽음을 확신하고, 이후 집에 돌아가기를 재촉하고 있으므로 과제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도리를 다하려는 태도로 볼 수 없다.

⑤ **헛집기** ㉕은 과제 해결이 완수된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숙영 남자의 원한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어.

선군이 숙영 남자의 시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으로, 숙영 남자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것이 아니므로 과제 해결이 완수된 단계도 아니고 숙영 남자의 원한이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 237 **답** (1) 수행 (2) 의문 (3) 수행자 (4) 능동적, 획득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고전 소설에서 주인공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과제를 (의심, 수행)한다.

〈보기〉에서 고전 소설의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때 과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행된다고 하였다.

(2) **상반**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처음에는 (의문 확신)을 갖는다.

〈보기〉에서 처음에 과제를 부여받은 주인공은 자신에게 왜 그런 과제가 주어졌는지 의심한다고 하였다.

(3) **상반** 주인공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방해자,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

〈보기〉에서 주인공은 과제 수행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4) **상반** 주인공은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행위를 (수동적, 능동적)으로 실행하여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 상실)한다.

〈보기〉에서 주인공은 과제 해결에 요구되는 행위를 적극 실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능동적으로 실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제를 완수한 주인공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 238 **답**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⑤ **상반** 숙영 남자의 죽음을 숨긴 채 아들에게 두 번째 부인 얻기를 권하는 상공의 모습에서 중세적 가치관으로부터의 탈피를 확인할 수 있고, 상공이 며느리의 죽음을 무마하고자 아들을 다른 여인과 혼인시키려 한 것은, 숙영 남자에 대한 아들의 애정보다 가문의 유지를 더 중시한 행동으로, 상공의 가부장적 태도를 보여 준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중세적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① 죽어서라도 숙영 남자를 쫓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군에게서 애정을 중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선군은 부모에게 불효가 되더라도 죽어서 숙영 남자를 만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 사상보다 애정을 더욱 중시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② 자신을 찾아온 부친을 맞이하여 문안을 드리는 선군의 모습에서 충효 사상을 확인할 수 있고.

부친인 상공이 숙소로 찾아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선군은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으로 뺄고 들어갔다. 이는 충효 사상을 보여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선군이 상공의 성혼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에서 가부장적 권위의 훼손을 엿볼 수 있고.

선군은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라며 아버지의 성혼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이는 충효 사상보다 애정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가부장적 권위의 훼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모든 일이 밝혀진 뒤 무색해하는 부모를 위로하는 선군에게서 이전 사회의 관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선군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무색해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고 있다. 이는 예의를 차려 효를 지킨 모습으로 이전 사회의 관습이 여전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정.오 지름길

④ 모든 일이 밝혀진 뒤 무색해하는 부모를 위로하는 선군에게서 이전 사회의 관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충효 사상과 가부장적 권위로 대변되는 중세적 가치관과,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애정을 중시하는 사고가 대립적 양상을 띠고 있어요. 이를 고려하여 ④에서 무색해하는 부모를 위로하는 선군의 행동은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때 ④의 ‘이전 사회의 관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내용상 중세적 가치관으로부터 완벽하게 탈피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 26 옥단춘전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주제 신의 중요성과 남녀 간의 신의 있는 사랑

- 특징 ① 판소리 사실과 유사한 문제가 나타남.  
 ② 양반층의 몰락과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등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반영함.  
 ③ 어사출두, 여자 주인공의 신분 상승 등의 내용이 「춘향전」과 유사함.  
 ④ 초월적 존재의 개입이 거의 없고 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함.

**단숨에 읽기** 숙중 때 김진희와 이혈룡은 어려서 동문수학하며 서로 돕고 살기로 약속한다. 이후 가세가 기울어 곤궁하게 살던 이혈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김 감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 한다. 그러나 김 감사는 이혈룡을 박대하고 오히려 사공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이때 옥단춘이라는 기생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를 구출하여 가연을 맺고 이혈룡의 노모와 처자를 보살펴 준다.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한 이혈룡은 암행어사가 되어 향락만 즐기고 폭정을 일삼는 김 감사를 파직시킨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김 감사는 죽고, 이혈룡은 우의정에 올라 본부인, 옥단춘과 함께 부귀를 누리며 산다.

### 한 줄 요약

- ① 김 감사의 앞에 나타난 이혈룡이 (원혼)이 되어 돌아왔다고 거짓말함.
- ② (사공)들을 문초하여 과거에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한 사실을 안 김 감사가 화를 냄.
- ③ 죽을 위기에 처한 (옥단춘)이 이혈룡을 걱정하며 안타까움과 원통함을 토로함.
- ④ 어사출두를 한 이혈룡이 김 감사를 (파직)시킨다.

## 239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부재** 외양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이혈룡이 어사출두를 하는 장면에서 인물들의 행동들이 묘사되고 있을 뿐, 외양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도 않다.

### 오.오.이

- ①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이 김 감사를 벌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연광정 잔치 자리에 나타난 부분으로, 주로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갈집 쥐고 오줌 싸고 ~ 갈팡질팡 도망친다.’, ‘연광정 누다락의 ~ 청보에 똥을 싸고, 신발들메 하느라고 야단이라.’ 등과 같이 각 읍의 수령들과 김 감사가 어사출두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과장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말을 통하여 지난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혈룡은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 왔다가 ~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와 같이 말하며 과거에 김 감사가 도움을 구하러 온 자신을 모른 채하고 죽이려 했었음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⑤ 서술자 개입으로 인물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통곡하는 옥단춘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랴.’, ‘그중에서 각 읍의 수령들은 ~ 거동 가관이다.’, ‘평양 감사 김진희의 거동이 가장 볼 만하니라.’ 등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며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240 ㉢ ㉠, ㉡,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순행적 구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 ㉡ 인물의 내면 심리가 해당 인물의 발화를 통해 직접 제시되고 있다.

이혈룡이 김 감사에게 다시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옥단춘이 벌벌 떨며 “애고애고 우리 난궁 야속하고 원통하오.”와 같이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 ㉢ 인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판소리 사실과 유사한 율문체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어사출두 장면에서 각 읍의 수령들이 겁내며 도망치는 거동을 ‘갈집 쥐고 오줌 싸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 오다가 혼을 잃고 가다가 뉘를 잃고’와 같이 묘사하는 것에서 판소리 사실과 유사한 율문체를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 **부재** 공간의 이동을 통해 사건의 환상성을 부각하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감사 김진희의 잔치가 벌어지는 연광정으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건의 환상성도 부각되지 않는다.

## 241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인물의 행동을 나열하며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어사출두 장면에서 각 고을 수령들이 겁을 내며 정신없이 하는 행동들을 나열하며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저술자가 교체되고 있다.  
이 글의 저술자는 교체되고 있지 않다.
- ②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는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 ③ **부재** 등장인물의 상황을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제시할 뿐, 자연물에 빗대고 있지 않다.
- ④ **부재** 전기(傳奇)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혈룡과 옥단춘의 난처한 상황이 이혈룡의 어사출두를 통해 해결되고 있으므로, 전기적 요소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고 볼 수 없다.

242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낱

- 낙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 연약: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 정.정.이

- ⑤ 옥단춘은 이혈룡이 자신의 당부를 듣지 않아 낙담하였다.  
옥단춘이 “내가 것처럼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혈룡이 그녀의 당부를 듣지 않고 연광정에 나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옥단춘은 “애고애고 우리 낭군 야속하고 원통하오. ~ 지금 한 번 죽어지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와 같이 말하며 낙담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이혈룡은 옥단춘과의 연약을 후회하였다.  
이 글에는 이혈룡이 옥단춘과의 연약을 후회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이혈룡은 어사출두 전에 김 감사를 한 번 시험해 보고, 각 읍의 수령들과 김 감사를 벌했을 뿐이다.
- ② **헛집기** 김 감사는 이혈룡이 찾아올 것을 짐작하였다.  
죽은 줄 알았던 이혈룡이 원혼이 되어 찾아왔다고 말하자, 김 감사는 ‘등골이 섬뜩하여’ 좌우 비장과 논의하였다. 이러한 모습으로 보아, 김 감사가 이혈룡이 찾아올 것을 짐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사건 왜곡** 비장은 김 감사의 호통에 이혈룡을 포함하였다.  
비장은 원혼이 되어 왔다는 이혈룡의 말이 거짓말 같다며 그때 일을 알아보기 위해 사공을 불러 문초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이혈룡을 포함하지 않았다.
- ④ **상반** 김 감사의 **호의**로 옥단춘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다.  
의의 빠졌다

사공을 문초하여 옥단춘이 이혈룡을 구한 사실을 안 김 감사는 옥단춘이 전부터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다며 화를 내고 그녀를 잡아내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보아 옥단춘은 김 감사의 악의로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243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헛집기** 김 감사는 옥단춘을 가여워하였다. (○, ×)  
사공에게서 옥단춘의 도움으로 이혈룡이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된 김 감사는 “전부터 내 수청도 거역한 요망스러운” 기생이라며 옥단춘도 잡아내라 명령하였다. 이로 보아 김 감사가 옥단춘을 가여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비장은 죽은 원혼이 되어 왔다는 이혈룡의 말을 믿지 않았다. (○, ×)  
물귀신 될 원혼이 왔다는 이혈룡의 말에 김 감사가 비장의 의견을 묻자, 비장은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 보아 비장이 이혈룡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3) **상반** 옥단춘은 이혈룡 독단적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원통해하였다. (○, ×)  
옥단춘은 자신의 당부를 듣지 않고 연광정에 나타난 이혈룡에게 낙담하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옥단춘이 자신의 죽음을 원통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244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낱

- 칭하면서: 무엇이라고 일컬으면서.

❖ 정.정.이

- ⑤ **사건 왜곡** 이혈룡은 스스로를 귀신이라 칭하면서 김 감사가 용서를 구하도록 회유하였다.  
이혈룡은 원혼이 되어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김 감사를 위협하며 그가 반성을 하는지 시험해 보았을 뿐, 김 감사가 용서를 구하도록 회유하지 않았다.
- ❖ 오.오.이
- ① 옥단춘은 자신보다 이혈룡의 안위를 더 걱정하였다.  
옥단춘이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 “우리 낭군 어찌하여 살



아날까?” 등과 같이 말한 것을 통해, 자신보다 이혈룡의 안위를 더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김 감사는 도움을 청하러 온 친구 이혈룡을 모른 채하였다.

앞부분 줄거리의 내용과, 이혈룡의 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려고 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 죽이지 않았느냐.” 등으로 보아, 김 감사가 도움을 청하러 온 친구 이혈룡을 모른 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김 감사는 과거에 이혈룡을 죽이려 했던 일을 숨기지 않았다.

김 감사는 잔치 자리에 다시 나타난 이혈룡을 보고 “네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는 어디 견디어 보라!”라고 말하며 다시 이혈룡을 죽이려 한다. 이를 통해 김 감사가 과거에 이혈룡을 죽이려 했던 일을 숨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이혈룡은 지난 사건을 되짚으며 김 감사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이혈룡은 “전번에 너를 친구라고 ~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지난 사건을 되짚고, 그때 김 감사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정오 지름길

⑤ 이혈룡은 스스로를 귀신이라 칭하면서 김 감사가 용서를 구하도록 회유하였다.

이 문제는 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와 태도 등을 파악해 보는 문제예요. 이러한 문제의 경우, 인물이 그와 같이 행동한 이유를 추측해 보면서 선지의 적절성을 따져 보아야 해요. 특히 이혈룡은 어사가 된 뒤 곧바로 김 감사를 벌하지 않고 결인의 행색으로 먼저 나타나 김 감사를 시험해 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혈룡은 김 감사를 어르고 달래기보다 잘못을 지적하고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를 ‘회유’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⑤의 ‘회유’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245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헛집기 김 감사의 영을 거역한 죄로 뱃사공이 문초를 당하는 것은 영언을 징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군.

<보기>에서 이 작품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사용하여 악인을 징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뱃사공은 이혈룡을 물속에 던지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김 감사에게 부당하게 벌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는 악인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인의 징계는 이혈룡이 어사출두를 하여 김 감사와 수령들을 벌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

오.오.이

① 친구인 이혈룡을 대하는 김 감사의 행위에서 우정을 저버리는 부도덕

한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천민 신분인 여성이 부도덕한 사대부와 대비되는 신의가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기생인 옥단춘은 이혈룡을 구하고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반면, 김 감사는 친구인 이혈룡을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사대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이혈룡을 걱정하는 옥단춘의 모습을 통해 신의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옥단춘은 자신보다 이혈룡이 ‘능지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전신이 벌벌 떨’리고,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 없건마는, 낭군님은 ~ 황천객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오.”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이혈룡을 걱정하는 옥단춘에게서 신의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④ 제 집의 재물만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옥단춘의 말을 통해 상당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천민 신분인 여성이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고 하였다. 이는 옥단춘의 말 “내 집의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식 지낼 텐데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이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무죄한 백성들을 괴롭힌 죄목으로 김 감사와 그 무리를 잡아들인 것은 암행어사 모티프를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이혈룡이 어사출두를 하여 무죄한 백성을 괴롭힌 죄를 물어 수령들에게는 태형을 내리고, 김 감사는 파직시키는 부분에서 암행어사 모티프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6 ㉢ (1) 악인, 징계 (2) 옥단춘, 경제력 (3) 사대부, 천민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상반 이혈룡이 김 감사를 벌하는 장면에서 (악인) 선인)의 (권유, 징계)를 확인할 수 있다.

김 감사는 학정을 펼치고, 죄 없는 친구인 이혈룡을 죽이려 한 악인이다. 따라서 이혈룡이 어사출두를 통해 김 감사를 파직시키는 장면에서 악인의 징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교체 윗글에서 (이혈룡, 옥단춘)은 천민 신분으로 상당한 (권력, 경제력)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245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옥단춘이 경제력을 지닌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상반 윗글은 (천민, 사대부)을 부도덕한 존재로 설정하고, (천민) 사대부)을 신의가 있는 존재로 그림으로써 당시의 사회 변화상을 보여 준다.

〈보기〉에서 천민 신분인 여성(옥단춘)이 부도덕한 사대부(김 감사)와 대비되는 신의가 있는 존재로 그려짐으로써 당시의 사회 변화상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 247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③ **범위 오류** 이혈룡은 ㉠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혈룡은 ㉠에서 옥단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였으므로 개인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에서는 이혈룡이 어사포로서 어사출두를 하고 김 감사를 파직시켰으므로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① ㉠과 ㉡에서는 김 감사의 악한 면모가 드러난다.

김 감사는 ㉠에서는 도움을 청하러 온 오랜 친구인 이혈룡을 죽이려 하였고, ㉡에서는 다시 나타난 이혈룡을 한 번 더 죽이려 하는 악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② ㉠에서 옥단춘이 이혈룡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백년해로를 언약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뛰어난 안목이 드러난다.

옥단춘의 말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백년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하였더니”, “낭군님은 대장부로 생겨나서” 등으로 보아, ㉠에서 옥단춘이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안목으로 이혈룡을 구하여 백년해로를 언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옥단춘이 이혈룡에게 외출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은 ㉡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옥단춘이 “내가 것처럼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 죽을 곳을 찾아왔소?”라고 한 말로 보아, 이혈룡이 거지 차림으로 그녀를 찾아왔을 때 과거에 자신이 김 감사가 이혈룡을 죽이려 할 때 그를 살렸던 일을 들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을 염려하여 외출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에서 뱃사공과 형방까지 고초를 겪는 것은 ㉡의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에서 김 감사는 뱃사공을 문초하고, 이혈룡을 양반이라고 존대하였다는 이유로 형방까지 잡아 풀리는 등 포악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무죄한 백성들에게까지 보인 악행으로 인해 ㉢에서 김 감사가 파직을 당한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 27 윤지경전

㉡ 본문 122~125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역사 소설

주제 부당한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지킨 진정한 사랑, 불합리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됨.

② 우연성이나 전기적 요소 없이 사건이 사실적으로 전개됨.

③ 기묘사화, 작서의 변, 가작인두의 변 등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함.

④ 역사적 사실에 허구성을 가미하여 당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 줌.

**단숨에 읽기** 중종 때 재상 윤현의 셋째 아들 지경은 최 참판 덕 연화(최씨)와 혼약을 한다. 이 혼약으로 윤지경을 사위로 맞을 수 없어 기분이 상한 최안군(임금의 동생)은 윤지경의 혼인을 방해하고자 경빈 박씨의 소생인 연성 공주의 부마로 지경을 추천한다. 최씨와 혼례 중에 부마 간택령을 받은 윤지경은 입궐하여 부당함을 항변하지만 결국 공주와 혼인한다. 그러나 윤지경은 혼인 후에도 공주를 무시하고 계속 최씨를 만나고,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윤지경과 최씨를 모두 유배 보낸다. 이후 연성 공주의 모친 경빈 박씨가 세자를 해하는 모반을 주동하다 처형되고, 연성 공주도 귀양 간다. 윤지경이 이러한 환란을 예상하고 스스로 귀양을 자처한 것임을 안 임금은 윤지경을 칭찬하고 부마 위를 거둔다. 공주의 처지를 안타까워한 윤지경은 공주를 풀어 달라고 청하고 최씨, 공주와 함께 화목하게 산다.

### 한 줄 요약

- 1 지경이 밤마다 (연화)를 찾아가다 최공에게 발각됨.
- 2 지경의 박대를 받은 (공주)가 귀인 박씨에게 일일이 고하여 서러워함.
- 3 귀인 (박씨)의 말을 들은 상이 지경을 불러 꾸짖자, 지경이 (직간)을 함.

## 248 ㉓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⑤ **상반** ‘공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부터 ‘지경’과 ‘최씨’의 사이를 **알고** 있었다.

공주의 말 “당초에 조강지처 있는지 없는지 내 심궁 처녀로 어찌 알리요.”로 보아, 공주는 지경이 부마로 정해지기 전에 지경과 최씨 사이를 몰랐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① ‘지경’은 자신이 부마가 된 것이 ‘공주’의 탓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경이 최씨와의 혼인 중에 부마 위를 받은 것에 대해 “신이 과연 공주의 탓이 아니온 줄 아오되”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임금’은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상이 지경을 불러 책망할 때 “네 또 빙모를 간악한 유로 휘방한다 하니 ~ 어버이를 휘방하는 자식이 어디 있으리요.”라고 말한 것에서 공주의 어머니인 귀인을 대하는 지경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윤공'은 '지경'이 웅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웅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씨에게 가니'를 통해 윤공이 지경으로 하여금 웅주 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나 소용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최공'은 밤마다 '연화'를 찾아오는 '지경'의 처지에 대해 안쓰럽게 여겼다.  
최공은 밤마다 연화의 방에 숨어들다 자신에게 들킨 지경을 보고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으며 웅주와 잘 지내다 임금께 최씨와의 해로를 허락받을 생각을 해 보라고 권하고 있다. 더불어 "끝을 어이할꼬,"라고 말하며 뒷일을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최공이 지경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49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헛집기** 최공은 지경이 다른 뜻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 ☒)  
최공은 딸 연화를 밤마다 찾아오다가 자신에게 들킨 지경을 안쓰럽게 여기고 앞날을 걱정할 뿐, 지경이 다른 뜻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지 않다.
- (2) **헛집기** 지경은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웅주의 남편이 되기로 마음먹는다. (○, ☒)  
지경은 임금의 뜻에 따라 부마로 간택되어 웅주와 혼인하였으나, 여전히 웅주를 멀리하고 최씨를 찾아간다. 그리고 웅주에게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웅주와 화락하리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지경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웅주의 남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웅주는 지경과 혼인한 후에야 최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 ☒)  
웅주는 심궁 처녀로 있을 때 몰랐다가, 지경과 혼인을 한 후에야 지경에게 최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50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타당하다: 일의 이치로 보아 옳다.
- 출가분해졌음: 거추장스럽지 아니하고 가볍고 편안해졌음.

### 정.정.이

- ⑤ ㉠: 지경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상의 내적 갈등이 담겨 있다.  
㉠에서 임금은 최씨에 대한 도리를 지키려고 하는 지경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딸을 홀대하는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민이 ㉠과 같은 탄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 지경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최공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에는 지경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자칫 화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는 최공의 괴로운 마음이 드러난다. 최공은 지경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 ② **헛집기** ㉠: 웅주와의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 지경이 출가분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에서 지경은 웅주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경과 웅주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거나 지경이 출가분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헛집기** ㉠: 지경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해 웅주가 자책 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에서 웅주는 지경에게 홀대를 받은 것이 서럽고, 분하기 때문에 운 것이지, 지경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말한 것에 대한 자책으로 운 것이 아니다.
- ④ **헛집기** ㉠: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든 지경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에서 지경은 최씨와의 혼인을 무르라는 임금의 명을 거스른 것에 대해 사죄하고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세세하게 전달하며 임금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51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투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 정.정.이

- ③ '지경'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웅주'가 한 말의 논리를 활용하고 있다.  
웅주가 태부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다고 하자, 지경은 "내 할 말을 웅주 하시는도다."라며 이미 부인(최씨)을 얻었는데,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웅주와 화락하겠느

냐고 말한다. 이는 옹주의 논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옹주'는 '지경'에게 **닥칠 일을 예견**하며 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옹주는 자신을 천대하는 지경에게 불만을 토로할 뿐, 지경에게 닥칠 일을 미리 짐작하고 있지 않다.

- ② **교체** '옹주'는 '지경'이 **진분의 차이를 들은** 자신을 멀리했던 것을 비판하고 있다.

옹주의 말 중, "최씨를 얻어 고혹하였으되"는 지경이 최씨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린다는 뜻이다. 이로 보아 옹주는 지경이 신분 차이가 아니라 최씨 때문에 자신을 멀리한 것을 비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헛집기** '지경'은 '옹주'가 **부귀를 탐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옹주는 자신과 혼인하고도 최씨를 찾아가는 지경을 보고 두 아내를 두려고 한다고 비판할 뿐, 부귀를 탐하거나 지경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경은 자신이야 말로 두 아내를 둘 수 없으므로 본래 조강지처인 최씨를 버리지 못하겠다고 답한다. 지경의 입장에서는 옹주와 화락하는 것이 부귀를 탐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했을 뿐, 옹주가 부귀를 탐해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문제 삼고 있지 않다.

- ⑤ **헛집기** '지경'은 '옹주'가 '옹주'를 **위하는 자신의 마음까지 왜곡해** 가며 '최씨'를 투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경이 옹주에게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다고 말한 것에서 최씨와 자기 사이의 일로 옹주가 투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경에게는 옹주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옹주를 위하는 지경의 마음을 옹주가 왜곡하였다는 주장을 지경이 했다고 볼 수 없다.

252 **답** ㄴ, ㄷ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강**

• **월난**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

✔ 정.정.이

- ㄴ. 지경은 두 가지의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A]에서 지경은 옹주가 최씨를 청하여 한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경우와, 최씨를 투기하여 자신을 원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전자일 때는 옹주를 공경할 것이지만, 후자일 때는 옹주를 계속 박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ㄷ. 옹주는 태부의 도리를 근거로 삼아 최씨에게 유혹되어 자신을 박대하는 지경을 비판하고 있다.

[A]에서 옹주는 "태부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다며 최씨에게 고혹되어 자신을 박대하는 지경을 비판하고 있다.

✔ 오.오.이

- ㄱ. **사건 왜곡** 지경은 **과거를 회상**하며 옹주가 자신을 **속였음을** **힐다**하고 있다.

지경은 자신에게 이미 조강지처가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옹주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253 **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나]는 감정에 호소하며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나]에서 지경이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고 말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옹주와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상대방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 오.오.이

- ① [가]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가]에서 최공은 "어찌 그리 미혹한가.", "끝을 어이할꼬." 등과 같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후일을 도모하지 않는 지경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 ② [가]는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최공은 옹주를 중대하며 잘 지내다가 추후에 임금께 절박한 사연을 고하면 연화와의 해로를 허락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며 후일을 도모하라고 말하고 있다.

- ③ [나]는 다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나]에서 지경은 옹주의 친모인 귀인과 그의 아들인 복성군, 주변인인 홍명화, 홍상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은 홍계를 지을 사람들과 결탁할 수 없어서 옹주와 화락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에는 상대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걱정이, [나]에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예상이 나타나 있다.

[가]에서 최공은 옹주를 박대하는 지경의 행동이 불러올 화를 걱정하고 있고, [나]에서 지경은 옹주와 화락하다가 입



을지도 모르는 화와, 옹주를 박대하다가 겪게 될 문제를 모두 예상하고 있다.

## 254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간악한 후궁은 두려워 아니하나니'라는 '지경'의 말은 '최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의 차이를 드러낸 말로 ~~저접을 엄격히 구별했던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간악한 후궁"은 옹주의 친모인 귀인 박씨를 일컫는 말로, 지경이 장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낼 뿐, 최씨와 옹주의 인물 됴됨이를 비교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보기>에서 언급한 당시 외척 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에 의해 정치 질서가 문란해졌던 사회상과 관련된다.

### 오.오.이

- ①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이 '그옥한 흥계'를 꾸밀 것이며 그들이 결국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경'이 생각한 데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간악한 귀인과 남 혈기 심한 복성군이 홍명화, 홍상과 결탁하여 "그옥한 흥계를 지을" 것이라는 지경의 말은, <보기>에서 언급한 '외척 세력 형성'과 그로 인한 정치 질서의 문란과 관련된다. 지경이 이들 세력에 합류하면 "별문지환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큰 화를 초래할 것임을 예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경의 이러한 생각은 <보기>에 제시된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는 말은 '금암의 직간을 가졌도다'라는 '임금'의 말과 함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지경'의 태도를 부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보기>에서는 지경이 최씨를 정처로 여기고 있으며, 이 사랑을 지키려는 소신 있는 태도가 부각된다고 하였다. 이는 옹주를 중대하고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공에게 "그른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는 임금과의 대화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지경은 옹주와의 혼인은 명령에 의해 억지로 한 것이며 최씨와의 신의를 버릴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금이 '금암의 직간'을 가졌다고 지경을 인정해 주어 그의 태도가 부각되고 있다.

- ④ '부마를 죄 주어 주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귀인'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연을 위해 '지경'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귀인은 지경이 옹주와 혼인한 후에도 최씨를 찾아간다는 말에 분노하며, 상계 최씨를 없애고 지경에게 벌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 이에 상이 지경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귀인은 지경이 최씨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하는 장애에 해당한다.

- ⑤ '최씨'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갈 생각'이 없다는 '지경'의 말은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한 것으로 당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할 수 있어.

지경은 최씨와 어려서 정혼한 뒤 혼례를 올리던 중 부마로 간택되었으므로 최씨가 정처라고 여긴다. 이에 지경은 임금에게 최씨와의 언약이 깊고 교배 합환을 한 사이이므로 신의를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정처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모습에 해당하는데, <보기>에서 정처에 대한 사랑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소신 있는 태도가 독자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55 ㉓ (1) 최씨 (2) 귀인, 사랑 (3) 외척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지경은 (최씨) 옹주)를 자신의 정처(正妻)라고 주장한다. <보기>에서 지경은 최씨를 정처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을 지키고자 소신 있게 행동하였다고 하였다.
- (2) **교체** (귀인) 최공)은 지경이 (권력,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하는 시련에 해당한다.

**254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귀인은 지경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3) **교체** 지경이 박 귀인, 홍명화, 홍상 등을 경계한 것에는 (외국,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254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외척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 256 ㉓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상반**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중요하게 ~~여가자~~ 여기지 않는 임금의 모습은 독창성과 참신성을 보여 주는 교.

지경에게 최씨와의 혼인을 무르라고 명한 후 옹주와 지경을 혼인시켰으므로, 임금의 입장에서 지경의 정처는 옹주이다. 이에 따라 옹주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고, 빙모인 귀인을 간악하다고 한 지경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정처에 대한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서 언급한 독창성과 참신성은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역사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 이 소설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임금의 모습이 독창성과 참신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오이

① 웅주를 멀리하는 지경에게서 유교적 봉건 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③ 위험을 무릅쓰고 대범하게 연화를 만나러 가는 모습에서 지경이 개성적 인물임을 알 수 있군.

최씨와 퇴혼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경은 최씨를 몰래 만나면서 임금의 딸인 웅주를 후대하기는커녕 박대한다. 이러한 지경의 행동은 유교적 봉건 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나 있다(①). 또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대범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③).

④ 지경이 박 귀인과 복성군에 대해 평가하는 말을 통해 외척 세력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군.

지경은 “귀인은 간악이 견줄 데가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외척 세력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흥명화, 흥상이 박 귀인과 결탁하여 흥계를 꾸밀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지경이 웅주와 화락하지 않는 모습에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군.

지경은 웅주와 화락할 수 없는 이유로 외척 세력의 그윽한 흥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근거 있는 말로 앞으로의 지경의 행동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정오 지름길

② **정처(正妻)에 대한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임금**의 모습은 독창성과 참신성을 보여 주는군.

누구의 관점에서 지경의 ‘정처’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②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경의 입장에서 정처는 최씨이지만 퇴혼을 명령하고 웅주와 지경을 혼인시킨 임금의 입장에서는 웅주가 지경의 정처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선지의 적절성을 따질 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 28 매화전

본문 126~129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애정 소설, 전기 소설, 도술 소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이론 남녀 간의 사랑

특징 ① 도술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전기성을 띤.  
② 부분적으로 판소리 사설체가 나타남.  
③ 악인형 계모인 최씨에 대한 징계가 나타나지 않음.  
④ 사건의 전개 및 인물 간의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삽입 시가 사용됨.

**단숨에 읽기** 도술에 능한 장단골의 선비 김 주부는 어느 날 간신들의 위협을 피해 딸 매화를 남장하여 길거리에 두고 아내와 구월산으로 간다. 조 병사에 의해 구출된 매화는 남장한 채 그의 아들 양유와 함께 공부하며 지내고, 매화가 여자임을 알게 된 양유는 매화와 혼인을 약속한다. 이후 관상가가 나타나 양유가 매화와 결혼해야만 호랑이에게 물려 가는 액운을 피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매화가 여자임을 알게 된 조 병사는 돌을 혼인시키려 한다. 평소 매화를 탐냈던 양유의 계모 최씨는 혼사를 방해하고 매화를 자신의 남동생과 이어 주려 하지만, 매화는 이를 거절한다. 이 일로 조 병사 집에서 쫓겨난 매화는 최씨의 하수인에 의해 납치될 위기에서 김 주부의 도술로 구출되고, 구월산에서 어머니와 상봉한다. 한편 아버지의 강요로 다른 여인과 혼인하게 된 양유는 혼인 전날 호랑이에게 물려 구월산에 온다. 이곳에서 양유와 매화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혼례를 치르고, 곧 서로를 알아본다. 김 주부는 도사로 변해 조 병사에게 양유의 거처를 알려 주고 일가는 구월산에서 살며 임진왜란의 피해를 면한다. 이후 김 주부는 신선이 되고 다른 인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산다.

### 한 줄 요약

- ① 조 병사가 (양유)와 (매화)를 혼인시키려 하자, 최씨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계락을 세움.
- ② 최씨의 모해로 매화를 (천인)의 자식으로 오해한 조 병사가 매화를 내쫓으려고 말함.
- ③ 김 주부의 도술로 다시 만난 양유와 매화가 (봉서)를 본 뒤 서로 알아봄.

## 255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②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조 병사와 최씨 부인의 대화, 조 병사와 연화동 사람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양유와 동자의 대화, 양유와 매화의 대화 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오오이

① **부재** **의의적인 소재를 통하여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 글에는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의의적 소재가 쓰이지 않았다. 또한 대상의 희화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부재**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특정 인물을 예찬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정 인물을 예찬하지도 않았다.



- ④ **부재** 시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 글에는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서술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사실성을 높이고 있지 않다.
- ⑤ **부재** 인물의 외양을 자세하 묘사하여 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달밤에 지나가는 구름과 떠들썩하게 부는 바람 소리에 놀라는 양유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겁 많은 성격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유의 외양을 묘사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258 ㉮ (1) ○ (2) ○ (3) ○ (4)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  
조 병사가 장단골 연화동에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아본 뒤 양유와의 혼사를 취소하고, 양유가 호랑이에게 물려 구월 산에 와서 매화를 만나는 등 공간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2) 서술자의 직접 서술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  
'정신이 아득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다시 생각하여', '다시는 의혹이 없는지라.' 등에서 조 병사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제시되고 있다.
- (3) 부분적으로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는 울문체가 쓰이고 있다. (○ ×)  
'문고리 ∨ 떨렁 ∨ 방문이 ∨ 와당탕', '금침을 ∨ 무릅쓰고 ∨ 동정을 ∨ 살펴보니', '귀신이냐, ∨ 호랑이냐, ∨ 어찌할 줄을 ∨ 모르더니' 등에서 부분적으로 4음보율의 울문체가 쓰이고 있다.
- (4) **헛집기** 여러 인물 간의 문답 형식을 반복하며 현재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 ×)  
조 병사가 장단골에 가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장면에서 문답이 반복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조 병사로 하여금 매화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일 뿐, 현재 상황을 풍자하고 있지 않다.

## 259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비현실적인 사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김 주부가 동자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양유를 잡아오고, 광풍이 일어나면서 봉서가 내려지는 등의 비현실적인 사건

을 통해 양유와 매화가 만나 서로 알아보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오.오.이

- ② **교체**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와 중략 부분 <sup>김 주부</sup> 줄거리를 통해 김 주부가 도술을 부릴 줄 아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전기적 요소는 주인공 매화가 아니라 매화와 양유의 결연을 돕는 김 주부의 비범함을 드러낸다.
- ③ **헛집기**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로 제시된 '봉서'는 양유와 매화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 준 일상적 소재로, 이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예고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부재**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밝히 독자의 판단을 돕고 있다.  
이 글에서 서술자가 직접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헛집기**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다.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기는 하나,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다.

## 260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양유는 동자가 나간 후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했다.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던 양유는 동자가 방을 나간 이후에 구름만 비쳐도 범(호랑이)이 오는지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뿐, 호랑이를 물리칠 결심을 하지는 않았다.
- ⑤ **오.오.이**
- ① 최씨 부인의 동생은 조 병사보다 앞서 장단골에 갔다.  
최씨 부인이 동생에게 "네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말한 후 최씨 부인의 동생은 장단골로 갔다. 이후 장단골 사람들이 매화를 모함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최씨 부인의 동생이 조 병사보다 먼저 장단골에 갔음을 알 수 있다.
- ② 매화 모녀는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양유가 있는 방 앞에서 매화는 "아가 들어가자."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죽어도 방 안으로 못 들어가겠다며 실랑이를 벌였다.
- ④ 주모는 조 병사에게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말했다.

주모는 조 병사보다 먼저 도착한 최씨 부인의 동생에게 매수되어서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며 외모를 이용하여 남을 속일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였다.

- ⑤ 조 병사의 도움을 받은 매화는 양유와 함께 공부를 했다.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오해한 조 병사가 아들 양유에게 “매화로 더불어 공부하던 일이 분하도다.”라고 말한 장면에서 매화가 양유와 함께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 261 (1) 최씨 부인 (2) 재물 (3) 동자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조 병사는 (최씨 부인)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장단골을 찾아 갔다.

조 병사는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양유와 혼인시킬 수 없다는 최씨 부인의 말을 듣고 매화의 근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장단골에 갔다. 반면 관상쟁이는 조 병사로 하여금 양유와 매화를 혼인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한 인물이다.

- (2) **교체** 주모는 최씨 부인의 동생에게 (재물) 협박)을 받고 거짓말을 하였다.

최씨 부인은 조 병사가 장단골로 가기 전에 동생을 불러 “네 먼저 가서 재물을 많이 그 근처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시킨다. 이후 주모가 매화를 모함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최씨 부인의 동생에게 재물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교체** (동자) 김 주부)는 양유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양유가 동자에게 살려 달라고 하자, 동자가 방에 들어온 여자 혼신이 절하면 맞절을 하라면서 정성이 지극하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 준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262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의연하게** 의지가 굳어서 고덕없게.
- **동조** 남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 정.정.이

- ④ 매화는 양유가 있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는 양유가 그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매화는 방 안으로 죽어도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며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는 방 안에 양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 오.오.이

- ① **상반** 구월산에 잡혀 온 양유는 의연하게 행동하였다.

구월산에 잡혀 온 양유는 동자에게 자신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살려 달라고 부탁하고, 달밤에 지나가는 구름과 바람소리에도 놀라고 있으므로, 의연하게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② **교체** 김 주부는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가 아내와 헤어졌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김 주부는 조정 간신들에게 쫓기다 달매화와 헤어졌고, 아내와 구월산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 ③ **교체** 최씨 부인은 매화를 며느리로 삼고 싶은 마음에 동생을 장단골로 보냈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최씨 부인은 매화를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한다고 하였다. 즉 최씨 부인은 매화를 며느리가 아니라 남동생의 아내(올케)로 삼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헛집기** 조 병사는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반대한 최씨 부인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속내를 의심하였다.

매화와 양유의 혼사에 대해 최씨 부인이 의견을 말하자 조 병사는 “부인 말씀이 옳도다.”라며 동조하고 장단골로 향하였다. 이때 최씨 부인의 속내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263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D를 확인했었고.

범에게 잡혀 온 양유는 매화가 방에 들어와 절을 할 때까지 매화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유가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남녀의 재결합(D)’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조 병사는 A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최씨 부인과 상의했고. 관상쟁이에게 앞으로의 길흉을 들은 조 병사는 매화가 양유와 동갑이고 인물도 비범하므로 아들과 혼인시켜도 되겠다고 판단한 후, 최씨 부인과 상의하였다. 이로 보아 ‘혼사의 진행(A)’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최씨 부인이 매화를 탐내 간계를 부리는 데서 B가 비롯되었군.

최씨 부인은 매화를 제 동생의 짝으로 삼고자 매화를 모함하여 양유와의 혼인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최씨 부인의 간계는 ‘혼사의 장애(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조 병사는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아 양유에게 C를 명령했군.
- 장단골에 다녀온 후 매화의 근본이 천하다고 믿게 된 조 병사는 아들 양유에게 앞으로 매화와 대면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 따라서 매화의 집안을 문제 삼아 '남녀의 이별(C)'을 명령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매화는 C의 상태임에도 양유를 그리워하고 있었군.
- 매화가 어머니에게 떠밀려 방에 들어간 후, "양유 없는 게 한이로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매화가 양유와 헤어진 뒤 '남녀의 이별(C)' 상황에서 그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64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조 병사 집을 나온 매화가 부모를 만나 가게 된 구월산은 '남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겠군.
-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매화는 조 병사 집을 나온 뒤 부모를 만나 구월산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유와 재회하였으므로, 구월산은 남녀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최씨 부인이 자신의 동생과 매화의 만남을 주선하려는 것 역시 '남녀의 만남'에 해당하겠군.
- <보기>에서 '혼사 장애담'은 남녀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최씨 부인의 동생은 이 둘의 혼사를 방해하는 반동 인물이므로, 최씨 부인이 주선하려는 만남은 혼사 장애담에서의 '남녀의 만남'으로 볼 수 없다.
- ② **교체** 조 병사는 **최씨 부인과 동생**이 한 말을 듣고 '혼사의 진행'을 취소하였군.
- ③ **범위 오류** **관상쟁이와 연화동** 사람들의 말은 매화와 양유의 '혼사의 장애'로 작용하였군.
- 조 병사는 최씨 부인의 동생이 아니라, 연화동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 오해하여 '혼사의 진행'을 취소하였다(②). 반면 관상쟁이의 말은 조 병사로 하여금 양유와 매화를 혼인시킬 생각을 갖게 하였으므로 혼사의 장애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 ④ **교체** 호랑이가 양유를 잡아 가둔 것은 '남녀의 **이별**'에 해당하는군.
- 호랑이는 매화의 아버지인 김 주부가 양유와 매화를 만나게 하기 위해 동자를 변신시킨 것으로, 호랑이에 의해 양

유가 잡혀 온 것은 '남녀의 재결합'을 위한 사건이지 '남녀의 이별'과는 관련이 없다.

### 정.오 지름길

- ③ **관상쟁이와 연화동** 사람들의 말은 매화와 양유의 '혼사의 장애'로 작용하였군.
- <보기>의 내용을 참고해 작품을 이해할 때 성격이 서로 다른 요소를 모두 그러하다고 묶어 제시한 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③에서 관상쟁이의 말은 양유와 매화의 혼사에 계기를 마련해 주지만, 연화동 사람들의 말은 혼사를 방해하는 구실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둘 이상의 내용을 묶은 선지가 있을 때는 각각이 해당 특징을 지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 265 ㉔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댕

• **촉발**: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정.정.이

- ④ 인물들이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
- 양유와 매화는 방 안으로 갑자기 날아든 봉서(㉑)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본 후에야 서로를 유심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으므로 봉서가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는 실마리가 된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인물들의 **정격변화**를 야기하는 매개가 된다.
- 봉서(㉑)를 통해 상대가 누군지 알게 되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을 뿐, 인물들의 성격이 변화하지는 않았다.
- ② **상반** 인물들 사이에 쌓였던 갈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다.
- 봉서(㉑)를 통해 양유와 매화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으므로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헛집기** 인물들이 **잘못된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
- 이 글에는 당시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며, 봉서(㉑)가 세태 비판의 수단으로 쓰이지도 않았다.
- ⑤ **헛집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된다.
- 봉서(㉑)는 양유와 매화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과 관련이 없다.

## 266 ㉔ (1) 장단골 연화동 (2) 방 안 (3) 학당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 장단골 연화동 )은 김 주부가 살던 곳으로, 조 병사는 이곳에서 매화에 대해 오해하게 된다.

조 병사가 매화의 근본을 알기 위해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간 것으로 보아 이곳이 김 주부가 살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조 병사는 주모 등의 말을 듣고 매화가 천인의 자식이라고 오해를 한다.

(2) **교체** 매화와 양유는 ( 방안 )에서 봉서를 읽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구월산에 잡혀 온 양유는 방 안에서 매화를 만나지만, 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후 광풍에 날려 온 봉서를 읽고 나서야 서로를 알아보고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3) **교체** ( 학당 )은 양유가 아버지로부터 매화와의 이별을 명받은 곳이다.

장단골 연화동에 다녀온 조 병사가 학당에 가 양유를 불러 “앞으로는 매화를 대면치 말라.”라고 말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67 ①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① 인물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수단이다.

최씨 부인의 동생이 건넨 재물(㉠)에 장단골 사람들이 매화를 모함하여 매화가 조 병사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므로, 재물은 인물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수단에 해당한다.

오.오.이

② **헛집기** 인물 간의 재력 차이를 암시하는 대상이다.

‘최씨 동생이 이 말을 듣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장단골 연화동을 찾아가더라.’에서 최씨 동생에게 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때 재물이 인물 간의 재력 차이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③ **헛집기** 인물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한다.

재물(㉠)을 받은 장단골 사람들이 매화를 모함하여 조 병사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 인물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갖게 하지 않는다.

④ **사건 왜곡** 인물들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는 매개물이다.

재물(㉠)을 통해 인물들이 서로의 인연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⑤ **상반**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에 해당한다.

재물(㉠)을 받은 장단골 사람들의 말을 믿은 조 병사가 매화를 내쫓고 양유에게 매화를 대면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갈등은 오히려 심화된다.

III

전계·풍자 소설

29 박태보전

작품 분석

본문 132~135쪽

작가 미상

갈래 전계 소설, 역사 소설

주제 죽음 앞에서도 직간을 서슴지 않은 선비 박태보의 지조와 삶

특징 ① 실존 인물의 삶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사 소설의 성격을 지님.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하여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함.

③ 직간하는 신하와 이를 노여워하는 임금 간의 대립을 서사화함.

④ 인물의 말과 행동 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우직한 성격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숙종 때 응교로서 왕명을 대신 짓고 역사를 편찬하는 일을 하던 선비 박태보가 있었다. 그는 좌참찬 박세당의 둘째 아들로, 18세에 이조 판서 이경의 딸과 혼인 후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의 벼슬에 이르렀다. 어느 날, 임금이 아끼던 왕자(후궁 장씨의 소생)가 죽자 중전의 짓이라 오해한 임금은 숙종 16년 중전의 생일날 폐위 전교를 내린다. 이에 많은 신하들이 반대 상소문을 올리자, 크게 노한 임금이 상소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인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혼자 금부에 갇힌 박태보는 중형을 받으면서도 국모인 중전을 폐위하는 것의 부당함을 간한다. 그러나 임금은 끝내 중전을 내치고 박태보를 진도로 유배시킨다. 혹독한 형벌에 탈이 난 박태보가 유배 가는 길에서 죽자 만백성이 슬퍼한다. 이후 궁 밖에서 자신을 풍자하는 노래를 듣고 심란하게 지내던 임금은 후궁 장씨가 폐위된 중전 민씨의 허수아비를 놓고 곳을 한 것을 발견하고 비로소 왕자의 죽음이 장씨의 음모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에 민씨를 복위시키고 죽은 박태보 대신 박세당의 큰아들을 대사성 삼아 그의 죽음을 위로한다.

한 줄 요약

- ① 태보는 죽은 후에도 임금께 ( 간 )할 것을 다짐하고, 임금은 왕비를 내치고 태보를 ( 정배 )시킨다.
- ② 태보가 부인의 ( 꿈 )에 나타나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하자, 부인이 태보의 ( 죽음 )을 예견함.
- ③ 태보가 죽기 전에 쓴 ( 편지 )를 받은 가족들이 슬퍼하며 태보의 장례를 치름.
- ④ 궁 밖을 순행하던 임금이 자신을 풍자하는 ( 노래 )를 듣고 심란해함.

268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인은 꿈에서 학발 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깬다.

부인은 꿈에서 정배를 간 남편을 만나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학발 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 오류인을 보고 놀라 꿈에서 깨었다.

오.오.이

① **사건 왜곡** 태보는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상이 “금부로 가두라.”라고 하교한 뒤 태보가 금부에 이르



렀다고 하였으므로, 태보가 자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교체**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대감은 아들 태보의 편지를 받고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가 초종례를 극진히 한 후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옮겨와 장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 ④ **상반**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미복으로 꺾 밖을 순행하던 상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심신이 산란하여 그들의 이름을 묻고자 했지만, 아이들이 달아났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상이 아이들의 이름을 묻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반** 형조 판서는 상의 명령대로 태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대감 보고했다.

‘이튿날에 형조 판서 마지못하여 위계를 갖추고 대강 직계로 올렸더니’로 보아, 형조 판서가 조사 결과를 대강 썼음을 알 수 있다.

## 269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임금은 태보를 금부로 가둘 것을 명하였다. (○ ×)  
 형조 판서의 직계를 본 임금은 태보를 금부에 가두라고 하교하였다.

- (2) **사건 왜곡** 태보는 가족들에게 목에 갇힌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 ×)

태보는 “무죄로 죽어 청춘 원혼이 되리오마는 ~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간언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을 뿐, 억울함을 토로하지는 않았다.

- (3) 상은 거리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심신이 산란하였다. (○ ×)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신이 산란하여’를 통해 아이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상의 심신이 산란해졌음을 알 수 있다.

## 270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태보는 죽기 전에 대감 부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

태보는 편지를 통해 대감 부부에게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목숨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 오.오.이

- ① 태보는 제원들과 함께 상소를 올렸으나 벌은 혼자 받았다.  
 제원이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② 대감 부부는 편지를 받자마자 그것이 비보임을 직감하였다.  
 한림의 하인이 편지를 드리자 대감 부부는 편지를 읽기도 전에 서로 통곡하다 기절하였다. 이로 보아 대감 부부가 편지의 내용이 좋지 못할 것을 직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태보는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에게 왕비를 내치 말 것을 간하였다.  
 태보가 죽은 혼백이라도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장면으로 보아 적절하다.

- ⑤ 임금은 미복을 입고 성외를 순행하다가 아이들이 자신을 찾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임금이 성외를 순행할 때, 아이 오륙 인이 주상이 불명하여 충신과 민 중전을 내쳤고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여 한심하고 가련하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271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집기** ‘금부’는 임금이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금부’는 임금의 명령에 의해 태보가 갇힌 공간이기는 하지만, 이곳에서도 태보는 여전히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만 조백관과 장안 백성들도 그를 위해 모여들었다는 점에서 임금의 권위가 실현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한 곳’ 역시 자신을 풍자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임금이 애연함을 느끼는 곳이므로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② ‘진도’는 임금에게 정배받은 태보가 향해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임금에게 내쳐진 민 중전이 거쳐야 하는 곳이다.

‘태보는 진도로 정배하라 하시니라.’와 아이들이 부른 노랫말 중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로 보아, ‘진도’는 태보가 정배 가야 하는 곳이고, ‘외관’은 민 중전이 폐위된 후 거쳐야 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 ③ '이화촌'은 부인이 시부모에게 직접 문안하는 곳이자 태보가 하인을 보내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다.

태보의 꿈을 꾸 부인이 다음 날 '시부모 당하에 문안차로' 이화촌에 갔을 때, 한림(태보)의 하인 동일이 찾아와 태보의 편지를 부모에게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 '이화촌'은 부인과 태보가 부모에게 문안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 ④ '과천'은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이자, 태보의 소식을 받은 대감이 '이화촌'을 떠나 향하는 지점이다.

태보가 부모님께 올린 편지에서 '천 리 원정에 가다가 과천 의관에서 ~ 구천에 들어가오니'라고 쓴 것으로 보아 태보가 진도로 가는 경유지인 '과천'에서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수습하러 이화촌을 떠나 과천으로 향하였다.

- ⑤ '심산궁곡'은 '성내 성외'와 대비되어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이다.

아이들이 부른 노랫말 중 "심산궁곡에 들어가 ~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로 보아, '심산궁곡'은 현재의 임금을 피하려는 백성의 마음이 투영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성내 성외'는 임금이 순행하는 곳이므로 '심산궁곡'과 그 성격이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 272 ㉠ (1) 태보 (2) 과천 (3) 심산궁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임금은 (태보) 왕비)를 진도로 보냈다.

임금은 태보를 진도로 정배하라 하였다. 왕비(민 중전)는 외관으로 내쳤다.

- (2) **교체** 태보의 소식을 들은 대감은 (과천 이화촌)으로 향하였다.

태보의 편지를 읽은 대감은 판서 노복 등을 거느리고 즉시 과천으로 향하였다.

- (3) **교체** 아이들은 임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심산궁곡 성내 성외)에 가서 성군을 기다리자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이 불명한 주상을 피하는 동시에 성군을 기다리라고 노래한 곳은 심산궁곡이다. 성내 성외는 임금이 미복으로 순행한 곳이다.

## 273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결백: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음.

### 정.정.이

- ② **헛짚기** '영천수'는 태보가 죽은 후에도 본인의 결백을 밝히게 하든 매개물이다.

영천수는 태보가 자신이 죽거든 자신을 씻어 달라고 요청한 물로, 본인의 결백을 밝히게 하는 매개물이 아니다. 태보는 자신이 죽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충언을 이어 갈 것을 다짐할 뿐, 자신의 결백을 밝히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상소'는 태보로 하여금 어명을 입고 사경에 이르게 한 원인이다.

태보는 제원들과 함께 올린 상소로 인해 어명을 입고 사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몽사'는 태보의 부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감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태보의 부인은 꿈에서 태보로부터 "사생 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간다는 말을 듣고 그의 죽음을 예감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 ④ '편지'는 죽음을 앞둔 태보의 마음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태보는 편지를 통해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된 것에 대한 죄송함을 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노래'는 임금의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를 임금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등과 같은 노랫말로 보아, 임금의 행동에 대한 백성들의 부정적 평가가 노래를 통해 임금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74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통감: 마음에 사무치게 느낀.

• 소명: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 정.정.이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강직함은, [B]에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에서 확인된다.

[A]는 태보와 함께 상소 중에 이름을 올린 제원의 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께 간하는 태보의 충심과 강직함을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라는 말로 칭송하고 있다. 이러한 강직함은 [B]의 "죽은 혼백이라도 ~ 주



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라고 말하는 태보의 다짐에서도 확인된다.

❖ 오오이

- ① **범위 오류** [A]에서 태보의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제원들의 탄식은, [B]에서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태보의 자책과 대비된다.  
[A]에서 제원들은 “일은 여럿이 참여하고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다며, 상소에 대한 벌을 태보 혼자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탄식하고 있다. 반면 [B]에서 태보는 인명은 재천이며 죽더라도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 자책하고 있지 않다.
- ② **범위 오류** [A]에서 태보가 받은 제원들의 위로는, [B]에서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는 태보의 결심으로 이어진다.  
[A]에서 제원들은 태보의 막중한 충을 칭송하고 혼자 벌을 받은 것에 대해 죄스럽고 민망해하며 태보를 위로하였다. 반면 [B]에서 태보는 무죄로 죽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 삶을 도모하여 무죄를 소명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
- ④ **헛집기** [A]에서 제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태보의 심리적 상처는, [B]에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해소된다.  
[A]에서 제원들은 태보를 위로할 뿐, 갈등하고 있지 않다. 또한 [B]에서 태보는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다짐을 말할 뿐이다.
- ⑤ **헛집기** [A]에서 제원들의 말을 통해 드러난 태보의 후회는, [B]에서 가족들을 향한 태보의 말에서 반복된다.  
[A]에 태보의 후회가 드러나지 않으며, [B]에서 그러한 후회가 반복되지도 않는다.

275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B]에서 태보는 끝까지 자기 뜻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죽은 혼백이라도 꺾내를 향하여 우리 주상 심하에 복지하여 주야로 간하여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니”라고 말한 것에서 끝까지 자기 뜻을 지키려는 태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교체** [A]에서 제원들은 왕비의 절개를 칭송하였다.  
[A]에서 제원은 왕비 <sup>태보</sup>가 아니라 태보의 절개를 칭송하였다.
- ③ **범위 오류** [A]는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들이 한 말이고, [B]는 태보가 임금에게 한 말이다.  
생가 친척과 양가 제족  
[A]는 상소 중에 이름 올린 제원들이 한 말이 맞지만, [B]

는 태보가 생가 친척과 양가 제족을 위로하며 한 말이다.

276 ㉢ ①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집기** [A]에서 드러난 제원들의 민망함은 [B]를 계기로 절망감으로 변한다.  
[A]에서 제원들은 상소에 여럿이 참여하였으나 벌은 태보가 혼자 받았으며 죄스럽고 민망해하였다. 그리고 [B]는 태보의 생가 친척, 양가 제족이 애연 돌탄하자 태보가 위로하며 한 말일 뿐, [B]를 계기로 제원들이 태보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다.
- ❖ 오오이
- ② [A]에서 태보가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에게 간한 내용은 [B]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A]에서 태보가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에게 간한 내용은 왕비를 내쳐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는 [B]의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③ [A]에서 제원들이 칭송하는 태보의 충성심에 대해 백성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C]에서 드러난다.  
[A]에서 제원들은 태보에게 “막중한 충을 몰랐으니 무슨 낮이 있으리오.”라며 태보의 충성심을 칭송하였다. 이후 태보는 진도로 정배되는데, 이에 대해 [C]에서 아이들이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라고 노래한 것으로 보아, 백성들도 태보의 충성심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B]에 제시된 태보의 소신은 [C]에 나타난 인심과 다르지 않다.  
[B]에서 태보는 “왕비를 다시 환궁하게 하올 것”이라 하였고, [C]에서 아이들은 “무슨 일로 민 중전을 외관에 내치시고”라며 “한심하고 가련하다.”라고 노래하였다. 이로 보아 태보의 소신과 인심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B]에서 태보가 바라던 바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C]에서 확인된다.  
[B]에서 태보는 왕비가 다시 환궁하게 되기를 바랐지만, [C]에서 민 중전이 외관에 내쳐졌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태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77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추대**: 뒷사람으로 떠받들.
- **판명**: 어떤 사실을 판단하여 명백하게 밝힘.
- **인도**: 이끌어 지도함.
- **송고한**: 뜻이 높고 고성한.

## 정.정.이

- ⑤ **헛짚기**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후하리오.’, ‘일문이 애통함을 차마 못 볼러라.’ 등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고난과 시련 끝에 죽은 태보에 대한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몸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태보는 부인의 꿈에 나타나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에 구경” 간다고 하였다. 이는 태보가 윤리적 명분에 있어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태보가 편지에서 ‘국운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라고 한 것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국운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이루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 ③ 만세 후에도 부지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태보는 편지에서 ‘만세 후에 부지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아이들의 노랫말 중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로 보아,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정.오 지름길

- ⑤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태보가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되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 주는군.

이 문제는 <보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때 <보기>에서 태보가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는 점에서 다른 영웅 소설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영웅 군담 소설에서의 영웅성은 대체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함으로써 형성되지만, 태보의 영웅성은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⑤에서 ‘기우는 국운을 회복한 영웅’은 기존의 영웅적 면모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태보에 대한 설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278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백성들은 태보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 ×)

태보가 죽은 후 대감이 그의 시신을 수습하러 과천으로 행할 때 장안 백성이 슬퍼하며 구름처럼 모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백성들이 태보의 죽음을 슬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이 작품은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 ×)

<보기>에서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 (3) **사건 왜곡** 태보는 간신들의 방해로 인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였다. (○, ×)

태보는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께 간하다 어명을 입고 몸이 상하여 죽었다. 간신들의 방해로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이 아니다.



## 30 김영철전

### 작품 분석

작가 홍세태

갈래 전계 소설, 군담 소설

주제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과 애환

- 특징 ① 17세기 명·청 교체기의 조선의 상황을 민중의 입장에서 조명함.  
 ② 전쟁 중에 민중이 겪은 이산의 아픔과 종군의 괴로움, 군역의 가혹함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③ 고초를 겪으며 세운 공에 대해 보상이 없었던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음.  
 ④ 당대의 지배 이념과 달리 청나라 태종을 긍정적으로 묘사함.  
 ⑤ 필연성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됨.

단숨에 읽기 광해군 때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김영철은 서관의 양인 출신 토병으로 19세의 나이에 징병되어 출전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된다. 이후 김영철은 탈출에 실패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나 후금의 장수 아라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건주의 살림을 맡아 한다. 이렇게 건주에서 혼인하여 살던 김영철은 고향에 돌아가고자, 전유년 등과 함께 아라나의 천리마를 훔쳐 명나라로 탈출한다. 그리고 전유년의 누이와 혼인하여 명나라에 몇 년을 더 거주하다가 14년 만에 비로소 고국 땅을 밟는다. 이후 후금은 나라 이름을 청(淸)이라 하고 병자년에 조선을 침략하여 항복을 받고, 명나라와의 전쟁에 원군을 요청한다. 이에 중국어와 만주어를 두루 알았던 김영철이 통역병으로 징병되고, 그 과정에서 청나라의 장수로 온 아라나를 다시 만난다. 아라나가 자신을 배신한 김영철을 죽이려 하자, 조선의 장수 유림은 귀한 물건인 세납초를 주어 김영철을 구해 준다. 그러나 세납초값을 김영철에게 갚으라고 하여 영철과 그의 친족들이 모두 고난을 겪는다. 이후 59세의 나이에도 산성을 지키고, 그 뒤 20여 년 간 자모산성을 지키는 김영철은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하직한다.

### 한 줄 요약

- ① 아라나를 (배신)하고 달아난 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영철을 유림이 (세납초)로 몸값을 치러 주어 구해 줌.  
 ② 유림이 영철에게 (세납초값)을 갚으라고 말함.  
 ③ 세납초값을 갚는 과정에서 일가친척이 (감옥)에 갇히는 등 영철의 일가가 고난을 겪음.

## 279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짓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교체** 영철이 나랏돈을 갚지 못해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

영철이 세납초값을 갚지 못하자 감옥에 갇힌 일가친척은 영철이 종군하면서 세운 공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의무만 강요하는 조정을 원망하는 말을 했을 뿐, 영철을 원망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오.오.이

- ① 유림은 아라나를 설득하여 영철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 냈다.  
 유림은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이시면 덕스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영철을 살렸던 아라나의 덕을 칭송하고, 귀한 물건인 세납초로 영철의 몸값을 지불

하여 영철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 내었다.

- ② 영철은 조선군으로 출정하여 통역을 맡다가 아라나를 다시 만났다.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일을 논의할 때 영철이 청나라 말의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 아라나 장군을 다시 만났다.  
 ③ 영철은 자신의 공을 근거로 유림에게 세납초값을 갚지 않게 해 달라고 했다.  
 봉황성으로 돌아간 영철에게 유림이 세납초값을 갚으라고 하자, 영철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사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영철이 청노새를 유림에게 팔지 않자 유림은 영철에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 청노새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까닭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280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짓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요동 출병으로 참전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나, 아라나 덕분에 살게 된다. (○, ×)  
 앞부분 줄거리에서 요동 출병으로 참전하게 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청의 장수 아라나 덕에 살아남았다고 하였다.  
 (2) **사건 왜곡** 청나라 통역을 맡을 때 아라나를 다시 만난 영철은, 첫눈에 그를 알아보았다. (○, ×)  
 청나라의 장수인 아라나가 영철을 먼저 알아보고 자신을 알아보겠냐고 물었다. 이에 영철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영철이 아라나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사건 왜곡** 영철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새를 유림에게 선물하였다. (○, ×)  
 영철이 호조에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노새를 팔았다는 것에서, 유림에게 청노새를 선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81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짓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III

### 전계·풍자 소설

선지 어휘

- 나무란: 상대방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꼬집어 말한.
- 면제: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정.정.이

- ③ **헛집기** 아라나가 영철을 심하게 나무란 것은 청나라 군대의 기강을 정립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아라나가 영철에게 노하여 말한 것은 영철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신을 배신하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지, 청나라 군대의 기강을 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오.이

- ① 아라나가 유림의 부탁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것은 세남초 때문이다.

당시에는 담배가 매우 귀한 물건이라 비싼 것이어서 아라나는 영철의 몸값 대신 세남초를 못 이기는 척 받으며 유림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 ② 아라나가 자신의 천리마를 영철에게 맡긴 것은 영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너로 하여금 말을 먹이도록 할 때 진심으로 너에게 맡겼거늘”이라는 아라나의 말을 통해, 아라나가 영철을 매우 신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영철이 유림이 치른 몸값을 면제해 달라고 한 것은 전쟁에 나가 세운 자신의 공이 적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영철이 유림에게 “제가 세 번 전쟁에 나가 그동안 수고한 것과 세운 공이 적지 아니하니, 그것으로 이를 갚은 것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신이 전쟁에 나가 세운 공이 적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영철이 말을 훔쳐 달아난 죄를 한족에게 뒤집어씌운 것은 아라나가 그 죄를 물어 영철을 베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아라나가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라고 말하며 영철을 포박시키자, 영철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족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282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① [A]는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아라나는 자신이 영철에게 베푼 은혜와, 영철이 지은 죄를 차례로 나열하고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와 같이 말하면서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오.이

- ② **교체** [B]는 과거의 잘못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B]에서 영철은 말을 훔쳐 달아난 것은 한족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 ③ **사건 왜곡** [B]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B]에서 영철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변명할 뿐,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 ④ **범위 오류** [A]와 [B]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고 있다.

[A]에서 아라나는 과거 영철이 한 잘못을 나열하며 그의 행적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B]에서는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범위 오류** [A]와 [B] 모두, 자신이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A]에서 아라나는 자신이 영철에게 베푼 호의를 언급하며 그런 자신에게 영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강조하고 있다. 반면 [B]에서 영철은 자신이 아라나에게 베푼 호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283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③ **범위 오류** [A], [B] 모두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

[A]에서 아라나는 영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B]에서 영철은 아라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오.오.이

- ① [A]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

[A]에서 아라나는 영철이 과거에 자신을 배신하고 말을 훔쳐 달아났던 잘못들을 언급하며 질타하고 있다.

- ② [B]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

[B]에서 영철은 과거에 자신이 말을 훔쳐 달아난 일은 한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284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집기** ㉠: 상대방에게 반문하며 자신을 몰라보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

㉠에서 아라나는 과거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영철을 알아보고 분노하며 말하고 있다. 자신을 몰라보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지 않다.

## 오·오·이

- ②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철은 ㉡에서 한죽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을 뿐, 본심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때 “어찌 제 본심이 엿겠습니까?”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을 치켜세우며 아량을 베풀어 주길 부탁하고 있다.

㉢의 앞에서 유림은 아라나 덕분에 영철이 산 것임을 칭송하고, ㉢에서는 아라나에게 그 덕을 보전하라며 아량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 ④ ㉣: 공적인 이유를 끌어 들어 반론의 여지를 막고 있다.

㉣에서 유림은 세남초가 나랏돈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갚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론의 여지를 막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

㉤은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영철의 고통과 억울함에 공감하고 있다.

## 285 ㉢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아라나가 영철이 자신을 배신하고 천리마를 훔쳐 도망간 일로 분노하며 영철을 죽이려는 것은 실리에 따른 감정적인 행동으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인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인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의 현실적 고통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군.

주인공 영철은 고향을 떠나 참전했던 일반 백성 중 하나로, 고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징용되고 빚을 갚느라 고생하는 등 현실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 ② 나라를 위해 종군하느라 모은 재산이 없는 영철에게 ‘세남초값’까지

값이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일찍이 종군하느라 재산을 모을 수 없었던 영철에게 그간에 세운 공에 대한 보상은커녕 청노새를 자기에게 팔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으로, 세남초값을 요구하는 유림에게서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④ ‘세간’을 다 팔고 ‘친족’의 도움까지 받아 ‘호조’에 돈을 바쳐야 하는 영철의 모습에서 참전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군.

- ⑤ 종군하며 공을 세운 영철에게 조정에서 끝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전한 백성들의 노고에 대해 무책임한 위정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전쟁에서 세운 공에 대한 보상은커녕 세간을 팔고 친족의 도움을 받아 세남초값을 갚아야 했던 영철의 모습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전쟁과 관련한 백성의 고통이 이어졌으며(④), 이에 대해 위정자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⑤).

## 정·오 지름길

- ③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하는 아라나의 모습에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를 참고하면 이 글은 ‘고향을 떠나 참전했던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장면과 ‘그런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위정자’를 보여 주는 장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 백성과 위정자는 모두 조선 사람을 말하는데 아라나는 청나라 장군이므로, 아라나는 〈보기〉에 제시된 작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 286 ㉢ (1) 백성들의 고통 (2) 명나라 (3) 세남초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윗글은 영철의 삶에 통해 (영웅의 활약상, 백성들의 고통)을 중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서 작가는 「김영철전」을 통해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 (2) **교체** 사대부들이 (청나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명분으로 요동 출병을 주장했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다.

〈보기〉에서 1618년에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의리를 명분으로 요동 출병을 주장했다고 하였고, 앞부분 줄거리에서 영철이 요동 출병으로 참전했다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3) **교체** (세남초 청노새)는 백성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은 외면하고 의무만 독촉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영철이 세 번이나 전쟁에 나가 수고한 공은 따지지 않고

영철 때문에 쓴 세남초값을 갚게 한 것에서 백성들의 노고는 외면하고 의무만 독촉하는 위정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노새는 유림이 개인적으로 갖고 싶어 한 것으로, 그가 영철에게 양심을 품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일 뿐,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

## 28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민중이 겪었던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보기〉에서 「김영철전」은 민중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하층 부의 역사적 삶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글은 영철의 삶을 통해 민중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은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당시 하층부들이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영철은 명과 청의 요청에 의해 조선의 군대가 출병하게 됨에 따라 참전하게 된 것일 뿐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여 참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층부가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② **헛집기** 전쟁에서 활약하는 영철을 통해 영웅적 안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김영철전」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중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영철은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에게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없다.
- ③ **헛집기** 영철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보기〉에서 민족 영웅의 활약상을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높이하고자 했던 것은 「김영철전」이 아니라 「박씨전」, 「임경업전」이라고 하였다. 이 글은 영철이 전쟁 중에 겪은 고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의 자존심이 고양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헛집기**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개인의 삶이 역사적 현실을 변모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보기〉에서 「김영철전」은 하층부의 역사적 삶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했을 뿐, 개인의 삶이 역사적 현실을 변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이 글에서도 전쟁에 의한 영철의 고단한 삶을 보여 줄 뿐이다.

## 31 황새결송

본문 140~143쪽

### 작품 분석

#### 작가 미상

**갈래** 풍자 소설, 우화 소설, 송사 소설, 액자 소설

**주제** 송사에 얽힌 비리와 횡포를 통한 세태 풍자

**특징** 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조선 후기의 부정적인 사회상을 그림.  
② 송사에 진 부자의 이야기 속에 날짐승들의 송사가 내화로 제시된 액자식 구성임.

**단숨에 읽기** 옛날 경상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와 같은 자손으로 혼자만 잘 산다며 재산의 반을 나누어 달라고 협박한다. 부자가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형조에 소송을 제기하려 서울에 가자 친척은 자기에게 재판이 유리하도록 뇌물을 쓰고 부자는 억울하게 소송에서 지고 만다.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한 부자는 재판관에게 무안이라도 주기 위해 꾀꼬리, 삿갓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좋다고 다투다 황새를 찾아가 송사를 벌인 이야기를 꾸며 들려준다. 따오기가 여러 곤충을 잡아다 황새에게 뇌물로 바치며 부정한 청탁을 하자, 황새가 이를 받아들여 따오기의 소리가 가장 좋다고 판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조 관원들은 모두 부끄러워한다.

#### 한 줄 요약

- ① 송사에 진 부자가 억울한 마음에 관원에게 (무안)이라도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꾸며 말함.
- ② 뇌물을 받은 황새가 그럴듯한 말로 (따오기)의 소리가 가장 좋다고 판결함.
- ③ 부자가 황새 이야기를 빗대어 (서울 법관)을 비꼬자 형조 관원들이 매우 부끄러워함.

## 288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따오기'는 자기 소리를 자랑하기보다는 '황새'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군.  
따오기는 자기보다 나은 소리를 한 꾀꼬리와 삿갓새가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차마 남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다가 황새에게 '약 먹임을 믿고' 나직이 소리를 내었다. 이는 미리 청탁을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고 한 것이므로 겸손한 자세를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였군.  
부자는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반드시 관전 발악이라 하여 뒤엎어 잡'을 것이라 생각하여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지만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프다고 하였다.
-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군.  
관원은 평소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여 부자가 하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남들이 보는 눈'을 걱정하여 거



짓으로 꾸짖는 말을 한다. 이로 보아 관원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황새'는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송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군.

피꼬리의 소리를 들은 황새는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따오기에게 청 받은 뇌물 때문에 좋다고 하지 못하고 그 소리를 비록 아름다우나 애잔하여 쓸데없다고 판결한다. 그리고 삐죽새의 소리도 비록 깨끗하나 아주 어려웠던 옛날의 일을 떠오르게 하니 불쌍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뇌물을 받은 따오기의 소리는 상성으로 처결하였다.

- ⑤ '피꼬리'는 자신의 소리를 누구든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소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피꼬리가 “뉘 아니 아름답게 여기리이까.”라고 말한 것에 서 자기 소리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89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황새는 정령결백한 관원을 상징한다. (○, ☒X)

황새와 관원은 모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황새는 부패한 관원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부자는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현명한 인물이다. (☒○, ☒X)

부자는 송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을 상황이라 생각하고 분한 마음이라도 풀고자 이야기를 꾸며 관원에게 무안을 주고 있다. 이로 보아 부자가 신중하고 현명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3) 따오기는 피꼬리와 삐죽새의 소리가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면서도 송사에 참여하였다. (☒○, ☒X)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소리에 자신이 없었던 따오기는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청탁을 했다고 하였다. 또한 송사에서 저보다 나은 소리도 지고 물러나자 따오기가 남 부끄러워 입을 열지 못하는 장면에서 피꼬리와 삐죽새의 소리가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90 ㉠ ①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황새는 처음부터 결과를 정해 놓고 송사를 진행하였군.

따오기가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미리 청탁을 해

둔 상황이므로, 황새가 처음부터 따오기에게 상성을 처결할 것을 정해 놓고 송사를 진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② ☒상반 관원은 부자가 친척에게 재산의 절반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

부자가 송사에서 졌으므로, 관원들은 부자가 친척에게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사건 왜곡 부자는 관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어 중차를 뒤집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군.

부자가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는 관원들을 무안하게 하기 위해서지, 송사를 뒤집기 위함이 아니다.

- ④ ☒헛집기 관원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으나 부자와 원을 풀어 주기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군.

관원은 평소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여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들 보는 눈이 걱정되어 속내를 감춘 채 부자의 원을 풀어 주기 위해 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 실제로 부자를 위해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아니다.

- ⑤ ☒교체 피꼬리와 삐죽새는 자기의 소리에 대한 좋은 판결을 듣기 위해 황새에게 뇌물을 줄 계획을 세웠군.

따오기가 황새에게 뇌물을 주었고, 피꼬리와 삐죽새는 오히려 따오기의 청탁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받았다.

## 291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헛집기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게 된다.

(나)의 판결 이유는 따오기의 부정 청탁 때문이다. (나)는 (가)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빗대어 만든 이야기일 뿐,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는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가)는 친척의 부당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의 송사는 수시로 횡포를 부리던 친척 한 명이 부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 ③ (가)의 결과는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송사에서 진 부자는 재판 결과에 항의할 수도 없고, 다시 송사를 걸 수도 없는 마음에 분해하다가 재판관에게 무안이라도 주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 말하게 되었다.

-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재산'이고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가)에서는 친척 한 명이 부자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송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나)에서는 꾀꼬리, 삐죽새, 따오기가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다투다가 송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⑤ (가)와 (나) 모두 청탁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에서는 친척이, (나)에서는 따오기가 미리 청탁을 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

## 292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객관화**: 자기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일.

### 정.정이

- ⑤ **범위 오류** 판결에 의해 (가)의 부자는 **어혈을 당하였고**, (나)의 꾀꼬리와 삐죽새는 자기 소리에 자신감을 잃었다.

(가)에서 부자는 송사에 저서 재산을 친척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뿐, 어혈을 당하지 않았다. 어혈은 부자가 송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상한 것이다. 반면 (나)에서 꾀꼬리와 삐죽새는 황새의 판결을 듣고 부끄러워하였으므로, 자기 소리에 자신감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가)에서는 부자가, (나)에서는 새들이 함께 송사를 제기하였다.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위협하는 친척 때문에 부자가 (가)의 송사를 제기하였고, 새들이 서로 자기의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다투다가 (나)의 송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가)의 친척과 (나)의 따오기는 부정한 방법을 써서 송사에서 이겼다.  
(가)의 친척은 미리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나)의 따오기 역시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황새에게 미리 청탁을 하여 각각 송사에서 이겼다.
- ③ (나)로 인해 (가)에 대한 객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친척과 관원이 모두 비판되었다.  
관원이 (나)를 듣고 부끄러워한 이유는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한 황새를 보며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도 제삼자의 입장에서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관원에게 뇌물을 준 친척 역시 비판 대상에 해당하므로, (나)를 통해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뇌물을 준 친척과 이를 받은 관원 모두를 비판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④ (가)의 관원과 (나)의 황새는 재판관으로서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며 언행을 하였다.  
(가)의 관원은 '남들이 보는 눈'을 걱정하여 거짓으로 꾸짖

으며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의 황새 역시 공정치 못한 판결로 자신의 정체가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그럴듯하게 고사를 인용하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로 보아 (가)의 관원과 (나)의 황새 모두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며 언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93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비리와 관련된 관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송사를 지고 그냥 가기가 분했던 부자는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청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원에게 무안함을 주고자 하였다. 이로 보아 관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라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관원들에게 **다른 송사를 청탁하기 위해서**  
② **헛집기** 무식한 관원에게 자신의 **지해를 뽐내기 위해서**  
부자는 송사에서 진 후 전후사를 아뢰거나 법대로 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재판관에게 무안이나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른 송사를 청탁하거나 ① 자신의 지해를 뽐내기 위해서 ②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헛집기** 예상과 다른 판결에 대해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부자는 관전에서 큰 소리로 전후사를 따지면 '발악'이라고 하여 별만 받을 것이고, 법대로 하면 다시 청탁을 받아 송사에서 질 것이라 생각하며 관원들과 논쟁을 벌이는 대신 무안이나 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 ⑤ **헛집기** 자신의 패배로 끝난 송사로 인해 잃게 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부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고, 괜히 화를 사 몸만 상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대신 분한 마음이라도 풀고자 이야기를 꾸며 말한 것이므로, 송사로 잃게 된 재산을 되찾고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294 ㉮ (1) 꾀꼬리 (2) 장익덕 (3) 망설이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황새는 ( 따오기, 꾀꼬리 )의 소리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황새 한 번 들으매 과연 제 말과 같아 심히 아름다운지라.'를 통해 황새가 사실 꾀꼬리의 소리를 매우 아름답게 느꼈



음을 알 수 있다.

- (2) **교체** 황새는 따오기의 소리를 (**장익덕** 초나라)의 고사와 관련지어 평가하였다.

황새는 따오기의 소리를 '장판교 다리 위에 백만 군병 물리 치던 장익덕의 호통'에 비유하며 가장 웅장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초나라 항우와 우희의 서글픈 사랑에 빗대어 불쌍한 느낌을 준다고 한 것은 삐죽새 소리에 대한 평가이다.

- (3) **교체** 황새는 피꼬리와 삐죽새의 소리를 듣고 (**망설이다**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렸다.

황새는 따오기에게 뇌물을 받아 그에게 상성을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피꼬리와 삐죽새의 소리가 아름다워 이유 없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 공정치 못한 판결로 자신의 정체가 손상될까 봐 만나절이나 깊이 생각하거나 여러모로 생각해 본 후에 판결을 내렸다.

## 295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종사에게 관련된 자들의 입장 차이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부자의 이야기는 관원에게 무안을 주고 비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종사에게 관련된 자들의 입장 차이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관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이야기를 마친 부자가 물욕에 잠겨 틀린 노릇을 잘하는 짐승들과 서울 법관이 같다고 말하자, 형조 관원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관원이 기대감을 갖고 듣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자가 들음직한 이야기가 있다며 들어 달라고 하자, 평소 에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관원이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였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관원들에게 무안을 주기 위해 부자가 지어낸 것이다.

부자가 송사를 지고 그냥 가기는 분하고 애달픔이 가득하여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무안이나 뵈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소란을 피우지 않고 송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준다.

부자는 송사 결과에 대해 큰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관전 발악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어혈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한마디 하여 관원에게 무안이나 뵈려고 이야기를 꾸며 내었다. 따라서 이야기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송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296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견강부회(牽強附會)

[A]에서 황새는 피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따오기에게서 받은 뇌물 때문에 억지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이라는 뜻의 '견강부회'가 가장 잘 어울린다.

### 오·오·이

- ② **교체** 경거망동(輕舉妄動)

'경거망동'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이라는 뜻이다. 황새는 따오기의 청을 들어주면서도 재판관으로서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 깊게 생각하여 판결을 내렸으므로, [A]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③ **교체** 각주구검(刻舟求劍)

'각주구검'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로,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그 위치를 뱃전에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배가 움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칼을 찾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황새는 뇌물을 받아 실속을 차리면서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였으므로 융통성이 없거나 어리석다고 보기 어렵다.

- ④ **교체** 배은망덕(背恩忘德)

'배은망덕'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뜻으로 [A]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⑤ **교체** 타산지석(他山之石)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A]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297 ㉮ ① 견리망의(見利忘義)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③ 후안무치(厚顏無恥)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관원과 황새는 뇌물에 눈이 멀어 (**견리망의**) 하였다.

'견리망의'는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잊음.'이라는 뜻

으로 뇌물에 눈이 멀어 공정치 못한 판결을 낸 관원과 황새의 상황에 어울린다.

- (2) **교체** 부자는 청탁이 횡행하는 상황임을 파악하여 (경거망동)하지 않고 있다.

‘경거망동’은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이라는 뜻이다. 부자는 현재 돌아가는 사태를 파악하고 탈이 날 것을 염려하여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으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교체** 부자에게 횡포와 위협도 모자라 청탁을 하여 재산을 빼앗아 간 친척은 (후안무치)하다.

‘후안무치’는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이라는 뜻으로 횡포와 위협으로 재산의 반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자라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관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친척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

## 298 답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난형난제(難兄難弟)

‘난형난제’는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므로 <보기>의 상황에 잘 어울린다.

### 오.오.이

- ① **교체** 군계일학(群鷄一鶴)

‘군계일학’은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이므로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② **교체** 곡학아세(曲學阿世)

‘곡학아세’는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이라는 의미이므로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④ **교체** 주구초심(首丘初心)

‘주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⑤ **교체** 어부지리(漁父之利)

‘어부지리’는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이므로 <보기>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32 두껍전

### 작품 분석

본문 144~147쪽

#### 작가 미상

#### 갈래 풍자 소설, 우화 소설

#### 주제 짐승들의 자리다툼을 통한 인간 사회 풍자

- 특징**
- ① 장유유서의 실천 윤리와 배움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권학 사상이 담겨 있음.
  - ② 두꺼비와 여우의 장황한 사설을 중심으로 재담의 흥미가 나타남.
  - ③ 여러 짐승들이 거짓말 싸움을 통해 상위 신분으로 암시되는 ‘상좌’를 차지하는 사건을 통해 당시의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의 악화를 보여 줌.

**단숨에 읽기** 조선 인조 연간(혹은 명나라 가정 연간)에 오룡산(혹은 옥포산)에 살던 노루 장 선생은 천자로부터 승록 대부의 직함을 받고 이를 축하하고자 백호 산군을 제외한 모든 짐승을 잔치에 초대한다. 짐승들이 모여 상좌 다툼을 하자 토끼가 나이를 따져서 자리를 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노루와 여우, 두꺼비가 대결하고 연장자로 뽑힌 두꺼비가 상좌를 차지하자, 불만을 품은 여우가 두꺼비를 골탕 먹이려 세상을 돌아다니는 이야기와 천문, 지리, 시서 등의 해박한 지식을 과시한다. 이에 두꺼비는 여우보다 넓고 깊은 지식으로 응수한다. 이어 두꺼비는 여우의 관상을 봐 주면서 배 속에 병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여우는 크게 놀라 처방을 묻는다. 다시 여우는 두꺼비의 외모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궤변으로 답하던 두꺼비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취한 것을 보고, 자리를 파하자고 한 뒤 모든 짐승을 대표하여 장 선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헤어진다.

#### 한 줄 요약

- ① 장 선생이 집안 잔치에 (백호 산군)을 초대하지 않기로 함.
- ② 잔치에 온 짐승들이 (상좌)를 두고 다투자 토끼가 (나이연치)순대로 앉자고 제안함.
- ③ (노루)와 (여우)가 서로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자 두꺼비도 경쟁에 끼어듦.
- ④ (여우)의 질문에 상좌를 차지한 (두꺼비)가 궤변으로 답을 함.

## 299 답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주인은 토끼의 제안에 따라 동쪽에 있는 계단에 올랐다.

‘주인은 동쪽 계단에 읊하고 객은 서쪽 계단에 올라 상좌를 다투어 좌석의 차례를 결단치 못하였다’였다는 것으로 보아, 토끼가 나이순대로 앉자고 제안하기 전에 주인은 이미 동쪽 계단에 올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여우는 슬피 우는 두꺼비의 속마음을 의심하여 꾸짖었다.

두꺼비는 노루와 여우가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하며 상좌를 다투는 것을 지켜보다가 ‘난들 거짓말 못 하리오.’ 하고 자신도 나이 많은 체하고자 공연히 진넛산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여우는 두꺼비가 남의 잔치에 와서 상황에 맞지 않게 눈물을 흘린다고 꾸짖으며 그의 속내를 의심하였다.



- ③ 노루는 여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호패를 올리라고 하였다.  
여우가 나이가 많아 나룻이 세었다고 하자, 노루는 사실 확인을 위해 호패를 올리라고 하였다.
- ④ 장 선생의 아들은 백호 산군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겪었다.  
장 선생은 백호 산군을 초대할지 의견을 묻는 말손자에게 예전에 아들(말손자의 아버지)이 백호 산군에게 죽을 뻔했던 일을 이야기하며 초대하지 말자고 답하였다.
- ⑤ 노루는 허리가 굽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주장하였다.  
토끼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고 말하자, 노루가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300 ㉠ (1) 여우 (2) 토끼 (3) 미래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여우) 두꺼비)는 하얗게 센 나룻을 보이며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여우가 ‘난들 어찌 무슨 간계로 나이 많은 체 못 하리오.’ 하고 생각한 뒤에 “내 나이 많아서 나룻이 세었노라.”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2) **교체** (노루, 토끼)는 어수선한 잔치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노루가 좌를 정하는 좋은 도리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 토끼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3) **교체** 장 선생의 말손자는 (과거,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백호 산군의 초대 여부를 조부께 여쭙었다.  
장 선생 말손자는 “백호 산군을 청치 아니하오면 후일에 필경 화가 될 듯하오니”와 같이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백호 산군의 초대 여부를 할아버지(장 선생)께 여쭙었다.

### 301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ㄱ. 상좌를 차지한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여우가 두꺼비를 ‘존장’이라 부르고 문답을 하는 부분에서 두꺼비가 상좌를 차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ㄴ. 자리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토끼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오·오·이

- ㄴ. **부재** 여우의 질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인물은 누구인가?  
두꺼비가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 이는 자신의 나이가 더 많다는 말을 하기 위해 거짓으로 흘린 것이다. 여우의 질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인물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ㄷ. **부재** 노루가 동물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  
제시된 장면에 주인 노루가 동물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정·오 지름길

- ㄱ. 상좌를 차지한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ㄴ. **자리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자리다툼의 해결 방안으로 토끼가 ‘연치’에 따라 앉는 것을 제안했어요. 이에 따라 나이가 많은 인물이 ‘상좌’를 차지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존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답을 찾기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만약 ‘존장’이라는 말을 놓았다면 여우와 두꺼비의 문답을 통해 상좌를 차지한 이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우가 두꺼비의 나이를 인정하여 존칭을 사용하고, 두꺼비는 여우에게 “미련한 짐승아.”라고 하대하고 있으니 두꺼비가 상좌를 차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 302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반박: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따위에 반대하여 말함.
- 우회적: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것

#### 정·정·이

- ② [A]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B]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내세우고 있다.  
[A]에서 토끼는 “요란만 하고 무례하”다며 상좌를 다투느라 어수선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B]에서 여우는 호패로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소년 시절에 호패를 떼어 찾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A]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고 있으며, [B]는 장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A]에서 토끼는 고사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B]에서 여우는 호패로 자신의 나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꾸며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다.
- ③ **범위 오류** [A]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B]는 자신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토끼는 [A]에서 예법을 정하자는 의견을, 여우는 [B]에서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건 왜곡** [A]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부딪하고 있으며, [B]는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토끼는 [A]에서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며, 여우는 [B]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변명하며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사건 왜곡** [A]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으며, [B]는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토끼는 [A]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뿐,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여우는 [B]에서 거짓말로 변명을 할 뿐, 상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지 않다.

### 303 ㄴ, ㄷ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ㄴ. [B]의 발화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로 답변하고 있다.  
ㄷ. [A]와 달리 [B]의 발화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답하고 있다.

[B]의 여우는 호패를 보여 주는 대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일(호패를 떤 경험과 자신이 천지개벽한 후 황하수 치던 시절에 가래 장부되었다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 말하며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ㄴ, ㄷ). 한편 [A]에서 토끼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ㄷ).

#### 오.오.이

- ㄱ. **사건 왜곡** [A]의 발화자는 장 선생이 잔치를 연 것을 비판하고 있다.  
[A]의 토끼는 상좌를 다루는 탓에 잔치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워진 것을 비판하였을 뿐, 장 선생이 잔치를 연 것을 비판하지는 않았다.  
ㄹ. **헛짚기** [A], [B]의 발화자는 모두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A]에 대해 노루가 웃으며 동조하고, [B]의 질문에 맞게 노루가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둘 다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 304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보여 주기 기법을 구사하여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글은 서술자의 진술보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보여 주기(showing) 기법을 구사하여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자연적 배경을 설정하여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자연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부재**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글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재** 서술 시점을 바꾸어 가면서 사건을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 시점을 바꾸어 가면서 사건을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지 않다.

- ⑤ **부재**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장 선생이 베푼 잔치에 모인 짐승들이 자리다툼하는 내용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액자식 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 305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옹호: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언변: 말을 잘하는 재주나 솜씨.

#### 정.정.이

- ② **헛짚기** 노루가 '언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는 기준에 동조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풍자하는군.  
토끼가 "조정은 벼슬이요 향당은 나이"라며 신분이 아닌 나이순대로 자리를 정하자고 제안하자, 노루가 이에 동조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노루의 모습은 새로운 질서가 대두되는 당시 분위기를 보여 줄 뿐, 기존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인물을 풍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장 선생이 '산군'을 '청치 아니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기존의 신분 질서가 약화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장 선생은 백호 산군이 과거에 아들을 해할 뻔했던 일과, 산군이 함께 있으면 손님이 두려워 잘 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권력을 가진 백호 산군을 초대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신분 제도에 따른 지배 질서가 약화된 조선 후기 사회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여우가 '난들 어찌 무슨 간계로 나이 많은 체 못 하리오'라고 생각하며 언변 대결에 참여하는 장면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부정적인 행태를 드러내는군.  
여우는 거짓으로 나이 많은 체하겠다며 언변 대결에 참여



한다. 이러한 여우의 모습은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속임수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행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두꺼비가 '부채로 서안을 치며 크게 울'으며 말하는 내용을 통해, 유식한 체하는 인물의 모습을 풍자하는군.

풍월을 읊어 달라는 여우의 요청에 두꺼비가 부채로 서안(책상)을 치며 한시를 읊는 모습은 한문 구를 이용하여 유식한 체하는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여우가 두꺼비의 '껍질', '눈', '목정'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통해,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고자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풍자하는군.

여우가 두꺼비의 외양이 왜 그러한지 묻는 부분은 두꺼비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우의 이러한 행위는 풍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306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채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백호 산군은 기존 신분 제도에서의 지배층을 상징한다. (○) ×

“산중의 왕 백호 산군”이라는 표현과 손님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아, 백호 산군은 기존 신분 제도에서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2) 짐승들이 누가 상좌에 앉았지 정하는 모습은 새로운 질서가 대두된 조선 후기 사회를 보여 준다. (○) ×

신분이 아닌 나이순대로 자리를 정하자는 토끼의 말에 노루와 여우 등이 서로 자신의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며 상좌를 정하는 모습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질서가 대두된 조선 후기 사회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헛집기 여우가 두꺼비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에는 유식한 체하는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 ×)

〈보기〉에서 풍자는 상대에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비윤리적인 모습으로도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여우가 유식한 체하는 인물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꺼비에게 우위를 점하고자 그의 외양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307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채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두꺼비가 여우에게 “너희 놈들이 어른을 몰라보고 말을 함부로 하기에 분을 참노라고 자연 그러하도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에 진실로 답함으로써 타인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승패의 관건이 누가 보다 그럴듯한 말로 타인을 압도하는가에 달렸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두꺼비가 “너희 놈들이 ~ 자연 그러하도다.”라고 말한 것 역시 여우를 압도하고자 거짓말을 지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짓말에 진실로 답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토끼가 “연치를 차려 좌를 정하”자고 하는 것을 통해 짐승들이 획득하고자 하는 권력이 나이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 드러나는군.

연치대로 앉자는 토끼의 제안에 노루와 여우 등이 서로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며 상좌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통해 나이에 의해 권력이 획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노루가 “허리를 수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라고 말하는 부분은 과장을 통해 허구적 자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보기〉에서 인물들은 상대방의 정체성에 관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허세와 과장을 활용하고 허구적 자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루가 허리를 수그린 것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과장을 통해 허구적 자아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여우가 노루를 보고 “자놈이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 나이 많은 체한다며, ‘난들 어찌 무슨 간계로 나이 많은 체 못하겠느냐고 생각한 것에서 여우는 거짓말 싸움임을 알고 이 대화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두껍전」의 말싸움은 거짓말 싸움이라고 하였다. 노루가 거짓으로 나이 많은 체하는 것을 여우가 알아채고 자기 역시 꾀를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우는 거짓말 싸움임을 알고 이 대화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여우가 두꺼비에게 ‘껍질’, ‘눈’, ‘등’, ‘목정’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것으로, 두꺼비는 이에 답하면서 허구적 자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군.

〈보기〉에서 이 글의 등장인물들은 그럴듯한 말로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정체성에 관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허세와 과장을 활용함으로써 허구적 자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우가 두꺼비에게 한 질문은 두꺼비를 이기기 위해 던진 것으로 모두 두꺼비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두꺼비가 허세를 부리며 답한 내용들은 모두 허구적 자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 IV

## 가정·가문 소설

### 33 창선감의록

#### 작품 분석

본문 150~153쪽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가문 소설, 도덕 소설

주제 가문 구성원들의 갈등과 화해, 효 사상의 고취와 착한 일에 대한 권장

- 특징
- ①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교훈적 주제 의식을 드러냄.
  - ②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갈등이 드러남.
  - ③ 장자 상속제와 일부다처제의 문제를 사회적 배경으로 함.
  - ④ 인물들의 개성을 부각하고 구성을 치밀하게 하여 흥미를 높임.

**단숨에 읽기** 명나라의 병부 상서 화옥에게는 심씨, 요씨, 정씨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을,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을 얻고, 요 부인은 일찍 죽는다. 화진은 행실이 바르고 매우 영특하나, 화춘은 사람됨이 용렬하여 화옥이 화진을 편애하고 이로 인해 심씨와 화춘은 불만을 품는다. 그러나 화옥의 누이 성 부인의 위엄으로 불만을 표하지는 못한다. 화옥은 조정에 엄송 등 간신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화춘을 부덕을 갖춘 임 소저와 성혼시킨다. 그리고 화옥은 이부 시랑 윤혁의 딸인 윤 소저와, 귀양을 가다 죽은 남표의 딸이자 윤혁의 양녀인 남 소저를 화진의 배필로 정하고, 화빙선의 배필로는 유생을 정해 놓는다. 이후 건강이 쇠약해진 정씨와 화옥은 죽는다. 윤혁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남 소저를 돌봐 주었던 진형수는 엄송의 가자인 조문화의 혼담을 거절한 일로 그의 화를 사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에 딸 진 소저가 혼인을 승낙하는 척하자 진형수는 사형을 면하여 유배를 가고, 진 소저는 아반도주를 한다. 한편 심씨와 화춘은 화진과 화빙선을 학대하고, 화춘은 방탕하게 지내며 임 소저를 내쫓고 간악한 첩인 조씨를 정실로 삼는다. 화진은 과거에 장원하여 벼슬길에 나서고, 이를 시기하던 화춘은 화진을 모함해 귀양을 가게 한다. 그리고 화진의 두 아내인 윤 소저와 남 소저도 모함과 학대로 고난을 겪다 집을 떠난다. 유배지에서 도사 객공을 만나 병서를 배우던 화진이 해적을 토벌해 공을 세우고, 남방을 평정하고 개선하자 천자는 그에게 진국 공의 봉작을 내린다. 이후 심씨와 화춘도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한다. 그리고 화진의 두 아내도 무사히 돌아와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

#### 한 줄 요약

- ① 자식의 혼인을 거절당한 (조문화)가 진공의 신변을 빌미로 (진 소저)를 협박하려 함.
- ② 진 소저가 효심으로 (혼인(혼사))을 허락하자 진공은 사형 대신 (귀양)을 가게 됨.
- ③ 이런저런 핑계를 (성례(혼인))를 미루며 조문화 부자를 속인 (진 소저)가 남장을 하고 야밤에 몰래 떠남.

### 308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진 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 안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진 소저는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친히 오 낭중을 향해 혼인을 허락했다.’가 ‘마침내 진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것이므로 진 소저의 혼인 여부는 진공과 오 부인이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 진 소저는 부모님과 이별한 후 조문화 부자를 속이고 몰래 떠나기 위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성례를 미루고 집 안에 머문 것이다.

#### 오.오이

- ② 조문화의 아들은 진 소저와의 혼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조금해하며 혼인을 서두르고 싶어 했다.

진 소저가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성례를 하고 싶다고 한 데 대해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조문화는 진 소저의 부모가 떠났다고 하여 아들과 진 소저의 혼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조문화가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윤섬은 진 소저와 함께 밤중에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났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윤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을 사람은 진 소저의 행방에 대해 조문화의 가인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다.

조문화의 가인이 소저의 행방을 묻자 마을 사람이 쌀쌀하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09 ㉡,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오 부인은 진 소저의 지조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 부인은 평소 소저의 빙옥 상설 같은 지조를 잘 알고 있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 조문화는 자식을 위해 진공에게 혼인을 청하였다 거절당했다.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를 통해 알 수 있다.

#### 오.오이

- ㉡. **상반** 마을 사람은 조문화의 가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진 소저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 조문화의 가인에게 ‘마을 사



람은 쌀쌀하게 대답했다.'라고 하였다.

- ㄹ. **상반** 오 낭중은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바른말을 잘하든 사람이다.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10 ㉑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무고한: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
- 소신: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
- 차일피일: 이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

### 정·정·이

- ① 조문화는 엄승과 양석에게 사주하여 무고한 진공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승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다시 양석을 시켜 '진공이 사사로이 태원의 돈 삼십만 냥을 훔쳤다.'고 무고하게 했다. ~ 온갖 방법으로 죄를 조작하게 했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교제** 오 부인은 진 소저와의 혼인을 청한 조문화에게 직접 엄한 말로 거절했다.

'조문화는 진 소저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제 자식을 위해 진공에게 혼인을 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진공이 엄한 말로 거절하자'를 통해 진 소저와의 혼인을 거절한 사람은 진공임을 알 수 있다.

- ③ **범위 오류** 아밤에 몰래 도망가기 위해 진 소저와 달린 유모와 시녀는 남장을 했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를 통해 진 소저, 유모, 시녀 운섬 모두 남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사건 왜곡** 오 낭중은 권력자 앞에서는 두려운 척하다 뒤에서는 자신의 초선에 따라 행동했다.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를 통해 오 낭중이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교제** 조문화는 혼인을 허락한 진 소저가 차일피일 혼인을 미루자 아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드러냈다.

수십 일 정도를 보내면서 부모님과 작별한 슬픔을 진정시킨 후에 성례하자는 진 소저의 말에 '조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서둘러 마지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조문화가 "인정상 본디 그럴 것이니 그 말대로 따르도록 하거라. ~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조급해하는 사람은 조문화가 아니라 조문화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 311 ㉒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의중: 마음의 속.
- 유도: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

### 정·정·이

- ④ [A]는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전하고, [B]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에게 드러낸다.

조문화는 [A]에서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죽히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등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오 낭중에게 전하고 있다. 오 부인은 [B]에서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라고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며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진 소저에게 드러내고 있다.

### 오·오·이

- ① **교제** [A]는 청자와의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B]는 청자와의 상하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A]에서 조문화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오 낭중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 [B]에서 오 부인은 딸(진 소저)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A]에서 조문화는 상하 관계를 이용한 것이고, [B]에서 오 부인은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사건 왜곡** [A]는 지난 일을 들어 청자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고, [B]는 이전에 쓰인 글을 떠올려 청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다.

[A]에서 조문화는 지난 일을 들어 진공(진형수)에 대한 원한을 드러낸 것이지, 청자인 오 낭중에 대한 원한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또한 [B]에서 오 부인은 청자인 딸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 ③ **사건 왜곡** [A]는 청자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여, [B]는 전력 가능성을 제한하여 청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

[A]에서 조문화는 오 낭중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 소저가 자기 아들과 혼인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B]에서 오 부인은 딸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다.

- ⑤ **사건 왜곡** [A], [B] 모두 이상적 가치를 대체된 자신의 결정을 청자가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A]와 [B] 모두 화자가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 312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B]: 오 부인은 진 소저를 대신해 혼사를 거절하려 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조문화의 혼사 제의를 허락하려는 진 소저를 말리고 있기는 하지만 “네 스스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처신하거라.”라고 말하며 진 소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 부인이 진 소저를 대신해 혼사를 거절하려 한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A]: 조문화는 조건을 내걸며 진 소저를 협박하려 하고 있다.  
[A]에서 조문화는 오 낭중에게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자신이 한 말을 진 소저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이는 혼사 제의를 거절한 진공의 신변을 빌미로 진 소저를 협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A]: 조문화는 과거 진공에게 무시당했던 일을 잊지 않고 말하고 있다.  
“지난날에 형수가 나를 지나치게 무시하여 혼인을 박탈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원한을 물어 둔 채로 덕을 베풀어 주지는 못하겠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13 ㉓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희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 또는 그렇게 만들.
- **순차적**: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는.
- **전기적**: 기이하여 세상에 전할 만한.

#### 정.정.이

- ②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조문화와 오 낭중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시작되고 있고, 진 소저와 오 부인의 대화, 유모를 통해 조문화에게 전하는 진 소저의 말, 조문화와 조문화의 가인의 대화 등을 통해 진 소저가 거짓으로 혼인을 허락한 뒤에 어떻게 원치 않는 혼인을 피하고 있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오 낭중에 대해 평가하고는 있으나, 오 낭중을 희화화하지는 않았다.
- ③ **헛집기**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혼인 문제로 인한 조문화 집안과 진공 집안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 ④ **부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진 소저가 피를 써서 조문화 부자를 속이고 도망가는 등 사건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전기적 요소는 드러나 있지 않다.

### 314 ㉓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집기** 오 낭중이 가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보니, 자라 판별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위키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군.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채 명을 받은 뒤 오 부인을 찾아가 조문화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로 볼 때, 오 낭중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권력자인 조문화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올바른 사리 판별을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② 진공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과정을 보니,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의 문제를 추측할 수 있군.  
조문화는 진공이 자식들 간의 혼인을 거절하자 엄송과 양석에게 사주하여 그를 다른 직책으로 보내고 또 그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둔 후 나중에 귀양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진 소저가 길을 떠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니,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 인물의 면모를 알 수 있군.  
진 소저는 마음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룬 후 병을 가장해 조문화를 안심시키고 있다. 그런 후에 부모가 멀리 이동했을 시점에 행장을 꾸리고 남장을 하여 회남으



로 떠나고 있으므로, 지혜롭게 문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적극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조문화가 성사시키려 한 혼인 문제로 진공의 가족이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니,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혼인을 거절한 것이 진공 가문에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을 통해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에서는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유모가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말을 전하고 진 소저와 함께 남장을 하는 정황을 보니, 주변 인물이 적극적 인물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유모는 조문화의 가인과 시비에게 진 소저의 말을 전하고, 진 소저와 함께 행장을 꾸리고 남장을 한 뒤 회남을 향해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변 인물인 유모가 적극적 인물인 진 소저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15 ㉮ (1) 조문화 (2) 진공 (3) 진 소저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조문화) 오 낭중)을/를 통해 권세 있는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2) **교체**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되면서 (조문화, 진공) 가족은 고난을 겪게 된다.

‘조문화는 매우 노하여 엄승에게 사주해 공을 노안부 제독으로 내쫓게 했다.’,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승을 사주해 ~ 천자는 진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윤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 등을 통해 권세 있는 신하인 조문화가 정치를 좌우함을 알 수 있고(1), 이로 인해 옥에 갇히고 귀양을 가게 되는 진공 가족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 (3) **교체** ((진 소저) 유모)는 자신의 판단과 지략으로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진 소저는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혼인을 허락하지만 피를 내어 혼인을 미루다가, 진공이 안전하게 귀양을 갔을 무렵 남장을 하고 도망을 가 혼인을 무산시키고 있다.

### 316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진 소저는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효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진 소저가 오 부인에게 “소녀의 신체발부는 모두 부모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친께서 중죄를 받을 형편에 놓이신 마당에 자식 된 자로서 어느 겨를에 일신의 옥과 불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조문화는 엄승이 정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준 으로써 ~~효와 충을 모두 이루게~~ 되었군.

진공이 엄승의 정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조문화가 엄승을 사주한 것은 자식의 혼사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문화의 행동은 효나 충과 관련이 없다.

- ② **헛집기** 엄승이 조정에서 ~~전자를 보필하는 모습을 통해 충을 구현하는~~ 전하의 올바른 자세를 확인할 수 있군.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하더니 그 이튿날 다시 엄승을 사주해 진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게 했다. 이윽고 천자는 진공의 사형을 감하는 대신 윤남으로 귀양을 보내게 했다.’를 통해 엄승은 천자를 보필하는 충신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천자를 움직이는 신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에서 충을 구현하는 신하의 올바른 자세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헛집기** 오 부인은 ~~진 소저의 결심을 도박을 벌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으로 규정하며~~ 효의 의미를 환기하고 있군.

‘항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라는 말은 귀한 것을 두고 도박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오 부인은 이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진 소저의 결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 ⑤ **헛집기** 오 낭중은 ~~진공의 가족이 충과 효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도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군.

오 낭중은 조문화의 명을 받고 이를 오 부인에게 그대로 전한 인물이자, 진 소저가 조문화의 혼인 제의를 허락하자 몹시 기뻐하며 조문화에게 이를 전한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 낭중은 진공 가족이 충과 효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도덕적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 34 김인향전

### 작품 분석

본문 154~157쪽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가문 소설

주제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비극과 애정을 통한 혼사 장애 극복

- 특징
- ① 중심인물이 꿈에 나타나는 구조가 반복됨.
  - ② 전기적 요소를 바탕으로 사건이 전개됨.
  - ③ 계모 모티프와 혼사 장애 모티프가 나타나 있음.

**단숨에 읽기** 평안도 안주의 좌수 김석곡은 부인 왕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인형, 딸 인향과 인함을 얻지만 왕씨는 병을 얻어 죽는다. 김 좌수는 정씨를 후처로 얻는데, 성품이 간악한 정씨는 인형, 인향, 인함을 몹시 구박하고, 이들을 없애려는 흉계를 품는다. 인향이 유성윤과 정훈하자 정씨는 인향에게 메밀떡과 약을 먹게 하여 잉태한 것처럼 꾸미고, 불랑배 찬사를 매수하여 인향과 내통한 것처럼 조작하고 소문을 퍼뜨린다. 소문을 들은 김 좌수는 인향에게 인향을 심천동 연못에 빠트리라고 오라고 한다. 인형은 인향에게 떠나라고 했으나 인향은 못에 투신하고, 꿈에 인향을 본 인함도 관을 해쳐 인향의 치마끈에 목을 매달아 죽는다. 두 딸을 잃은 김 좌수도 병사하고 인형은 종적을 감춘다. 인향이 죽고 반년 후부터 고을에 귀신의 곡성이 들리고 관장이 오면 죽거나 병들어 돌아가자 평안 감사는 왕께 주청하여 명찰한 전두용을 안주 군수로 임명한다. 원귀의 이야기를 들은 전두용은 정씨를 문초한 후 처단한다. 한편 과거 급제 후 돌아온 유성윤은 인향을 찾아 죽은 인향 자매의 묘를 함께 만들고 제문을 지어 제사했는데, 꿈에 인향이 나타나 회생 방법과 회생수를 주고 간다. 성윤은 꿈속에서 인향이 말한 대로 회생수로 인향 자매를 환생시키고 인향과 성윤은 혼례를 올린다.

### 한 줄 요약

- ① 한림과 인형이 죽은 (인향)을 생각하며 슬퍼함.
- ② 인향이 한림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재생)을 위해서는 하늘에 축수해야 함을 알려 줌.
- ③ 한림이 축원한 후 인향이 다시 (꿈)에 나타나 자신의 (회생·재생, 환생) 방법을 알려 줌.
- ④ 한림이 인향을 (회생·재생, 환생)시켜 집으로 함께 돌아와 혼례를 올림.

## 317 ㉮ ⑤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안위**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함.

### 정.정.이

- ⑤ 한림은 제문을 통해 인향과의 연분을 이어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림이 심천동에 찾아가 읽은 제문에서 “불쌍하운 김 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옵시면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 백년동락으로 지낼까 하오니”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림이 제문을 통해 인향과의 연분을 이어 가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교체** 인형은 **한림**과 달리 인향의 옷을 지은 솜씨에 감탄했다. 인향이 지은 의복을 보고 “아깝도다, 이 재주를 어디 가서

다시 볼꼬.”라며 칭찬한 사람은 인형이 아니라 한림이다.

- ② **사건 왜곡** 인형은 **한림으로부터** 인향과 인함의 재생 소식을 들었다.

인형은 한림과 함께 인향과 인함을 되살리기 위해 심천동에 갔으며, 한림이 회생수를 뿌리자 인향과 인함이 재생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 ③ **상반** 한림이 심천동에 갈 때 한림의 부모는 그 이유를 몰랐다.

한림은 축수를 위해 심천동에 가기 전에 미리 부모에게 동사를 알렸고, 꿈에서 인향과 만나 회생수를 받은 후 인향과 인함의 재생을 위해 심천동에 갈 때도 자신의 부친에게 사연을 고한 후에 갔다.

- ④ **사건 왜곡** 한림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사들을 심천동에 데리고 갔다.

한림은 인향을 재생시키기 위해 하늘께 축수하며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고자 법사들을 심천동에 데리고 간 것이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데려간 것은 아니다.

## 318 ㉮ ③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교체** 한림의 재생을 위해 법사들은 하늘께 축수하며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였다.

법사들은 한림과 함께 심천동에 가서 인향의 재생을 위해 하늘께 축수하며 옥황님을 불러 축원하였다.

### 오.오.이

- ① 한림은 인향이 지은 옷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였다.

“한림이 의복을 받아 보고 더욱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 수품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칭찬 알”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한림은 꿈속에서 인향을 만나 인향에게서 회생수를 받았다.

한림은 꿈속에서 김 낭자가 나타나 “이 약물은 옥황상제께서 주신 회생수오니 그리 아옵소서.”라고 한 말을 듣고 꿈을 깬다. 그리고 약병을 발견하였으므로, 꿈속에서 인향에게 회생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 319 ㉮ ②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사건 왜곡** 인형은 **한림과 달리** 누이 인향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인형이 일장통곡하다가 가지고 나와 한림께 드리니, ~ “아깝도다, 이 재주를 어디 가서 다시 볼꼬.”를 통해 인형과



한림 모두 인향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❶ 오.오.이

- ① 한림은 인향이 알려 준대로 행하여 인향과 인함을 회생시켰다.  
'한림이 즉시 회생수를 뿌리니, 얼마 후에 숨을 후유 쉬고 두 소저 서로 돌아눕는지라.'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분묘 안에 있던 인향의 신체는 조금도 썩지 않고 자는 듯하였다.  
'인향과 같이 분묘를 열고 신체를 보니 목과 얼굴이 조금도 썩지 아니하고 인향과 동생 인함이 자는 듯하거늘'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한림은 인향을 만난 두 번의 몽사에 대해 부모님에게 아뢰었다.  
'한림이 언덕에 미끄러져서 깨니 꿈이라. 한림이 날이 새기를 기다려 부모께 몽사를 아뢰고, '놀라 깨니 꿈이라. ~ 한림이 대희하여 날 새기를 기다려 부친 전에 이 사연을 고하고'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한림은 꿈에서 인향을 만난 후 법사들을 대동하고 인향의 회생을 빌었다.  
한림이 법사를 불러 심천동으로 가서 "옥황상제님은 살피사 불쌍하온 김 낭자를 다시 회생케 하옵소서." 하며 축원을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320 ㉠ ①

#### ❶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❶ 정.정.이

- ① **헛집기** 한림이 인향에게 제물을 올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데서 계모에 대해 남아 있는 인향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향의 혼인에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군.  
한림은 두 번째 꿈을 끝 후 심천동에 가서 축문을 읽으며 액운이 자신의 죄이니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림이 이 말을 하는 시점에는 한림의 첫 번째 꿈에서 인향이 성주님을 만나 원수를 갚았고, 한림이 금의 환향하여 자신의 원혼을 위로해 주었기에 이제는 한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인향의 한이 모두 풀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모에 대해 남아 있는 인향의 한을 모두 푸는 것이 한림과 인향의 혼인에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❶ 오.오.이

- ② 한림이 자신을 위한 의복을 인향이 지어 놓았을 것이라고 확인하는 데서 인향이 죽은 혼사 장애의 상황에서 그가 인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한림이 "인향 소저 나와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필연 나를

위하여 의복을 지어 두었을 것이니 들어가 찾아보리라."라고 말한 데서 한림이 인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한림이 인향과의 인연을 이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인향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회생수를 가지고 심천동에 간 한림은 제문을 읽으며 "미진한 인연을 다시 이어 백년동락으로 지낼까 하오니"라고 하고, 축문을 읽으며 "인연을 다시 이어 살았으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라고 하고 있다. 즉 한림은 인향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인향을 향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향이 한림의 노력을 통해 회생하고 혼인을 하는 데서 계모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사건의 해결과 혼사 장애의 극복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계모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사건은 인향이 죽은 일이고, 이러한 비극적 사건은 한림의 노력을 통해 인향이 회생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한림은 꿈속에 나온 인향의 말에 따라 노력한 끝에 인향을 회생시키고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계모에 의해 초래된 비극적 사건의 해결과 혼사 장애의 극복이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인향이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었다고 한림에게 말한 데서 인향과 계모 간의 갈등이 혼사 장애의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군.  
인향은 한림에게 계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사연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인향이 한림과 혼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인향의 죽음 때문이므로, 인향과 계모 간의 갈등이 혼사 장애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1 ㉠ (1) × (2) ○

#### ❶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모티프**: 작품에서, 창작 동기가 되는 중심 제재나 생각. = 화소.

#### ❶ 정.정.이

- (1) **교체** 인향의 죽음에서는 혼사 장애 모티프가, 인향의 회생과 한림과의 혼인에서는 계모 모티프가 나타난다. (○, ×)  
인향이 한림에게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사와 ~ 원수를 갚았"라고 말한 것을 통해 계모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고, 한림과 인향이 죽음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혼인하는 내용을 통해 혼사 장애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 (2) 한림은 죽은 인향에 대한 믿음과 노력으로 혼사 장애를 극복하고 있다. (○, ×)

한림은 꿈속에 나온 인향의 말에 따라 노력한 끝에 인향을 회생시키고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므로 죽은 인향에 대한 한림의 믿음과 노력으로 혼사 장애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2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분산: 하나의 주제에서 갈라져 나온 것.
- 증표: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

### 정.정.이

③ **교체** ㉓에서 인향은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증표를 한림에게 전달하고 있다.

꿈(㉓)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회생수를 주고 있는데 이는 인향이 다시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일 뿐, 인향의 분신에 해당하는 상징적 증표는 아니다.

### 오.오.이

① ㉓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자신을 위로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② ㉓에서 인향은 혼백으로 의지할 곳 없이 쓸쓸하게 지냈던 처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련한 혼백이 의지할 곳도 없고 위로하여 줄 사람도 없사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삽더니(㉓) 천만에 한림의 덕택으로 죽문까지 읽어 주시고 원혼을 위로하여 주시니 귀신이 라도 어찌 그 은혜를 모르오리까.(㉓)”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㉓에서 인향은 한림의 정성으로 자신이 환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한림에게 전하고 있다.

“오늘 정성하심을 하늘이 감동하옵시고 첩을 측은히 여기사 다시 환생케 하오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㉓, ㉓을 통해 인향은 자신의 재생을 위해 한림이 해야 하는 일을 일러 주고 있다.

㉓에서 인향이 한 “한림은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든 하늘께 축수하와 금생 연분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는 말과, ㉓에서 인향이 한 “한림은 명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을 가지고 심천동으로 오소서.”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323 ㉓ (1) ㉓ (2) ㉓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㉓, ㉓)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자신을 되살릴 수 있는 회생수를 건네고 있다.

“이 약물은 옥황상제께서 주신 회생수오니”로 보아 인향이 한림에게 회생수를 건넨 것은 두 번째로 꾸민 꿈(㉓)에서의 일임을 알 수 있다.

(2) **교체** (㉓, ㉓)에서 인향은 한림에게 자신이 죽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꿈(㉓)에서 인향이 한림에게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사와”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324 ㉓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⑤ **범위 오류** 인향은 ㉓에서는 자신에게 선의를 베푼 한림에게, ㉓에서는 자신을 회생시켜 준 옥황상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꿈(㉓)에서 인향은 “한림의 덕택으로 죽문까지 ~ 그 은혜를 모르오리까.”라고 말하며 한림이 자신의 원혼을 위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꿈(㉓)에서 인향은 옥황상제가 한림의 정성에 감동하여 자신을 환생하게 할 것을 알리고 있을 뿐, 옥황상제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① ㉓에서 인향은 한림이 자신을 한림의 가족으로 대해 준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다.

“제문에 하시기를 죽은 귀신이라도 한림 닮 귀신이라 하시오니 그 은혜를 어찌 다 측량하오며 하해 같은 덕택을 입사와”에서 알 수 있다.

② ㉓에서 인향은 성주님 덕분에 계모에 대한 원수를 갚아 자신의 한을 풀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계모의 누명을 애매히 쓰고 죽사와 철천지한을 설원할 길이 없삽더니 명찰하신 성주님을 만나 원수를 갚삽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㉓에서 인향은 재생하여 한림과 연분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모친이 발원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림은 저를 재생코자 하시거든 하늘께 축수하와 금생 연분을 이루게 하옵소서. 첩의 모친은 옥황상제에게 상소하시었삽고 첩은 염라대왕께 발원하였사오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㉓에서 인향은 자신을 회생시키기 위해 한림이 찾아와야 할 곳을 일러 주고 있다.

“한림은 명일 아침에 음식과 이 약물을 가지고 심천동으로 오소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망

- **집작**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렵잡아 헤아림.
- **비약적** 지위나 수준 따위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되는 것.

## 정.정.이

②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성격을 **집작**하게 하고 있다.

㉔에서는 낙락장송이 희색을 띄어 한림을 반기는 듯하고, 두견새가 한림을 부르는 듯하며, 비금주수가 모두 입을 보고 환영하는 듯하다고 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한림이 인향을 회생시키기 위해 심천동으로 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① **부재** 중심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㉔에서는 자연물이 한림을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나열하고 있을 뿐, 중심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부재** 사건의 빠른 전개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㉔에서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거나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시간적 배경의 비약적인 변화를 감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㉔에서 시간적 배경의 비약적인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부재** 공간적 배경이 **초월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심천동은 현실의 공간이므로 ㉔에서 공간적 배경이 초월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326 ㉔ (1) ○ (2) × (3) ○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

㉔에서는 낙락장송, 두견새, 비금주수가 한림을 반기며 부르는 듯하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한림이 인향을 회생시키러 심천동으로 향하는 길에서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2) **부재** 언어유희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있다.

(○ ×)

㉔에서는 언어유희가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분위기가 부드럽게 이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비슷한 어조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

㉔에서는 '~은 ~는 듯'과 같은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함으로써 인향을 되살리러 온 한림을 반기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 327 ㉔ 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망

- **행적** 행위의 실적(實績)이나 자취.
- **집약적** 하나로 모아서 뭉뚱그리는 것.

## 정.정.이

⑤ 공간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인물의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㉔는 한림이 인향의 회생을 축원하기 위해 심천동으로 가는 길을 묘사한 부분으로, 깊은 산중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인향을 향한 한림의 마음을 심화시킨다는 데서 인물의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① **부재** 인물의 과거 행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② **부재**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③ **헛집기**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된 원인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㉔는 심천동으로 가는 길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으로, 인물의 과거 행적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거나(①), 꿈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②). 또한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③).

④ **부재**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㉔는 인향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는 현실적 공간으로, 초월적 공간이 아니다. 또한 앞에 제시된 꿈의 내용에 따라 한림이 축원을 하러 가고 있으므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5 사씨남정기

### 작품 분석

본문 158~161쪽

작가 김만중

갈래 가정 소설, 국문 소설

주제 처첩 간의 갈등과 사씨의 고행, 권선징악

특징 ① 인현 왕후를 폐위한 숙종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임.

② 처첩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단숨에 읽기** 중국 명나라의 명신 유현과 부인 최씨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으나, 나이가 너무 어려 출사를 미룬다. 유 한림은 재주와 덕행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지못해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아들을 낳아 유 한림의 총애를 받던 교씨는 사씨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낳자 사씨를 모함하여 쫓겨나도록 하고, 정실이 된다. 쫓겨난 사씨는 남방을 헤매다가 한 여승을 만나 절에 의탁한다. 한편 교씨는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을 천자에게 참소하여 유배시키고, 동청과 함께 악행을 일삼는다. 하지만 조정에서 곧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사방으로 사씨를 찾고, 사씨를 만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죄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유 한림은 교씨를 처형한 후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이고 둘은 행복한 여생을 누린다.

### 한 줄 요약

① 사씨가 (꿈속)에서 낭랑을 만난.

② 사씨의 꿈속에서 낭랑이 말한 대로 (사씨)를 인도할 여승 일행을 만나 사씨 일행이 (군산)에 도착함.

## 328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사건 왜곡** '사씨' 일행은 '황릉묘'를 떠나 정차 **없어** 방랑하던 중에 '여승' 일행을 만났다.

사씨 일행이 묘당의 서쪽 행랑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여승 일행)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와 비몽사몽간에 보살의 명을 받고 찾아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① '사씨'는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다.

사씨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② '사씨' 일행이 찾아간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이었다.

사씨 일행이 찾아간 황릉묘의 모습은 사씨가 '꿈속에서 본 것과 다름없었으나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③ '사씨' 일행은 남에게 음식을 얻어먹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사씨 일행이 굶주림이 자못 심하여 묘당을 지키는 집에서

음식을 얻어 와 요기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⑤ '사씨'가 도착한 '군산'은 예로부터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군산은 '사방이 모두 물이고 기이한 바위들이 모였으며, 대숲은 뻥뻥하고 숲숲은 무성하여 예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 329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사씨'는 꿈속에서 '여동'을 따라간 일을 기억하고 대숲 밖의 '황릉묘'를 찾아갔다. (○, ×)

사씨가 "내가 분명히 푸른 옷의 여동을 따라서 저 길로 갔네."라고 말하며 일행을 이끌고 대숲 밖으로 가 현판에 '황릉묘'라고 써 있는 묘당 한 채를 발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 '사씨' 일행은 '여승' 일행을 만나기 전까지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고 느꼈다. (○, ×)

"묘당 근처에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신령이 우리를 희롱했도다."를 통해 사씨 일행이 여승 일행을 만나기 전까지 의지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 막막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사건 왜곡** '사씨'가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여승**과 **비몽사몽간에** 목격하였다. (○, ×)

여승은 '어진 여인이 어려움을 만나 물에 뛰어들려 하니 빨리 황릉묘에 가서 구하라'는 백의관음의 말을 비몽사몽간에 듣고 황릉묘에 찾아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승이 사씨가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 330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방도**: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법과 도리.
- **예비**: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음.

###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사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황릉묘에** 가서 '사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씨에게 유모가 "부인께서 한동안 숨이 막힌 듯하더니 다시 깨어나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유모는 기절한 사씨의 곁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씨가 꿈속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일행을 이끌



고 대숲 밖으로 가 황릉묘를 찾았으므로 유모가 황릉묘에 가서 사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왔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사씨'를 찾아온 '여승' 일행은 '사씨'를 구하는 것이 부처의 뜻이라고 여겼다.
- ③ '사씨'는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황릉묘에 오게 된 연유를 알게 되었다.  
여승이 사씨에게 “방금 비몽사몽간에 백의관음께서 말하기를 ~ 부처님 말씀이 정말 신이하군요.”라고 말한 것(①, ③)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사씨'는 대숲 밖에서 찾은 묘당에서 꿈속에서 만난 낭랑을 떠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사씨가 묘당에서 향을 사르고 “천첩이 낭랑의 도우심을 ~ 큰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⑤ '사씨'는 꿈에서 '낭랑'으로부터 길이 멀고 험한 남해로 항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 들었다.  
사씨가 꿈속에서 만난 낭랑에게 들은 “남해 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라는 말과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라는 사씨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다.

331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부재** ①: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  
사씨는 자신이 현재 의탁할 곳이 없어 만약 돌아가게 되어도 또 물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씨가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② ㉠: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씨는 남해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단인 수레와 양식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들어 상대방의 제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사씨는 부인들에게 자신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하며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폐를 끼칠 것을 염려하는 마음

을 밝히고 있다.

사씨는 스님이 구해 주는 것이 매우 고맙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암자에 폐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⑤ ㉠: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여 상대방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여승은 자신은 출가한 사람으로서 자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하며 보살의 명까지 받았으니 사씨 일행을 돕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함으로써 사씨 일행의 염려를 덜어주고 있다.

332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여승의 선의를 의심하여 여승을 위하는 척 마음을 떠보고 있다.  
㉠에서 사씨는 “이제 스님께서 구해 주시니, 매우 고마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스님을 따라가면 혹 암자에 폐를 끼칠까 걱정” 했을 뿐이다. 여승의 선의를 의심하여 여승을 위하는 척 마음을 떠본 것이라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 현실에서의 어려운 처지를 밝히며 자신의 거취에 대한 낭랑의 허락을 구하고 있다.  
㉠에서 사씨는 “의탁할 곳이 없으니 돌아가 봐야 웅당 물에 뛰어들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밝히고, “허락하시면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다며 낭랑의 곁에 머무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있다.
- ② ㉠: 실현 가능성을 들어 낭랑의 제안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에서 사씨는 남해 도인에게 의탁하라는 낭랑의 제안에 대해 수레도, 음식도 없는 자신의 처지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낭랑의 제안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333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 유모와 차환에게 꿈속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들이 자신을 믿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씨는 유모와 차환에게 꿈속에서 경험한 것에 대해 확신

을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자신을 믿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

❶ 오오이

- ① ㉓: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인물들을 언급하며 사씨는 시비의 말석 옆 자리에 머물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시비의 말석 옆자리에도 머물게 해 달라는 사씨에게 낭량은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알려진 조대가, 맹광 등을 언급하며 사씨가 그들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② ㉔: 사씨가 도움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 주어 사씨의 불안감을 덜어 주고 있다.
- 남해로 가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씨에게 낭량은 사씨를 남해로 인도할 사람이 있을 것임을 알려 줌으로써 사씨의 불안감을 덜어 주고 있다.
- ④ ㉕: 기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초월적 존재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사씨는 꿈속에서 인도할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낭량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의지할 곳이 없자 신령이 자신을 놀렸다면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㉖: 자신이 잠결에 백의관음의 명령을 받은 것을 근거로 사씨와의 만남이 신비로운 일이라고 감탄하고 있다.
- 사씨 앞에 나타난 여승은 자신이 비몽사몽간에 백의관음의 명을 받아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며, 이곳에서 사씨를 만났으니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신이하다고 감탄하고 있다.

334 ㉓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지표**: 방향이나 목적, 기준 따위를 나타내는 표지.
- **현숙한**: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한.

정.정.이

- ③ **상반**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씨'가 [B]에서 느끼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반**하고 있다.
- 반현실적 공간([C])인 '꿈속'에서 낭량은 사씨를 인도할 사람이 생길 터이니 심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상계([B])에서 사씨가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 ① [C]에서는 [A]의 뜻에 따라 [B]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사씨'에게 예고하고 있다.
- 반현실적 공간([C])인 '꿈속'에서 낭량은 사씨에게 남해 도

인에게 의탁하라며 지상계([B])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이를 천상계([A])인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였다.

- ② [C]의 '꿈속'은 '사씨'가 [B]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와 그녀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을 알리고 있다.
- 반현실적 공간([C])인 '꿈속'에서 낭량은 사씨에게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라고 하면서 오십 년 뒤에 마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④ [B]의 존재인 '사씨'가 [C]의 '꿈속'에서 만나는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그녀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 '장강', '반첩여', '조대가', '맹광'은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로, 낭량이 나중에 사씨도 "조대가, 맹광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이들은 사씨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B]에서 '여승'이 '사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C]의 '비몽사몽간'을 통해 [A]의 뜻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여승은 반현실적 공간([C])인 '비몽사몽간'에 백의관음의 명을 따라 사씨에게 오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백의관음은 천상계의 존재이므로 여승이 사씨를 구하기 위해 군산에서 온 것은 천상계([A])의 의지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오 지름길

〈보기〉에 제시된 '천상계-반현실적 공간-지상계'라는 공간 구분을 기준으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야 해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지문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각각 어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정리해 보면 글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335 ㉓ (1) 꿈속 (2) 반첩여 (3) 천상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교체** 이 작품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공간,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황릉묘, **꿈속**)와/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이라는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기반으로 한다.
- 이 작품의 공간은 낭량, 백의관음 등이 존재하는 천상계와 사씨, 여승 등이 존재하는 지상계, 그리고 이들이 서로 만나는 꿈속, 비몽사몽간과 같은 반(半)현실적 공간으로 나뉘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황릉묘는 지상계에 존재하는 사씨와 여승이 만나는 현실의 공간에 해당한다.
- (2) **교체** '사씨'가 꿈속에서 만나는 (백의관음, **반첩여**)와/과 같은 인물은 그녀의 어진 인물됨과 관련이 깊다.

334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사씨가 꿈속에서 만난 인물은 반첩여임을 알 수 있다. 백의관음은 사씨가 아닌 여승이 비몽사몽간에 만난 상대이다.



- (3) **상반** '사씨'가 황릉묘에서 '여승'을 만난 것은 (천상계 지상계)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승은 비몽사몽간에 백의관음의 명을 받고 찾아온 황릉묘에서 사씨를 만난 것이라고 하였다. 백의관음은 천상계에 존재하므로, 사씨가 황릉묘에서 여승을 만난 것은 천상계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36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사씨'가 '낭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의 막막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을 드러낸 것이군.

사씨가 꿈에서 만난 낭랑에게 "실로 의탁할 곳이 없으니 ~ 이곳에서 낭랑을 모시며 지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현실에서 막막함을 느낀 사씨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사씨'와 '유모'의 꿈에 대한 대화를 통해 평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씨'의 정서를 알 수 있군.

사씨가 유모와 꿈에 대해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평소에 느꼈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② **사건 왜곡** 꿈에서 언급된 '남해 도인'은 사씨의 조력자로 '사씨'가 현실로 돌아와야 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군.

낭랑이 사씨에게 이곳에 머물지 말고 남해 도인을 찾아가 의탁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해 도인은 현실에서 사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씨는 여동의 인도로 대전에서 내려오다가 주름 소리를 듣고 꿈에서 깬으므로, 남해 도인의 도움으로 현실로 돌아왔다고 볼 수 없다.

- ③ **헛집기** '사씨'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입안에 남아 있는 '차의 향'은 '사씨의 인생행로가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사씨의 입안에 차의 향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씨가 꿈에서 깬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끼고 있음을 드러낼 뿐, 사씨의 인생행로가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건 왜곡** 꿈에 나타난 '위나라의 장강'이나 '한나라의 반첩여'는 '사씨가 현실에서 나아갈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군.

위나라의 장강과 한나라의 반첩여는 꿈에서 낭랑이 소개한 현숙한 인물들로 사씨의 인물됨과 연결될 뿐, 이들이 사씨가 현실에서 나아갈 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 36 정을선전

본문 162~165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주제** 계모의 학대 및 다른 부인과의 갈등

**특징** ① 계모형 가정 소설과 쟁쟁형 가정 소설의 성격을 모두 지님.  
②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수직적 갈등과 다른 부인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한 수평적 갈등이 제시됨.  
③ 죽은 주인공이 원혼이 되었다가 회생하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남.

**단숨에 읽기** 명나라 재상 정진희와 부인 양씨는 자식이 없어 근심하던 중 용모와 재질이 뛰어난 을선이라는 아들을 낳는다. 을선은 유 재상의 회갑 때 참석했다가 그네를 뛰는 추연에게 반해 상사병이 든다. 이를 안 정 재상이 청혼하여 을선과 추연은 정혼한다. 한편 추연의 계모 노씨는 전처소생인 추연을 미워하여 결혼식 전에 죽여 없애려 하지만 실패한다. 과거에 장원 급제한 을선이 추연과 혼인한 날 밤, 노씨가 사촌 오빠인 노태를 시켜 을선으로 하여금 추연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고, 추연을 의심한 을선은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추연은 억울함을 털서로 남긴 후 죽고, 혼령이 되어 나타난 추연의 울음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죽게 되면서 익주는 폐촌이 된다. 이와 관련된 상소를 받은 임금인 을선을 익주로 보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모를 만난 을선은 자초지종을 들은 후 자신의 불찰을 깨닫는다. 을선은 추연의 혼령이 말한 대로 악을 구해 와 추연을 회생시켜 총렬부인으로 봉하고 애지중지한다. 그러나 을선과 먼저 결혼한 정렬부인이 이를 시기하여 을선이 출정한 사이 추연을 모함하니, 시어머니가 대로하여 추연을 죽이려 한다. 시비의 도움으로 살아난 추연은 아들을 낳고 사경에 이른다. 이 소식을 들은 을선이 황급히 돌아와 진상을 밝혀 정렬부인을 사형하고 추연과 아들을 구한 후, 부귀영화를 누리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는다.

### 한 줄 요약

- ① 유 소저가 하늘의 도움으로 (노씨)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을선은 유 소저와 (혼인(결혼))하고자 유 승상의 집에 찾아옴.
- ② 혼례를 올린 뒤 (노씨)의 계략으로 유 소저를 오해한 을선이 첫날밤을 보내지 않고 부친과 상경함.
- ③ (유 승상)이 유 소저에게 정을선 부자가 떠난 연유를 물으나 유 소저는 대답하지 않음.

### 33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항변**: 대항하여 변론함. 또는 그런 변론.
- **안색**: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이나 빛깔. = 얼굴빛.

#### 정.정.이

- ④ '유 승상'은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유 승상이 "어찌된 연고로 이 밤에 상경코자 하십니까."라고 물었으나 '정공 부자 아무 대답 없이 출발하니라.'라고 하였으므로, 유 승상이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초왕'은 정 시랑의 성급한 행동을 꾸짖었다.

초왕은 정 시랑의 아버지로 정 시랑이 유 소저의 부정을 의심하고 바빠 가기를 청할 때 정 시랑과 함께 유 소저의 집에서 바로 떠났으므로, 그가 정 시랑의 성급한 행동을 꾸짖었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사건 왜곡** '노씨'는 유 승상을 부추겨 유 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노씨는 유 승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노태에게 사주하여 유 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유 승상은 유 소저의 혼사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알지 못한다.
- ③ **상반** '유 소저'는 유 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유 소저는 정 시랑이 떠난 일에 대해 묻는 유 승상에게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따라서 유 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상반** '정 시랑'은 유 소저의 안색을 보고 노씨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신부 수심이 가득하고 ~ 심중에 이상하나 누구를 향하여 물으리오.'로 볼 때, 정 시랑은 유 소저의 안색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유 소저와 노씨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338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사건 왜곡** '유 소저'는 정 시랑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였다. (○, ⊗)  
 유 소저는 정 시랑에게 "군자는 잠깐 앉아 첩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였으나 정 시랑은 이를 듣는 체하지 않고 떠났다. 따라서 유 소저가 정 시랑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항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 (2) **사건 왜곡** '노씨'는 유 승상에게 정 시랑이 떠난 연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 ⊗)  
 노씨는 자신이 일을 꾸몄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유 승상에게는 잠결에 들었다며 정 시랑과 노태 간의 대화를 전달할 뿐, 정 시랑이 떠난 연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3) '유 승상'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 소저를 본 뒤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 ×)  
 유 승상이 묻는 말에 한 마디 대답도 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 소저를 보고 '전일의 지극한 성효에도 오늘날 불효를 끼치니 무슨 곡절이 있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339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유 소저는 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며 죽음으로써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어 죽으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이렇듯 죽으면 내 일신이 옥 같음을 누가 알리오.' 하고 이에 적삼을 벗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더라."로 보아 유 소저가 칼을 빼들고 죽으려 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 소저가 칼로 손가락을 자르며 죽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유 소저는 독살을 피하기 위해 유모로부터 얻은 음식으로 연명하였다.  
 ② 유 소저는 개가 죽을 먹고 죽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독약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개를 불러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죽거늘 소저와 유모 더욱 놀라 차후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서 밥을 지어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더라. (①, 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정 시랑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유 소저를 죽이려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오늘 교배석에서 보니 수심이 가득하여 이상히 여겼더니 원래 이런 일이 있도다." 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들고 소저를 죽여 분을 풀고자 하다가 또 생각하되, '내 옥 같은 마음으로 어찌 저 더러운 계집을 침노하리요.' 하고 옷을 입고 급히 일어나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초왕은 정 시랑의 말만 듣고 상경하는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유 승상의 집을 떠났다.  
 유 승상이 "어찌된 연고로 이 밤에 상경코자 하십니까."라고 묻는데도, 정공 부자가 아무 대답 없이 출발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340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개입**: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여들.
- **주체**: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
- **사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 **동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정·정·이

- ⑤ **범위 오류** ⑤, ⑥에서는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유 소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노씨가 유 소저에게 가한 1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⑥)에서는 ‘난데없는 바람’, ‘푸른 불’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유 소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가 되고 있으나, 2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④)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오·이

- ① ③에서 노씨는 자신을 ⑥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노씨는 1차 위해에서 음식에 직접 독약을 넣었으므로, 계획 과정에서 자신을 1차 위해 실행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⑥에서 유모는 유 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노씨가 계획한 1차 위해의 실행 과정에서 유모는 독약이 든 음식을 유 소저가 먹지 않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유모는 유 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④에서 노태는 노씨의 사주를 받은 대로 ④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노태는 노씨의 사주를 받고 간부로 위장하여 2차 위해를 실행했다.

- ④ ⑥의 결과는 노씨가 ④를 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노씨 지난날 독약을 시험하되 소저 무사함을 시기하여 밤낮으로 죽이기를 꾀하더니’에서 알 수 있듯이, 노씨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유 소저를 죽이고자 한 1차 위해가 실패로 돌아가자 노태를 사주하여 유 소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1차 위해의 결과가 2차 위해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내적 동기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1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④ 정을선이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니 유 소저는 노씨에 의해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수난을 당하고 있군.

‘원래 이 간부로 칭하는 자는 노녀의 사촌 오라비 노태니 노씨 지난날 독약을 시험하되 소저 무사함을 시기하여 밤낮으로 죽이기를 꾀하더니, ~ 노태 금은을 욕심내어 삼척 장검을 잡고 달 밝은 밤에 소저 침소에 이르러 동정을 살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 소저를 갇참에 넣으니’를 통해 알 수 있다.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노씨는 노태와 정을선을 사주해 유 소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악인의 전형에 해당하는 인물이군.

노씨가 노태를 사주해 유 소저를 포함한 것은 맞지만, 정을선을 사주한 것은 아니다.

- ② **사건 왜곡** 유 승상은 자초지종을 고려하지 않고 유 소저를 비난함으로써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군.

유 승상은 지난밤 정 시랑이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돌연히 돌아간 연유를 유 소저에게 재차 물음에도 불구하고 유 소저가 대답하지 않자, 말 못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유 승상이 자초지종을 고려하지 않고 유 소저를 비난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건 왜곡** 노씨의 계락을 깨달은 유 소저가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군.

유 소저가 노씨의 계락을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유 소저가 노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

- ⑤ **사건 왜곡** 노씨가 유모를 치켜 유 소저를 독살하려 한 것을 보니 노씨는 유 소저를 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군.

노씨가 유 소저를 독살하려 한 것은 맞으나 유모를 시켜서 일을 도모한 것은 아니다. 유모는 오히려 독약이 든 죽을 개에게 먹여 독약을 확인하고 유 소저가 독살되지 않도록 도운 인물이다.

342 ③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어휘

- 내막: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속 내용.
- 부각: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정·정·이

- ③ [B]와 달리 [A]는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A]는 사건의 전말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 [B]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B]와 달리 [A]는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 ① **헛집기** [A]와 달리 [B]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B]에서 유 승상은 지난밤 정 시랑이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돌연히 돌아간 연유를 유 소저에게 재차 물음에도 불구하고 유 소저가 대답하지 않자 말 못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이로 보아 유 승상과 유 소저의 대립

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헛집기** [B]와 달리 [A]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A]에 유 소저가 처한 위기를 비유하는 '갱참'과 같은 표현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하여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범위 오류** [A]와 [B] 모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A]의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 소저를 갱참에 넣으니 가련하다.'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만, [B]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범위 오류** [A]와 [B] 모두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A]에서는 '금은'이라는 사물을 활용하여 노태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드러내고 있으나, [B]에서는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 343 ㉠ ㉡,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A]는 [B]와 같은 대화를 오가게 한 사건의 내막을 보여 주고 있다.  
[B]에서 유 승상은 지난밤 정 시랑이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돌연히 돌아간 연유를 유 소저에게 재차 묻고 유 소저는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를 오가게 한 사건의 내막은 [A]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 [A]에서는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 [B]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A]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의 내막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B]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뒤 유 승상과 유 소저의 대화를 보여 줌으로써 모함을 당한 유 소저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 [A]와 달리 [B]에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서술자가 진술하고 있는 [A]와 달리, [B]에서는 "소녀의 불효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라는 말과 '눈물을 비처럼 쏟'는 행동을 통해 유 소저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오.오.이

- ㉣. **범위 오류** [A]와 [B] 모두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A]에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 소저를 갱참에 넣으니 가련하다.'와 같이 유 소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B]에는 서술자의 판단이 드러나 있지 않다.

### 344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전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진행되어 온 경과.

#### 정.정.이

- ④ [B]와 달리 [A]는 서술자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A]의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 소저를 갱참에 넣으니 가련하다.'에서 서술자는 유 소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B]에서는 유 승상과 유 소저의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서술자의 생각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A]와 달리 [B]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가 진술하고 있는 [A]와 달리 [B]에서는 유 승상과 유 소저가 대화를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 사건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 ② **부재** [A]와 달리 [B]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등장인물이 직접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유 소저는 유 승상이 지난밤 정 시랑이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돌연히 돌아간 연유에 대해 재차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있으므로, 등장인물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직접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A]는 사건의 전말을 서술자가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부재** [B]와 달리 [A]는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A]와 [B] 모두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지 않다.

- ⑤ **부재** [A]와 [B] 모두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하고 있다.

[A]와 [B]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 소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345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에서 유 소저는 부정한 여인으로 의심받은 것에 대하여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쓰고 있다.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원한이 깊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유 소저의 심리는 ‘뼈에 사무질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각골통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오.오.이

② 교체 동병상련(同病相憐)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③ 교체 수구초심(首丘初心)

‘수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교체 풍수지탄(風樹之嘆)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교체 일희일비(一喜一悲)

‘일희일비’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함, 또는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346 ㉮ (1) 분기탱천 (2) 진퇴유곡 (3) 노심초사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정 시랑’은 (분기탱천) 풍수지탄)하여 유 소저를 홀로 두고 침소를 빠져나왔다.

정 시랑은 수상한 남자의 말만 믿고 유 소저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오해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이려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떠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 시랑의 심리는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 오름.’을 뜻하는 ‘분기탱천’으로 표현할 수 있다. 345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풍수지탄’은 정 시랑의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2) 교체 ‘유 소저’는 (진퇴유곡) 동병상련)의 상황에서 혈서를 썼다.

유 소저는 정 시랑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하여 떠난 상황에서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 소저의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를 뜻하는 ‘진퇴유곡’으로 표현할 수 있다. 345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동병상련’은 유 소저의 상황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교체 ‘유 승상’은 정공 부자가 떠난 뒤 (노심초사) 수구초심)하여 연유를 알고자 유 소저의 침소로 찾아갔다.

유 승상은 지난밤 정 시랑이 첫날밤도 보내지 않고 돌연히

돌아가자 유 소저가 걱정되어 그 연유를 재차 묻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 승상의 심리는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뜻하는 ‘노심초사’로 표현할 수 있다. 345번-③의 해설을 참고할 때, ‘수구초심’은 유 승상의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47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천우신조(天佑神助)

유 소저는 노씨에 의해 독살을 당할 뻔하였으나 하늘의 살피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천우신조’로 설명할 수 있다.

❖ 오.오.이

① 교체 견마지로(犬馬之勞)

‘견마지로’는 ‘개나 말 정도의 하찮은 힘이라는 뜻으로, 윗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신의 노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② 교체 결초보은(結草報恩)

‘결초보은’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③ 교체 상부상조(相扶相助)

‘상부상조’는 ‘서로서로 도움.’을 뜻하는 말이다.

⑤ 교체 풍비박산(風飛雹散)

‘풍비박산’은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을 뜻하는 말이다.

## 37 월영낭자전

### 작품 분석

본문 166~169쪽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주제 혼사 장애의 극복, 일부다처제의 비극과 권선징악

- 특징
- ① 전반부는 남녀 결연담을 중심으로, 후반부는 후처 모략담을 중심으로 구성됨.
  - ②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남.
  - ③ 적당 모티프를 통한 전기성이 드러남.
  - ④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나타남.

**단숨에 읽기** 중국 송나라 소주의 이부 시랑 최현은 아들 희성을 친구 호원의 딸 월영과 정혼시킨다. 호원이 간신의 음해로 죽자, 그의 부인도 자결한다. 부모를 잃은 월영은 소주 자사인 위현이 자신을 강제로 재취로 맞으려 하자, 자살로 위장하고 남장을 한 채 피신하여 절강에 사는 경 어사의 부인을 만나 양녀가 된다. 월영이 죽은 줄 안 최희성은 과거 급제 후, 민 상서의 딸과 혼인한다. 그러던 어느 날 최희성은 졸다가 천상에 올라가서 자신은 천상계의 유진성이며, 옥진성인 월영과 연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갠다. 월영 역시 졸다가 천상에 가서 유진성과 연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갠다. 한편 희성은 숙부의 문병을 가던 중 경 어사의 집에서 목다가 월영을 만난다. 이를 안 최현은 월영과 아들을 혼인시킨다. 이후 희성은 국궁(임금의 장인) 정한의 압력으로 그의 딸 정씨를 후처로 맞이한다. 월영을 시기한 정씨는 월영이 쓴 것처럼 편지를 조작하여 그녀에게 음행녀의 죄를 씌운다. 옥중에서 월영은 쌍둥이를 낳고, 희성은 발해도 순행을 다녀오는 길에 월영의 꿈을 꾀다. 월영의 처형 전, 천상에서 선관이 내려와 그녀가 옥진성임을 알리고 정씨는 자결한다. 이후 다른 가족들은 화목하게 지낸다.

### 한 줄 요약

- ① 최희성은 발해도를 다스리기 위해 떠났다가 (호씨)가 우는 꿈을 꾸고 급히 돌아옴.
- ② (호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천자가 판결을 유보함.
- ③ 천자는 호씨의 무죄를 판결했다가 (정 국공)의 말을 듣고 사형을 명함.
- ④ (선관)이 나타나 천자에게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여 호씨의 무죄가 밝혀지고 (정씨)는 자결함.

## 348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여회

- 상투어: 늘 써서 버릇이 되다시피 한 말.

### 정.정.이

- ③ **헛집기**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정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인물의 외양 묘사는 대부의 꿈에 머리를 풀고 발 벗은 호씨가 아이와 함께 나타나 남은 목숨을 구해 달라고 말한 부분에 드러난다. 그러나 머리를 풀고 발 벗고 있는 모습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할 뿐, 이를 통해 성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씨가 모해를 받으며 고난을 겪다가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 결백함이 드러나기까지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호씨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대목에서 '창검이 서리 같고 갖은 취타와 북소리는 우레 같아'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는 자가 뉘 아니 참혹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오.',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천도 어찌 무심하리오.' 등에서 서술자가 개입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로 '각설', '차설'이 사용되고 있다.

## 349 ㉓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서술자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의 제삼자이기는 하나, '보는 자가 뉘 아니 참혹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오.',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등에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2) 초월적 존재의 말을 통해 주인공의 정체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 ×)

선관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말을 통해 호씨가 상제께 득죄하여 적당한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사실과 정씨의 흥계로 호씨가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 (3) **헛집기** 꿈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주로 제시되고 있다. (○, ×)

이 글의 앞부분에 대부가 꿈에서 호씨를 만나는 장면이 짧게 제시되고는 있으나, 주된 이야기는 현실에서 호씨가 천자 앞에 잡혀가 문초를 당하는 이야기이다.

## 350 ㉓ ①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있다.

호씨가 모함을 받아 천자의 명에 의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선관이 나타나 상제의 뜻을 전함으로써, 호씨는 위기



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함을 한 정씨는 결국 자결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선관의 등장이라는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② **부재**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 역설적 표현은 활용되고 있지 않다.

- ③ **부재** 작품 속의 주변 인물에 주인공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파악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헛집기** 구체적 배경 묘사에 활용된 소재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대풍이 일어나고 천색이 어두우며 크게 눈과 비가 날려 오는지라.’에서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묘사에서 활용된 ‘대풍’, ‘눈’, ‘비’와 같은 소재가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부재** 사건의 순서를 역전하여 구성하여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부각하고 있다.

대부가 발해도를 다스리기 위해 집을 떠난 사이 모함을 받은 호씨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일련의 사건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351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사필귀정(事必歸正)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한자 성어이다. 호씨를 모해한 정씨가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자 자결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사필귀정’이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교체** 각주구검(刻舟求劍)

‘각주구검’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교체** 주구초심(首丘初心)

‘주구초심’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④ **교체** 주마가편(走馬加鞭)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이다.

- ⑤ **교체** 풍수지탄(風樹之嘆)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 352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정씨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할 수 있어.

정씨는 흥계를 꾸며 호씨를 천자 앞에 끌려가게 하였으나 결국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결하고 잉태한 아기도 죽게 된다. 이러한 정씨의 비극적인 최후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을 뜻하는 ‘자업자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처첩 관계인 호씨와 정씨는 ‘간담상조(肝膽相照)’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

호씨와 정씨가 처첩 관계이기는 하나, 정씨가 호씨를 모함하여 궁지에 빠뜨리고 있으므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귀.’을 뜻하는 ‘간담상조’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 ② **헛집기** 대부가 꿈에서 호씨를 만나는 것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라고 할 수 있어.

대부는 꿈에서 머리를 풀고 발 벗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 달라고 말하는 호씨의 모습을 보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음을 짐작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가 꾸은 꿈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인 ‘동상이몽’과는 관련이 없다.

## 35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일벌백계(一罰百戒)

㉠에서 정 국공은 호씨에게 죄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호씨를 베어 후일 음행녀를 경계해야 한다고 천자에게 아뢰고 있다. 즉 정 국공은 호씨를 벌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

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인 '일벌백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오.이

① 교체 감탄고토(甘香苦吐)

'감탄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이다.

② 교체 잘신성인(殺身成仁)

'잘신성인'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룸.'을 뜻하는 말이다.

③ 교체 주주대토(守株待兔)

'주주대토'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교체 와신상담(臥薪嘗膽)

'와신상담'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5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당위성: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 궁극적: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정.정.이

② 사건 왜곡 초월계의 선관은 호씨의 꿈에서만 나타나고 호씨가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계에 직접 등장하고 있군.

호씨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선관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초월계의 선관이 현실계에 직접 등장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러나 호씨가 꿈을 꾸는 장면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월계의 선관이 호씨의 꿈에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오.이

① 초월계의 선관이 나타날 때 보이는 자연 현상은 사건 전개 of 환상성을 보여 주고 있군.

초월계의 선관이 등장할 때 대풍이 일어나고 천색이 어두워지며, 눈과 비가 날리고 향풍이 일어나는 등 기이한 자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건 전개 of 환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 호씨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호씨가 선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군.

⑤ 초월계의 선관의 말에 드러난 호씨의 고귀함은 호씨가 처한 고난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군.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 호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본래 호씨가 천상계의 인물로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호씨가 선한 인물이며(③), 그녀의 고난이 당연히 극복되어야 할 것임(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초월계의 상제는 천자에게 정씨의 처벌을 명한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존재로 볼 수 있군.

초월계의 상제는 선관을 통해 천자에게 "호씨를 구하고 정씨를 죄주어 옥석을 가리"라고 말한다. 이 말로 인해 자신의 악행이 들롱나자 정씨는 자결을 한다. 따라서 초월계의 상제가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

355 ㉢ (1) 권선징악 (2) 향풍 (3) 현실계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상제는 천자에게 올바른 판결을 명함으로써 (권선징악: 인생무상)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이다.

선관은 상제에 명을 받아 호씨를 구하러 왔다면서, "호씨를 구하고 정씨를 죄주어 옥석을 가리"라고 천자에게 말함으로써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을 뜻하는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생무상'은 '인생이 덧없음.'을 뜻하는 말로 선관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없다.

(2) 교체 (복소리, 향풍)은/는 사건 전개 of 환상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선관은 '문득 대풍이 일어나고 천색이 어두우며 크게 눈과 비가 날리' 온 뒤에 남쪽 땅에서 향풍이 일어나며 표연히 천자 앞에 나왔다. 따라서 '향풍'이 사건 전개 of 환상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복소리'는 형 집행을 알리는 것일 뿐, 환상성과는 관련이 없다.

(3) 상반 선관은 호씨를 돕기 위해 (현실계: 초월계)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초월계의 존재인 선관은 호씨를 돕기 위해 현실계에 직접 등장하여 천자에게 판결을 명하고 있다.

356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번복: 이리저리 뒤쳐 고침.
- 죄상: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 참작: 이리저리 비추어 보아서 알맞게 고려함.



정.정.이

- ㉠ 사건 왜곡 ㉡에서의 천자의 명이 ㉢에서와 같이 바뀌는 것은 선관이 판결 번복의 부당함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천자는 호씨의 처벌을 명하였다가 상제의 명을 받아 호씨를 구하려 왔다고 밝힌 선관이 호씨를 구하고 정씨를 죄주라고 말하자 호씨에 대한 처벌을 거두고 있다. 선관이 판결 번복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오.오.이

- ㉠ ㉡에서 천자는 호씨의 음란함을 죄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음란한 계집이 감히 집안에 불의를 행하여 강상지죄를 지었으니, 너는 일찍 봉초하여 국법을 밝히리라.”를 통해 알 수 있다.
- ㉡ ㉢에서 천자는 호씨의 진술을 참작하여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진실로 네 말 같을진대 어찌 음녀라 하리오. 네 원대로 하여 내종을 본 후 국법을 행하리라.”를 통해 알 수 있다.
- ㉢ ㉣에서의 천자의 판단은 호씨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함을 확인한 결과로 내려진 것이다.  
“두 사람의 말이 호씨의 정절을 일컬으니, 대해 변하여도 호씨의 행실은 변치 아니할지라. 어찌 불의를 행하리오. 경이 참언을 들었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 ㉤에서의 천자의 판단이 ㉡에서와 같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정 국공의 발언 때문이다.

천자가 호씨를 무죄로 판단하는 말을 하자 정 국공이 나서서 “호씨의 참언과 간계에 속으시니 ~ 호씨를 베어 후일 음행녀를 경계하옵소서.”라고 말하였고, 이에 천자는 “호씨를 베어 서문에 달아 세상 음행 여자를 징계하리라.”라고 하며 처벌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천자의 판단이 ㉣에서 ㉤로 바뀌게 된 계기는 정 국공의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오.지름길

- ㉠ ㉡에서의 천자의 명이 ㉢에서와 같이 바뀌는 것은 선관이 판결 번복의 부당함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 ㉠은 선관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적절하지 않아 오답이 된 경우에 해당해요. 천자의 판단이 ㉡에서 ㉢으로 바뀌는 것은 선관 때문이므로 ㉠을 정답으로 고르는 데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맞는 진술과 틀린 진술을 섞어 놓은 선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해요.

## 38 장풍운전

본문 170~173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주제 장풍운의 일생과 고난 극복, 권선징악

- 특징 ① 전반부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영웅 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후반부는 가정 소설의 면모를 보임.  
② 계모 모티프가 나타나 있음.  
③ 내용의 생략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함.

단숨에 읽기 송나라 금릉의 전임 이부 시랑 장희와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풍운은 어렸을 때, 가달의 침략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다. 도적에 의해 버려진 풍운은 통판 이운경에게 구출되어 양육된다. 그때 운경의 후처인 호씨는 전처소생인 경패와 경운을 학대했는데, 풍운과 경패가 혼인한 후 운경이 죽자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 이후 풍운은 운경의 유서에 따라 경운을 데리고 집을 나오고, 경패도 곧이어 집을 나와 헤매다가 단원사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풍운의 어머니 양씨를 만난다. 풍운은 경운을 금산사에 맡기고 광대 무리를 따라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전임 이부 상서 왕공렬과 원철을 차례로 만나면서 도움을 얻고,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그리고 원철의 딸 황해, 왕 상서의 딸 부용과 혼인한다. 이후 풍운은 서번과 서달이 침략해오자 출전하여 적을 물리친다. 돌아오는 길에 모친과 경패를 상봉하고, 금산사에 맡겼던 경운도 데리고 온다. 이어서 부친과도 상봉하여 가족이 모두 만나게 된다. 풍운은 좌승상에 봉해지고, 천자의 권유에 마지못해 명현왕의 딸 유씨와 혼인한다. 토번이 다시 침입하여 풍운이 출정하자, 유씨가 경패(이 부인)를 투기하여 모해한다. 결국 진상이 밝혀져 유씨는 사형되고 풍운은 위왕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 한 줄 요약

- ① 난향(이 운향)과 친해지자(유씨)가 계모를 행하도록 함.  
② (유씨)의 모함으로 인해(이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됨.  
③ 경성으로 돌아온 장풍운이(이 부인)의 결백을 밝히고(유씨)를 처벌함.

## 357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융숭하게: 대우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극진하게.

정.정.이

- ㉠ 교제 ‘공철’은 ‘난향’의 외모를 보고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다.

‘공철이 의심하지 않고 난향의 음성이 운향과 서로 비슷하므로 속은 바가 되어’를 통해 공철이 난향의 외모를 보고 아내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난향의 음성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착각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 ㉠ ‘장풍운’은 토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장풍운이 토번의 침략을 막기 위해 출정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뒷부분에서 장풍운이 경성으로 돌아와 천자에게 아뢰는 내용에서 공을 세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천자'는 옥사와 관련된 '장풍운'의 요청을 허락했다.  
장풍운이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오니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하자 천자가 이를 운허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난향'은 '운향'과 가까워지기 위해 재물을 이용했다.  
'난향이 웃고 이날부터 금은을 나누어 주며 운향과 더불어 사귀이 심히 은근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유씨'는 자신의 처소에 온 '운향'을 **웅숭**하게 대접했다.  
'유씨는 흔쾌히 정성껏 운향을 대접하고 머무르게 하고는 돌려보내지 아니하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58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유씨'가 꾸민 계교를 '난향'이 행하였다. (○, ×)  
유씨가 '이 부인을 모해하려 하여 한 계교를 생각해 내고 시비 난향을 불러' 자신의 계교를 맡아서 해낼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난향이 '부인의 명'을 따르겠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2) **상반** '난향'의 자백으로 '유씨'는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 (○, ×)  
'난향 등이 잘못을 낱낱이 순순히 자백했다. ~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를 통해 난향의 자백으로 유씨가 처벌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사건 왜곡** '장풍운'은 '천자'에게 집안의 사사로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엄벌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오니 스스로 맡아서 처리하게 해 주소서."를 통해 장풍운이 집안의 사사로운 일을 스스로 맡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천자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59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유씨'는 '이 부인'의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 처소를 방문하였다.  
유씨가 "밤이 깊고 이 부인께서 외로이 계시니, 내 몸소 가서 위로하리라."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부인이 공철과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을

꾸민 후 이 부인의 방으로 가기 위해 핑계를 댄 것이다. 즉 유씨는 이 부인을 모함하여 누명을 씌우기 위해 처소를 방문한 것이다.

#### 오.오.이

- ① '장풍운'은 대원수가 되어 출정하여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대원수가 되어 출정한 장풍운이 경성으로 돌아와 입궐하여 '싸움에 나가 이겨 공을 세운 경위를' 천자에게 아뢰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② '천자'는 '유씨'의 범죄를 이유로 명현왕에게도 벌을 내렸다.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 천자가 몹시 노하여 명현왕의 녹봉을 거두셨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③ '난향'은 '공철'을 모함에 이용하기 위해 '운향'에게 접근했다.  
수문장인 공철을 이용해 이 부인을 모함하려고 계교를 꾸민 유씨는 공철이 운향의 지아비임을 알고 난향으로 하여금 운향에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 ⑤ '공철'은 '난향'을 '운향'으로 착각하여 '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갔다.  
'공철의 소매를 이끌어 바로 이 부인 침소에 들어갔다. ~ 공철이 의심하지 않고 난향의 음성이 운향과 서로 비슷하므로 속은 바가 되어'를 통해 알 수 있다.

### 360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 위계: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
- 입증: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
- 세속: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는.

#### 정.정.이

- ④ '공철'이 불의한 무리에게 이용당하는 공간이다.  
'정당'은 이 부인의 침소가 있는 곳으로 공철은 난향에게 속아 정당에 들어갔다가 들켜 의도치 않게 이 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은 공철이 불의한 무리에게 이용당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교체** '운향'이 계교를 꾸미고 실행하는 공간이다.  
유씨, 난향  
계교를 꾸민 사람은 운향이 아니라 유씨와 난향이다.
- ② **헛짚기** '천자'가 **진본적 위계를 강조**하는 공간이다.
- ⑤ **헛짚기** '장풍운'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하는 공간이다.  
'정당'은 이 부인의 거처가 있는 곳으로, 천자가 신분적 위계를 강조하거나(②) 장풍운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⑤)과는 관계가 없다.



- ③ **헛집기** '이 부인'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정당'은 이 부인이 유씨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된 곳으로 세속적 욕망 추구하고 관계가 없다.

### 361 **㉡**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정당'은 '이 부인'의 침소가 있는 공간이면서, '이 부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공간이다.

'공철'의 소매를 이끌어 바로 이 부인 침소에 들어갔다. 이때 밤이 깊었으니, 시비가 다 자고 정당이 고요했다.'를 통해 정당에 이 부인의 침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에서 유씨의 모함에 의해 이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되므로, 정당은 이 부인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 '장풍운'이 토번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출정한 틈에 '유씨'는 '정당'에서 '이 부인'을 모해하는 일을 벌인다.

'유씨가 좌승상 장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출정한 틈에 이 부인을 모해하려 하여 한 계교를 생각해 내고' 이를 이 부인의 침소가 있는 정당에서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 **헛집기** '운향'의 침소는 '공철'이 몸을 피하는 공간이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공간이다.

'공철이 불빛을 보고 놀라 몸을 피하여 따로 곁불은 방에 숨었다.'를 통해 공철이 이 부인의 침소에 곁불은 방에 몸을 피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철이 도망하여 중문으로 나왔다. ~ 칼을 들어서 공철을 베니'를 통해 공철은 중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사건 왜곡** '천자'는 '정당'에서 '명현왕'에게서 '녹봉'을 거둬오르며 명현왕의 딸이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노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 천자가 몹시 노하여 명현왕의 녹봉을 거두었다.'를 통해 몹시 노한 천자가 명현왕의 녹봉을 거뒀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천자가 이를 정당에서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 362 **㉢**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유씨'가 세운 간계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공간이다.

유씨는 공철을 속여 '정당'에 있는 이 부인의 침소에 들어

가게 한 후 이 부인의 침소에 방문하여 두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간계를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오·오·이

- ㉣ **상반** '이 부인'과 '공철'의 ~~결백~~<sup>누명을 쓰는</sup> 밝혀지는 공간이다.

'정당'은 유씨의 모함으로 이 부인과 공철이 누명을 쓰게 되는 공간이다.

- ㉤ **헛집기** '장풍운'에 대한 '유씨'의 원망이 점차 심화되는 공간이다.

'정당'에서 유씨가 장풍운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 **헛집기** '운향'과 '난향'의 정서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난향에 의해 운향의 지아비인 공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향과 난향이 정서적으로 대립하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 ㉦ **헛집기** '장풍운'이 '명현왕'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는 공간이다.

장풍운이 이 부인의 결백을 밝히는 과정에서 명현왕의 딸인 유씨의 죄가 드러남에 따라 천자가 명현왕에게도 벌을 내리고 있을 뿐이다. 장풍운이 명현왕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명분을 찾고 있지는 않다.

### 363 **㉢**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사건 왜곡** ㉣ '이 부인'이 ~~누명을 벗기~~ 위해 ~~거지~~를 발휘하여 ~~고단을 극복~~하므로 '이 부인'의 측면에서 보아도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이 부인이 스스로 누명을 벗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부인은 장풍운이 돌아와 진상을 밝힘으로써 누명을 벗게 된 것이지 이 부인 차원의 '주체의 노력'으로 누명을 벗은 것은 아니다.

#### 오·오·이

- ㉣ ㉣ '장풍운'의 두 아내인 '이 부인'과 '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소설입니다.

유씨와 이 부인은 모두 장풍운의 아내인데, 유씨가 이 부인을 시기하여 모해한 것이므로 두 아내 사이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 ㉤ ㉤ '천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유씨'와 혼인하므로 '마지못한 혼인'이 갈등의 계기가 됩니다.

장풍운은 천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유씨와 결혼하였는데,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마지못한 혼인'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③ ㉔ '장풍운'이 급히 경성으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므로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됩니다.

왕 부인의 편지를 받은 장풍운이 경성으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으므로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㉔ 이 작품은 '마지못한 혼인'에 의해 갈등이 시작되고 '주체의 노력'에 의해 갈등이 해소됩니다.

장풍운이 천자의 권유로 마지못해 결혼한 부인 유씨가 갈등을 일으켰으나 장풍운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여 모함에서 빠진 이 부인을 구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364 ㉔ (1) 혼인 (2) 부인들 (3) 장풍운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이 작품은 주인공의 마지못한 (**혼인**, 출정)으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 (2) **교체** 이 작품은 '장풍운'의 (**부인들**, 자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장풍운은 이 부인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천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유씨와 혼인하게 되고(1) 유씨의 모함으로 이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되므로(2), 마지못한 혼인으로 부인들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 (3) **교체** 이 작품에서 (**장풍운**, 천자)은/는 주체가 되어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장풍운은 "금일 옥사는 저의 집안의 사사로운 일"이라며 자신이 처리하게 해 줄 것을 천자에게 부탁하여 직접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따라서 장풍운이 주체가 되어 직접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65 ㉔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명망: 명성과 인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문초: 죄나 잘못을 따져 묻거나 심문함.
- 단좌: 죄를 처단함.

#### 정.정.이

- ③ **헛집기** '유씨'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므로 명망이 높은 가문 출신의 '이 부인'에 대해 시기심을 갖게 되었군.

유씨는 천자의 아우인 명현왕의 딸이므로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천한 집안 출신이므로 이 부인을 시기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이 부인'은 '유씨'를 의심하지 않고 호의를 베푸는 정숙하고 기품 있는 인물이군.

'이 부인은 정숙하고 기품 있는 여자인지라 유씨의 간계를 모르고 즉시 운향을 보내 주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장풍운'이 마지못해 '유씨'를 후실로 맞아들이게 됨에 따라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군.

장풍운이 이 부인과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천자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유씨와 혼인하게 되고 유씨의 모함으로 이 부인이 누명을 쓰게 되므로, 유씨를 후실로 맞아들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부인'을 모함하기 위해 간계를 실행하는 것으로 볼 때 '유씨'는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악한 인물이군.

유씨는 난향을 시켜 간계를 준비하게 하고 실행에 옮겨 이 부인을 모함하고 있으므로,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악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장풍운'은 간계에 가담한 무리들을 문초하여 시비를 가리고 '유씨'를 단죄함으로써 가족의 질서를 회복하였군.

'형구를 차려 놓고 모든 시비를 죄주려 하니, ~ 좌승상이 표를 올려 옥사를 뒤집고, 유씨를 그 수레에서 사형에 처하고, 난향 등을 능지처참한 후'를 통해 알 수 있다.



## 39 양풍전

### 작품 분석

본문 174~177쪽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영웅 소설

주제 처첩 간의 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

- 특징 ① 전반부는 가정 소설의 면모를 보이고, 후반부는 영웅 소설의 면모를 보임.  
② 처첩 간의 갈등과 계모 모티프가 나타나 있음.  
③ 전기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음.  
④ 우연적 요소를 통해 조력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남.

**단숨에 읽기** 중국 한나라 때 재상 양태백은 부인 최씨와의 사이에 딸 채옥, 채란, 아들 풍을 두고 있었다. 양태백은 송녀를 첩으로 맞이한 후 최씨와 세 남매를 내쫓고, 이에 최씨는 영산에 가서 할미를 만나서 지내다가 병을 얻어 죽게 된다. 세 남매는 다시 양태백을 찾아가지만, 송녀는 이들을 노복처럼 부린다. 수년이 지나 양태백은 채옥을 송녀의 사촌과 혼인시키려 하지만 채옥이 이를 거절하자 세 남매를 다시 내쫓는다. 쫓겨난 세 남매는 할미를 찾아가지만 할미가 죽어 탄식하던 중 꿈에 모친이 나타나 옥룡전으로 찾아오도록 지시한다. 채옥 남매는 후토부인과, 산신령(범), 천황보살의 도움으로 옥룡전에 이르러 모친을 만난다. 옥황상제의 뜻으로 인간 세계에 돌아온 풍은 천황보살에게 온갖 재주를 배운다. 한편 한나라는 송나라의 침입을 받아 위급한 처지에 놓인다. 이에 풍이 급히 와서 나라와 천자를 구하고 천자는 풍을 대원수로 봉하여 적장 철통골과 신술로 대결하게 한다. 풍이 철통골을 사로잡자 한국하게 하고, 천자를 모시고 환군한 풍은 초왕으로 봉해진다. 양태백이 가산을 탕진하고 눈이 멀자 송녀는 간통하고, 이에 양태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풍을 만난 양태백은 눈을 뜨고 송녀는 처형당한다. 풍은 공주와 혼인하여 살다가 후에 옥룡전에 다시 가서 모친과 누이들을 만나 선도를 닦고 신선이 된다.

### 한 줄 요약

- ① 꿈속에서 (모친(어머니))의 말을 들은 채옥 일행이 (옥룡전)을 향해 감.
- ② 채옥 일행이 산신인 (후토부인)의 도움을 받음.
- ③ 채옥 일행이 (신령)의 도움을 받고 기력을 회복함.
- ④ 꿈속에서 (석불)이 모친이 있는 옥룡전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 줌.

## 366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집에서 쫓겨난 채옥 남매는 영산에 가 할미가 죽은 것을 알고 절망감을 느꼈다.

양태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채옥 남매는 할미가 있는 '영산으로 갈바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다. 그러나 할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일장통곡하였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채옥은 화판과 황포를 통해 후토부인이 산신임을 알아차렸다.  
채옥은 "나는 이 산 지키는 후토부인이노라."라는 말을 듣고 난 후 후토부인이 산신임을 깨달았다.

- ② **교체** 범으로 나타난 신령은 시험을 통해 채옥 남매가 지닌 **능력을** 알아보고자 했다.

"나는 이 산 신령이더니, 너희 정성을 시험코자 하여 내 번하여 범이 되어 너희를 놀래이러니,"를 통해 범으로 나타난 신령은 채옥 남매의 능력이 아닌 정성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상반** 채옥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자결하는 것이 **뉘냐고** 판단했다.

자결하려던 채옥이 '어린 동생을 어찌 차마 버리리오.'하고 설운 마음을 억제한 것으로 보아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반** 석불은 채옥 남매가 자신의 말대로 용궁으로 가더라도 옥룡전에 **이르자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낙화를 주나니 이를 가지고 내 말을 자세히 들어 행하라. ~ 자연히 옥룡전에 이르러 너의 모친을 볼 것이니"에서 석불은 자신의 말대로 행하면 채옥 남매를 구해 줄 선관이 있어 자연히 옥룡전에 이르러 모친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367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채옥은 어린 동생들을 책임지겠다고 마음먹고 옥룡전을 찾아 떠났다. (○, ×)

채옥은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지하에 가 모친을 뵈옵만 같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결코자 하다가 어린 동생을 버릴 수 없어 마음을 고쳐먹고 꿈속에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옥룡전을 찾아 떠나고 있다.

- (2) **사건 왜곡** 중의 모습을 한 신령은 **범으로부터 채옥 남매를 구해 주었다.** (○, ×)

산에서 밤을 지내던 채옥 남매는 갑자기 달려든 큰 범에 놀라 대성통곡하였으나, 범은 중이 되어 자신을 신령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의 모습을 한 신령이 범으로부터 채옥 남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채옥 남매를 위협했던 범의 정체가 신령이었고, 신령이 범의 모습으로 채옥 남매의 정성을 시험한 뒤 중의 모습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상반** 채옥은 석불을 만난 것이 꿈이었음을 깨닫고 크게 **절망하였다.** (○, ×)

채옥은 석불을 만나 옥룡전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듣지만, 그것이 '남가일몽'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채옥은 몽중의 수작이 명백하고 곁에 꿈에서 받은 낙화가 놓여 있

## IV

### 가정·가문 소설

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천황보살의 영험함에 감격하고 있으므로, 석불을 만난 것이 꿈이었다는 데 실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368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교체** 채옥 남매는 후토부인의 배려로 <sup>누각에서</sup> 하루를 머물 수 있었다.

후토부인이 “나는 이 산 지키는 후토부인이노라.”라고 말하고 사라지자, 채옥 등이 ‘대경하여 살피본즉, 누각은 없고 나무 아래 바위 밑에 있는지라. ~ 그 바위 밑에서 밤을 지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채옥 남매가 하루를 머문 곳은 ‘누각’이 아니라 ‘바위 밑’임을 알 수 있다. ‘누각’은 후토부인으로 인한 환상이었다.

#### 오.오.이

- ① 채옥 남매는 집에서 쫓겨난 이후 할미가 계시던 곳으로 갔다.  
채옥 남매는 양태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후 할미가 계시던 영산으로 갔지만 할미가 이미 죽어 만날 수 없었다.
- ② 채옥 남매는 모친을 만나기 위해 옥룡전에 가기로 결심했다.  
꿈에서 옥룡전을 찾아오라는 모친의 말을 들은 채옥은 처음에는 자결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동생들과 옥룡전을 찾아 동쪽으로 갔다.
- ④ 채옥 남매는 꿈에서 석불을 만나 모친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석불이 모친이 계신다는 옥룡전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 주자 채옥은 석불에게 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잠에서 깬다고 했으므로, 채옥 남매가 석불을 만난 것은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다.
- ⑤ 채옥 남매는 길을 가다 만난 신이한 존재들에게 옥룡전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채옥 남매는 옥룡전을 찾아가는 길에 후토부인, 신령, 석불 등 신이한 존재를 만나서 옥룡전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 369 ㉓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헛집기** [C]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느낀 인물의 한을 표출하고 있다.

[C]는 “네 능히 득달할소나.”라는 석불의 물음에 대한 채옥의 대답이다. [C]에는 모친을 보러 가는 길에 죽더라도 한이 없을 것이라는 채옥의 심정이 드러나 있을 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느낀 채옥의 한은 드러나 있지 않다.

#### 오.오.이

- ① [A]는 도움이 필요한 인물의 처지가 나타나고 있다.  
[A]의 “앞길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이다.”에는 모친을 만나러 옥룡전으로 가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는 채옥 남매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A], [B]는 인물들 간의 대립 관계가 제시되고 있다.  
[A]의 “부친이 애첩 송녀의 참소를 듣고 모친과 소녀 등을 내치시매”와 [B]의 “서모의 참소를 만나 모친을 여의고”를 통해 서모 송녀와 채옥 남매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 ④ [A], [B]는 인물들이 겪은 일을 요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와 [B]에서 채옥은 부친 양태백과 송녀로 인해 겪었던 그간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A], [C]는 인물이 품고 있는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A]의 “바라건대 부인은 어여빠 여기사 앞길을 가르쳐 주실까 하나이다.”와 [C]의 “주야 원하는 바는 한 번 모친을 뵈옵고 죽고자 하오니”에 채옥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 370 ㉓ ㄷ, ㄹ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출산: 출생 당시 가정이 속하여 있던 사회적 신분.
- 물욕: 재물을 탐내는 마음.
- 해명: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힘.

#### 정.정.이

- ㄷ. [A], [B]에는 집을 떠나 길을 헤매게 된 인물의 사정이 드러나 있다.  
[A]의 “부친이 애첩 송녀의 참소를 듣고 모친과 소녀 등을 내치시매, 모친은 영산에서 기세하사 동해 승산 옥룡전으로 가신고로 소녀 등이 방금 찾아가다가 이곳에 이르렀사오니”와 [B]의 “우리 서모의 참소를 만나 모친을 여의고, 우리들이 길로 헤매이다가”를 통해 알 수 있다.
- ㄹ. [A]에는 인물의 출신에 대한 정보가, [C]에는 인물의 나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A]의 “소녀 등이 당금 승상 양태백의 자녀러니”와 [C]의 “집여 세 아이로”를 통해 알 수 있다.

#### 오.오.이

- ㄱ. **사건 왜곡** [B]에는 물욕을 탐하려 한다는 범의 의심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드러나 있다.



[B]에서 채옥이 “우리 남매 물욕을 탐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범의 습격으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채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범(신령)은 채옥 남매의 정성을 시험코자 놀라게 한 것이지, 채옥 남매가 물욕을 탐하려 한다고 의심한 것은 아니다.

- ㄴ. **사건 왜곡** [C]에는 득달을 약속하던 인물의 굳은 다짐이 나타나 있다. [C]에서 채옥은 “십여 세 아이로 누만 리 득달함을 어찌 기필하리오마는”이라며 득달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 371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가 부각되고 있고, ㉮에서는 인물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 있다.

한곳(㉮)에서는 산수가 기구하고 송죽이 소슬하여 슬픈 마음을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채옥 남매의 어려운 상황과 슬픔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누각(㉮)은 후토부인에 의해 보게 된 환상으로 누각에서 채옥 남매는 후토부인에게 도움을 받아 앞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한곳(㉮)과 누각(㉮)에서 채옥 남매가 다른 인물과 갈등하고 있지 않다.

- ② **교체** ㉮은 인물의 의지에 의해 가게 된 공간이고, ㉮은 인물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된 공간이다.

한곳(㉮)은 채옥 남매가 옥룡전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이른 공간이고, 누각(㉮)은 한곳(㉮)에서 발견하고 반가이 여겨 찾아들어 간 공간이다.

- ③ **범위 오류** ㉮은 인물이 절망적 상황에서 도착한 공간이고, ㉮은 인물의 절망적 상황이 더욱 심화되는 공간이다.

한곳(㉮)은 채옥 남매가 집에서 쫓겨나고 할미가 돌아가시는 등 절망적 상황에서 도착한 곳이지만, 누각(㉮)은 채옥 남매가 후토부인에게 앞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곳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헛집기** ㉮에서 인물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에서 인물은 잘못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한곳(㉮)에서 채옥은 앞으로의 일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앞으로의 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누각(㉮)에서 채옥은 후토부인을 만나 앞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을 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다.

### 372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누만**: 여러 만(萬)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수를 이르는 말.
- **여로**: 여행하는 길, 또는 나그네가 가는 길.
- **난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
- **원천**: 사물의 근원.
- **교섭**: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석불’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행한 행동으로 ‘채옥 등’이 ‘석불’의 인정을 받은 것은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채옥 등’은 ‘석불’에게 모친을 뵙고자 하는 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석불이 ‘채옥 등’에게 모친을 만난 후 돌아와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제안하고, ‘채옥 등’이 그것을 원한다는 게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채옥 등’이 ‘석불’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 오·오·이

- ① ‘옥룡전’을 ‘누만 리’ 떨어져 있어 득달하기 어려운 곳으로 설정한 것은 천상계가 인간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르기 힘든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채옥은 ‘누만 리’ 떨어져 있는 ‘옥룡전’을 십여 세 아이인 자신이 득달하기 어려운 곳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천상계가 이르기 힘든 곳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채옥 등’이 후토부인이 제공한 ‘음식’과 ‘범’이 준 ‘실과’를 받은 것은 환상성이 여로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채옥 등’은 후토부인이 제공한 ‘음식’을 받아먹고, 이후 ‘범’이 준 ‘실과’를 받아먹고 정신이 쇠락해져 옥룡전으로 가는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후토부인이 제공한 ‘음식’과 ‘범’이 준 ‘실과’는 모두 ‘채옥 등’에게 여로를 마치는 데 필요한 힘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채옥이 모친으로부터 ‘옥룡전을 찾아오라’는 말을 들은 꿈은 인간계와 천상계를 매개하며 환상의 여로를 시작하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천상계의 모친이 나타나 옥룡전으로 오라고 한 꿈을 계기로 채옥 남매는 옥룡전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 ⑤ 채옥이 꿈에서 '석불'로부터 받은 '낙화'를 '석불'이 알려 준 대로 현실에서 사용하여 '돌문'이 열리는 것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채옥이 꿈에서 '석불'로부터 받은 '낙화'를 '석불'이 알려 준 대로 사용하자 돌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는 꿈속 사건으로 인한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73 ㉡ (1) 옥룡전 (2) 초현실적 (3) 환상성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채옥 남매가 모친을 만나기 위해 (양태백, 옥룡전)을 찾아가는 과정은 환상의 여로를 통한 서사적 구성을 보여 준다.

채옥 남매는 꿈속에서 만난 모친의 말을 따라 천상계인 옥룡전을 찾아가며 여러 초현실적인 존재들을 만나고 있다. 따라서 모친을 만나기 위해 옥룡전을 찾아가는 과정은 환상의 여로를 통한 서사적 구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2) **교체** 채옥 남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토부인과 석불과 같은 (초현실적, 정치적) 존재들을 만나는 것에는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채옥 남매는 모친을 만나러 가는 여로에서 당대 서민들이 복을 기원했던 여러 초현실적 존재들, 즉 후토부인, 석불 등을 만나고 있다. 채옥 일행이 이들을 만나는 것에는 정성이 지극하면 소원이 성취된다는 서민들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교체** 채옥 남매가 신령의 도움을 받아 기력을 회복하고 석불의 도움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것은 (환상성, 특수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채옥 남매는 신령이 준 실과를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꿈속에서 석불을 만나 옥룡전에 이르는 방법을 안내받아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은 환상성이 현실성과 교섭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74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상반** ⑥에서 채옥 남매가 영산으로 간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비현실적 공간을 찾아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군.

채옥 남매가 집에서 쫓겨난 후 영산으로 간 것은 할미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 공간에서 현실적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영산은 할미가 계시던 곳으로 비현실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③에서 채옥 남매는 계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볼 수 있군.

양태백은 송녀의 뜻에 따라 채옥 남매를 노복처럼 부리다가 채옥이 송녀의 사촌과 결혼하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채옥 남매를 내친다. 송녀는 양태백의 첩이고 채옥 남매는 양태백 부인의 자식들이므로 계모와의 갈등이 채옥 남매가 쫓겨나게 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③ ③과 ⑥에서 채옥 남매가 꾸 꿈이 여정을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

③에서 채옥 남매는 자신을 보러거든 옥룡전을 찾아오라는 모친의 꿈을 꾸 후 옥룡전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⑥에서 채옥 남매는 옥룡전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 준 석불의 꿈을 꾸 후 석불이 알려 준 대로 난관을 극복하며 여정을 이어 가고 있다.

- ④ ④에서 후토부인과 신령은 초월적 존재이자 조력자로서 채옥 남매가 나아갈 바에 대해 알려 주고 있군.

④에서 후토부인은 채옥 남매에게 음식과 앞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으며, 신령은 기갈을 면할 실과를 주고 옥룡전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 줄 천황보살(석불)에게 가는 길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⑤에서 석불이 말한 대로 현실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기적 요소가 개입하여 채옥 남매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있군.

⑤의 꿈에서 석불은 낙화를 주며 옥룡전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 주고, 꿈에서 깬 채옥 남매는 곁에 놓여 있는 낙화를 들고 석불이 말해 준 대로 동으로 삼십 리를 가서 돌문을 여는 등 난관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전기적 요소의 개입을 통해 채옥 남매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0 반씨전

### 작품 분석

본문 178~181쪽

작가 미상

갈래 가정 소설

주제 동서 간의 갈등과 권선징악

- 특징 ① 기존의 가정 소설과 달리 동서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됨.  
 ② 사건 전개가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며 우연적임.  
 ③ 적당 모티프와 이원적 세계관이 드러남.  
 ④ 장자 중심의 위계질서를 통해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양 부인의 세 아들인 위윤, 위진, 위준은 각각 반씨, 채씨, 맹씨를 아내로 맞는다. 만이인 위윤은 현명하지만 위진, 위준은 미련하며 사리에 어둡고 그들의 부인 또한 불량하여 항상 현숙한 반씨를 모해하려 한다. 시어머니 양 부인은 어진 반씨를 모함하는 채씨와 맹씨를 근신하도록 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채씨가 부친 채봉과 짜고 위윤과 반씨의 부친을 유배 보낸다. 위윤이 유배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양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반씨와 아들 위홍은 집을 나와 양 부인의 묘소에서 지낸다. 이때 위홍이 이적선에게 학문을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씨는 반씨가 선관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모함한다. 이에 위진이 반씨 모자를 죽이려 하지만, 죽은 양 부인과 신령이 나타나 이들을 돕는다. 위진의 위협에서 벗어나 친정에 머물던 반씨는 위진, 위준 형제 내외의 사주를 받은 장씨로 인해 물속에 빠지지만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나 장사에 유배 중인 남편과 상봉한다. 한편, 위홍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죽은 양 부인의 도움으로 채씨의 독살 계획을 피한 그는 황제의 인정을 받는다. 위기에 닥친 채봉 등이 위홍을 모함하는 글을 올리지만, 죽은 외조모의 계시에 힘입은 위홍이 그사이 죄상을 모두 밝힌다. 채씨, 맹씨, 장씨 형제는 죽임을 당하고, 위진, 위준 형제는 북해로 유배를 간다. 이후 남은 위씨와 반씨 일가는 오래도록 부귀와 행복을 누리며 산다.

### 한 줄 요약

- ① 위진이 ( 양 부인 ) 의 유언을 듣지 않고 채씨에게 ( 양 부인 ) 의 부고를 전하려 함.
- ② 대상을 두고 ( 위홍 ) 과 위진 형제가 대립하고 채씨가 집으로 돌아옴.
- ③ 반씨와 위홍 모자가 화를 피해 ( 산중 ) 으로 들어감.

## 375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사죄: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
- 질책: 꾸짖어 나무람.
- 위암: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또는 그 책임.

### 정정·이

- ① 홍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초상 망극 중에 벌써 할머니의 유언을 저버리시니, ~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오며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니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② **사건 왜곡** 채씨는 자신을 본가로 보낸 양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  
 “나는 시대에 득죄하여 본가에 있기로 존고께 통신을 못하니”를 통해 볼 때 채씨가 양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볼 수 없다.
- ③ **사건 왜곡** 반씨는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위진을 질책했다.  
 반씨는 위진의 행동에 반대하는 위홍을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히 어른을 시비하리오.”라며 꾸짖었을 뿐,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위진을 질책하지는 않았다.
- ④ **사건 왜곡** 문중 사람들은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문중 사람들은 위진이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고 장손의 대상을 반대하며 피신하여 더 이상 위진 형제와 논의할 수 없게 되자 귀가한다. 따라서 문중 사람들이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 ⑤ **사건 왜곡** 위진은 위홍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상할 것을 주장했다.  
 위진은 형님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어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했고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위홍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상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 376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홍은 장자인 아버지가 상변을 알고도 발상할 수 없음을 비통해하였다. (○, ×)  
 홍은 “부친이 삼천 리 밖에 계셔 상변을 알지 못하시고 발상도 못하”니 장자 장손인 자신이 발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자인 아버지가 상변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2) **교제** 문중이 떠나자 위진 형제도 홍을 남겨 두고 자리를 피하였다. (○, ×)  
 ‘위진 형제가 큰 소리로 노하여 왈, ~ 하고 일시에 피신하니, 문중이 상의하여 왈, / “상인이 이제 우리를 피하니 더 있어 무엇하리오.” / 하고 상복 입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니’를 통해 위진 형제가 자리를 피한 후 문중이 떠났음을 알 수 있다.
- (3) 채씨는 반씨에게 양 부인의 뒤를 따르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음을 질책하였다. (○, ×)  
 “그대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어찌 존고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지하였느냐.”를 통해 알 수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책망** 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김.
- **동조**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 정.정.이

- ⑤ 흥은 슬픔에 빠진 모친을 위로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씨가 시체를 붙들고 올라 기절하자 흥이 “모친은 진정하사 초상을 극진히 하소서.”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반씨는 채씨가 뒤늦게 돌아온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다.  
반씨는 친정에서 돌아온 채씨가 무수한 욕설을 해도 분함을 참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므로, 뒤늦게 돌아온 채씨를 반씨가 책망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사건 왜곡** 위진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대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위진은 장자인 위윤이 귀양살이로 부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대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사건 왜곡** 위진은 채씨가 친정으로 간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위진은 채씨가 친정으로 간 것이 채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진은 채씨가 상복을 입기 전에 오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꿇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 ④ **교체** 문중은 위진의 말에 **동조**하며 대상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중은 “흥이 비록 어리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이지,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바빠 대상하라.”라고 말하며 흥의 말에 동조하고 흥이 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권위** ①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②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 **정당성**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

## 정.정.이

- ② **부재** ㉠: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은 흥이 다른 어른의 부탁을 듣고 말한 것인지를 의심한 위진에게 그렇지 않다며 답한 것이다. ㉠에서 흥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로,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며 자신이 하려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 위진은 과거에 채씨가 친정에 보내진 것은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낸 것”이라고 하며, 채씨에게 부고를 전하려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에서 위진 형제는 형님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죽지 않았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흥의 말에 대해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흥은 문중과 의견을 달리하며 피신한 숙부의 행동에 대해 “불의를 행”했다고 평가하며, 문중이 모두 귀가한 현재 상황에 대해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라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반씨는 앞으로 자신들이 “독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범위 오류** ㉡과 ㉢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에서 흥은 불의를 행한 숙부로 인해 문중이 모두 흩어진 상황에 대해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에서 반씨는 흥을 불러 자신들이 처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정·정·이

- ① ㉠에는 사건에 대해 인물이 판단한 내용이, ㉡에는 인물이 자신이 판단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에서 위진은 양 부인이 채씨를 친절로 보낸 사건에 대해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채씨를 친절에 보낸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홍은 “말씀이 옳사오면 따를 것이요,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오면 따를 이유 없”다고 하며 자신이 판단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에는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알보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에서 위진 형제는 홍에게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홍을 알보고 있다.

### 380 ㉠ ㉡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사건 왜곡** ㉢: 자신의 부재 중에 일어났던 상황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채씨는 양 부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고 변명하는 동시에 반씨에게 어찌 양 부인을 따라 죽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있을 뿐, 양 부인의 임종의 원인을 반씨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진은 반씨가 상중에 시비를 돌우며 문제를 일으킨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 형님이 부재하므로 본인이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말이 유언과 모두 의견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홍은 위진의 말이 양 부인의 유언이나 문중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 ③ ㉤: 상대방을 꾸짖으며 동시에 다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위진은 홍을 꾸짖는 동시에 홍이 누군가 다른 어른의 부탁을 듣고 말한 것이라고 의심하며 다른 어른을 요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하고 있다.

위진 형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하자 문중이 “더 있어 무엇하리오.”라고 말하며 귀가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정·오 지름길

- ⑤ ㉢: 자신의 부재 중에 일어났던 상황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에서 채씨는 자신이 시택에 득직하여 본가에 가 있었다고 했으므로 양 부인의 죽음은 채씨의 ‘부재 중에 일어났던 상황’이 맞아요. 하지만 양 부인의 죽음의 원인은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고, 채씨가 반씨에게 양 부인의 죽음의 원인을 돌리고 있지도 않으므로 뒷부분의 내용은 틀려요. 즉, ㉢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게 구성된 선지인 것이지요. 따라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에는 내용별로 끊어 읽으며 각 부분이 작품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앞부분만 읽고 성급하게 답을 고르면 오답을 고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381 ㉠ ㉡

#### 정·정·이 & 오·오·이

-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헛집기** 위진이 채씨에게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고 한 것에서,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질서를 따라 상례를 치르려 했음을 알 수 있군.

위진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는 모친 양 부인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채씨에게 부고를 전해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로 보아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상례를 치르려 했다고 할 수 없다.

#### 오·오·이

- ② 위진이 ‘상중에 시비를 돌’운다며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위진이 가권을 차지하는 데 반씨를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상중에 시비를 돌우어 요란하게 하느뇨,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니, 두 번 이르지 말라.”를 통해 위진은 장자의 부재 시 발생한 상례를 통해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방해가 되는 존재인 반씨를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홍이 예문을 근거로 ‘장자 장손이 발상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문중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홍이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군.

홍은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에 당당하옵거늘,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하시나이까.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라고 말하며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근거로 자신이 대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홍은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채씨가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고 홍을 꾸짖는 것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채씨의 욕망이 홍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군.

채씨는 “너는 황구소아라. 무슨 일을 아는 척하고 우리를 원수로 지목하니, 네 그러면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흥을 꾸짖고 있는데, 이는 가권을 차지하려는 자신의 욕망에 흥이 방해가 되어 적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반씨 모자가 ‘산중으로 들어간 것에서, 가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가권이 위진 쪽으로 기울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집안 형세가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두 사람이 주야로 남편을 미혹하게 하여 반씨 모자를 모해하자, 반씨 모자는 화를 피하고자 삼년상을 마친 후에 산중으로 들어갔다. 이로 보아 가권이 위진 쪽으로 기울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82 ㉠ (1) 장자 (2) 위홍, 찬성 (3) 위진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이 작품은 (문중, **장자**)의 부재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권을 두고 벌어지는 세력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장자인 위윤이 귀양을 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모친 양 부인의 상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다루며 가권을 두고 장손인 위홍과 숙부인 위진 형제가 서로 갈등하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 (2) **교체** (위진, **위홍**)은 장자 장손이 발상함이 예문에 당당함을 주장하며 문중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문중은 이에 (**찬성**, 반대)하고 있다.

홍은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에 당당하옵거늘”이라고 말하며 장자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장손이 발상하는 것이 예문에 어긋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의 주장에 문중은 “홍이 비록 어리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이거늘,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바빠 대상하라.”라며 동조하고 있다.

- (3) **교체**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반씨 모자가 화를 피하기 위해 ‘산중으로 들어간 데에서 가권이 (위홍, **위진**) 쪽으로 기울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가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세력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집안의 장자 장손에 해당하는 홍과 반씨가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라면, 위진 형제와 채씨, 맹씨는 가권을 새로이 차지하기 위해 도전하는 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가권을 지키고자 하는 반씨 모자가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권이 위진 쪽으로 기울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383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헛집기** 위진 형제는 위윤의 상황을 ‘장자의 사망’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직접 대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군.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를 통해 위진 형제는 위윤이 죽지 않았으므로 장손인 위홍이 대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진이 위윤의 상황을 장자의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위홍과 위진 형제의 논쟁 상황은 당시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군.

위홍과 위진 형제의 논쟁 상황은 유배가 빈번했던 당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주의 부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위홍이 대상을 두고 문중의 공론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볼 때 가문 공동체의 삶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오며”,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 등과 같은 위홍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반씨와 위홍이 양 부인 묘소에서 삼년상을 마치는 것은 의례적인 예법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반씨와 위홍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부인의 묘소에서 삼년상을 마치는 것은 의례적인 예법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위홍과 위진 형제가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둘 다 예문을 근거로 드는 것을 볼 때 예문에 대한 교조적 태도가 드러나는군.

홍은 예문을 근거로 하여 장자의 부재 상황에서 장손이 대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위진은 예문에 근거하면 장자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장손이 대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문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는 사대부들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1 유씨삼대록

### 작품 분석

본문 182~185쪽

작가 미상

갈래 장편 가문 소설, 가정 소설

주제 유씨 가문 삼대의 이야기

- 특징 ① 유씨 가문 구성원들이 겪는 탄생, 입신, 혼인, 사랑, 시기, 전쟁, 죽음 등의 이야기가 유장하게 펼쳐짐.  
② 순행적 구성에 따라 유씨 가문의 삼대의 이야기를 서술함.  
③ 작품 밖의 서술자가 품위 있는 말투로 대화를 진행하고,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 등을 논평함.

단숨에 읽기 명나라에 사는 유연의 아들 유우성은 이명혜와 혼인하여 아들 유세기, 유세형, 유세창, 유세경, 유세필과 딸 유설영, 유현영, 유옥영을 낳는다. 유우성의 형 유백경은 조카 유세기를 양자로 들어 집안의 종손으로 삼는다. 유세기는 소 소저와 혼인하고, 둘째 아들 유세형은 장순의 딸 장혜영과 약혼한다. 그런데 장혜영과의 혼인 열흘 전 유세형은 부마로 간택되어 진양 공주와 혼인하게 된다. 이에 장혜영은 병을 얻게 되고, 진양 공주는 유세형의 마음을 짐작하고 장혜영을 계비로 봉하도록 한다. 그런데 장혜영이 방자해서 공주를 모함하고, 유세형은 장혜영의 말만 믿고 진양 공주를 박대하여 진양 공주는 태후의 궁으로 떠난다. 이때 왜적이 난을 일으키자 유우성은 유세형과 함께 외적을 물리치고 돌아와 각각 초국공과 진왕으로 봉해진다. 떠났던 진양 공주가 돌아오자 장혜영은 진양 공주를 시기하여 독살하려다가 발각되어 하옥된다. 그러나 진양 공주는 장혜영을 용서하고 함께 화목하게 지낸다. 유세형은 장혜영과의 사이에서 자식 넷을, 진양 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 유관, 유현과 딸 유영주를 낳는다. 유우성이 평화롭게 보내려 할 때 반란이 일어나, 유세창, 유세경과 함께 반군을 물리친다. 유관은 설 소저와, 둘째 아들 유현은 양 소저와 혼인한다. 유현은 장설혜의 미모를 사랑하여 혼인하지만, 장설혜는 양 소저를 모해하다가 쫓겨난다. 유영주는 소경문과 혼인을 하고, 소경문은 호국을 막으려 떠나게 된다. 경문을 보고 반한 호왕은 자신의 딸 양성 공주와 혼인시키려 하지만 경문이 거절하자 그를 가둔다. 양성 공주는 경문을 몰래 도와주고, 유현이 출정하여 호왕에게 항복을 받아 스스로 볼모가 되어 잡혀 온다. 유세형은 천자의 명에 따라 경문과 양성 공주를 혼인시키고, 경문은 장인의 처사가 못마땅하여 유영주를 박대한다. 그러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 유영주와의 금실을 회복한다.

### 한 줄 요약

- ① 백공이 거짓으로 구혼함을 밝혀 (한림(유세기))에 대한 선생 형제의 오해가 해소됨.  
② (한림(유세기))이 소 소저와 백년해로함.  
③ (유세형)의 인물됨이 매우 뛰어난.  
④ 유세형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씨)를 위로하며 애정이 샘솟아 신혼의 정을 나눔.

## 384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전쟁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삽입된 일이다.

한림(유세기)이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은 한림을 문책하고 집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자 백공이 유씨 집

안에 찾아가 곡절을 말하고 선생과 승상은 한림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한림이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내용은 이 글에 나오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백공은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들을 더했고, 이로 인해 한림(유세기)이 꾸지람을 듣고 집에서 내쫓기는 곤욕을 치르게 되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백공이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들을 더한 탓에, 선생과 승상은 한림(유세기)이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겨 한림을 문책하고 집에서 내쫓았다. 이를 통해 볼 때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선생과 승상은 한림(유세기)이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기고 한림을 문책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백공이 한림(유세기)의 특출함을 아껴 자신의 딸의 배필로 삼고자 거짓말로 일을 꾸며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385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가 한림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게 된 일이다. (○, ×)

384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2) **교제** 백공은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의 곡절을 한림에게 직접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자 찾아갔다. (○, ×)

백공이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하고 찾아간 사람은 한림(유세기)이 아니라 유씨 집안의 선생과 승상이다.

- (3) **교제** 백공은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이 <sup>자신</sup>전생과 승상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

백공은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다."라고 말하며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다.

## IV

### 가정·가문 소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장씨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장씨는 자신이 유세형과 먼저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유세형이 부마로 간택되어 공주와 혼인함에 따라 자신이 천대 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오.오.이

- ② **헛집기** 장씨가 유세형에게 처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유세형이 부마가 된 것은 장씨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로 뽑았기 때문이다.

- ③ **헛집기** 장씨가 재장가에 처짐을 온 뒤 한 행동의 결과를 보여 준다.

유세형이 부마가 된 것은 천자가 부마로 뽑았기 때문이므로 장씨의 행동과는 관계가 없다.

- ④ **헛집기** 장씨가 유세형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자신을 좇음을 원망하느냐는 유세형의 물음에 장씨는 “부질없는 말씀” 말라며, 자신의 위에 공주가 계셔서 신세가 구차해진 데다, 시녀들의 비웃음을 사서 슬픈 것이라 답하고 있다. 이로 보아 장씨가 유세형을 원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반** 장씨가 이전부터 예상하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났음을 보여 준다.

장씨가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았겠냐고 말한 데서 장씨는 유세형이 부마가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환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 추장: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 정.정.이

- ④ **헛집기**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B]에서 장씨는 대화 상대인 유세형(유생, 낭군)에게 공주로 인하여 자신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게 되었다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뿐, 유세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A]는 장씨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 부분으로, 대화 상대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오.오.이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에서는 장씨가 마음속에 한이 쌓이게 된 사건, 즉 유세형이 부마가 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B]에서는 장씨가 공주의 위세에 억눌리며 슬픔을 느낀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A]의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와 [B]의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에서 장씨는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A]의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등에서 장씨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구차하게 만든 타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B]에도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와 같은 의문형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타인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A]에서 장씨는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까?’라고 하며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B]에서 장씨는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며 지난 일을 언급하고 자신의 신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부재** [A]와 [B]는 모두 반영적 표현을 활용하여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장씨는 [A]에서는 공주의 아래가 되어 남의 천대를 받을 줄 어찌 알았겠느냐며 신세를 한탄하고, [B]에서는 공주 위에 계서 자신의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다”며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A]와 [B] 모두에 반영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① [A]와 [B]는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장씨는 유세형과 자신이 먼저 백년가약을 맺었으나 유세형이 천자의 부마가 되어 자신이 공주의 아랫사람이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 장씨는 공주의 위세에 놀리고 궁비와 시녀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와 [B]는 모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A]에서 장씨는 공주가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가정하고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고 하며 앞일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라며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389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범위 오류** [가]와 [나]에서는 모두 비유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가]의 ‘아름다운 얼굴은 ~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에서는 유세형의 외양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나]의 ‘연리지와 같은 신흠의 정은 ~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에서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는 유세형과 장씨 간의 정을 묘사한 것일 뿐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① [가]에서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세형의 정체, 외양, 성품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는 과거 사건에 대한 특정 인물의 판단이 드러나고 있다.

③ [나]에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②) 장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였다.(③)’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인과적 서술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에서는 유세형의 인물됨으로 인해 부모가 유세형을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했다는 부분에서, [나]에서는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에서 인과적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390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선지 어휘 낱

• 연마: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 조소: 흥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

❖ 정·정·이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이화정(㉠)에서 장씨는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자신이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한스러움을 토로하였으므로 ㉠은 장씨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씨의 모습을 본 유세형은 장씨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여 이화정(㉡)을 떠나지 않고 신흠의 정을 나누었으므로 ㉡은 장씨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 오·오·이

① **헛집기** ㉠은 학문을 연마하던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던 공간이다. 장씨가 이화정(㉠)에서 학문을 연마하지 않았으며, 이화정(㉡)에서 덕행을 닦지도 않았다.

② **헛집기**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장씨는 이화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하였을 뿐, 불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장씨가 궁비와 시녀들에게 비웃음을 당한 곳은 진양궁이므로 장씨가 이화정(㉡)에서 비웃음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④ **헛집기**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안내하는 공간이다.

장씨는 이화정(㉠)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뿐 계책을 꾸미고 있지는 않다. 이화정(㉡)은 장씨가 외로움을 안내하는 공간이 아니라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헛집기** ㉠은 선후 시비를 따지던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던 공간이다.

장씨가 이화정(㉠)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는 있으나, 일의 선후 시비를 따지고 있지는 않다. 또 장씨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화정(㉡)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다.

391 ㉡ ㄱ, ㄴ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ㄱ. ㉠, ㉡은 모두 장씨와 유세형이 만나는 공간이다.

이화정(㉠)은 난간에 기대어 앞일을 걱정하는 장씨에게 유세형이 다가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공간이다. 또한 이화정(㉡)은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긴 유세형이 장씨와 함께 머무는 공간이므로 적절하다.

- 나. ㉠은 장씨가 슬픔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장씨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이다.

이화정(㉠)에서 장씨는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자신이 천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며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라며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씨의 모습을 본 유세형은 장씨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 듯하여 이화정(㉡)을 떠나지 않고 신혼의 정을 나누어 장씨는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정.정.이 & 오.오.이

- 다. **범위 오류** ㉠은 장씨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공간이고, ㉡은 유세형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명하는 공간이다.

장씨는 이화정(㉠)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며 슬픔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은 장씨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화정(㉡)에서 유세형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변명하고 있지는 않다.

- 라. **범위 오류** ㉠은 장씨가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생각하는 공간이고, ㉡은 장씨가 생각한 계획을 실행하는 공간이다.

'장씨 이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 계획을 골똘히 헤아리자'를 통해 이화정(㉠)은 장씨가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생각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화정(㉡)은 장씨가 유세형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장씨가 생각한 계획을 실행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 392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공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장씨의 원망과 한탄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유세형이 공주와 혼인함에 따라 천대받는 처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장씨는,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자신을 비웃고 시녀들이 자신의 입을 막는다며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진양궁은 공주와 유세형의 혼인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한 장씨의 원망과 한탄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유세형에 대한 공주의 불신이 심화되든 공간이다.

공주가 유세형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 ② **헛집기** 장씨로 인해 유세형이 곤경에 처하게 되든 공간이다.

진양궁은 장씨가 궁비와 시녀들에게 비웃음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공간일 뿐이며, 장씨로 인해 유세형이 곤경에 처하고 있지도 않다.

- ③ **헛집기** 유세형이 공주의 처지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든 공간이다.

유세형이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공간은 진양궁이 아니라 이화정이며, 연민의 대상도 공주가 아니라 장씨이다.

- ④ **교체** 장씨가 자신에 대한 유세형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명하든 공간이다.

자신을 좇음을 원망하느냐는 유세형의 물음에 장씨는 유세형이 부마가 된 후 외롭고 신세도 구차해져 슬프지만, 유세형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는 진양궁이 아니라 이화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393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것은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하여 가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백공의 거짓말로 인해 발생한 일로, 유세기가 가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또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하게 된 것은 장씨의 이야기를 들은 유세형이 장씨를 가련하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오.이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과 승상이 유세기를 꾸짖고 집에서 내쫓은 이야기, 유세형이 부마가 됨에 따라 장씨가 한스러움을 느낀 이야기는 모두 가문의 혼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선생과 승상은 유세기의 혼사 문제와 관련하여 유세기를 꾸짖고, 백공의 곡절을 들은 후에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선생과 승상 등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백공은 유세기를 딸의 배필로 삼고자 거짓말로 일을 꾸밈고, 천자 역시 유세형을 부마로 뽑았다. 이는 혼인의 당사자가 아닌 혼인 당사자의 부친이 혼사를 주도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유세기는 선생과 승상의 명령을 받들어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였다. 이를 통해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하여 곤욕을 치른 일이 해소되고, 유세기와 관련된 혼사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94 ㉮ (1) 혼사 (2) 가문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질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입산: 세상에서 떳떳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위를 확고하게 세움.
- 파생: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

### 정.정.이

- (1) **교제**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는 가문의 (혼사 입신) 와/과 그로부터 파생된 갈등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는 혼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 (2) **교제** 유세기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데서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 국가) 차원의 문제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 판소리계 소설·판소리

### 42 심청전

② 본문 188~191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주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

특징

- ①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나타냄.
- ②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 등을 제시함.
- ③ 심청의 자기희생과 효행을 통해 고귀한 신분에 오르는 인과응보의 주제 의식을 드러냄.
- ④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가 담겨 있음.

**단숨에 읽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여읜 심 봉사의 딸 심청은 젖동냥으로 어렵게 자신을 키워 준 아버지를 극진하게 봉양한다. 어느 날 공양미 삼백 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심 봉사는 시주를 약속하고, 이를 알게 된 심청은 공양미를 구하기 위해 남경 선인에게 자신을 인당수의 제물로 판다. 인당수에 빠진 심청은 용왕에 의해 구출되어 연꽃에 싸여 물으로 떠오른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천자는 심청을 황후로 맞이한다.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마련하고, 심 봉사는 행실 나쁜 뽕덕 어미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우여곡절 끝에 맹인 잔치에 겨우 도착한다. 심 봉사는 황후가 된 심청과 재회하여 눈을 뜨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 한 줄 요약

- ①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를 정만하기 위해 심청이 자신을 뺏사람들에게 팔.
- ② 죽음을 앞두고 심란한 심청이 혼자 아내가 될 아버지를 위해 (의복)을 미리 준비함.
- ③ 심청을 다시 만난 심 봉사가 (눈)을 뜬다.

## 395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질기 ☐ 교제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단초: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게.

### 정.정.이

- ⑤ **헛질기** '심 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 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심청은 공양미를 얻은 방법을 아버지께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짓말은 심청의 내적 갈등과 관련된 것일 뿐, 심청과 심 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심청'과 '뺏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심청의 말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를 통해, 심청이 아버지께 한 거짓말(㉠)로 감추려고 한 사건이 자신을 팔아 공양미를 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를 통해 심청이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 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 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심청이 장 승상 댁 노부인의 수양딸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자, 심 봉사는 그 자제들인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간 사실을 말하며 고마워한다. 이를 통해 심 봉사가 장 승상 댁 부인을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심 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 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청의 거짓말(㉠)을 들은 심 봉사가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 승상 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라.”라고 답한다. 이로 보아 심 봉사가 심청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96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 교체 심청은 <sup>아버지</sup>뱃사람들과의 친분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다. (○, ×)

심청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버지 심 봉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이지 뱃사람들과의 친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나는 이 동네 사람이려니”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뱃사람들과 심청이 친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심 봉사는 거짓말을 전후하여 감정에 변화를 보였다. (○, ×)

심 봉사는 공양미를 구했다는 말에 처음에는 놀랐다가 심청이 거짓말로 장 승상 댁 수양딸로 가게 되면서 받은 것이라고 하자 반겨하며 기뻐하였다. 이를 통해 심 봉사의 감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3)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얻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 ×)

심청이 ‘잠깐 거짓말로 속여’ 장 승상 댁 노부인이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에서, 공양미를 얻게 된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9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뱃사람들은 심청의 제안을 듣고 그 효성에 감동하여 바로 공양미를 몽운사에 보냈다.

뱃사람들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는 심청의 사연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이를 허락하고 즉시 쌀을 몽운사에 보냈다.

#### 오.오.이

- ① ☒ 사건 왜곡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고 심 봉사를 속였다.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구한 방법을 들키지 않고자 심 봉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② ☒ 사건 왜곡 심청은 몽운사에 공양미를 보낸 빛을 갠 위해 살 틈 없이 품팔아 하였다.

심청이 제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한 것이므로 갠 빛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후에 심청이 춘추동 의복을 미리 준비한 것은 빛을 갠 위해서 한 품팔이가 아니라, 혼자 남겨질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다.

- ③ ☒ 상반 심 봉사는 심청에게 공양미를 구하게 된 경위를 듣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었다.

심 봉사는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다는 말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심청이 장 승상 댁 수양딸로 가게 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심 봉사가 심청에게 공양미를 구한 방법에 대해 듣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 사건 왜곡 장 승상 댁 노부인은 공양미를 구하는 심청의 사연을 듣고 심청을 수양딸로 삼아 도와주었다.

장 승상 댁 노부인이 심청을 수양딸로 삼아 도와주었다는 것은, 심청이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

### 398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심 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 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황후는 용궁에서 삼 년 지낸 후라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처자가 있는지 질문하고 심 봉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부친임을



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 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로 보아 심청은 심 봉사를 반기는 반면, 심 봉사는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별전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사건 왜곡** '심 봉사'가 부인과 일찍 **자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 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심 봉사는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와 같이 부인과 일찍 사별하였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사건 왜곡** '심 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심 봉사는 효행이 출천한 딸이 자신 모르게 인당수의 제물로 몸을 팔아 공양미를 구했으나, 자신은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음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심 봉사가 딸의 의지와 무관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⑤ **교체** '심 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 봉사'의 발언이 **끝나자**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라고 말한 장면으로 보아, 심청은 아버지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이 딸임을 밝혔음을 알 수 있다.

399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심 봉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데서 죄책감과 슬픈 심리를, 심청이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라고 말하는 데서 기쁘고 반가운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 ㉡. 인물 간의 문답에서 주인공이 떠난 후의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황후가 된 심청의 질문에 심 봉사가 살아온 내력을 말하고 있는데,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한 것에서 심청이 떠난 뒤에도 심 봉사가 눈을 뜨지 못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오.오.이

- ㉠. **헛집기** 불교적 소재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이 글에는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는 불교적 소재가 나타나 있지 않다.

400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부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사적 흥미를 높이고 있다.

이 글에는 죽음을 앞둔 심청의 내적 갈등이 중점적으로 나타날 뿐, 인물 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지 않다.

❖ 오.오.이

- ① 관용적 표현으로 인물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심청이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관용적 표현을 통해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심청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죽음을 앞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비극미를 고조하고 있다.

눈 어두운 아버지와 이별하고 죽을 일을 앞둔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춘하추동 옷을 미리 준비하고,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대어 보고 손발을 만지는 등의 모습에서 비극미가 고조되고 있다.

- ④ 편집자적 논평으로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나.' 등에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심청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 ⑤ 주인공의 효행을 보상함으로써 권선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심청은 효에 대한 보상으로 살아 돌아와 황후가 된 뒤 아버지를 상봉하고 아버지의 눈도 뜨게 되었으므로, 효행을 권하는 권선의 세계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01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미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 **직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 **자책**: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정.정.이

- ③ **헛집기**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은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고 한 것은 효를 실천하려는 심청의 의지가 드러난 말로,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은 혼자 남겨질 아버지를 위해 심청이 의복을 미리 준비하고, 주무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흐느끼며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보는 장면 등에서 나타난다.

오.오.이

-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심청은 아버지와 영영 이별하고 죽을 것을 근심하다가도 '열덜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하고 다시 생각하고 홀로 남을 아버지를 위해 의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보아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심청은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홀로 있게 될 아버지를 위해 의복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심 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 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서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는 황후 앞에서 심 봉사가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다며 자신을 죽여 달라고 자책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심 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심 봉사의 말을 다 들은 황후가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심 봉사가 뜻밖에 눈을 뜨게 된다. 이는 모순된 상황으로 인해 지연된 결말이 극적인 효

과를 자아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정.이 지름길

-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 문제는 「심청전」에 나타난 두 가지 모순적 상황을 제시된 장면과 대응해 보는 문제예요. 각 선지에서 인용된 구절이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돼요. 이때 ③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과 같이 두 요소를 비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다는'의 앞뒤를 서로 바꾸거나, 같은 성질을 다른 것처럼 제시하여 오답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점을 예상하고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요.

402 **답** (1) 모순적 (2) 자책 (3) 지연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교체** 심청은 자신의 효로 인해 발생할 (**모순적** 반어적)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심청은 아버지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가느라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춘하추동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면서 혼자 남게 될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다.

- (2) **교체** 심 봉사는 자신의 개안을 위해 심청이 희생된 상황에 대해 (회피, **자책**)하고 있다.

심 봉사는 자신 때문에 공양미 삼백 석에 팔려 간 심청의 이야기를 하며,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 (3) **교체** 심 봉사의 뒤늦은 개안은 결말의 (**지연** 단축)을 위해 설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403 **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강**

- **속좌**: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앴.
- **생계**: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 = 생애.



정.정.이

- ⑤ **헛집기** '그 자리 맹인들이 심 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떠지는 것은 **심 봉사가 속죄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 할 수 있군.

〈보기〉를 통해 심 봉사의 개안은 심청의 효행에 대한 보상임을 알 수 있다. 그 덕분에 주변의 맹인들도 모두 눈을 뜬 것일 뿐, 이를 심 봉사가 속죄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볼 수 없다.

오.오.이

- ①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은 심청이 자신이 바라는 효를 실행하기 힘든 생계 조건을 타고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바쳐야 하나, 형편이 가난하여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은 〈보기〉에서 언급된 심청이 바라는 효를 실행하기 힘든 생계 조건에 해당한다.

- ② 심청이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뱃사람들에게 '내 몸을 팔려 하'는 장면은 심청이 희생을 해결책으로 선택하였음을 보여 주는군.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뱃사람들에게 팔았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심청이 황후가 되어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는 장면은 가정을 회복하는 효행 영웅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군.

황후가 된 심청이 부친을 안는 모습은 효행의 과정에서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가정을 회복하는 효행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심 봉사가 심청과 재회하여 '두 눈이 활짝 밝'아지며 개안한 것은 심청의 효행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심 봉사는 심청과 재회하여 개안하게 되었는데, 이는 〈보기〉에 언급된 것처럼 효행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반영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43 배비장전

작품 분석

본문 192~195쪽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주제 위선적인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

- 특징 ① 신분 질서가 무너진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반영함.  
② 해학적인 상황 설정과 재담 구조의 반복이 나타남.  
③ 판소리 사설체가 쓰이는 등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 있음.

**단숨에 읽기** 제주 목사의 비장이 되어 제주에 도착한 배 비장은 전임 목사의 정 비장이 기생 애랑과 이별하며 자신의 짐은 물론 이까지 빼 주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 그리고 애랑을 두고 방자와 내기를 하게 된다. 배 비장이 기생과 술자리를 멀리하자 애랑과 방자는 계교를 꾸미고, 애랑의 유혹에 넘어간 배 비장은 애랑을 만나러 집을 찾아간다. 이때 방자가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치자 놀란 배 비장은 애랑이 시키는 대로 궤에 급히 숨는다. 방자는 궤에 든 배 비장을 희롱한 후, 목사와 여러 아전들 앞으로 운반한다. 뱃사공으로 가장한 사람들이 궤를 열어 주자 바다 위에 던져진 줄 안 배 비장이 알몸으로 허우적거리며 나와 온갖 망신을 당한다. 창피를 당한 배 비장은 서울로 돌아가고자 물으로 가는 배에 숨어 들어갔다가 애랑을 다시 만나고 뒤에 정의 현감의 관직에 올라 선정을 베푼다.

한 줄 요약

- ① 계집에게 (반말)을 했다가 타박을 받은 배 비장이 (말공대)를 올려 다시 말하려 함.  
② 배 비장이 공대하며 묻자 계집이 서울로 가는 (배편)을 알려 줌.  
③ 배 비장이 (부모 병환)을 핑계 삼아 공손하게 부탁하자, 뱃사공이 (배)를 태워 주겠다고 함.

## 404 ㉠ ④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 ④ **헛집기**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색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낮선 여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사공이 배 비장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해남으로 가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린 배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공은 배 비장의 반말에 비위가 틀렸을 뿐, 그가 낮설어서 경계한 것이 아니다.

오.오.이

- ① '계집'은 '배 비장'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양반답지 못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계집은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라며 양반답지 못한 배 비장의 태도를 비판하였다.

- ② '배 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

계집이 "성함은 뉘시오니까?" 하고 묻자, 배 비장은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이라며 바로 답하기를 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③ '계집'은 '배 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넌으로써 그가 궁금해했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로 가는 배가 다 떠났음을 안 배 비장이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라며 계집에게 또 다른 방법을 간절하게 묻자, 계집은 "언덕 밑에 포장 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저녁 물에 떠난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⑤ '사공'은 '배 비장'의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보여 주고 있다.

배 비장이 사공에게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며 자신의 다급함을 설명하자, 사공이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라고 말하며 부인 모르게라도 슬며시 태워 주겠다고 하였다.

## 405 ㉡ (1) 반말 (2) 해남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교체** 계집과 사공은 초면에 자신에게 (명령,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을 못마땅해하였다.

배 비장이 자신을 하대하자 계집이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여?"라고 말하는 장면과, 배 비장의 반말에 사공이 '비위가 틀려' 반말로 대꾸하는 장면을 통해 계집과 사공이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을 못마땅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교체** 급하게 배편을 찾는 배 비장에게 계집은 (서울, **해남**)으로 가는 배편을 알려 주었다.

배 비장이 급한 일이 있다며 서울로 가는 배를 묻자, 계집이 제주 성내에 사는 한 부인이 친정인 해남에 급히 갈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는 정보를 알려 주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406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③ **헛집기** 계집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말하기 방식과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계집에게 면박을 받은 배 비장은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서울로 가는 배편을 물을 다른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고 말공대를 올려 다시 물은 것이다. 이를 배 비장이 자신의 말하기 방식과 태도를 반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오.이

① 다급한 처지를 강조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배 비장은 계집과 사공에게 "부모 병환"으로 급히 서울로 가야 한다는, 다급한 처지를 강조하며 서울 가는 배편을 알려 달라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대해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계집과 사공에게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무례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말하기 방식을 바꾸어 현재의 공간을 떠나고 싶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배 비장은 초면에 반말을 했다고 계집에게 면박을 듣고 부끄러움과 분함을 느끼면서도 다시 배편을 알아보기 위해 계집에게 사과를 하고 말공대를 올려 다시 말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하루빨리 제주도를 떠나고 싶은 그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⑤ 자신의 정체는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일로 제주도에 왔으며 성함이 무엇이라는 계집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서울로 가는 배편이 있는지를 묻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 40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여보시오**

자신의 반말에 계집이 불쾌해하자, 배 비장이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공대를 올려 다시 말한 것이므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한 표현에 해당한다.

㉢ **노형**

자신의 반말에 사공도 반말로 답하자, 배 비장이 자신의 실수를 자각하고 사공을 '노형'이라 공대하며 부른 것이므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한 표현에 해당한다.

### 오.오.이

㉠ **헛집기** **여보게**

배 비장이 처음 보는 계집을 하대하여 부른 말이다. 계집은 이 말을 듣고 배 비장이 예의염치도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 **헛집기** **야사람**

배 비장의 질문에 계집이 답하지 않자, 책망하며 부른 말



이므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㉔ **헛집기** 어이

배 비장이 처음 보는 사공을 하대하여 부른 말이다. 사공은 이러한 배 비장의 말에 '비위가 틀'렸다고 하였으므로,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 408 ㉔ ㄹ, ㅁ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ㄹ.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ㅁ.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사공을 공대하여 '노형'이라 칭하고 청자에게 공대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와(ㄹ), 서술이나 의문에 공손함을 더하여 주는 어미 '-오-'와 상대를 보통으로 높이는 하오체의 종결 어미 '-ㅁ시다'를(ㅁ)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말공대를 높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ㄱ. **헛집기** "히히 대가 금년 신수 불길하다"

계집의 타박을 듣고 배 비장이 혼자 자탄하며 한 말로, 말공대를 높인 표현이 아니다.

ㄴ. **헛집기** "어미, 뱃사공아 누구여?"

사공을 하대하여 '해라'체로 표현한 것이다.

ㄷ. **헛집기** "말 좀 물어보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반말로 하자니 사공도 배 비장에게 반말로 받아치는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은 것으로 말공대를 높인 표현이 아니다.

## 409 ㉔ ㉕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강**

• 우월감: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느낌

정.정.이

㉔ ㉕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㉕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소한다.

배 비장은 계집에게 양반이 물었는데 왜 대답이 없냐고 책망(㉔)하였다가 오히려 면박을 당하였으므로, 책망은 계집과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배 비장은 사과하면서 상대를 공대하고 수작(㉕)을 함으로써 계집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있으므로 갈등을 해소한다고 볼 수 있다.

오.오.이

㉔ **교체** ㉔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발화이고, ㉕는 **문제 제기**를 위한 발화이다.

책망(㉔)은 배 비장이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 계집을 지적한 것이므로 문제 제기를 위한 발화로 볼 수 있다. 한편 수작(㉕)은 배 비장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한 것이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화로 볼 수 있다.

㉔ **교체** ㉔에서 주인공은 **분함을 감추고 있고**, ㉕에서 주인공은 **우월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배 비장이 계집을 책망(㉔)할 때, '분해서 목소리를 돋우어' 말했다고 하였으므로 분함을 감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반이 물으면"이라는 말로 보아 우월감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배 비장이 수작(㉕)을 할 때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분함을 참고 계집에게 사과를 하고 말공대를 올려 말하고 있으므로 우월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㉔ **범위 오류** ㉔는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발현된 것이고, ㉕는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책망(㉔)은 양반이라는 신분에 기대어 초면임에도 계집에게 반말한 것으로, 남을 업신여기는 배 비장의 태도가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작(㉕)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집을 공대하며 말한 것일 뿐, 배 비장이 잘못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 아니다.

㉔ **범위 오류** ㉔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주인공의 시각이 드러나고, ㉕에서는 **주인공에 대한 상대방의 시각이 드러난다**.

책망(㉔)과 수작(㉕)은 모두 배 비장의 언행으로, 각각 계집에 대한 언짢음과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계집의 말을 따르려는 배 비장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㉔와 ㉕ 모두 상대방에 대한 주인공의 시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410 ㉔ ㉕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정.정.이

㉔ 주인공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사오 일을 기다려야 서울로 가는 배가 다시 뜬다는 말에, 다른 방법을 물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이 배는 배 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오.이

㉔ **사건 왜곡** 주인공이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는 공간이다.

배 비장이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창피하여 서울로 돌아가려 한다는 앞부분 줄거리의 내

용으로 보아, '부모 병환'은 배 비장이 서울로 가는 배를 얻어 타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배 비장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서 부모 병환 소식을 들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교체** 주인공을 태우고 <sup>부인 한 분</sup> <sup>해남</sup>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되었다.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를 통해 배 비장을 위해 이 배를 급히 준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④ **사건 왜곡** 주인공이 경제적 보상을 ~~내세우며~~ 타고자 하는 것이다.  
 사공이 배 승선을 거절하자, 배 비장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며 ‘적선’을 베풀어 달라고 사정할 뿐, 경제적 보상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 ⑤ **사건 왜곡** 주인공이 ~~행객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 한다.  
 배 비장은 ‘이물 구석에 조용히 끼어 가게 하여’ 달라고 사정할 뿐, 다른 행객을 데리고 타려고 하고 있지 않다.

## 411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제주 관내의 부인이 친정에 가려고 빌린 것이다.  
 계집의 말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를 통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본래 제주 관내의 부인이 비싼 값을 주고 빌린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계집이 배 비장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계집은 당일에 물으로 가는 배편에 대해 자신이 아는 정보를 알려 주었을 뿐, 배 비장을 위해 배를 준비하지 않았다.
- ③ **사건 왜곡** 배 비장이 식구들과 함께 부모님을 ~~보러~~ 가기 위해 타려는 것이다.  
 배 비장은 제주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창피를 당하여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지, 식구들과 함께 부모님을 보러 가기 위해 배를 타려는 것이 아니다.

## 412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게 되어 ~~미련을 갖는~~ 공간이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배 비장이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창피하여 하루빨리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섬(㉡)에 미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주인공이 거짓말이라도 해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공간이다.  
 배 비장이 거짓말로 부모 병환을 핑계로 대며 당일에 배를 얻어 타고자 노력하는 장면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주인공이 궂에 넘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공간이다.
- ⑤ 주인공이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왔다가 후회하게 되는 공간이다.  
 부모의 만류도 듣지 않고 고집을 세워 제주도에 왔다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난처한 상황에 빠짐으로써(㉡)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도처마다 망신을 당했다고 후회하는(㉤) 장면으로 보아 적절하다.
- ③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에 기대어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 공간이다.  
 배 비장이 서울 양반이라고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하는 장면으로 보아 적절하다.

## 41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경직**: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하게 됨.
- **알보고**: 실제보다 낮추어 깔보고.

### 정.정이

- ④ **헛집기**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 비장의 모습에서, 그가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소?”라는 배 비장의 말은 사오일을 기다려야 서울 가는 배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실망한 배 비장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되물은 것이다.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 비장의 행위에서, 그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보기>에 따르면 배 비장은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였다. 배 비장이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라고 말한



부분은 계집의 비판을 듣기 전이므로, 여기에서는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지닌 배 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 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배 비장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과 경직된 관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하대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배 비장의 생각에서, 그가 계집의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고.
- 배 비장은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를 하고 말공대를 올려 다시 물어보았다. 이는 배 비장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된다.

- ⑤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한 배 비장의 발언에서, 그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배 비장의 질문에 사공도 반말로 답하자, 배 비장은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음을 깨닫고 있다. 이는 우월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

#### 414 ㉠ (1) ○ (2)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짓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배 비장은 신분에 따른 우월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들을 존중하는 경험 덕에 칭송받는 현감이 되었다. (○, ×)  
 <보기>에서 배 비장이 제주도에 남아서 현감에 올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된 것은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상반** 배 비장의 신분에 대한 경직된 관념은 제주도에서 **확고해졌다**. (○, ×)  
 <보기>에서 배 비장은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서울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때의 변화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생긴 것이므로, 신분에 대한 경직된 관념이 확고해진 것이 아니라 유연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44 응고집전

본문 196~199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송사 소설

주제 인간의 참된 도리, 개과천선

- 특징 ① 악인이 개과천선하며 끝나는 전형적인 고전 소설의 구조를 지님.  
 ②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과 유교의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함.  
 ③ 「장자못 설화」, 「둔갑한 쥐 설화」가 판소리를 거쳐 소설로 정착됨.

단숨에 읽기 웅진 고을에 사는 응고집은 성질이 고약하고 인색하여 거지나 중이 오면 때려서 쫓아내고 늙은 모친을 돌보지 않는다. 이에 도술이 능통한 도승이 응고집을 징벌하기 위해 허수아비로 짚 응고집을 만들어 보내고, 둘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며 다툰다. 가족들도 진짜를 판별하지 못하자 둘은 관가에 가서 송사를 한다. 참응고집은 호적을 묻는 사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여 패소하고 쫓겨난다. 짚 응고집은 참응고집의 재물과 곡식을 풀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전걸식하던 참응고집은 이 소식을 듣고 분해하며 마을을 찾아가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안 짚 응고집이 참응고집을 불러와 잘못을 지적하며 개과하라고 말한 뒤 허수아비로 변한다. 이에 참응고집은 잘못을 반성하고 이날부터 새사람이 되어 널리 인심을 전하며 산다.

### 한 줄 요약

- ① 참응고집과 짚 응고집이 누가 진짜인지 가리기 위해 (송사)를 하러 감.  
 ② (짚 응고집)이 참응고집 행세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  
 ③ 짚 응고집의 훈계를 듣고 잘못을 뉘우쳐 새사람이 된 (참응고집)의 (인심)이 만민세에 전해짐.

## 415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짓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송사 가는 이의 답답한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드러난다.  
 '참응고집이 짚 응고집을 본즉 ~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 응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등에서 자기 행세를 하는 짚 응고집을 보며 참응고집이 기막혀하는 심정이 서술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송사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음**이 밝혀진다.  
 "어떠한 놈이 왔으되 용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응고집이라 하기로, ~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로 보아, 참응고집과 짚 응고집이 진짜를 가리기 위해 송사하러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송사의 원인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
- ② **사건 왜곡** 송사 결과에 대한 행인들의 **장만된 예측**이 제시된다.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와 같은 반응으로 보아, 행인들이 송사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사건 왜곡** 송사 가는 이들 간에 **저로써 비방하는 대화**가 이어진다.  
 송사 가는 길에서 짚 응고집은 행인에게 말을 걸고, 참응

고집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막혀할 뿐,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

- ⑤ **부재** 송사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의 **외양**이 묘사된다.

두 웅고집이 송사 가는 길에 행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 416 **답**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짚 웅고집과 참웅고집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 송사하러 가고 있다. (○, ×)

웅고집 앞에 가짜 웅고집이 나타나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는 앞부분 줄거리와, 짚 웅고집의 말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로 보아, 웅고집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송사하러 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사건 왜곡** 참웅고집은 대화 중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직접 토로하고 있다. (○, ×)

[A]에서 참웅고집은 지나가는 행인마다 자기가 할 말을 먼저 하는 짚 웅고집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을 뿐, 자신의 답답함을 직접 토로하지 않았다.

- (3) 행인들은 참웅고집과 짚 웅고집의 외양이 동일하다고 여기고 있다. (○, ×)

행인들의 말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를 통해 행인들이 참웅고집과 짚 웅고집의 외양을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7 **답**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변모 모양이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바뀔. 또는 그 모양이나 모습.

### 정.정.이

- ② **부재**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역전적 구성에 의한 사건의 입체적 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 오.오.이

- ①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전기성이 드러난다.

‘짚 웅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웅고집 온 줄 알고’,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등에서 비현실적 상황 설정으로 인한 전기성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짚 웅고집은 참웅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도술이 보낸 존재이다.

“우리 절 도술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 아무쪼록 개과하라.”라는 짚 웅고집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인물이 자기 생각을 직접 나타내고 있다.

짚 웅고집의 말 “나를 몰라볼소냐.”, “어찌 아니 보내는가.”, “혹 흑백을 가릴소냐.” 등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송사를 소재로 하여 그 결과에 따른 인물의 변모를 보여 주고 있다.

참웅고집은 송사 전에는 천여 석을 가진 거부였으나, 송사에 패한 뒤 집에서 쫓겨나 전전걸식하게 되었다. 이후 짚 웅고집의 가르침으로 개과천선하였으므로, 송사의 결과에 의한 인물의 변모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18 **답**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㉔: ‘짚 웅고집’은 ‘참웅고집’의 거동을 수상하여기고 있다.

㉔ 이후에 짚 웅고집이 참웅고집을 데려오게 하여 혼계를 하는 것으로 보아, ㉔은 짚 웅고집이 참웅고집을 개과시키기 위해 그의 거동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일 뿐, 참웅고집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㉑: ‘마누라’는 집에 돌아온 이를 ‘참웅고집’으로 알고 있다.

집에 돌아온 짚 웅고집이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자 마누라가 ㉑과 같이 말한 것으로 보아 집에 온 이를 참웅고집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㉒: ‘참웅고집’은 ‘짚 웅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전전걸식하던 참웅고집은 짚 웅고집이 활인 구제한다는 말을 듣고 분해하며 ㉒과 같이 말하였다. 이로 보아 참웅고집이 짚 웅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④ ㉔: ‘참웅고집’은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서러워하고 있다.

참웅고집은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다가 차마 못 들어간 채 ㉔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서러워하고 있다.

- ⑤ ㉕: ‘참웅고집’은 ‘사환들’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사환들이 짚 웅고집의 분부대로 참웅고집을 찾아가 집에 가자고 하자, 참웅고집은 ㉕과 같은 말로 거절 의사를 표하고 있다.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아들들은 송사에서 이기고 돌아온 짚 옹고집을 진짜 아버지로 여겼다.  
 짚 옹고집이 송사에서 이긴 내력을 말하자 못 아들이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재를 보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 ㉡. 짚 옹고집은 도술을 통해 쫓겨난 참옹고집이 집 근처에 온 것을 알았다.  
 ‘짚 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로 보아 적절하다.

## 오.오.이

- ㉢. **헛집기** 참옹고집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환들의 행동 때문에 슬퍼하였다.  
 ‘사환들이 바로 가서 엉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로 보아, 사환들이 참옹고집을 무시하지 않고 예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참옹고집은 사환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처지가 가엽게 느껴져 슬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교체** 짚 옹고집은 재물을 마음대로 쓰는 **참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참옹고집은 짚 옹고집이 자신의 재산으로 할인 구제한다는 말을 듣고 분해하며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인고.”라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참옹고집이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는 짚 옹고집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420 **㉠** ㉠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 짚 옹고집이 참옹고집의 평소 모습과 반대로 한 행동이다.  
 [B]에서 짚 옹고집은 평소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했던 참옹고집과 반대로 재물을 풀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 오.오.이

- ㉠ **헛집기** 참옹고집이 그 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한 행동이다.  
 [B]의 행동은 짚 옹고집이 한 것이며, 이때 참옹고집은 아직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뉘우친 상태도 아니다.
- ㉡ **헛집기** 짚 옹고집이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한 행동이다.  
 [B]에 제시된 짚 옹고집의 행동은 송사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에게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한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언행은 참옹고집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

- ㉣ **헛집기** 짚 옹고집이 송사에서 진짜로 인정받기 위해 한 행동이다.  
 [B]의 행동은 송사에서 이긴 짚 옹고집이 집에 돌아와서 한 것이므로, 송사에서 이기기 위해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 **헛집기** 짚 옹고집이 참옹고집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행동이다.  
 [B]의 행동은 짚 옹고집이 참옹고집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참옹고집이 집을 찾아오고 짚 옹고집은 훈계를 한 후 찰벼 짚 묶음으로 돌아갔으므로, 참옹고집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421 **㉠** ㉠

##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어휘

- 소와: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 정황: 일의 사정과 상황.
- 이행: 실제로 행함.

## 정.정.이

- ㉠ **헛집기**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짚 옹고집’을 통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송사에서 이긴 짚 옹고집의 기쁨이 나타난 말일 뿐, 참옹고집이 송사 이전부터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다고 말한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짚 옹고집’을 통해 언급됨을 알 수 있군.
- 짚 옹고집이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여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외면했던 참옹고집의 행적이 나타난다.
- ㉢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데에서,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 옹고집’을 통해 이행됨을 알 수 있군.
- 송사에서 이긴 짚 옹고집은 계속 참옹고집 행세를 하며 재물과 곡식을 흠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참옹고집의 책무가 짚 옹고집을 통해 이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 ‘짚 옹고집’이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줄 수 있을 만큼 ‘참옹고집’

의 재물이 많았다는 데에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 확인되는군.

짚 옹고집이 환인 구제한다는 말에 구름 모이듯 모인 거지들과 각 절 유걸 승들에게 '백 냥 돈 천 냥 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참옹고집의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을 연상시키는 참옹고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⑤ '참옹고집'이 '짚 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전전걸식'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을 겪는 '참옹고집'의 처지가 확인되는군.

부모를 박대하고 유걸 산승을 욕보였던 참옹고집은 송사에서 저 짚 옹고집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집을 떠나 전전걸식하며 살아간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여 겪게 된 것으로,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422 (1) 책무 (2) 배제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짚 옹고집의 구제 활동은 조선 후기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 권리)와 연결된다.

짚 옹고집은 참옹고집을 대신하는 인물로, 참옹고집에게 깨우침을 준다. 따라서 짚 옹고집이 하는 구제 활동은 조선 후기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 (2) **교체** 참옹고집이 송사에서 지고 집에서 쫓겨난 장면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배제** 소환)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참옹고집이 부모와 유걸 산승 등을 외면한 죄로 송사에서 지고,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벌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423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인과응보**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 행과 불행이 있는 일.

### 정.정.이

- ③ **헛집기** 짚 옹고집이 송사하러 가다 만난 사람들에게 돈 오십 냥, 선자

스물닷 말을 갚으라고 하는 데서 ~~물질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짚 옹고집이 송사하러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돈 오십 냥, 선자 스물닷 말을 갚으라고 말한 것은 참옹고집인 척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물질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짚 옹고집은 참옹고집이 실현했어야 할 인간의 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짚 옹고집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윤리 의식의 회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두 옹고집이 송사를 하러 가는 것은 참옹고집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군.

참옹고집은 송사에 진 뒤 집에서 쫓겨났다가 짚 옹고집의 훈계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과천선한다. 이를 통해 무력으로 참옹고집을 징계하는 대신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에 송사가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참옹고집이 개과천선하며 인심을 주장하게 된 것에서 이 작품이 윤리 의식의 회복과 조화로운 사회 질서의 성립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참옹고집이 개과천선하며 남을 도우며 살게 된 것은 반사회적 인물이었던 참 옹고집이 윤리 의식을 회복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 질서가 성립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⑤ 참옹고집이 부모를 박대하거나 유걸 산승을 욕보였던 과거를 짚 옹고집이 꾸짖는 장면에서 유교의 효 사상과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이 조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짚 옹고집이 참옹고집을 꾸짖으며 부모를 박대하고 유걸 산승을 욕보인 죄로 행실을 징계한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유교적 효 사상과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 45 홍부전

### 작품 분석

본문 200~203쪽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빈부 간의 경제적 갈등

특징 ① 판소리 사설체가 두드러지고 인물의 회화화가 나타남.  
②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됨.  
③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따라 나타난 신흥 부농층과 몰락 양반 간의 갈등을 다룸.

단숨에 읽기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의 접경에서 사는 연 생원에게는 욕심 많은 아들 놀부와 착하고 성실한 아들 홍부가 있었다. 놀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홍부를 쫓아내고 유산을 독차지한다. 가난하게 살던 홍부는 놀부의 집으로 음식을 구하러 가지만 매만 맛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 매품팔이를 한다. 그러던 어느 봄날 우연히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 주고, 다음 해에 제비가 몰려다 준 박씨를 심어 큰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후 고쳐 주고, 제비에게서 받은 '보수표'라는 글자가 새겨진 박씨를 심는다. 그러나 놀부의 박에서는 보물 대신 거지와 요물 등이 나와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놀부는 패가망신한다. 홍부는 놀부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섬기고, 이에 감복한 놀부는 개과천선하여 홍부와 함께 산다.

### 한 줄 요약

- ① 홍부 아내가 홍부에게 (음식)을 얻어 오도록 요구함.
- ② 놀부가 음식을 얻으러 온 홍부에게 (호령)하여 홍부의 부탁을 (거절)함.
- ③ 놀부가 겨울부터 (제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림.
- ④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다가 고쳐 주고, 제비는 강남 황제에게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박씨)를 받음.

## 424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해학적: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
- 역동적: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 정.정.이

③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 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헌 망건과 떨어진 옷 등을 걸친 홍부의 외양과 행동거지를 열거함으로써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도로 가난한 홍부의 형편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운문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에서 '편자 없는 V 헌 망건에 V 박조가리 V 관자 달고' 등과 같이 4음보의 운문체는 나타나지만, 이를 사용하여 인물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② 부재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에서는 놀부의 집으로 가는 홍부의 모습을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④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밝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은 배경이 아니라 홍부라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부재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은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 아니라 홍부의 외양이 묘사된 부분으로, 서사의 전개도 빠르지 않다.

## 425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헛집기 공간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동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

㉠은 양식을 얻기 위해 놀부 집에 건너가는 홍부의 외양을 묘사할 뿐, 행동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2) 부재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

남은 옷을 정성껏 차려 입는 데에서 형에게 부탁을 하러 가는 홍부의 심리는 짐작할 수 있으나, ㉠에 계절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비슷한 구조의 어구를 중첩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 ×)

'헌 짚신 감발하고, 세살부채 손에 쥐고', '바람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등 비슷한 구조의 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 426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⑤ 헛집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람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대비같이', '뱃놈의 닻줄 감듯 삼층 열레 연줄 감듯'에서 비유적 표현이 쓰였지만, 전자는 홍부의 외양을, 후자는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는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긴박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 오.오.이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부와 홍부 아내의 대화나 홍부와 놀부의 대화, 놀부가 홍부에게 호령할 때 보이는 행동 등을 통해 놀부의 인색하고 고약한 성격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어숙비숙', '오락가락', '찬찬'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편자 없는 현 망건 ~ 오망자루 꿈무늬에 비스 차고’에서  
홍부의 남루한 행색을 묘사함으로써 홍부의 가난한 형편  
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홍부 마음 인후하여 ~ 부귀를 바랄꼬냐?’는 홍부에 대한  
서술자의 긍정적 인식, ‘놀부 놈의 거동 보소,’는 놀부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인식이 직접 제시된 부분으로 편집  
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 427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B]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C]에서 제비가 황제에게 놀부를 고발한 것은 놀부가 부자  
가 되고 싶은 욕심에 자신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기 때  
문이지 [B]에서 동생인 홍부를 모른 척하며 홍부의 부탁을  
거절한 것 때문이 아니다.

### 오.오.이

- ①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홍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A]의 앞부분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홍부의 바르고  
착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고, 이어지는 홍부와 그 부인의  
대화에서는 홍부의 가난한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 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 부분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  
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놀부’에 남자를 낮잡아 이를 때 쓰는 말인 ‘놈’이 붙은 것  
에서, 놀부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평가를 엿볼 수 있다.
- ③ [C]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우화적 공간은 사람이 아닌 대상들이 인격화되어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제비와 황제가 대화하는 장면은 우화적 공간  
에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A]에서 홍부와 홍부 아내의 대화는 [B]에서 일어나는 홍부와 놀부의  
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B]에서는 곡식을 빌려 달라는 홍부의 부탁을 놀부가 거절  
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놀부가 음식  
끝을 보면 상대를 안 가리고 때린다는 [A]의 대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으므로, [A]의 대화가 [B]의 갈등 상황을 예  
고한다고 볼 수 있다.

## 428 ㉮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 [B]에서 놀부와 홍부는 양식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홍부가 놀부에게 쌀이나 벼 등 양식을 꾸어 달라고 애걸하  
고 놀부는 이를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 둘이 양식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C]에서 제비들의 대화는 놀부에 대한 응징을 예고하고 있다.  
황제 제비의 말 “동기를 모르고 오륜에 벗어난 놈을 그제  
두지 못할 것이요, 또한 네 원수를 갚아 주리라.”를 통해  
놀부에 대한 응징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 **교체** [A]에서 홍부의 ~~가난한~~ 처지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홍부의 가난한 처지는 [A]에 제시된 홍부와 홍부 아내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홍  
부 마음 인후하여 ~ 주색에 무심하니’와 같이 홍부의 성격  
이 드러나고 있다.

## 429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회파: 일하기를 꺼리어 선뜻 나서지 않음.

### 정.정.이

- ③ **상반** 홍부의 아내는 고사를 인용하며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홍부의 아내가 굶주려 죽은 안자와 백이숙제의 고사를 연  
급하며 “부질없는 청렴 밥소.”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정신  
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자  
식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쌀이나 벼를 얻어 오라는 것으로  
보아 물질적 가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제비는 놀부가 자신의 발목을 부러뜨린 연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제비는 작년에 홍부가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과 그 때문에 놀부가 자신을 절뚝발이가 되게 했음을 모두  
알고 있다.
- ② 황제는 놀부가 홍부를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황제가 놀부에 대해 “전답 재물이 여윌롭되 동기를 모르고



오류에 벗어난 놈”이라고 지적한 부분에서, 황제가 흥부를 돕지 않은 놀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놀부는 운명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흥부를 돕는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놀부는 사람은 제가 먹고살 것은 타고난다는 뜻으로 ‘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 내지 않으며,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사람은 하늘이 정해 준 운명에 따라 일을 하고 그에 따라 별이를 해야 하는데, 흥부가 무작정 찾아와 쌀이나 벼를 빌려 달라고 하니,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채느냐”며 흥부를 탓하는 것이다. 이로 보아 놀부가 운명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흥부를 돕는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흥부는 놀부의 평소 성격을 과장하여 표현하면서 자신의 요청에 놀부가 보일 반응을 예측하고 있다.

흥부는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 맞는단 말ियो?”라며 놀부의 인색하고 고약한 성미를 과장하면서 자신이 쌀이나 벼를 얻고자 하면, 매를 맞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 430 ㉢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사건 왜곡**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 모습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 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주는군.

놀부가 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한 것은 그만큼 제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또한 놀부는 갈가마귀를 보기만 하였으므로 다른 새들을 몰아냈다고 할 수 없다.

### 오.오.이

- ① ‘동지선달’부터 올 리 없는 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 조급성을 보여 주는군. 삼월 삼일에 다다라서야 오는 제비를 동지선달부터 기다리는 놀부의 모습에서, 빨리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드러난다.

- ③ ‘삼월 삼일’에 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 <보기>의 ‘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놀부는 흥부와 달리 제비 집을 만들어 놓고, 제비를 들이모는 등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놀부는 흥부를 악의적으로 모방하다 화를 입는다고 하였으므로, 놀부의 이러한 행위는 악의적인 모방이라 할 수 있다.

- ④ ‘구월 구일’에 제비가 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욕망 실현을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군.

놀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비가 강남에서 박씨를 물어 와야 한다. 이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는 이 기간 동안 단지 제비가 박씨를 물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 ⑤ ‘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보기>의 ‘II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놀부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 좌절될 것임을 보여 주는군.

박씨는 황제가 제비에게 준 것으로 놀부는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보수표’라는 말이 ‘원수를 갚는 박’을 의미하므로 놀부의 욕망이 좌절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31 ㉢ (1) 악의 (2) 욕망 (3) 제비 (4) 보상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놀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는 행위에는 (악의) 선의)가 담겨 있다.

놀부가 제 손으로 제비 새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주었으므로, 이 행위에는 악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교체**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부에 대한 놀부의 (허무함, 욕망)을 부추겼다.

<보기>에서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놀부는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을 품었다고 하였다.

- (3) **교체** 놀부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제비) 구렁이)를 기다렸다.

놀부는 흥부가 제비를 구해 주고 얻은 박씨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동지선달부터 제비가 오기를 기다려 이듬해 삼월에 제비 집을 지었다고 하였다. 구렁이는 새끼 제비가 낳갓짓을 공부할 무렵에 나타나기를 기다린 대상이다.

- (4) **교체** 흥부와 달리 놀부는 제비에게서 (보상) 모방)을 기대하지만 자신이 상황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보기>의 II 단계에서 흥부는 제비 다리를 고쳐 준 것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반면, 놀부는 보상을 기대했지만 상황에 개입할 수 없어 기다렸다고 하였다.

## 432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⑤ **헛집기** 놀부가 다리를 고쳐 준 제비가 강남 황제 앞에서 '다리 절고 들어와 복지'하는 장면에서 판소리의 **해학적 성격**이 **풍부하게 드러나**는군.

놀부가 다리를 부러뜨린 제비는 강남 황제 앞에서 자신이 놀부에 의해 절뚝발이가 된 연고를 아뢰고 있다. 이 장면에서는 웃음이 유발되지 않으므로, 해학적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 ① '흥부 마음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 옥결이라'와 같이 한자어가 사용된 부분에서는 양반 관객층을 고려한 언어 사용이 드러나는군.

〈보기〉에서 판소리는 양반층의 한자어와 서민들이 쓰는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흥부의 성격을 '인후', '청산유수', '곤륜' '옥결' 등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제시한 것은 양반 관객층을 고려한 언어 사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② '자식들 굶겨 죽'일 만큼 가난한 흥부의 처지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군.

〈보기〉에서 판소리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생활을 주로 그려 냈다고 하였는데, 가난한 흥부의 형편은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편자 없는 현 망건에 박포가리 관자 달고'와 같이 흥부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은 판소리로 공연될 때 상황에 따라 내용이 축소되거나 확장될 수 있었겠군.

〈보기〉에서 판소리는 관객의 흥미를 반영해 공연 상황에 따라 특정 장면을 축소·확장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놀부의 집에 흥부가 음식을 구하러 가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내용을 줄이거나 추가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공연 상황에 따라 분량이 달라지기도 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그달 저 달 다 지내고 삼월 삼일 다다르니'에서는 장단에 맞추어 창으로 부르던 판소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판소리는 장단에 맞추어 이야기를 창(노래)과 아니리로 엮었다고 하였다. '그달 저 달'다 지내고'삼월 삼일'다다르니'와 같이 4음보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장단에 맞추어 창(노래)으로 부르던 판소리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46 이춘풍전

본문 204~207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풍자 소설

주제 허위에 찬 남성 중심의 사회 비판, 진취적 여성상의 제시

- 특징 ① 경제가 발달하고 신흥 부호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됨.  
② 상반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춘풍과 춘풍의 아내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주제를 제시함.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전달함.  
④ 관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듯한 판소리 사설 투가 사용됨.

**단숨에 읽기** 속중 때 경성에 살던 이춘풍은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하다 빚을 진다.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굶주린 모습을 본 춘풍은 그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고 모든 살림을 아내에게 맡기고 주색잡기를 하지 않겠다는 수기를 쓴다. 이에 춘풍의 아내가 열심히 품팔이를 하여 가세가 풍족해진다. 그러자 다시 교만해진 춘풍은 호조에서 돈 이천냥을 빌려 장사를 하러 평양에 갔다가 기생 추월에게 돈을 모두 탕진하고 추월의 집 중 노릇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가 비장이 되어 평양에 가서 추월을 문책하여 돈을 되찾아 준다. 돈을 받아 경성에 온 춘풍이 장사를 잘하고 온 척을 하자 춘풍의 아내는 다시 비장 처림으로 나타나 춘풍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후 비장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차린 춘풍은 개과천선하여 아내와 행복하게 산다.

### 한 줄 요약

- ① 아내가 춘풍을 믿지 못하자, 춘풍이 모든 살림과 (재산)을 아내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수기)를 씀.
- ② 춘풍의 아내가 여러 가지 품팔이를 하며 (치가)를 하여 재산을 모음.
- ③ 다시 교만해진 춘풍이 (평양)에 장사하러 가겠다고 하자, 아내가 과거에 썼던 (수기)를 언급하며 만류함.
- ④ (남장)을 하고 비장이 된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추월을 심문하여 (호조) 돈을 갚게 함.

## 433 답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밀천** 어떤 일을 하는 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따위를 이르는 말.
- **수완** 일을 꾸미거나 치러 나가는 재간.

### 정.정.이

- ③ **헛집기** 춘풍이 ㉠의 과정에서 호조 돈을 빌린 것은 ㉡로 인해 가세가 기울여 장사 밑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춘풍은 ㉠의 과정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호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춘풍의 아내가 이미 ㉢에서 해결하여 '의식이 넉넉하고 가세가 풍족'해졌다고 하였으므로, 가세가 기울어서 호조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와 ㉡는 모두 춘풍의 삶의 방식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춘풍이 물려받은 재산과 호조 돈을 탕진한 것은 모두 춘풍이 주색잡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춘풍의 방탕한



삶의 방식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 ② 춘풍의 아내는 ⑥의 과정에서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춘풍의 아내는 다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침재, 길쌈을 하고, 돈을 모아 장변이며 월수 놓아 수천 금을 모았다. 이러한 모습에서 춘풍의 아내가 뛰어난 경제적 수완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춘풍의 아내가 평양 물정을 들어 ㉔를 만류한 것은 ㉔를 염려했기 때문이다.  
 춘풍의 아내는 평양 물정에 대해 “돈 많고 허랑한 자는 제 세워 두고 벳”길 정도로 좋지 않다며, 춘풍의 평양행을 만류하고 있다. 이는 물정 어두운 춘풍이 평양에 갔다가 돈을 탕진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춘풍의 아내는 ⑥의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㉔의 과정에서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춘풍의 아내는 ㉔에서 침재, 길쌈 등의 개인적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㉔에서는 ‘비장’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춘풍이 탕진한 돈 문제를 해결하였다.

#### 434 ㉔ (1) ○ (2) × (3) ○ (4)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㉔의 상황에서 춘풍은 아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시는 주색잡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기를 작성하였다. (○, ×)  
 ㉔의 상황에서 춘풍의 아내는 애써 돈을 모아도 춘풍이 다시 없앨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춘풍이 “내 행세를 믿지 못하니, 이후 주색잡기 없기로 수기를 써 줘세.”라고 말한 것에서 아내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기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 (2) **헛집기** 춘풍은 ㉔를 추진할 때 ㉔가 발생할 경우까지 예상하고 과감하게 호조 돈을 빌리려 하였다. (○, ×)  
 아내 덕에 가세가 풍족해지자 춘풍은 다시 교만한 마음이 들어 호조 돈까지 빌려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려 한다. 이때 춘풍은 “천금진산환부래(많은 돈을 쓰면 다시 돌아옴.)”라는 말을 인용하며 일이 잘 풀릴 것만 생각하였지, ㉔의 경우를 예상하지 않았다.
- (3) ㉔로 인해 춘풍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추월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였다. (○, ×)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춘풍이 기생 추월에게 빠져 ㉔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집에도 못 가고 추월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사건 왜곡** ㉔의 과정에서 추월은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비장에게 돈을 물어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

㉔의 과정에서 추월은 처음에는 춘풍의 돈을 돌려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였지만, 이후 비장(춘풍의 아내)의 호통이 계속되자 춘풍의 돈을 다 물어 바치겠다고 태도를 바꾸었다.

#### 435 ㉔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⑤ 인물의 행동들을 나열하면서 사건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A]는 춘풍의 아내가 치가를 하는 장면을 극대화한 부분으로,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침재, 길쌈)의 종류들을 나열함으로써 사오 년 동안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오.이

- ① **부재** 행동과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춘풍의 아내가 침재, 길쌈을 하는 행동만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희화화하고 있지 않다.
- ② **부재**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라는 서술자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춘풍의 아내의 솜씨에 대한 것일 뿐, 성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니다.
- ③ **부재** 제밀한 외양 묘사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심리를 드러낸 부분도 없다.
- ④ **부재** 다양한 감각적 어미자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다양한 이미지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 436 ㉔ (1) 열거 (2) 장면의 극대화 (3) 개인적 능력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교체** [A]에는 춘풍의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다양한 일들이 (비교, 열거)되고 있다.  
 [A]에는 춘풍의 아내가 치가를 위해 한 여러 가지 침재, 길쌈의 종류가 나열되고 있다.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고찰하는 방식으로 [A]에 나타나지 않는다.
- (2) **교체** [A]에는 판소리 사설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의 극대화) 음성 상징어의 사용 )이 나타나 있다.

[A]에는 춘풍의 아내가 한 일이 나열되고 있는데, 이는 판소리에서 관객들이 흥미를 느끼는 대목을 창자가 과장, 열거 등을 통해 확대하는 '장면의 극대화'에 해당한다.

- (3) **교체** [A]에는 (개인적 능력) 공적인 지위)을/를 이용하여 가세를 풍족하게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에서 춘풍의 아내는 능란한 침재, 길쌈 실력과 뛰어난 경제적 수완으로 가세를 풍족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적 능력을 이용한 것이다.

## 437 답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침재 길쌈 능란하다.', '마음이 교만하여 이전 행실 절로 난다.' 등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춘풍의 아내와 춘풍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우화-거법을 활용하여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의 등장인물은 모두 사람으로, 무능한 가장인 춘풍을 통해 허위에 찬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때 동식물 등을 인격화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우화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 ② **부재**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이 글에 배경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이나 인물의 내면 심리가 암시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 ③ **부재** 저술자의 회상을 통해 외화에서 내화로 이동하고 있다.  
이 글에 서술자의 회상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 글이 외화와 내화로 구분되지도 않는다.
- ④ **부재**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글에 상징적 소재나 환상적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 438 답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춘풍이 '수기'에서 아내의 치산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집안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갔음을 뜻하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들이 속출하면서, 여성들이 실질적 가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상은 춘풍이 "가중지사를 모두 김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의 수기를 쓰고 집안의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기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다.

### 오.오.이

- ② **사건 왜곡** 집안을 일으키고자 했던 춘풍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에게 '수기'를 써 주게 된 것이로군.  
이 글에는 춘풍이 집안을 일으키고자 노력했다가 실패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춘풍이 수기를 쓴 이유는 애써 돈을 모아도 춘풍이 다시 없앨 것을 걱정하는 아내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이다.
- ③ **헛집기** '수기'와 관련해 아내가 춘풍과의 송사를 꺼린 것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춘풍의 아내가 "내 어찌 가장을 걸어 송사를 할손가."라고 말한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 ④ **헛집기** 춘풍이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기'를 고치는 모습은 가부장적으로 저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군.  
춘풍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내의 의견에 따라 수기를 고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모습이 가부장의 권위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헛집기** 춘풍이 조상에게 누만금을 물려받았다는 '수기'의 내용에서 경제 체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군.  
춘풍이 조상에게서 누만금을 물려받은 사실은 경제 체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 439 답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사건 왜곡** 춘풍 집안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여성이 물려받았다. (○, ⊗)  
수기의 내용 중 "이춘풍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누만금을 주색잡기로 다 써 버리고"로 보아, 춘풍 집안의 재산이 조상 대대로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춘풍이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겨주는 모습에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남성 가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  
<보기>에서 이 글이 배경으로 하는 조선 후기에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장이 속출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주색잡기로 재산을 다 쓰고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겨주는 춘풍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 (3) **사건 왜곡** 춘풍의 아내는 춘풍이 준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아 자신이 집안의 경제권을 갖는 실질적인 가장임을 인정받았다. (○, ⊗)



첫 번째 수기에 대해 아내가 가장에게 송사를 걸 수 없다고 말하자, 춘풍은 수기를 아내에게 올린다고 내용을 고침으로써 아내를 실질적 가장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춘풍의 아내가 수기를 들고 관아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 440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은 곤경에 처한 주인공을 구하고, ㉮은 주인공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린다.

‘춘풍의 처(㉮)’는 호조 돈을 모두 잃고 추월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던 춘풍을 구하였다. 반면 ‘의양(㉮)’은 무숙의 방탕함을 고치기 위해, 그를 속여서 전 재산을 탕진하게 하였다. 이에 무숙이 의양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의양이 주인공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렸다고 할 수 있다.

### 오.오.이

① **상반** ㉮과 ㉮은 모두 물질적 가치를 <sup>긍정적</sup> 부정적으로 여긴다.

‘춘풍의 처(㉮)’와 ‘의양(㉮)’ 모두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물질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② **범위 오류** ㉮과 ㉮은 모두 혼자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춘풍의 처(㉮)’가 여러 가지 품팔이를 하며 재산을 모아 가세를 풍족하게 한 것은 혼자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춘풍의 처가 비장이 되어 호조 돈을 갚는 일에 대해서는 그 뒷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의양(㉮)’은 무숙의 아내와 김 선달과 짜고 무숙을 곤경에 빠뜨려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고 있으므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헛집기** ㉮은 주인공을 무시하여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은 주인공을 응원하여 자존감을 준다.

춘풍이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기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이는 춘풍이 자처한 것으로, ‘춘풍의 처(㉮)’가 춘풍을 무시하여 자존감을 떨어뜨렸다고 볼 만한 부분은 이 글에 나오지 않는다. 또한 <보기>에서 ‘의양(㉮)’이 무숙을 응원하여 자신감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범위 오류** 주인공의 잘못을 ㉮은 남 탓으로, ㉮은 자기 탓으로 돌린다.

‘춘풍의 처(㉮)’는 춘풍이 호조 돈을 탕진한 잘못을 추월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에게서 돈을 돌려받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반면 ‘의양(㉮)’은 무숙을 일부러 곤경에 빠뜨

려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했을 뿐, 주인공의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

## 441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배금주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돈 모으기에 두는 경향이나 태도.

### 정.정.이

④ **헛집기** ㉮에서 ~~매관매적~~ <sup>행행하는</sup> 모습을 통해 당대에 만연한 배금주의를 확인할 수 있군.

㉮는 춘풍이 호조에서 빌린 돈을 밀천으로 삼아 장사를 떠난다는 내용으로, 돈이나 재물로 벼슬을 사고파는 ‘매관매적’과 관련이 없다.

### 오.오.이

① ㉮를 통해 무책임하고 불건전한 가정의 행태를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이 작품은 불건전한 가정의 행태를 묘사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는 가부장적 불건전한 모습의 일면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에서 노동이 화폐 가치로 환산되는 모습을 통해 화폐 경제가 발달한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이 작품은 17세기 중엽 이후 화폐 경제가 발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에서 춘풍의 아내가 바느질 등의 노동을 통해 돈을 번 것은, 노동이 화폐 가치로 환산되었다는 사실과 화폐 경제가 발달한 당대의 사회상과 관련된다.

③ ㉮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가세를 일으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이 작품에는 여성의 생산 활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에서 춘풍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돈을 모아 가세를 일으키는 모습과 관련된다.

⑤ ㉮는 여성이 ‘비장’과 같은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진보적 여성관을 확인할 수 있군.

㉮는 춘풍의 아내가 남장을 한 후 ‘비장’이 되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여성의 공직 수행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한 진보적 여성관이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47 열녀춘향수절가

### 작품 분석

본문 208~211쪽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계 소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탐관오리의 비판

- 특징 ① 언어유희, 해학적 표현에 의한 골재미가 드러남.  
② 자유연애, 인간 평등 의식 등의 근대적 사상이 담겨 있음.  
③ 어려운 한자 표현이 다수 사용됨.

**단숨에 읽기** 조선 숙종 때 전라도 남원에 새로 부임한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퇴기 월매와 성 참판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에게 반해 구혼하고 이에 설득된 춘향은 이몽룡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하지만 얼마 후 이몽룡의 아버지가 내직으로 벼슬이 올라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둘은 이별한다. 새로 부임한 신관 사또 변학도는 성미가 고약하여 절세가인이라고 소문난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일부중사를 이유로 수청을 거부한 춘향은 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 이른다. 한편 이몽룡은 장원 급제하여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다시 남원에 내려온다. 춘향은 걸인의 행색으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고 실망하고 이몽룡은 끝까지 정체를 숨긴 채 춘향을 위로한다. 변학도의 생일잔치 날, 걸인으로 나타난 이몽룡은 어사출두를 하여 변학도를 파면시키고 춘향을 구출하여 적극적으로 재회한다. 그리고 춘향 모녀를 한양으로 데리고 올라가 춘향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 춘향은 정렬부인이 되어 행복하게 산다.

### 한 줄 요약

- ① 어사또가 (춘향)을 만나기 위해 장모, 향단이와 함께 옥으로 가고, 춘향은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함.
- ② 어사또의 한심한 행색을 본 춘향이 (신세)를 한탄하며 죽은 뒤에 자신을 잘 수습해 주기를 부탁함.

## 442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내용이 전개된다. 특히 춘향의 말에서 모친에 대한 염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 소망 등이 드러난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꿈의 삽입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춘향이 금관을 쓰고 홍삼을 입은 서방님을 만나는 꿈은 춘향의 간절한 소망이 형상화된 것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다.
- ② **헛집기**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회화화**하고 있다.  
서술자가 허름한 모습의 어사또를 만난 춘향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어찌 아니 한심하랴.’라고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인물의 성격을 회화화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헛집기**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건이 시간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④ **부재**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걸인 행색으로 나타난 어사또를 본 춘향이 옥에서 살아 나갈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죽은 뒤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볼 수 없다.

## 443 ①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  
‘한참 이리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 보니, 어찌 아니 한심하랴.’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춘향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2) **헛집기** 공간의 이동을 통해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

어사또, 춘향 모친, 향단이가 춘향이 있는 옥 문간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제시되지만, 이를 통해 등장인물의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3) **부재**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춘향은 오히려 앞으로 닥칠 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련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 444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강

- **언어유희**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하는 놀이. 문학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말한다.

### 정.정.이

- ① 언어유희를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춘향 모친의 말,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에서 유사 음운을 반복하는 언어유희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걸인의 행색으로 나타난 어사또를 못마땅해하는 감정이 해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오.오.이

- ② **부재**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사건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지 않았으며,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의 원인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부재** 짚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어사또와 춘향 모친, 향단이가 함께 춘향이 갇혀 있는 옥으로 이동한 후 장면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짚은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재** 저술자가 사건을 요약·전달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은 주로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부재** 장제한 배경 묘사를 통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갈등의 발생을 암시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 445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이라 할 수 있어.

춘향은 어사또에 대한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정절을 지키고 있으므로, 정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산발치(㉮)에 이러한 비판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은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부용당(㉮)은 춘향과 어사또가 처음 만나 놀던 곳이므로, 두 사람에게 추억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자기의 시신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곳인 부용당(㉮)에서 손수 염습해 달라는 춘향의 말에서, 정절을 지키다 죽게 된 자신의 넋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춘향의 마음과 어사또에게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은 수절원사라는 표현으로 보아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비문에 '수절원사'를 새겨 춘향을 선산발치(㉮)에 묻는다는 것은 정절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자신을 어사또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산발치는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④ ㉮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어.

죽음을 앞둔 춘향의 소원은 어사또가 성공하여 자신의 시신을 선산발치(㉮)에 묻어 주는 것으로, '신원'이라는 표현

으로 볼 때 선산발치는 춘향의 한을 풀어 주는 공간이 된다. 동시에 '선산'은 어사또 가문의 구성원이 묻히는 공간이므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 446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은 춘향의 신분 상승의 욕망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어.

기별(㉮)은 춘향이 옥에서 간절하게 기다린 서방님의 소식을 말한다.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는 춘향의 모습에서 임에 대한 춘향의 사랑과 신분 상승을 향한 갈망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춘향의 신분 상승 욕망을 비판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춘향이 겪고 있는 위기를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어.

옥(㉮)은 춘향이 '수절원사'할 위기에 처한 곳이므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춘향이 겪고 있는 위기를 드러내 준다.

- ② ㉮은 서방님의 성공을 바라는 춘향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서방님에 대한 춘향의 사랑을 보여 주는 소재라 할 수 있어.

서방님이 머리에 금관(㉮)을 쓴 모습은 서방님의 성공을 기원하는 춘향의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그만큼 서방님에 대한 춘향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은 절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서방님을 보고 춘향이 느낀 좌절감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라 할 수 있어.

절인의 행색으로 나타난 서방님을 본 춘향이 "공든 탑이 무너졌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공든 탑(㉮)은 서방님이 벼슬을 얻어 자신을 구하려 와 줄 것을 기대했던 춘향이 느낀 좌절감을 표현하기 위한 소재라 할 수 있다.

- ⑤ ㉮은 그 내용과 이것을 세워 달라고 한 위치로 보아 춘향의 신원과 신분 상승의 소망을 나타내는 소재라 할 수 있어.

445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비문(㉮)을 서방님 가문의 선산발치에 세워 달라는 것은 자신의 정절을 인정받음으로써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고 신분 상승의 소망을 이루려는 춘향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44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④ [D]: '춘향 모친'은 비교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춘향은 옥에 갇혀서도 서방님이 벼슬을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 달리 어사또는 허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므로 춘향 모친은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마음을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 내려왔다!”와 같은 비교는 말로 나타내었다.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A]: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어사또는 장모인 춘향 모친에게 말을 낮추어 “여보 장모!”, “보아야제?”라고 말하였고, 춘향 모친은 어사또에게 말을 높여 “그러지요.”, “하오리까?”와 같이 말하였다.

- ② **헛집기** [B]: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뜻하지 않게 어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의심하는 말로 놀라움을 표현한 것일 뿐,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③ **헛집기**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춘향의 말, “어찌 와 계시오?”를 불평하는 말투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자신을 찾아오다가 혹여 모친이 다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⑤ **사건 왜곡** [E]: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춘향은 “이 지경이 웬일이오?”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걸인의 행색으로 나타난 어사또를 보고 받은 충격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앞서 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문자답하는 말로 볼 수 없고,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정.오 지름길

- ③ [C]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怨望)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말투는 억양과 문맥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C]는 춘향이 모친을 걱정하여 한 말이지만, 이러한 심리가 표면에 드러나는 다정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헛갈릴 수 있어요. 이처럼 선지의 앞부분만으로 정오 판단이 어려울 때는 뒤에 제시된 인물의 심리의 적절성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아요.

448 정답 (1) ○ (2) × (3)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1) [A]에서 춘향 모친은 어사또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 ×)

“춘향이냐 좀 보아야제?”라고 묻는 어사또의 말에 춘향 모친은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이라 하오리까?”라고 하며 어사또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 (2) **헛집기** [B]에서 춘향은 깜짝 놀라며 어사또의 목소리에 감탄하고 있다. (○, ×)

[B]는 춘향이 뜻밖에 어사또의 목소리를 듣고 믿기지 않아 한 말이지, 그 목소리에 감탄하여 한 말이 아니다.

- (3) [C]에서 춘향은 모친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C]의 “몸쓸 팔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이흘랑은 오실라 마옵소서.”에는 자신을 찾아오다가 모친의 몸이 상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춘향의 마음이 담겨 있다.

449 정답 ⑤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⑤ **부재** [나]에서 춘향은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모친을 웃음으로 위로하고 있다.

[나]에서 춘향은 자신이 죽은 뒤의 상황을 가정하여 어사또에게 자신을 잘 수습해 주기를 부탁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뿐, 해학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모친을 웃음으로 위로하고 있지 않다.

오.오.이

- ① [가]에서 춘향은 질문을 반복하며 모친에게 답변을 재촉하고 있다.

[가]에서 춘향은 “기별 왔소?”, “소식 왔소?”, “노문 왔소?” 등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며 모친에게 답변을 재촉하고 있다.

- ② [가]에서 모친은 주어를 생략하여 춘향의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가]에서 모친이 “왔다.”, “그저 왔다.”와 같이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자, 춘향은 “오다니 누가 와요?”라고 물으며 누가 온 것인지를 궁금해하였다.

- ③ [가]에서 춘향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춘향은 “갑갑하여 나 죽겠소!”, “애고, 답답하여라!”와 같이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 춘향은 자연물에 빗대어 자신의 허무감을 나타내고 있다.

걸인의 행색으로 나타난 서방님을 본 춘향은 그동안의 기다림이 허사였음을 깨닫고 허무감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을 “심은 나무 꺾어지고”와 같이 자연물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 450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오매불망’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임 생각을 하는 춘향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교체 동병상련(同病相憐)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므로, ㉔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③ 교체 이심전심(以心傳心)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㉔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④ 교체 조변석개(朝變夕改)

‘조변석개’는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이므로, ㉔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⑤ 교체 풍수지탄(風樹之嘆)

‘풍수지탄’은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므로, ㉔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 451 ㉔ ㄷ, ㄹ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ㄷ. 상사불망(相思不忘)

‘상사불망’은 ‘서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이라는 뜻으로, ㉔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다.

#### ㄹ. 연모지정(戀慕之情)

‘연모지정’은 ‘이성을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㉔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하다.

### 오.오.이

#### ㄱ. 교체 동상이몽(同床異夢)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㉔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 ㄴ. 교체 사필귀정(事必歸正)

‘사필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㉔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 ㄷ. 교체 심사숙고(深思熟考)

‘심사숙고’는 ‘깊이 잘 생각함.’이라는 뜻으로 ㉔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 452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그는 15세의 나이에 벼슬길에 올랐다.

“청운에 오르거든”에서 ‘청운’은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그 앞에 나온 “귀히 되어”를 함께 고려할 때, ‘벼슬에 오르거든’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오르다’는 ‘지위나 신분 따위를 얻게 되다.’의 의미로 쓰인 ⑤와 가장 유사하다.

### 오.오.이

#### ① 교체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움직여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② 교체 배에 오르기 전에 표를 사야 한다.

‘탈것에 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교체 얼굴에 살아 오르니 귀여워 보인다.

‘몸 따위에 살이 많아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교체 자엽이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어떤 정도에 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48 수궁가

### 작품 분석

본문 212~215쪽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

주제 토끼의 기지와 별주부의 충성심, 허욕에 대한 경계,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비판

- 특징**
- ① 우화적 수법으로 인간 사회를 풍자함.
  - ② 이익을 위해 백성을 속이는 지배층과 이를 꾀로 모면하는 피지배층의 대립이 중심을 이룸.
  - ③ 설화 「구토지설」이 판소리로 정착된 것임.
  - ④ 고사 성어, 한자어 등의 지배층의 언어와 평민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나타남.

**단숨에 읽기** 갑자기 병이 나서 고생하던 남해 용왕에게 도사가 나타나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 알려 주자, 용왕이 약을 구할 신하를 정하기 위해 어전 회의를 연다. 신하들은 서로 다투기만 할 뿐, 자원하는 이가 없다. 조개와 메기는 사정을 들며 거절하고, 방계는 자원하였으나 용왕에게 쫓겨난다. 마침 별주부 자라가 자청을 하여 용왕은 이를 허락한다. 토끼의 그림을 들고 육지에 간 별주부는 토끼를 만나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수궁으로 데려온다.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의 말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토끼는 간을 벌에 말리기 위해 육지에 두고 왔다고 꾀를 부리고, 이에 속은 용왕은 토끼를 별주부와 함께 다시 육지로 보낸다. 토끼는 별주부와 용왕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면서 숲속으로 도망가고, 별주부는 토끼의 뜻을 가저가 용왕을 살린다. 토끼는 다시 독수리에게 잡히지만 꾀를 내어 위기를 극복하고 육지에서의 삶을 누린다.

### 한 줄 요약

- ① 토끼가 자신의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위기를 모면하고 육지로 올라옴.
- ② 토끼가 「의사중치」라는 신기한 물건이 있다는 거짓말로 독수리를 속여 위기에서 벗어남.

## 45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아니리**: 판소리에서,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아니리'는 사건의 변화, 시간의 경과, 등장인물의 대화, 주인공의 심리 묘사, 인물의 독백 등을 전달하고 청자에게 휴식하는 기회를 주는 기능을 한다.
- **오용**: 잘못 사용함.

### 정.정.이

-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

(가)에서 토끼는 용왕을 속여 세상에 나감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나)에서 토끼는 독수리를 속여 바위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을 통해 국면이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② **부재**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 글에는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

분이 나와 있지 않다.

- ③ **헛집기** 창(唱)과 아니리가 교차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가)와 (나)에서 창과 아니리가 교차되고 있지만, 내용상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갈등이 고조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헛집기** 의도적으로 고사(故事)를 오용하여 긴장감을 낳는다.

별주부는 중국 삼국 시대 때 제갈량이 맹획을 여러 번 잡고 놓아주었던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에게는 그러한 재주가 없어 토끼를 다시 잡기 힘들다며 토끼를 세상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토끼는 중국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하갈의 확정으로 용봉이 죽고 나라가 망했던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별주부와 토끼는 모두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고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고사를 오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헛집기**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토끼가 꾀를 내어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토끼가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 454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

(가)는 토끼, 용왕, 별주부의 대화를 통해, (나)는 토끼와 독수리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2) **부재**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 ×)

이 글은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 (3) **부재** 장단을 점점 빠르게 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

이 글에는 중모리장단과 아니리가 교차되고 있을 뿐, 장단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다. 또한 육지에 당도한 토끼가 별주부를 따돌리고, 독수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갈등이 심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 455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토끼가 꾀를 내어 수궁에서 간을 빼앗길 위기를 모면하고 육지로 나온 뒤, 독수리를 만나 다시 목숨이 위태로워졌으나 또다시 꾀를 내어 위기에서 벗어난 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오.오.이

- ② **부제**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토끼의 공간 이동(수궁 → 육지)에 따른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만 그 정도가 빈번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토끼의 복잡한 내면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 ③ **부제**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 ④ **헛집기**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인물의 심리를 전달함으로써 비극미를 고조하고 있다.

(나)의 중모리장단 부분에서 토끼가 서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는 토끼가 독수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꾀를 부리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므로 비극미가 고조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헛집기** 아니리를 중심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인물의 허세를 묘사하고 있다.

(가)의 아니리는 토끼의 말에 속은 용왕이 토끼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장면을, (나)의 아니리는 꾀를 내어 죽을 위기를 벗어난 토끼가 독수리를 희롱하며 허세를 부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토끼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

456 ㉠

정.정.이 & 오.오.이

- 부제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낱

- **독의양양** 뜻한 바를 이루어 우쭐거리며 뽐냄.
-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또는 그런 단정.

정.정.이

- ① **범위 오류** [A]는 권력자에 기대어, [B]는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A]의 “왕명이 지중커늘 내가 어이 기만하랴.”에서 토끼는 권력자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의 “늘그막에 출입할 수도 없고”에서 토끼가 나이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토끼가 독수리를 조롱하며 단념시키는 말로, 연륜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오.이

- ② [A]에는 절박함을 숨기려는 심리가, [B]에는 독의양양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A]에서 토끼는 별주부의 말에 당장 배를 갈라 보라고 호통을 치지만 이는 간을 잃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절박함을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그리고 [B]에서 토끼는 바위 속에 들어가 목숨을 건지게 되자, 우쭐거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상황을 가정하며 상대에게 대응하고 있다.

토끼는 [A]에서 자기 배를 가른 상황을 가정하며, 억울하게 죽은 원귀가 되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 말하였고, [B]에서는 자신의 발길이 나가는 상황을 가정하여 독수리의 해골이 터질 것이라고 희롱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다.

[A]에서는 ‘이놈’, ‘뭇살 놈’, ‘배를 따 보아’ 등에서, [B]에서는 ‘이놈’, ‘네 해골 터질 테니’ 등에서 비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를 자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A]는 [B]와 달리, 드러난 청자뿐 아니라 작품 속의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

[A]는 표면상 토끼가 별주부에게 하는 말이나, 용왕도 토끼의 말을 듣고 있으므로 다른 인물을 청자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B]는 토끼가 바위틈 밖의 독수리에게 하는 말로 다른 인물까지 청자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

457 ㉡, ㉢

정.정.이 & 오.오.이

- 부제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 ㄱ. 별주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며 말하고, 토끼는 속내를 숨기기 위해 허세를 부리며 말하고 있다.

별주부는 어렵게 잡아 온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며 용왕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토끼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롱날 것을 염려하며 이러한 속내를 숨기기 위해 “옛다 배 갈라라.”라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 ㄴ. 별주부와 토끼는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453번-④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오.오.이

- ㄴ. **사건 왜곡** 토끼는 별주부와 달리, 과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가)에 토끼가 과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대를 설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별주부 역시 과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지 않다.

## 458 ㉓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집기** [㉔]에는 상대에 대한 **강한 분노와 자책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다.

[㉔]에서 독수리는 느닷없이 시조를 읊는 토끼를 황당해하며 어서 의사증치를 가져오라고 재촉할 뿐, 토끼가 자신을 속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토끼에 대한 강한 분노나 자책감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㉔]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별주부는 목숨을 걸고서 당장 토끼의 배를 갈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㉔]에는 꾀를 내어 위태로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토끼는 독수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수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㉔], [㉔]에서는 모두 인물이 품고 있는 소망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㉔]에는 토끼를 세상에 보내지 말고 배를 갈라 간을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별주부의 소망이, [㉔]에는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나오는 보물인 의사증치를 갖고자 하는 독수리의 소망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㉔]에는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㉔]에는 그로 인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㉔]에서 토끼는 독수리를 속여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㉔]에서 독수리는 토끼의 의도대로 속아서 토끼를 놓치고 의사증치를 어서 가져오라며 토끼에게 재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459 ㉓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천려일실(千慮一失)이라는데, 토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용왕은 토끼를 대우하여 기분 좋게 만듦으로써 토끼가 욕지에 가서 간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토끼를 '토공'으로 높여 지칭하고 있다. '천려일실'은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므로, 토끼가 변심이라도 할까 봐 토끼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용왕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로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토끼가 말하는 것을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대단하군.  
'허장성세'는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이르는 말이다. 용왕은 토끼의 말이 허세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왕의 생각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② **헛집기** 토끼가 돌아올 때까지 **수주대토(守株待兔)**하듯 기다려야겠군.  
'수주대토'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어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는 토끼에게 속아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용왕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볼 수 있을 뿐, 용왕의 생각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③ **헛집기** 토끼가 이리 **안하무인(眼無無人)**이니 말로라도 대접하는 척 해 주지.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토끼는 용왕에게 "제가 세상에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라고 공손히 말하고 있으므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 ⑤ **헛집기**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유분수지,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 주어야 하다니.  
용왕은 토끼가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으므로,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주는 것을 아쉬워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가당착'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이르는 말'로 용왕의 생각을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460 ㉓ (1) 속수무책(束手無策) (2) 풍전등화(風前燈火)

(3) 천재일우(千載一遇)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별주부와 독수리는 토끼의 꾀에 ( **속수무책** )이다.  
별주부와 독수리가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을 뜻하는 '속수무책'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 **교체** 독수리 앞에서 토끼의 목숨은 ( **풍전등화** )와/과 같다.  
토끼가 독수리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은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풍전등화'로 나타낼 수 있다.



- (3) **교체** 용왕은 자신의 목숨을 살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용왕에게 토끼는 자신의 목숨을 살릴 소중한 존재이며 놓치고 싶지 않은 귀한 기회이므로,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 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얻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인 '천재일우'로 나타낼 수 있다.

## 461 ㉔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교체** 각주구검(刻舟求劍)

'각주구검'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토끼는 꾀를 내어 죽을 위기를 넘기고 있으므로, '각주구검'은 토끼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 오.오.이

#### ① 면중복배(面從腹背)

'면중복배'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뜻하는 말이다. 독수리에게 '장군님'이라며 존대를 하면서 속으로는 독수리를 속여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하는 토끼의 모습과 어울린다.

####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뜻한다. 무엇이든지 소원대로 나오는 보물인 '의사슴치'가 자기에게 있다며 독수리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 주면 이를 주겠다고 하면서 독수리를 속이는 토끼의 말은 감언이설에 해당한다.

#### ③ 권모술수(權謀術數)

'권모술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을 뜻하는 말로, 수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토끼의 모습, 독수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토끼의 모습과 어울린다.

#### ⑤ 명철보신(明哲保身)

'명철보신'은 '충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존함'을 뜻하는 말로, 꾀를 내어 죽을 위기를 두 번이나 넘긴 토끼의 모습과 어울린다.

## 462 ㉓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어휘 망

- **상생**: 둘 이상이 서로 복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
- **신빙성**: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성질

### 정.정.이

#### ③ **헛집기**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의사슴치는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느냐, 토끼가 독수리로부터 벗어나느냐의 상황에서 토끼가 생각해 낸 꾀에 해당한다. 의사슴치로 인해 토끼는 독수리를 속이고 독수리는 토끼를 놓쳤으므로, 의사슴치가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독수리의 관심을 토끼에게서 돌리는 수단이 된다.

독수리는 의사슴치가 "썩은 도야지 창자",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 등 무엇이든 소원대로 나오는 보물이라는 말을 듣고 관심을 토끼에게서 의사슴치로 돌리게 되었다.

#### ② 토끼는 획득 경로를 밝혀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다.

토끼는 의사슴치를 수궁의 용왕에게 얻었다고 하여 신빙성을 높였다.

#### ④ 실재하지 않으면서, 실재하는 존재들에 영향을 끼친다.

의사슴치는 토끼가 독수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토끼와 독수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 ⑤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의사슴치를 통해 토끼는 독수리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독수리는 더 많은 먹이를 먹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슴치는 독수리와 토끼의 서로 다른 욕망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463 ㉒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

토끼는 의사슴치라는 거짓 보물을 이용하여 독수리를 속이고 도망갔으므로,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2) **사건 왜곡** 토끼가 용왕에게 얻어온 보물로, 노력의 결과를 드러낸다. (○, ×)

의사슴치는 토끼가 용왕에게 얻어 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3) 독수리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상이다. (○ ×)

독수리는 의사중치를 얻어 더 많은 먹이를 먹고 싶어 하므로, 독수리가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 464 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㉞: 토끼가 다시 한 번 목숨을 구하는 공간이다.

토끼는 수궁(㉠)에 갔다가 죽을 위기를 벗어난 뒤 다시 독수리를 만나지만, 바위 속(㉡)에 들어감으로써 목숨을 한번 더 구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오.오.이

① **헛집기** ㉠: 토끼가 **피를 내어 꾸며 낸** 공간이다.

수궁(㉠)은 토끼가 다녀온 공간으로 실제로 존재한다. 토끼가 피를 내어 거짓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다.

② **헛집기** ㉠: 토끼가 의사중치를 실제로 획득한 공간이다.

토끼가 수궁(㉠)에 들어갔다가 용왕께서 의사중치를 하나 주셨다고 한 말은 독수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

③ **상반** ㉠: 별주부와 토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수궁(㉠)에서 토끼와 별주부는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⑤ **상반** ㉡: 토끼와 독수리의 갈등이 **지적되는** 공간이다.

토끼가 바위 속(㉡)에 들어감으로써 죽을 위기를 넘기고 독수리는 토끼를 놓쳤으므로 갈등이 끝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49 적벽가

본문 216~219쪽

### 작품 분석

작가 미상

갈래 판소리

주제 적벽 대전에 나타난 영웅들의 다양한 면모와 전란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

특징 ① 평민 의식이 반영되어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성격이 강함.  
②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을 소재로 만들어진 판소리임.  
③ 영웅 조조를 희화화하여 그의 어리석음을 풍자함으로써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단숨에 읽기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은 유비는 천하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갈공명을 삼고초려 끝에 데려온다. 이때 조조는 강남 정벌을 위해 백만 대군을 데리고 장강에 내려와 미리 승리를 기뻐하는 잔치를 벌인다. 한편 하층 군사들은 전쟁에 끌려온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설움을 토로한다. 제갈공명은 뛰어난 지략으로 조조의 십만 대군을 무찌르고, 조자룡은 유비의 장자를 구해 온다. 한편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로 가서 손권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와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적벽 대전에서 주유는 화공을 펼쳐 조조의 백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키고, 몇 천의 군사만 데리고 도망가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관우를 만나 목숨을 구걸하고, 관우는 그를 놓아 준다. 관우가 돌아가 제갈공명에게 이를 알리자 제갈공명은 조조는 죽일 사람이 아니므로 예전에 조조에게 은혜를 입었던 관우를 그곳에 보낸 것이라 말한다.

### 한 줄 요약

- ① 조조가 정산없이 (도망)을 감.
- ② 겁을 먹은 조조와 (정욱)이 대화를 나눔.
- ③ 죽은 조조의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조조를 원망하여 울.
- ④ (조조)가 허세를 부리며 주유와 공명을 비웃음.
- ⑤ (조자룡)이 조조를 습격하고 조조의 군사가 대패함.

## 465 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낭패**: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매우 딱하게 됨.
- **완연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뚜렷한.
- **아랑곳하지**: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지.

### 정.정.이

④ 조조는 큰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

대군을 잃고 도망을 가던 중에서도 조조는 “주유는 피가 없고 공명은 슬기 없”다며 웃는다. 자신의 패배는 생각하지 않고, 오나라의 대장군인 주유와 촉나라의 군사 제갈공명을 비웃는 조조의 모습에서 그가 허세를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붉빛이 완연한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가)의 ‘낙엽만 퍼뜩 떨어저도’, (다)의 ‘골짜기 눈 쌓이고’로 보아,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때의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사건 왜곡** 군사를 다 잃은 조조가 정욱과 단둘이 도망가고 있다.  
(마)는 패전하고 도망가는 조조 일행 앞에 조자룡이 나타나 남은 장졸들의 목을 치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조조가 정욱과 단둘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남은 장졸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사건 왜곡** 조조는 숲에 숨어들어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마)에서 조자룡이 조조의 일행을 습격했으므로, 조조가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사건 왜곡** 조조는 전쟁 중에 죽은 장졸들을 이렇듯 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에서 조조는 새소리를 듣고 죽은 장졸들을 생각하며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 죽은 원귀가 나를 원망하셔서 우는구나.”라고 탄식하고 있다. 이로 보아, 조조는 장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고 볼 수 있다.

## 466 ㉮ (1) 조자룡 (2) 조조 (3) 허세, 기막혀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조조는 도망 중에 (주유, 조자룡)을/를 만나 싸움에서 대패하였다.  
(마)에서 조조가 도망 중에 조자룡을 만나 그나마 남은 군사마저 잃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조가 조자룡에게 대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교체** (정욱, 조조)은/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없는 말을 하였다.  
(나)에서 조조가 적벽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술안주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조조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없는 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교체** 정욱은 대화를 통해 큰 패배 후에도 (기백, 허세)을/를 잃지 않는 조조를 (기막혀 대단해) 하였다.  
(라)에서 처량한 새소리를 듣던 조조가 갑자기 ‘히히히, 해해해’ 대소하자, 정욱이 기가 막혀 “무슨 일로 웃나이까?”라고 묻는 것에서, 패배 후에도 허세를 부리는 조조를 정욱이 기막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67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망

• **웅맹**: 용감하고 사나움.

• **환영**: ①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② 사상이나 감각의 작용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보이는 환각 현상.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조조의 장졸들은 웅맹하게 끝까지 싸우는 모습에서 영웅시되고 있다.

도망치던 조조의 장졸들은 조자룡에게 추풍낙엽처럼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므로 영웅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조조는 전투의 환영에 시달리며 도망가고 있다.  
(나)에서 정욱이 조조더러 왜 목을 움치시냐고 묻자, 조조는 화살 소리가 귀에 들리고, 눈에 칼날이 보이는 듯해서라고 답한다. 이로 보아 조조가 전투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의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총잡한데 골짜기 눈 쌓이고 ~ 앵무 원앙이 그쳤는데’에서 배경을 묘사하여 패전한 조조 무리가 눈이 쌓인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작은 움직임에도 놀라는 조조의 모습에서 인물의 희화화가 나타나고 있다.  
메추리가 표루루루 하고 날아가는 소리에 놀라 자기 목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하는 조조의 모습에서 인물이 희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숲속의 새소리가 조조에게는 적벽 싸움에서 죽은 군사들의 원망 소리로 들리고 있다.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은 조조가 탄식하면서 “울지를 말아라. 너희가 모두 다 내 제장”이라며 죽은 원귀가 되어 자신을 원망하여 우는 것 같다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468 ㉮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짚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헛짚기** (나)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나)는 정욱과의 대화를 통해 조조가 어리석은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마)에서도 조조의 장졸들이 조자룡에게 일방적으로 패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고 보기 어렵다.

❖ 오.오.이

①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재미가 살아나고 있다.

②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에서 조조는 도망하는 도중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 목을 움츠리거나, 위급한 상황과 동떨어진 술안주 이야기를 하는 등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한편 (마)는 조조의 남은 장졸들이 조자룡의 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재미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①). 그리고 (마)는 조조와 정욱의 대화 장면인 (나)보다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②).

④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나)는 조조와 정욱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반면, (마)는 조자룡이 장졸들의 목을 치는 장면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함으로써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⑤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나)에서 '아니리'는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여 나가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는 장단을 느끼기 어려운 산문적 표현에 해당한다. 반면 (마)는 빠른 장단인 엇모리장단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4음보의 운율을 보이고 있어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운문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469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1) **범위 오류** (가)와 (마)에서는 대상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

(가)에는 새소리, 낙엽 소리 등의 작은 소리에도 적군인가 의심하는 조조의 마음이 직접 제시되어 있는 반면, (마)에는 조조의 남은 군사들을 습격하는 조자룡의 모습이 묘사될 뿐, 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고 있지 않다.

(2) (나)와 (라)에서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인물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 ×)

(나)에서 조조는 메추리 소리에 놀라고, 싸움에서 크게 지고 도망가는 상황에 맞지 않게 술안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라)에서는 상대 장수를 비웃는 등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며 조조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3) (다)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라)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 ×)

이 글에서 (가), (다),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나), (라)는 조조와 정욱 간의 대화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470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부재** (라)는 ~~서술자가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라)는 정욱과 조조의 대화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①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가)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도망가는 조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푸루루루루', '퍼득' 등 음성 상징어가 쓰여 생동감이 더해지고 있다.

② (나)는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인물의 행동과 말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아니리 부분으로,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조조와 정욱의 행동과 말을 전달하고 있다.

③ (다)는 다양한 새소리를 나열하여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다)에서는 '귀촉도 귀촉도', '소텅 소텅', '입삐죽 입삐죽' 등 다양한 새소리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소리를 적벽 싸움에서 죽은 군사들의 원망과 연결함으로써 처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⑤ (마)는 이전과는 다르게 장단을 바꾸어 장면을 전환하고 긴박감을 형성하고 있다.

중모리장단인 (가), (다)와 다르게 (마)에서는 엇모리장단으로 속도감을 바꾸어 조자룡이 등장하고 활약하는 내용으로 장면을 전환하고 긴박감을 형성하고 있다.

471 ㉠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③ **부재** ㉠: ~~만어적 표현을 통해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

㉠에서 조조는 싸움에서 지고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도 상대 대장군과 군사인 주유와 제갈공명을 비웃고 있다. 그러



나 곧 조자룡에게 다시 한 번 패하면서 ㉔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태도임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㉔의 웃음은 방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상황의 반전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없다.

#### 정.정.이 & 오.오.이

- ① ㉔: 주변 인물을 통해 중심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다.  
정욱이 조그마한 메추리를 보고 놀란 조조에게 큰 장끼였으면 기절할 뻔하였겠다고 말함으로써, 겁먹은 조조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으므로 조조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② ㉔: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 수용자의 공감을 유도한다.  
서술자가 직접 작품 속에 개입한 부분으로, 새소리가 처량하다고 표현하면서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 ④ ㉔: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묘사한다.  
'형산백옥', '소상강 물결' 등 빼어난 인물됨을 나타낼 때 자주 비유되는 관습적인 표현을 통해 조자룡의 특성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과 생동감을 살려 낸다.  
'-듯'과 같은 어미를 활용하여 직접 비유하는 직유법을 반복하여 리듬감과 생동감을 형성하고 있다.

### 472 ㉔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다양한 새소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  
숲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새소리를, 군사들이 조조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와 연결 지어 표현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 (2) 인물의 활약을 리듬감 있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  
(마)의 “말 놓아V달려들어V동에 얼른V서를 쳐” 등과 같이 4음보에 맞추어 리듬감 있게 조자룡의 활약상을 묘사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흥미를 주고 있다.
- (3) **헛집기** 주변 인물과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 중심인물의 **비범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  
주변 인물인 정욱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심인물인 조조는 우스꽝스럽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조조의 비범성이 형상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73 ㉔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기개: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 평정심: 외부의 자극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 정.정.이

- ⑤ **헛집기** ㉔: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존심과 기개를 잃지 않는 인물**의 당당함이 드러난다.  
조조는 싸움에서 패하여 쫓기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㉔는 허세를 부리는 말일 뿐, 당당함이 드러나는 말로 보기 어렵다.

#### 오.오.이

- ① ㉔: 두려움에 떨며 쫓기고 있는 인물의 상황을 드러낸다.  
두려움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 추병인지를 의심하고 있으므로, 두려움에 떨며 쫓기고 있는 조조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㉔: 패전한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정욱의 인물됨이 드러난다.  
정욱은 침착하게 주변을 파악하고 두려움에 목을 움츠리고 있는 조조를 진정시키고 있으므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 인물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㉔: 상황에 맞지 않는 등장인물의 언행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469번-(2)의 해설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 ④ 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과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가련타'라며 장졸들의 가련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474 ㉔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까마귀가 '고리각 까옥' 하고 우는 것은 까마귀가 '효조(孝鳥)'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  
'고리각 까옥'은 그 앞에 있는 말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속에'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조조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군사들이 부모를 그리는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소리는 '고국으로 돌아감.'이라는 뜻과 연결되는 '귀촉도 귀촉도'이다.

#### 오.오.이

## 50 구운몽

② 본문 222~225쪽

## 작품 분석

작가 김만중

갈래 몽자류 소설, 애정 소설, 영웅 소설

주제 인생무상에 대한 깨달음

특징

- ① 환몽 구조와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나타난다.
- ② 불교·유교·도교의 사상을 배경으로 함.
- ③ 삽입 시를 통해 인물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전달함.
- ④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구조와 비현실적 사건의 개입 등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남.

**단숨에 읽기** 육관 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간 성진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한다. 선방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를 생각하며 속세의 부귀공명을 잠시 꿈꾸고, 이 일로 성진과 팔선녀는 육관 대사에 의해 인간 세상(꿈)으로 추방된다. 성진은 회남 수주현에 사는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태어나고, 팔선녀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그 사이 나라에 공을 세운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2차(정경패(영양 공주), 난양 공주) 6첩(진채봉, 계성월, 가춘운, 적경홍, 심요연, 백룡파)이 된 팔선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여생을 보내던 양소유는 자신의 생일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불도에 귀의하겠다는 결심을 한다. 이때 노승이 나타나 양소유의 꿈을 깨운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잘못을 뉘우치며 육관 대사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팔선녀 역시 불제자가 되어 성진과 함께 극락왕생한다.

## 한 줄 요약

- ① (양소유)가 노승을 알아보지 못함.
- ② 노승의 도술로 성진이 (양소유)로서 살았던 (꿈)에서 깨어남.
- ③ 성진이 양소유로서의 삶이 (꿈)이었음을 깨달음.
- ④ 육관 대사가 헛된 깨달음에 대해 책망하자 (성진)이 잘못을 깨닫고 깨달음을 청함.

## 476 ③

정.정.이 &amp;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 향로에 붙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에서 노승이 사라진 뒤 성진이 본 주변의 변화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오.이

① 헛집기 내적 독백을 통해 극작·간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꿈을 깬 성진이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 허무한

①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댕(솔뚜껑)’이나 ‘솔이 텡 빈 것’과 연결되어, 식량 문제로 고생하는 군대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군량이 소진’하였다고 했으므로, 흥년새가 ‘소텡 소텡’ 하고 우는 것은 ‘소댕(솔뚜껑)’이나 ‘솔이 텡 빈 것’과 연결하여 식량 문제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뻘새가 ‘입뻘 입뻘’ 하고 우는 것은 ‘뻘새대다’와 연결되어, 대군을 잃고 한심한 처지가 된 조조를 비웃는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겠네.

뻘새의 ‘입뻘’ 소리는 ‘뻘새대다’와 연결하여 조조에 대한 비난이나 조조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꼬리 수리루리루’라는 울음소리는 ‘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도망갈 궁리를 짜내기에 분주한 조조를 희화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피꼬리 수리루리루’는 그 앞에 있는 말 ‘도망할 길을 피로만 낸다.’와 연결하여 피를 짜내는 조조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⑤ ‘쑥쑥’이라는 울음소리는 ‘쑥’의 약효와 연결되어, 병에 시달리는 군사들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군.

‘쑥쑥쑥’은 그 앞에 있는 말 ‘주린 장졸 냉병인들 아니들라, 병에 좋다고’와 연결하여 ‘쑥’의 약효를 바탕으로 군사들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75 ① 귀촉도 귀촉도 (2) 고리각 까옥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1) 교체 (귀촉도 귀촉도)은/는 군사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귀촉도 귀촉도’라는 울음소리는 ‘귀촉’의 뜻인 ‘고국으로 돌아감.’과 연결되어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의 심정을 드러낸다는 <보기>의 내용과, (다)의 ‘고향 이별이 몇 해런고’를 통해 알 수 있다.

(2) 교체 (고리각 까옥)은/는 숲에 숨어 다니는 군사들의 상황을 나타낸다.

(다)의 ‘들판 대로를 마다하고 심산 숲속에 고리각 까옥 저 까마귀’에서 깊은 숲속에 숨어 다니는 군사들의 상황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고 하며 인간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다 꿈이었다고 독백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다.

② **헛집기**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소유와 노승의 대화는 양소유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성진과 육관 대사의 대화는 성진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 양상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재** 구체적인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시대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부재**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에서 성진이 꿈에서 겪은 과거의 사건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기는 하나, 이는 서술자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독백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 477 ㉢ ㄱ, ㄴ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ㄱ. 대화를 통해 인물이 자신의 깨달음을 밝히고 있다.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를 통해 성진이 육관 대사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내적 독백을 통해 꿈속에서의 경험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라는 성진의 독백을 통해 성진이 꿈속에서 누린 양소유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오.이

ㄴ. **부재**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승이 양소유에게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라고 말하고 있을 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ㄷ. **헛집기** 대화와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양소유(성진)와 노승(육관 대사)의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 478 ㉢ ②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정.정.이

② **부재**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오.오.이

①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꿈에서 깬 성진은 육관 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림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준 육관 대사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를 통해 전기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등장인물의 깨달음을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는 성진의 독백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로서의 삶을 산 뒤, 다시 연화 도량의 행자라는 현실로 돌아오는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479 ㉢ ④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선지 어휘

• 자각: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정.정.이

④ **사건 왜곡**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양소유는 노승에게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묻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팔 낭자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양소유가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고 볼 수 없다.

오.오.이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노승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와 같은 말과 양소유

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노승이 양소유의 자각을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성진은 꿈에서 깬 뒤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꿈속에서의 노승을 육관 대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꿈에서 깬 후 성진이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 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라고 생각한 데에서 알 수 있다.

## 480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육관 대사는 성진이 꿈에서 양소유로 살았음을 알고 있다. ((○) ×)  
육관 대사의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성진은 팔 남자와 즐기던 일이 꿈임을 알고 남녀의 정욕이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

성진의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라는 독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상반** 성진은 자신이 아직 꿈에서 깨지 못하였다는 육관 대사의 지적에 더 이상의 배움을 포기하고 있었다. (○, ×)

성진이 아직 꿈에서 깨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육관 대사에 게 성진은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배움을 청하고 있다.

## 481 ㉠ ⑤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성진'은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육관 대사의 제자임을 깨닫고 있다.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능파 낭자'는 노승의 정체를 ~~알면서도 숨겨고 있다~~.

양소유가 능파 낭자에게 말을 하고 있을 뿐, 능파 낭자의 말이나 행동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능파 낭자가 노승의 정체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상반** '노승'은 양소유가 꿈에서 깨지 못하도록 ~~희롱~~하고 있다.

어찌하면 춘몽을 깨게 할 수 있느냐는 양소유의 물음에 노승이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드리며 양소유가 꿈에서 깨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소유가 꿈에서 깨지 못하도록 희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교체** <sup>성진</sup> '제자들'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처소로 돌아왔다.

육관 대사가 성진에게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라고 한 말을 통해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온 이는 '제자들'이 아니라 성진임을 알 수 있다.

- ④ **상반** '양소유'는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하고 있다~~.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라는 노승의 말을 통해 양소유가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482 ㉠ ①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짚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회와: 의심을 품음, 또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

### 정.정.이

- ① **교체** ㉠은 '첫 번째 회와 부정'을 경험하기 <sup>후</sup>전의 일이다.

토번을 정벌하는 것은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겪은 일이므로,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첫 번째 회와 부정'을 경험한 후 꿈속에서의 삶에서 겪은 것이다.

### 오.오.이

- ② ㉡은 '첫 번째 회와 부정'과 '두 번째 회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경험은 꿈속에서의 일에 해당하므로,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첫 번째 회와 부정'과 꿈속에서의 삶에서 느낀 '두 번째 회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성진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꿈에서 깨어난 후의 일로, 세속적 삶에 대한 '두 번째 회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에 따르면,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올바른 깨달음이 될 수 없다. ㉔은 이러한 내용을 비유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㉔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성진은 세속의 부귀영화가 헛되다는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거쳤지만,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에는 아직 이르지 못해 육관 대사에게 설법을 청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483 ㉔ (1) 불교적 가치관 (2) 양소유 (3) 성진, 육관 대사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기인: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둔.
- 이분법: 논리적 구분의 방법 중 하나로, 그 범위에 있어서 서로 배척되는 두 개의 구분지(區分枝)로 나누는 경우이다.

### 정·정·이

- (1) **교체**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인간 부귀영화,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기〉의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를 통해 알 수 있다.

- (2) **교체**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은 (성진, 양소유)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보기〉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세속적 삶’은 ‘양소유의 삶’을 의미하므로,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은 양소유의 삶의 경험에서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교체** ((성진) 육관 대사)은/는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진, 육관 대사)에게 설법을 요청하고 있다.

육관 대사는 장주의 꿈 이야기를 인용해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해 성진을 일깨운다. 이에 성진은 자신이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육관 대사에게 설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성진이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 484 ㉕ ③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낱

- 정진: ① 힘써 나아감. ② 일심(一心)으로 불도를 닦아 깨달리지 않음.
- 득도: ① 오묘한 이치나 도를 깨달음. ② 미혹(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의 세계를 넘어 깨달음의 경지에 이름.

### 정·정·이

- ③ ㉔은 주인공이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를 통해 성진이 꿈을 꾸는 동안 시간이 경과하여 새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로에 불(㉔)’은 입몽에서 각몽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㉔은 주인공이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어떻게 됨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잔치(㉔)는 성진이 꿈속의 꿈(꿈속의 양소유가 꾸는 꿈)에서 경험한 사건이므로, 성진이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이르는 것을 암시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 ② **헛집기** ㉔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겪는 경험 중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양소유는 노승이 지팡이(㉔)를 들어 돌난간을 두드린 후 각몽에 이르게 되므로, 지팡이(㉔)가 양소유에게 위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 ④ **헛집기** ㉔은 주인공이 꿈속에서 경험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백팔 염주(㉔)는 각몽 후의 성진이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므로, 성진이 꿈속에서 경험한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 ⑤ **헛집기** ㉔은 주인공이 하룻밤의 ‘꿈’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든 배경이 된다.

처소(㉔)는 성진이 각몽한 후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 정진하게 되는 공간적 배경이므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51 옥루몽

### 작품 분석

본문 226~229쪽

작가 남영로

갈래 몽자류 소설, 애정 소설, 영웅 소설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활약상과 다섯 여인과의 영화로운 삶

- 특징 ①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 독특한 환몽 구조를 통해 사건을 전개함.  
 ② 유교·불교·도교의 사상이 골고루 반영됨.  
 ③ 김만중의 「구운몽」의 영향을 많이 받음.

**단숨에 읽기** 천상계 선관 문창성은 옥황상제가 백옥루에서 배운 낙성연에서 취중에 지상계를 그리워하는 시를 짓고, 다섯 선녀들을 희롱하다가 지상계로 쫓겨나는 벌을 받아 꿈에서 양창곡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때 함께 있던 다섯 선녀들도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난다. 양창곡은 과거 길에 기생 강남홍과 인연을 맺고, 강남홍은 윤 소저를 배필로 추천한다. 이 무렵 소저 자사 황공은 강남홍을 탐하고, 이에 강남홍은 강물에 투신하였다가 윤 소저에게 구출되어 남쪽 탈탈국으로 간다. 한편 장원 급제한 양창곡은 윤 소저와 혼인하고, 황 각로의 딸과 혼인하라는 어명을 어긴 죄로 하옥된 후 모함으로 유배된다. 그곳에서 기생 벽성선을 만나 가연을 맺고, 예부 시랑이 된 후 어명에 따라 황 각로의 딸 황 소저와 혼인한다. 남만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양창곡은 대원수로 출정하고, 남만의 대원수로 나온 강남홍은 그를 알아보고 명나라 진영으로 도망쳐 와 명군의 부원수가 된다. 강남홍에게 생포되었던 축융국의 공주 일지련은 양창곡을 연모하게 되어 부왕을 명나라에 항복하게 하고, 그의 첩이 된다. 이 무렵 황 소저가 벽성선의 아름다움을 투기하여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벽성선은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후 천자는 개선한 양창곡을 연왕에, 강남홍을 만성후에 봉하고, 황 소저는 유배시킨다. 황 소저는 개과천선하여 돌아오고, 양창곡은 부인, 첩과 영화롭게 살다 천상계로 간다.

### 한 줄 요약

- ① 양창곡이 꿈속에서 자신을 「문창성」이라 칭하는 천상계의(보살)를 만나 병서를 받고 꿈에서 깨.  
 ② 양창곡의 꿈을 꾸고 이별을 걱정하는(벽성선)에게 양창곡이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함.

## 485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사건 왜곡**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을 올랐다. 양창곡은 벽성선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 이후에 그간 밤에만 보아서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던 벽성산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벽성산에 오른 것이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달밤에 벽성산에 간 것이 아니다.

### 오.오.이

- ② 양창곡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벽성선의 자태에 매료되었다.  
 ‘벽성선이 두 여종을 데리고 ~ 황홀하여 자신이 속세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를 통해 양창곡이 벽성선의 자태에 매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양창곡은 보살에게 받은 책을 여러 번 읽지 않고도 병법을 익혔다.  
 ‘양창곡은 본래 총명한 재주를 가진 터라, 어찌 여러 번 보

아서 깨닫겠는가.’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벽성선은 양창곡에게 이별 후에는 자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입니다만, 군자의 대범함으로 마음에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벽성선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벽성선은 난새를 언급하며 양창곡과 함께했기 때문에 여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벽성선은 거울을 보며 울다 죽는다는 난새에 대해 언급한 후 “저는 오히려 한번 날면서 울었으니 오늘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양창곡을 모셔서 황홀하며 여한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486 ㉡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꿈에서 보살이 양창곡에게 준 단서에는 벽성선의 지리와 병법이 적혀 있었다. 천상 무곡성의 천문 (○, ×)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었다.’를 통해 보살이 준 단서에는 벽성산이 아니라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가 적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벽성선은 꿈을 꾸 뒤 양창곡이 황상의 은혜를 입어 유배를 끝내고 본가로 돌아갈 것을 예상했다. (○, ×)  
 “첩이 지난번 피곤하여 잠깐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 상공계선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3) **사건 왜곡** 벽성선이 이별을 이야기하자, 양창곡은 비록 뒷기약은 못 해도 마음만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양창곡은 “나는 이미 뜻을 정하였어요. 근심과 즐거움을 영원히 함께할 거요. ~ 평생토록 이지러지지 않겠소.”라며 이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음만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 487 ㉢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사건 왜곡** 양창곡은 황태후와 자신의 원연을 언급하며 곧 자신이 사면될 것이라 확신했다.  
 양창곡은 “이번 달 20일은 황상의 생신이요, 황태후께서는 황상을 위하여 ~ 천하에 죄인들을 크게 사면하지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유배도 풀릴 것이라 예상하고 있을 뿐, 자신과 황태후의 인연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 오오이

- ① 양창곡은 벽성산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벽성산에 올랐다.

‘내가 밤에 벽성산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 이제 올라가 보아야겠구나.’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보살은 양창곡에게 단서를 전달하여 양창곡이 병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옥황상제의 성지를 받들어 무곡성의 병서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양창곡은 벽성선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하루는 양창곡이 벽성선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녀는 ~ 양창곡은 무료하게 집으로 돌아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벽성선은 꿈속의 내용으로 보아 조만간 자신과 양창곡이 이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벽성선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양창곡이 “조만간에 반드시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렇게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뒷기약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 488 ㉠ ⑤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제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내포: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 환기: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

#### 정.정.이

- ⑤ ㉠은 인연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 ㉡은 인연의 지속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 있다.

벽성선은 만남과 이별의 무상함을 말하면서 등글어졌다가 이지러지는 ‘저 달(㉠)’의 속성을 통해 곧 이별을 맞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양창곡은 밝게 비추는 ‘둥근 달(㉡)’을 통해 변함없이 벽성선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오오이

- ① ☒ 헛집기 ㉠과 ㉡ 모두 재회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 달(㉠)’, ‘둥근 달(㉡)’은 재회를 기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 ② ☒ 헛집기 ㉠과 ㉡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대비됨을 부각하고 있다.

‘저 달(㉠)’, ‘둥근 달(㉡)’ 모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대비됨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 ③ ☒ 범위 오류 ㉠과 ㉡ 모두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하고 있다.

벽성선은 ‘저 달(㉠)’의 속성을 통해 곧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으므로 ‘저 달’은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창곡은 ‘둥근 달(㉡)’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둥근 달’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환기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 교제 ㉠은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가, ㉡은 인물이 부정하는 가치를 함축되어 있다.

벽성선은 ‘저 달(㉠)’의 속성을 통해 만남과 이별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으므로, ‘저 달’은 인물이 부정하는 가치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창곡은 ‘둥근 달(㉡)’을 통해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둥근 달’은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 489 ㉠ ①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제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① 두 사람은 각각 ㉠과 ㉡의 속성에 빗대어 둘 사이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벽성선은 ‘저 달(㉠)’의 “한번 등글어졌다 한번 이지러”지는 속성에 빗대어 만남 뒤에는 이별이 올 것이므로 자신들도 곧 이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양창곡은 ‘둥근 달(㉡)’이 사물을 밝게 비추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마음을 비추어 벽성선과의 인연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 오오이

- ② ☒ 헛집기 ㉠은 이별 후 뒷기약을 거원하는 대상이고, ㉡은 두 사람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상이다.

벽성선은 ‘저 달(㉠)’의 “한번 등글어졌다 한번 이지러”지는 속성에 빗대어 만남 뒤에 올 이별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저 달’을 뒷기약을 기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양창곡은 ‘둥근 달(㉡)’이 지닌 사물을 밝게 비추는 속성을 통해 벽성선과의 인연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둥근 달’을 만남과 이별의 반복을 암시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③ ☒ 범위 오류 ㉠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한과 슬픔이, ㉡에는 운명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저 달을 한스러워합니다.”를 통해 ‘저 달(㉠)’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벽성선의 한과 슬픔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창곡은 ‘둥근 달(㉡)’의 속성을 통해 벽성선과의 인연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둥근 달’에 운명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는 양창곡이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이고, ㉮는 양창곡이 유배에서 벗어나 돌아갈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양창곡은 천상 무곡성의 천문 지리와 군대를 부리고 귀신을 항복시키는 비결이 담긴 '단서 한 권(㉮)'을 읽고 깨달았다고 하였으므로, '단서 한 권'은 양창곡이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양창곡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향해 가는 꿈을 꿔다는 벽성선에게 양창곡이 황상의 은혜를 입어 자신이 유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범위 오류** ㉮와 ㉮ 모두 꿈속에서만 등장하는 소재로 실재하지 않는다. '푸른 구름(㉮)'은 벽성선이 꿈에서 본 것이므로 실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서 한 권(㉮)'은 양창곡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놓여 있었으므로 실재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범위 오류** ㉮와 ㉮ 모두 양창곡과 벽성선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소재이다.

'푸른 구름(㉮)'은 벽성선의 꿈에서 양창곡이 유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므로 양창곡을 위하는 벽성선의 마음에서 비롯된 소재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서 한 권(㉮)'은 양창곡과 벽성선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관련이 없다.

- ③ **헛집기** ㉮와 ㉮ 모두 양창곡과 벽성선의 **비극적 앞날**을 예고하는 소재이다.

'단서 한 권(㉮)'은 양창곡이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푸른 구름(㉮)'은 양창곡의 유배가 풀릴 것을 예상하게 하므로, 비극적 앞날을 예고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헛집기** ㉮는 보살의 **신묘한 능력**이 담긴 소재이고, ㉮는 벽성선의 **기이한 재주**가 담긴 소재이다.

'단서 한 권(㉮)'은 보살이 옥황상제의 성지를 받들어 양창곡에게 전해 준 것일 뿐, 여기에 보살의 신묘한 능력이 담겨 있지는 않다. '푸른 구름(㉮)'은 벽성선이 꿈에서 본 것일 뿐, 여기에 벽성선의 기이한 재주가 담겨 있지는 않다.

## 정.오 지름길

③ ㉮와 ㉮는 모두 양창곡과 벽성선의 **비극적 앞날**을 예고하는 소재이다. ③에서 '푸른 구름(㉮)'은 벽성선이 양창곡과의 이별을 염려하는 계기로도 작용하여 헛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양창곡이 변함없는 사랑을 다짐하여 벽성선의 염려가 사라진 것에 주목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실전에서는 ㉮가 '비극적 앞날'과 관련이 없으므로 ㉮에 대한 고민 없이 빠르게 지우고 넘어가는 것이 시간 절약에 좋아요.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헛집기** ㉮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한 말은 벽성선이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벽성선의 '꿈(㉮)'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에게 '함께 가자'라고 한 말은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갈 때 같이 가자는 의미로 한 말이지, 천상계를 떠나 지상계로 되돌아오라는 의미로 한 말은 아니다.

## 오.오.이

- ①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천상계의 문창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양창곡의 '꿈(㉮)'에서 보살이 양창곡에게 "문창성은 그동안 별로 없으셨소?"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에서 보살은 장차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양창곡의 '꿈(㉮)'에서 보살이 양창곡에게 "옥황상제의 성지를 받들어 ~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사랑하는 인물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주고 있다.

양창곡의 '꿈(㉮)'에서 보살은 "홍란성은 어디 두고 제천 선녀와 즐기시는 게요?"라고 말하였는데, <보기>에 따르면 홍란성과 제천 선녀는 양창곡이 지상계에서 사랑한 강남홍과 벽성선을 가리킨다. 따라서 보살이 강남홍과 벽성선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에서 벽성선이 경험한 것은 양창곡이 조만간 사면될 것임을 예시하고 있다.

벽성선이 '꿈(㉮)'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양창곡에게 "상공이 푸른 구름을 타고 ~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가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492 ㉮ (1) 지상계 (2) 천상계 (3) 미래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와 ㉮는 ( **천상계**, **지상계** )에서 발생할 사건을 예시하는 서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

양창곡의 '꿈(㉮)'을 통해서 양창곡의 정체와 지상계에서 해야 할 임무가 예시되고, 벽성선의 '꿈(㉮)'을 통해서 양창곡이 사면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이 예시된다.



- (2) **상반** ③에서 보살은 양창곡이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계**, 지상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양창곡에게 단서를 주고 있다.

**491**번-②의 해설을 참고할 때, 양창곡을 돌아오게 하려는 곳이 천상계임을 알 수 있다.

- (3) **교체** ⑥에서 일어난 일은 벽성선에게 양창곡의 (**정체**, **미래**)를 암시하여 이별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벽성선은 ‘꿈(⑤)’에서 양창곡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가 “황상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럽게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벽성선은 양창곡이 유배에서 돌아가는 것은 곧 그와의 이별을 뜻한다고 생각했으므로 꿈에서 일어난 일은 양창곡의 미래를 암시하여 벽성선으로 하여금 이별을 예감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493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헛집기** 벽성선은 **천상계**로와 **입몽**을 통해 양창곡이 곧 **죽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슬퍼하고 있다.

속세의 벽성선은 양창곡이 푸른 구름을 타고 북쪽으로 가는 꿈을 꾸고 있을 뿐, 이 꿈을 통해 천상계로 입몽하고 있지 않다. 또 벽성선이 꾸는 꿈은 양창곡이 유배에서 돌아갈 것임을 암시할 뿐, 양창곡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 오.오.이

- ① 벽성선은 양창곡이 속세에서 천상계로 입몽하는 공간이군.

속세의 양창곡은 벽성산에서 잠이 들어 꿈속에서 한 보살을 만나 자신이 천상계의 문창성임을 깨닫고 있다. 이를 <보기>의 환몽 구조에 적용해 보면, 벽성산은 속세에서 천상계로 입몽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 ② 양창곡은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있다.

**491**번-①의 해설을 참고할 때, 양창곡은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자신이 천상계의 존재임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꿈에서 깬 양창곡은 속세에서 천수를 누린 후 보살의 말처럼 천상계로 복귀하겠군.

보살이 꿈속에서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라고 한 것과 <보기>의 내용을 통해 양창곡이 속세에서 천수를 누린 후 천상계로 복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보살은 양창곡에게 속세에서의 임무를 말하며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을 유도하는 신이한 존재군.

보살은 양창곡의 꿈에 나타나 무곡성의 병서를 전해 주며 널리 중생을 구제하라고 이야기한 후, 꿈을 깨도록 하여 속세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신이한 존재에 해당한다.

## 52 윤영전

### 작품 분석

본문 230~233쪽

**작가** 미상

**갈래** 몽유록, 애정 소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

- 특징**
- ① 환몽 구조와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 ② 현실과 꿈의 서술자가 다르며, 꿈속에서는 인물들이 자신의 사연을 직접 전달하는 서술자의 역할을 함.
  - ③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④ 고전 소설에서 드물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음.

**단숨에 읽기** 선조 때의 어느 해 가을, 유영이라는 선비가 지금은 폐허가 된 안평 대군의 집인 수성궁에 가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고, 꿈속에서 죽은 김 진사와 윤영을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안평 대군의 궁녀였던 윤영은 수성궁에 놀러 온 김 진사를 만나 사랑하게 된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밤마다 궁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다. 윤영과 김 진사의 사이를 눈치챈 안평 대군이 윤영과 몇몇 궁녀를 서궁으로 이주시키지만 둘은 김 진사의 종인 특과 궁녀 자란의 도움으로 사랑을 나눈다. 그해 겨울, 안평 대군이 둘을 의심해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특에게 윤영의 재물을 궁 밖으로 옮기게 하고 함께 도망을 치려고 한다. 특의 배신으로 두 사람의 도피 계획은 실패하고, 대로의 안평 대군이 궁녀들을 문책하자 윤영은 자결한다. 이어 특은 우물에 빠져서 죽고, 김 진사도 식음을 전폐하여 윤영을 따라 죽는다. 김 진사와 윤영은 자신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잠에서 깬 유영은 김 진사가 쓴 책을 발견한다.

### 한 줄 요약

- ① (특)이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일을 꾸며 진사가 맡긴 재물을 빼돌림.
- ② 재물을 빼돌린 (특)이 맹인과 그의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며 (진사·김 진사)를 모함함.
- ③ 소문을 들은 (안평 대군·대군)이 서궁의 궁녀들을 치죄함.

## 494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사건 왜곡** ‘특’은 **윤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맹인’에게 말했다.

특은 맹인에게 궁궐 담장 밖을 지나다 우연히 도적이 버린 물건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는데 탐욕스러운 주인이 그 물건을 뺏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을 뿐, 윤영이 도둑을 맞았다고 하지는 않았다.

### 오.오.이

- ① ‘진사’는 재물을 찾기 위해 ‘특’의 집을 수색했다.

진사는 뒤늦게야 특이 거짓으로 강도의 습격을 당한 척했음을 알고, 재물을 찾기 위해 노비들을 거느리고 특의 집에 가서 수색하였다.

- ③ ‘맹인의 이웃’이 들은 말이 전파되어 궁중에 들어갔다.

맹인의 이웃은 특이 맹인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특에게 그 주인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에 특은 주인이

급제할 인물이나 탐욕스럽기 그지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④ '대군'은 소문을 듣고 서궁을 수색하게 했다.

'이런 말들이 전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은섬'은 억울해하면서도 다른 궁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은섬은 궁에 갇혀 홀로 지내면서도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대군이 죄 없는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었을 뿐 다른 궁녀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 495 답 (1) × (2) ○ (3) × (4)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피해자: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
- 도주: 피하거나 쫓겨어 달아남. = 도망.

### 정·정·이

(1) **상반** '진사'는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특'의 거짓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 ☒)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를 통해 진사는 강도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특의 거짓말을 처음에는 믿었음을 알 수 있다.

(2) '특'은 '운영'의 재물을 빼돌리고도 피해자인 척하며 '맹인'에게 '진사'를 포함했다. ((○), ☒)

재물을 빼돌린 특은 진사가 자신이 한 짓임을 알고 집을 수색하자 맹인을 찾아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진사를 포함하였다.

(3) **상반** '맹인'은 '특'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말했다. (○, ☒)  
달아나면 길하겠냐는 특의 물음에 맹인은 "길하다."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맹인이 특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말했다고 볼 수 없다.

(4) '궁녀들'은 죄 없이 죽어야 하는 것에 대해 대군에게 항의했다.

((○), ☒)

"주군께서는 이제 죄 없는 저희들을 죽이려 하시니, 저희들은 황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은섬의 말과 "저희들은 감동하고 두려워하여 오로지 ~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비취의 초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496 답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② **사건 왜곡** '특'은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 '진사'를 원망했다.

주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특의 말은 재물을 빼돌린 특이 오히려 진사를 포함하기 위해 한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특이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한 진사를 원망했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① '진사'는 '특'에게 속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진사는 부모님이 알까 두려워 ~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대군'은 서궁의 수색을 다른 궁 사람들에게 맡겼다.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맹인의 이웃'은 '특'의 말만 듣고 '특'의 주인을 평가했다.

옆에서 특의 이야기를 다 들은 맹인의 이웃이 "너의 주인은 어떤 사람인데, 이처럼 노비에게 포악하게 구느냐?"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맹인'은 도주를 하는 게 나을지 의견을 묻는 '특'에게 길하다고 답했다. 달아나면 길하겠냐는 특의 물음에 맹인이 "길하다."라고 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497 답 ④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④ 담을 넘는 것은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대군은 궁녀를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다고 하였다. 또한 은섬은 궁녀들이 궁궐의 담을 넘지 않은 것은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궁궐의 담을 넘는 행위는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오·오·이

① **헛집기** 담은 **위선과 잔살을 구별하는 경계**이다.

담을 경계로 하여 한쪽은 위선을 나타내는 공간이고 다른 한쪽은 진실을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② **상반** 담 **안은**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담 안의 궁녀들이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내용이 이 글에



제시된 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담 밖에 있는 특이 물질적 욕망을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반** 담 안의 궁녀들은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다.

은섬의 말 중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를 통해 궁녀들이 담 밖의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상반** 담 밖은 담 안과 달리 신분적 위계가 없는 공간이다.

특과 김 진사는 담 밖에 존재하는 인물들이지만 특은 노비이고 김 진사는 특의 주인(양반)이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적 위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담 밖 역시 담 안과 마찬가지로 신분적 위계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 498 ㉠ (1) 있다 (2) 궁녀들 (3) 대군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상반** 대군과 궁녀, 진사와 특 사이에는 신분적 위계가 (있다) 없다. 궁궐 담 안의 대군과 궁녀 사이에는 신분적 위계가 분명하며, 궁궐 담 밖의 진사와 특 사이 또한 양반(주인)과 노비라는 신분적 위계가 있다.
- (2) **교제** ((궁녀들) 특)은 대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궁궐의 담을 넘지 못했다.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3) **교제** ((대군) 진사)은/는 궁녀들이 궁 밖과 인연을 갖는 것을 금했다. 앞부분 줄거리의 ‘안평 대군은 궁녀 열 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 밖과의 인연을 금했으니’를 통해 알 수 있다.

## 499 ㉠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④ ㉠은 ‘대군’이 궁중으로 전파된 소문을 믿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이 맹인과 그 이웃에게 한 이야기가 궁중에까지 전파되자 대군은 서궁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때 운영의 ‘의복과 보화(㉡)’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본 대군이 소문을 사실로 믿어 궁녀들을 처벌하려 했으므로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사건 왜곡** ㉡는 불공을 드리기 위해 ‘진짜’가 모아온 것이다. 앞부분 줄거리의 ‘들은 도망가려고 운영의 의복과 재물을

빼냈다.’를 통해 ‘재물(㉢)’이 진사가 모아 온 것이 아니라 운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교제** ‘특’은 ㉢을 궁녀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였다.

특은 궁녀의 재물을 자신이 가지려는 계획을 하늘이 돕고 있다는 의미로, ‘재물(㉢)’을 “하늘이 내게 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 보아 특은 ‘재물(㉢)’을 하늘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상반** ‘진사’는 ㉣가 ‘특’이 훔친 장물이라 생각해 관아에 신고하였다.

진사는 ‘금비녀 한 쌍과 거울 하나(㉣)’가 특이 훔친 장물임을 알았으나, 운영과 도망가려고 했던 일이 탄로 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 ⑤ **교제** ‘서궁의 궁녀들’은 **힘이 부족**해서 ㉤를 넘지 못하였다.

은섬의 말을 통해 궁녀들은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담(㉤)’을 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500 ㉠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제 ○상반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간교**: 간사하고 교활함.
- **박해**: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 **단정되다**: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되다.
- **금기**: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함.

### 정·정·이

- ② **헛집기** 달아나면 갈할 것이라고 말한 ‘맹인’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의 금지된 사랑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군.  
특이 맹인에게 달아나면 갈하겠느냐고 묻자 맹인은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이것이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특이 두 사람을 배신하면서 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운영도 ‘대군’을 배신했지만 ‘특’의 배신만이 부각되는 것은 운영이 서술자이기 때문이군.  
운영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기 때문에 운영과 김 진사를 배신한 특의 잘못만이 부각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특’이 남몰래 웃음을 지었다는 진술에서 그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서술자의 의도가 느껴지는군.  
운영이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음모를 꾸민 특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특이 재물을 빼돌릴 것임을 드러내는 말을 한 뒤 남몰래 웃음을 짓는 모습은 특의 간교한 성격을 부각하는데, 이는 서술자인 운영이 부정적 인물인 특의 간교한 성격을 드러내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궁녀들을 박해하는 '대군'이 악인으로 단정되지 않는 까닭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비취'의 말에서 나타나는군.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고 한 비취의 말을 통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궁녀들에게 내려진 금기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은섬'의 말에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는군.

은섬은 “남녀의 정은 귀하든 천하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있는 법”임에도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에 갇혀 홀로 지내야 하는 궁녀의 처지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지킬 수밖에 없는 당대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501 **답** (1) 특, 대군 (2) 궁녀들 (3) 운영, 김 진사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교체**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은 이들을 배신한 (특, 대군)과, 궁녀들을 처벌하려는 (특, 대군)으로 인해 위기를 맞는다.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은 이들의 재물을 빼돌린 특의 배신과 김 진사에 대한 모함, 상황을 알게 된 대군의 분노와 궁녀들에 대한 처벌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된다.

- (2) **교체** (김 진사, 궁녀들)이/가 대군에게 하는 말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궁녀인 은섬과 비취의 말을 통해 본성을 억압당한 채 살고 있는 궁녀들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3) **교체** 액자 속 이야기에서 특이 간교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액자 속 이야기의 서술자가 (운영, 특)과 (대군, 김 진사)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액자 속 이야기의 서술자는 운영과 김 진사이므로, 이들을 배신한 특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 502 **답** ②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헛집기**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이라는 안평 대군의 말을 통해 궁녀들을 죽이려다가 용서하려는 안평 대군의 이중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평 대군의 이중적인 태도는 궁녀들을 보살피는 동시에 억압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또 안평 대군이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으라고 한 것은 한마디 말만 하고 죽기를 원한다는 궁녀들의 말에 대한 대답일 뿐, 궁녀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오.이

- ①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곤장 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때리라고 한 말에서 대군의 잔인함을 짐작할 수 있군.

소문을 들은 대군은 서궁을 수색하여 운영의 의복과 보화가 없는 것을 보고 전후 사정도 듣지 않은 채 서궁의 궁녀 다섯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군의 잔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다는 은섬의 말을 통해 본성이 억압된 삶에 대한 궁녀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은섬은 궁녀에게도 남녀의 정이 있는데, 궁에 갇혀 홀로 지내니 꽃을 보면 눈물 흘리고 달을 대하여 슬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섬은 궁녀에게 인간의 본성인 남녀의 정을 금한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다는 은섬의 말을 통해 외부와 단절된 궁중에서의 생활에 대한 궁녀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은섬은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면서도 궁궐의 담을 넘지 않고 궁중에서 지내는 것을 말라 죽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은섬의 말을 통해 단절된 궁중 생활에 대한 궁녀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안평 대군의 은혜를 언급하며 '감동하고 두려워'했다는 비취의 말을 통해 안평 대군이 궁녀들에게 보인 이중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비취는 안평 대군의 은혜를 언급하며 그에 대해 감동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비취의 말을 통해 안평 대군이 궁녀들에게 잘해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궁녀들을 억압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53 강도몽유록

### 작품 분석

본문 234~237쪽

작가 미상

갈래 몽유록, 한문 소설

주제 병자호란 당시 부정한 관리에 대한 비판과 오랑캐에 대한 적개심

- 특징 ①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로 되어 있음.  
 ② 꿈을 꾸는 인물인 청허 선사의 극중 개입이 배제되어 있음.  
 ③ 전란으로 죽은 여인들이 남편, 아들, 시아버지 등의 잘못을 질책하는 설정을 통해 위정자의 무능함과 불충을 비판함.

단숨에 읽기 적멸사에 사는 청허 선사는 강도에서 전란(병자호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연미정 기슭에 움막을 짓고 지낸다. 그러던 어느 날 청허 선사는 꿈을 꾸고, 꿈에서 영의정을 지낸 김류의 부인, 강도 수비를 맡았던 김경징의 아내, 왕후의 조카딸, 왕비의 언니, 성문을 연 남자의 아내, 강도 유수를 맡았던 시아버지를 둔 여인, 오랑캐의 겁박을 피해 절벽에서 투신한 여인, 기생이었던 여인 등 당시 강도에서 죽은 열다섯 여인의 혼령이 모여 울분을 토로하는 광경을 엿보게 된다. 그들은 전쟁에 임하여 관료로서의 책무와 인간적인 본분을 다하지 못한 남편·자식·시아버지의 행위 등을 비난하거나, 전쟁 중에 허무하게 죽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한편, 시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척화(斥和: 화친하지는 논리를 배척함)를 주장한 공로로 하늘 세계에서 선녀로 있게 된 것을 자부하기도 한다. 청허 선사는 여인들의 통곡 소리에 몸 둘 바를 모르다가 별안간 꿈에서 깬다.

#### 한 줄 요약

- ① 청허 선사가 병자호란으로 죽은 (백성들)을 묻어 주기 위해 (강도)로 간.
- ② 청허 선사가 (꿈속꿈)에서 여러 혼령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엿봄.
- ③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과 (아들(자식))의 잘못을 비난함.
- ④ 기생이었던 여인이 자기 사연을 말하고 부인들의 (정절)을 높이 평가함.
- ⑤ 청허 선사가 부인들의 참담한 통곡 소리에 놀라 (꿈)에서 깬다.

## 503 ㉔ ④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선지어휘

- 부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자세히 말함.
-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 유발: 어떤 것이 다른 일을 일어나게 함.

### 정.정.이

- ④ **헛집기** [C]: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C]에서는 새로운 여인('다음 여자')이 등장하고 있는데, 새로운 여인 또한 다른 부인들처럼 죽은 혼령이라는 점에서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의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 새로 등장한 여인이 영웅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오.오.이

- ① [A]: 요약적 진술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국운은 나날이 쇠퇴하였고, 호적이 침입하여 팔도강산을

짓밟았다. ~ 저 강도의 참상은 더욱 처절했다. 시신의 피는 냇물처럼 흘렀고,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까마귀가 사정없이 달려들어 시신을 파먹었으나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다.'에서 병자호란으로 인한 참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A]: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부연하고 있다.

'그는 천성이 어질었고 마음 또한 착했다.'에서 청허 선사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추운 사람을 만나면 ~ 밥도 몽땅 주어 버렸다.'에서 청허 선사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성격을 부연하고 있다.

- ③ [B]: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달이 휘영청 밝았다.', '티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은 물빛같이 푸르렀고' 등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음산한 밤공기가 주위를 휩쌌다.', '이따금 찬바람이 엄습했고' 등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작중 인물을 비교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청허 선사는 '직녀', '월궁의 항아'와 같은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새로운 여인('다음 여자')을 비교하며 정체를 궁금해하고 있다.

## 504 ㉔ ②

### 정.정.이 & 오.오.이

○부재 ○사건 왜곡 ○헛집기 ○교체 ○상반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부재** [B]: 책채와 대비와 소리의 다양한 묘사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밤중이 되어 바람에 소리가 들려오는데,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에서 소리를 다양하게 묘사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으며, 색채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배경 묘사를 통해 음산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 오.오.이

- ① [A]: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다.

'시신의 피는 냇물처럼 흘렀고, 백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등에서 과장적 표현을 통해 호적의 침입으로 인한 참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C]: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직녀가 은하에서 내려왔나, ~ 이 또한 괴이한 일이구나.'에서 아름다운 '다음 여자'를 본 청허 선사의 심리를 독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VI

### 한글 판 본 문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몽유자인 '청허'를 중심으로 상황에 대한 반응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오.오.이

- ① **부재** 서술자를 교체하여 한 사건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지 않으며, 호적의 침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등장인물인 여인들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② **부재**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부재**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을 서술자로 대체된 독자의 비판적 이해를 유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거나(②) 신빙성이 부족한 인물을 서술자로 내세운다고(③) 볼 수 없다.

- ④ **부재**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에 거리를 두면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사건에 대해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호적의 침입으로 인한 참상에 대해 '강도의 참상은 더욱 처절했다.'와 같이 주관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사건에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장.오 지름길

①~⑤ 모두 서술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먼저 작품 속에 나타나는 서술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선지에 제시된 다양한 유형의 서술자의 특징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이때 고전 소설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많으므로 그와 관련된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 ④, ⑤번을 먼저 확인해 보면 정답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② ㉠과 ㉡은 모두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에 처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한 여자(㉠)는 강도의 중책을 맡았던 남편과 아들을 둔 부인으로, 남편과 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란을 입고, 강도가 함락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남편과 아들이 한 잘못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인 강도 함락에 처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여자(㉡)는 기생으로, 다른 부인들의 정절을 칭송하며 나라에 충신 절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국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나라에 충신 절사가 없었던 일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인 나라가 국치를 당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오.이

- ① **헛집기** ㉠과 ㉡은 모두 상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

한 여자(㉠)가 “장차 닥쳐올 외적의 침입을 까맣게 잊어 버렸으니 어찌 군무에 힘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들이 향락에 빠져 군무에 힘을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상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다. 그 여자(㉡)도 “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 이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서러워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충신 절사가 없는 나라에서 부인들만이 정절을 지켰으니 서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뿐, 상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다.

- ③ **헛집기** ㉠과 ㉡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한 여자(㉠)는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남편과 아들에게 있음을 비판하며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그 여자(㉡)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과 달리 정절을 지닌 다른 부인들을 높이 평가할 뿐, 그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범위 오류** ㉠에는 인물에 대한 분노가, ㉡에는 인물에 대한 자카자 내재되어 있다.

한 여자(㉠)는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남편과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있다며 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다른 부인들의 “절의의 높으심과 정령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을 뿐 시기하고 있지는 않다.

- ⑤ **헛집기** ㉠은 현실적 가치를 내세워, ㉡은 이상적 가치를 내세워 자신의 결정을 상대방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 ㉡ 모두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결정을 상대방이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은 관료로서 전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남편과 자식을 비난하고 있다. (○ ×)  
한 여자(㉠)는 높은 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남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무능한 아들에게 강도의 중요한 직책을 맡겼고, 아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다가 강도를 지키지 못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 (2) ㉠은 그동안의 삶에서 벗어나 정절을 다짐하였으나 전란으로 죽게 되었다. (○ ×)  
그 여자(㉠)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 ~ 청춘이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라고 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3) **사건 왜곡** ㉠과 ㉡ 모두 전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자결한 **자선들의 죽음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 ×)  
한 여자(㉠)는 “나는 땃땃이 자결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으므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부끄럽게 여겼다고 볼 수 없다. 그 여자(㉡)는 자결했는지 알 수 없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부끄럽게 여겼다고 볼 근거도 없다.

## 508 ㉠ 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⑤ ㉠은 ‘공론’을 무시하여 일을 그르친 가족을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고, ㉡은 ‘정절’을 지킨 부녀자들을 영광스럽다고 여긴다.  
한 여자(㉠)는 높은 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남편이 공론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무능한 아들에게 강도의 중요한 직책을 맡겼고, 아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다가 대사를 그르쳤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그 여자(㉡)는 충신 절사는 없었으나 부녀자들만의 정절이 늠름하여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오.이

- ① **범위 오류** ㉠은 ‘공론’의 가치를  **폄하하고**, ㉡은 ‘정절’의 가치를 강조한다.  
한 여자(㉠)는 공론을 무시한 남편의 죄를 말하고 있으므로 공론을 폄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여자(㉡)는 “생각해 보니 사람에게 귀한 것이 정절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정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헛집기** ㉠은 ‘공론’을 **모두가 고려해야 하는 가치**로, ㉡은 ‘정절’을 **보두에게 망각된 가치**로 생각한다.

한 여자(㉠)가 “중책을 진 사람이 공론을 무시한 소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위정자는 공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 여자(㉡)가 충신 절사는 하나도 없고 부녀자들만 정절이 늠름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모두에게 정절이 망각되었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범위 오류** ㉠은 ‘공론’이 지켜지지 않아서, ㉡은 **‘정절’을 지켜려 하지 않아서**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

전란으로 인해 자결한 한 여자(㉠)는 전란의 원인이 공론을 무시한 남편과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공론이 지켜지지 않아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정절을 지키려고 결심하였으나, 뜻밖에 난리가 나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으므로, 정절을 지키려 하지 않아서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헛집기** ㉠은 ‘공론’이 전쟁을 패하게 한 원인이었음을, ㉡은 **‘정절’이 전란의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한 여자(㉠)는 전란의 원인이 남편과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여자(㉡)는 부녀자들만 정절을 지켰다고 강조할 뿐 정절을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

## 509 ㉠ ⑤

## 정.정.이 &amp;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선지 어휘

- **진상**: 진짜 모습 그대로의 형상.
- **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

## 정.정.이

- ⑤ **헛집기** ‘여러 부인들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전란의 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군.

‘여러 부인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병자호란에서 패하게 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여러 부인들의 기억을 재구성한 것으로, 여러 부인들은 이를 통해 전란에 책임이 있는 위정자들의 무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이 작품에서는 전란의 참상과 전란의 책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전란의 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오.오.이

- ① ‘칭허’는 입몽 전에는 사건의 주체이지만 입몽 후에는 보고 들은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이 작품에서 몽유자는 '청허'이다. '청허'는 꿈을 꾸기 전에는 전란으로 죽은 백성들을 묻어 주는 주체로 등장한다. 하지만 입몽 후에는 여인들의 대화를 보고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청허'의 꿈을 통해 죽은 혼령들의 끔찍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병자호란의 참상을 알리고 있다.
-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묶기도 했고 ~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술했다.'에서 혼령들의 모습을 통해 병자호란의 참상이 제시되었다.
- ③ '한 여자'는 남편과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며 강화도가 쉽게 함락될 수 밖에 없었던 감추어진 **진상**을 밝히고 있다.
- "태보의 높은 지위며 체부의 중책을 진 사람이 ~ 군무에 힘쓸 일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에서 강화도가 쉽게 함락된 이유가 밝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기생'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나서는 충신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위정자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성이 위태로워 상감마마의 욕되심과 국치가 임박하였지만 충신 절사는 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나서는 충신이 없었던 것에 대한 한탄과 무능한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 510 (1) ○ (2) × (3) ○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1) 입몽 전 '청허'가 본 병자호란의 참상은 입몽 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
- 입몽 전 청허가 본 병자호란의 참상은 '시신의 피는 냇물처럼 ~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다.'와 같이 묘사되었는데, 입몽 후에는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술했다.'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 (2) **교체** 작가는 '청허'의 말을 통해 전란의 책임이 무능한 위정자들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
- 작가는 '청허'가 아니라 그가 꿈속에서 본 '여러 부인들'의 발언을 통해 전란의 책임이 무능한 위정자들에게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3) 병자호란으로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들이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란의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 ×)
- 병자호란으로 강화도에서 죽은 여인들은 '청허'의 꿈속에서 자신들의 원통한 죽음과 죽음에 이르게 한 전란의 원인에 대해 격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 511 ③

### 정.정.이 & 오.오.이

○ 부재 ☒ 사건 왜곡 ○ 헛집기 ○ 교체 ○ 상반 ○ 범위 오류

### 정.정.이

- ③ **사건 왜곡** '한 여자'는 자신의 죽음을 ~~뗏뗏하자 못하라고~~ 여기며, 남편과 아들의 잘못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한 여자'가 남편과 아들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뗏뗏이 자결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의 죽음을 뗏뗏하지 못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 오.오.이

- ① '청허'는 현실과 꿈에서 모두 병자호란으로 인한 참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 '시신의 피는 냇물처럼 ~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다.'(현실)와 '어떤 사람은 두어 발이 넘는 노끈으로 머리를 ~ 물을 잔뜩 들이켜 배가 불룩한 사람도 술했다.'(꿈)에서 알 수 있다.
- ② '청허'는 꿈속에서 여인들에게 들리지 않은 채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꿈속에서 '청허'는 부녀자들의 소리를 '매우 이상히 여기고 가만가만 다가가 엿보'며 여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꿈에서 깨기 직전에도 부인들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숲속에 숨어 있었다.
- ④ '기생'이 충신 절사는 없고 부녀자들만의 정절이 넘었다고 말한 것에는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 부녀자들만의 정절이 넘었다는 '기생'의 말은 충신 절사가 없었다는 말과 대비되며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여러 부인들'이 일시에 통곡하는 것은 전란의 참상으로 인한 부인들의 원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 '기생'이 말을 마치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던 여러 부인들이 다 같이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란으로 인한 원한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